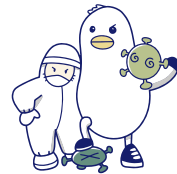




Busan City
COVID-19
The White Paper

부산 BUSAN 코로나19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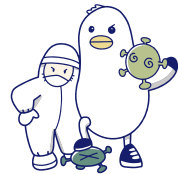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Busan City
COVID-19
The White Paper



부산 BUSAN 코로나19 백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목 차

CONTENTS

PART-I

도입

발간사	004
축사	006
1. 감염병관련 역사를 통해 돌아본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010
2.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요약표	012
3. 사진으로 보는 부산시 코로나19	014
4. 숫자로 보는 부산시 코로나19	016
5. 부산시 코로나19 타임라인	024
6.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조직도 및 주요 연혁	034

PART-II

부산시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1. 코로나19 진단검사	039
2. 역학조사, 자가격리	056
3. 병상관리	070
4. 환자이송 및 소방대응	076
5.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087
6. 감염취약시설과 취약집단관리	091
7. 해외입국자 및 해외유입 관련	102
8. 시민소통(브리핑)	105
9. 사회적 거리두기	112
10. 명절·수능·국제행사 대응	130
11. 예방접종	135
12. 재택치료	146
13. 감염병관리지원단	166
14. 민생지원	171

PART-III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

1. 서론	186
1장 연구배경	186
2장 이론적 고찰	187
3장 연구목적	215
4장 연구방법	215
2. 연구결과	217
1장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문제점 분석	217
2장 부산광역시 감염병 자문위원 설문조사 결과	224
3장 부산광역시 보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238
3.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 제언	249
4. 참고문헌	254

PART-IV

부록

1. 코로나19 대응수기	258
2. 부산시 코로나19 보도현황과 키워드 분석	296
3. 부산시 코로나19 보도자료	302
4. 직원들의 한마디(Rolling Paper)	346

감염병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도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이 2020년 2월 21일입니다. 그로부터 3년을 훌쩍 넘긴 2023년 8월 31일, 마침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2급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기간 동안 우리 부산의 대응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신 의료진,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시장

박 형 준

무엇보다 마스크를 한 몸처럼 철저히 쓰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애써주신 부산시민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주신 자영업자, 신앙생활마저 일시 멈춰야 했던 종교계까지, 모든 시민 여러분의 협력과 희생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가 출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였고, 확산과 소강을 반복하며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감염병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집중했습니다. 선제검사,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워진 민생 안정을 위해 2020년에는 3차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정책도 과감히 시행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백서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와 쫓고 쫓기는 사투의 모든 과정과 경험을 시기별·분야별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대응 과정에서 적절하여 효과가 있었던 정책은 물론 아쉬운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그 결과로 도출된 부산형 방역·의료 체계를 소상히 수록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정책 제언까지 담긴 이 백서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엔데믹으로 전환되어 일상 회복의 단계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도 결코 방심하지 않고, 부산시민의 건강 수호와 편안한 일상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라도 안전한 도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도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일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시민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팬데믹 시기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시민 여러분, 희생정신과 사명감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신 의료진, 고통을 나누며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님들, 함께 수고해 준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 시민 안전 방역의

미래로 이끌어줄 이정표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31일, 2급에서 4급으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지만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 전담 부서는 여전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지역 확진자 수가 21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2,9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히 재난 그 이상의 재난이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눈물겨운 의료진의 헌신과 높은 시민의식, 방역 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방역 안정화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부산은 전국 최초 코호트 격리 실시, 광역시 최초 인구 수 대비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율 70% 달성, 항만·외국인 선박·대규모 수산시장 등 타 지역에 없는 부산만의 대응 사례를 만들어 냈던 자랑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거듭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 변이로 여전히 많은 시민께서 불안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기후 위기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지구환경과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은 계속 나타날 전망입니다.

대비의 핵심은 만에 하나 또 다른 감염병이 출현해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체계화시켜 널리 알리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모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정책 제언과 추진 방안까지 포함해야 대응 백서는 진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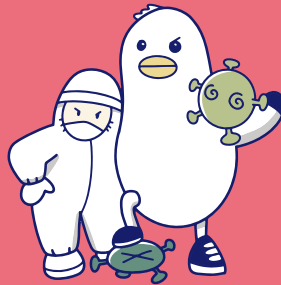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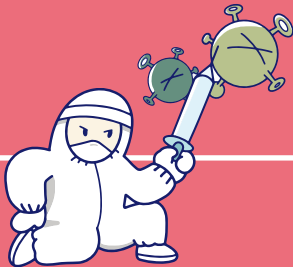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역의 독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사선에 선 심정으로 버텼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되어 전장을 지휘해 온 부산광역시 방역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대응 백서가 시민 모두를 보다 안전한 방역의 미래로 안내해줄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부산광역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 성 민







도입

감염병 관련 역사를 통해 돌아본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부산시의 코로나19 주요 대응 요약표

사진으로 보는 부산시 코로나19

숫자로 보는 부산시 코로나19

부산시 코로나19 타임라인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조직도 및 주요 연혁

감염병 관련 역사를 통해 돌아본 부산시의 코로나19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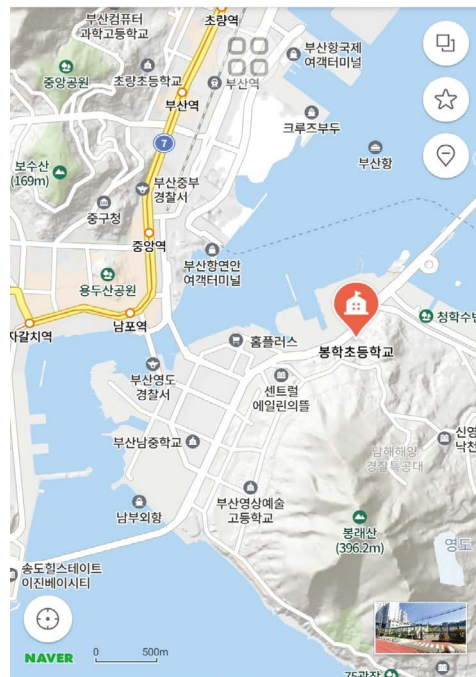
인체를 이루는 수십조의 세포보다 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감염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현종실록에 의하면 기아와 여역과 마마로 죽은 백성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정도였는데 삼남지역에서 더욱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대책은 죽을 쑤어 먹이는 정도였고 1670년에서 1671년에 걸친 경신 대기근 때에는 극심한 가뭄과 흉작, 병충해, 태풍, 전염병으로 당시 조선 인구 1,200~1,400만 명 중 15~8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두창과 콜레라에 대한 근대적 접근이 전국 최초로 시도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¹⁾ 서울보다 빠른 1876년에 관립 재생의원을 개설 후 천연두 예방을 위한 종두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고



한국최초 근대식 의원인 제생의원
자료:부산의료원

우리나라의 종두 및 근대 의학 교육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지석영이 처음으로 종두법을 전수 받은 곳이 바로 부산의 제생의원이었습니다. 1877년 3월경에는 「종두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선 정부에서 스스로 종두규칙을 마련한 것이 1895년 10월의 일이니, 그보다 무려 18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그 위치는 중구 동광동 2가 9번지 한일주차장 동쪽편으로 1880년 확장 이전 후 1885년 부산공립병원이 되었습니다.

1879년 부산지역에 콜레라가 창궐하였을 때에는 전국 최초로 콜레라전문 격리시설인 ‘절영도 소독소 및 부산 피병원’을 설치하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전염병 전문 격리치료시설이었습니다. 같은해 7월 25일부터 입항 선박의 검역과 함께 소독법을 실시하여 콜레라 환자가 승선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고 환자는 절영도 피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위치는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본사 사무실 건물에서 길 건너 봉래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1879년 7월에 콜레라 유행을 대비한 ‘소독소 및 피병원’이 부산 영도에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염병 치료시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통의학 내지 무속에만 의존하던 당시 우리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콜레라 유행에 대한 예방과 퇴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국가의 방역대책이라곤 전염병이 창궐하면 역병 유행지의 환자나 시체를 도성 밖으로 격리하는 일시적인 조치 정도에 그쳤던 것을 고려한다면 개항기 부산에 전염병 치료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의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영도 피병원(봉학초등학교 인근)
네이버지도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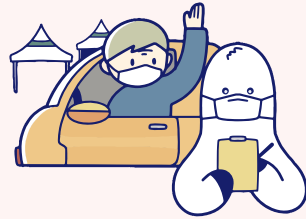
이처럼 근대적 위생방역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부산은 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최근 들어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신종 감염병은 점점 잦아져 가고 있는 즈음에 인력과 조직 등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총력대응 해주신 시민들과 공직자 등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백서를 작성합니다.

1) '마마'와 '호열자'로 보는 개항기 보건의료 - 부산지역의 두창 및 콜레라 방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는총 2019, vol., no.82, pp. 41-77 (37 pages) DOI : 10.16873/tki.2019..82.41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요약표

2020년

- 2020.1.21.
비상 방역대책반 운영
- 2020.1.23.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 2020.2.1.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24시간)
- 2020.2.21.
부산 첫 확진자 발생 (2명)
- 2020.2.23.
임시격리시설 설치
- 2020.3.15.
부산시 정신건강 상담전화 24시간 운영
- 2020.4.3.
해외입국자 전수조사
- 2020.4.6.
해외입국자용 부산역 선별진료소 개소
- 2020.5.7.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 2020.7.17.
해외 입국 선원전용 임시생활시설 운영
- 2020.10.13.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실행
- 2020.10.21.
부산국제영화제 온택트 방식 개최
- 2020.11.17.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 2020.12.
임시선별검사소 15개소 개소
생활치료센터 3개소 개소



2021년

- 2021. 1. 4.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
운영 시작(총126개소)
- 2021.2.26.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2021.4.26.
코로나19 특별점검
- 2021.7.27.
델타변이 확산
- 2021.9.6.
거리두기 단계 강화
- 2021.10. 7.
부산국제영화제 방역지원
(임시선별검사소등)
- 2021.10.25.
코로나19 백신 접종율
70% 달성
- 2021.11.1.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응급 핫라인 운영, 재택치료 본격 도입
- 2021.12.8.
외래진료센터 활성화,
방역택시 콜밴 운영
- 2021.12.22.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2022년

- 2022.1~4월
오미크론변이 확산
- 2022.1.14.
먹는 치료제 도입,
건강관리세트 및 의약품 당일 배송
- 2022. 1. 29.
신속항원검사 시행
- 2022. 2. 3.
고위험군 중심으로
진단검사 체계 전환
- 2022.2.10.
의료상담센터 운영
- 2022.2.24.
부산형방역체계구축
-임시선별2개소 추가,
-모바일 혼잡도알림서비스
-신속항원검사 키트 긴급 지원(시비43억)
- 2022.3.1.
방역패스 잠정 중단
- 2022.3.17.
최다 확진자 발생
- 2022.3.21.
국내접종완료자 해외 입국 격리 면제, 거리두기 완화
- 2022.4.10.
선별진료소(임시)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운영종료
- 2022.4.18.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2022.4.25.
감염병 등급 조정(1급 →2급)
- 2022.6.30.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종료
- 2022.7.29.
중국발 변이주 유행 임시선별검사소 재운영
- 2022.9.26.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 2023.1.30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2023.2.19.
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종료
- 2023.4.18.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 2023.5.4.
WHO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 2023.5.31.
시청 등대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종료
- 2023. 6. 1.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 2023.8.31.
코로나19 등급 조정(2급→4급)
위기단계'경계' 유지
- 2023. 12.31.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사진으로 보는 부산시 코로나19



▲ 임시선별소 의료진 격려 장면(동래구 임시선별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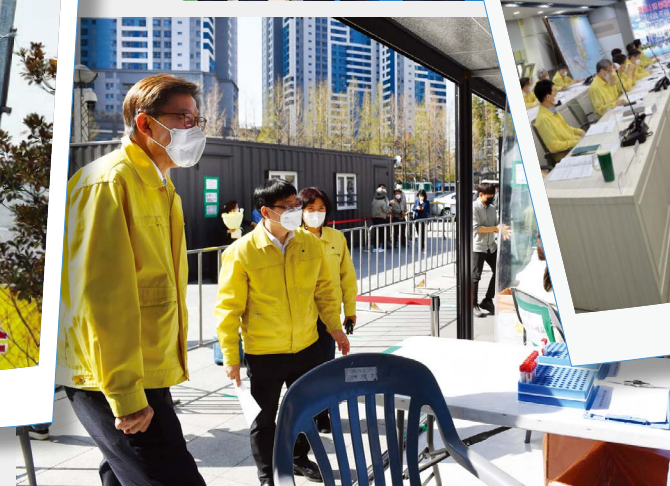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소통을 위한 대시민 브리핑 장면



▲ 코로나19 대비 범시민 대책회의의 장면



▲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 검체채취장면



▲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방문



▲ 시민들의 마스크 제작 장면



▲ 수제 마스크 전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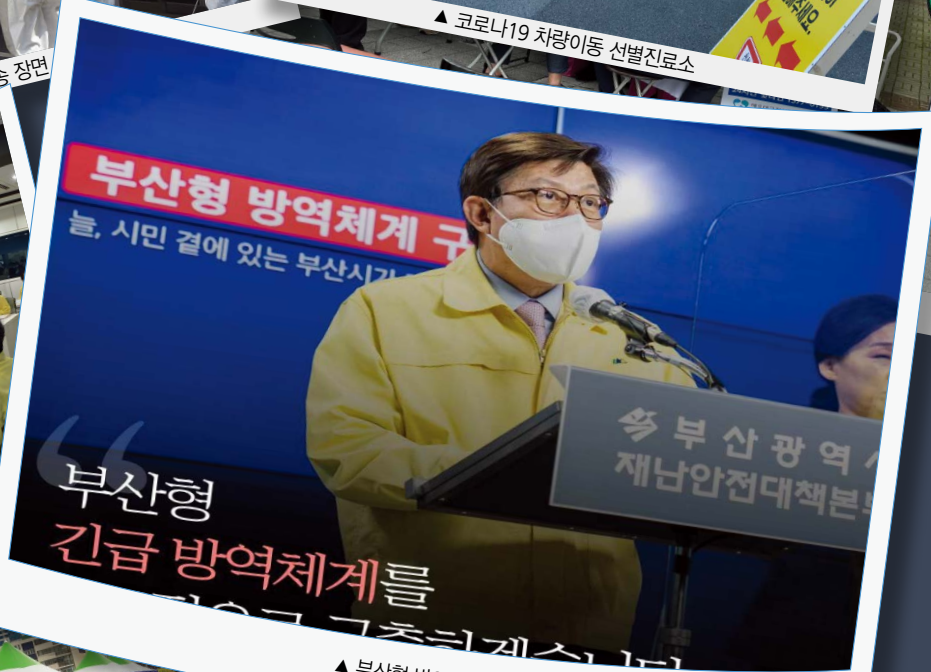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진자 수송 장면



▲ 코로나19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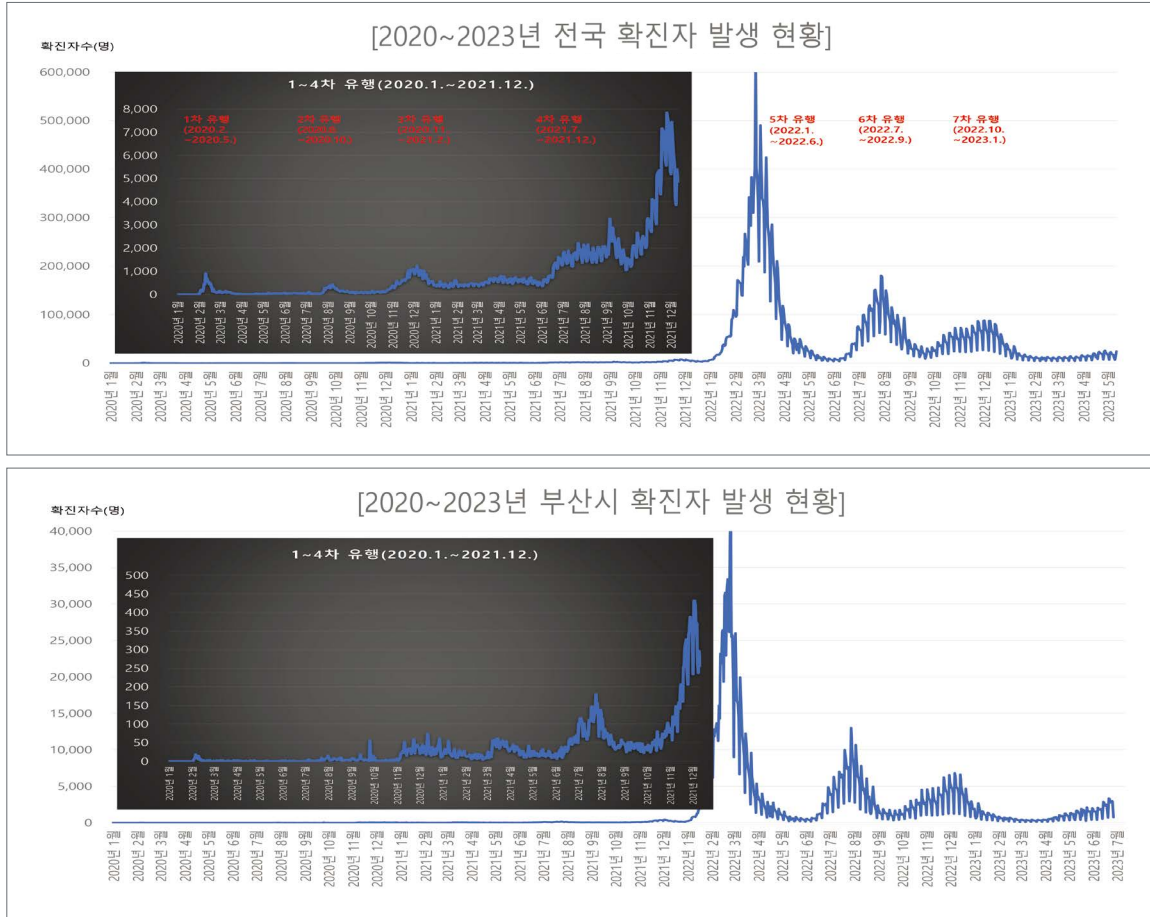


▲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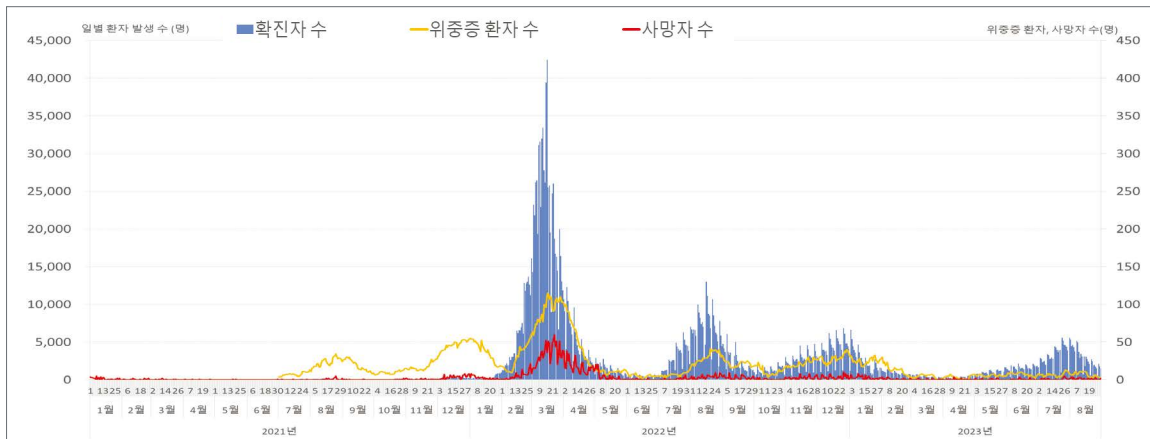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부산시 코로나19

1. 부산시 및 전국 확진자 발생 현황



2. 2021년 1월 이후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월별 현황



3.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월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1,919	0	76	43	15	10	7	17	130	124	165	255	1,077
2021년	23,364	847	467	621	1,219	618	543	2,026	3,191	1,312	1,199	2,431	8,890
2022년	1,695,744	10,127	168,349	698,823	150,665	39,894	13,969	83,328	213,040	70,755	38,963	81,005	126,826
2023년	370,949	74,517	22,935	12,455	10,471	28,644	43,948	96,434	81,545*				

* 2023년 8월 30일까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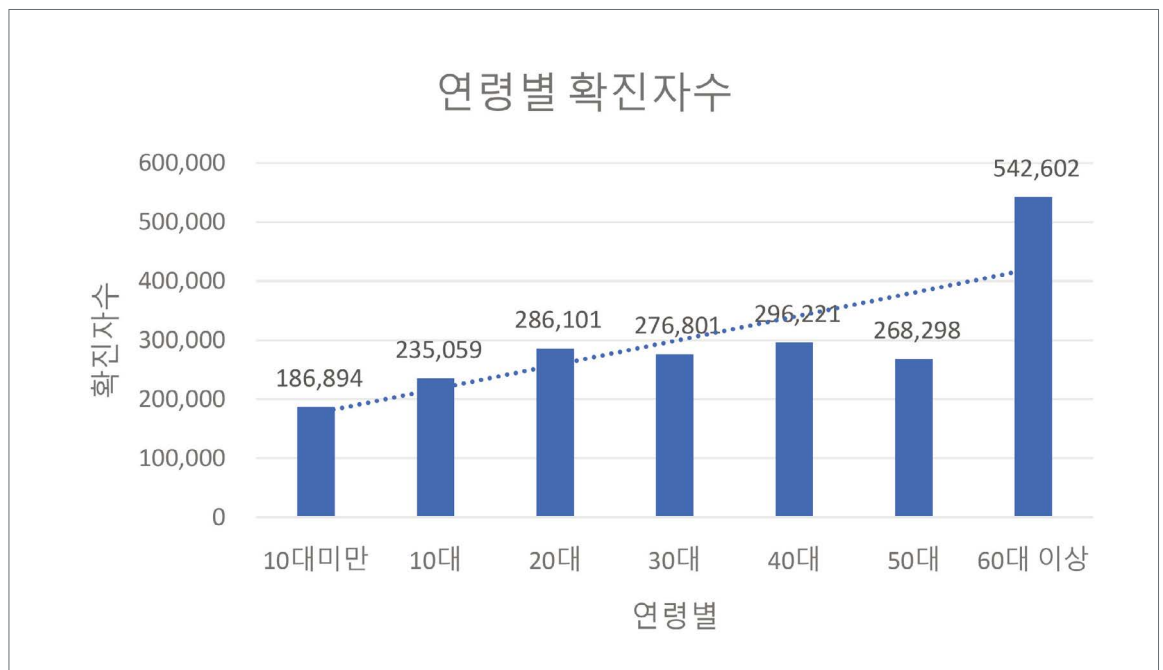
4. 부산시 코로나19 주요 지표별 현황(년도별)

구분	계	2020.2.21. -12.31.	2021.1.1. -12.31.	2022.1.1. -12.31.	2023.1.1. -8.30.
총 확진환자 수(명)	2,091,976	1,919	23,364	1,695,744	370,949
총 사망자 수(명)	2,915	50	247	2,380	238
일 평균 위중증재원환자수(명)*	-	-	20.3	28.9	9.1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자료는 2021. 7월부터 부산시에서 산출

부산시 연령별 확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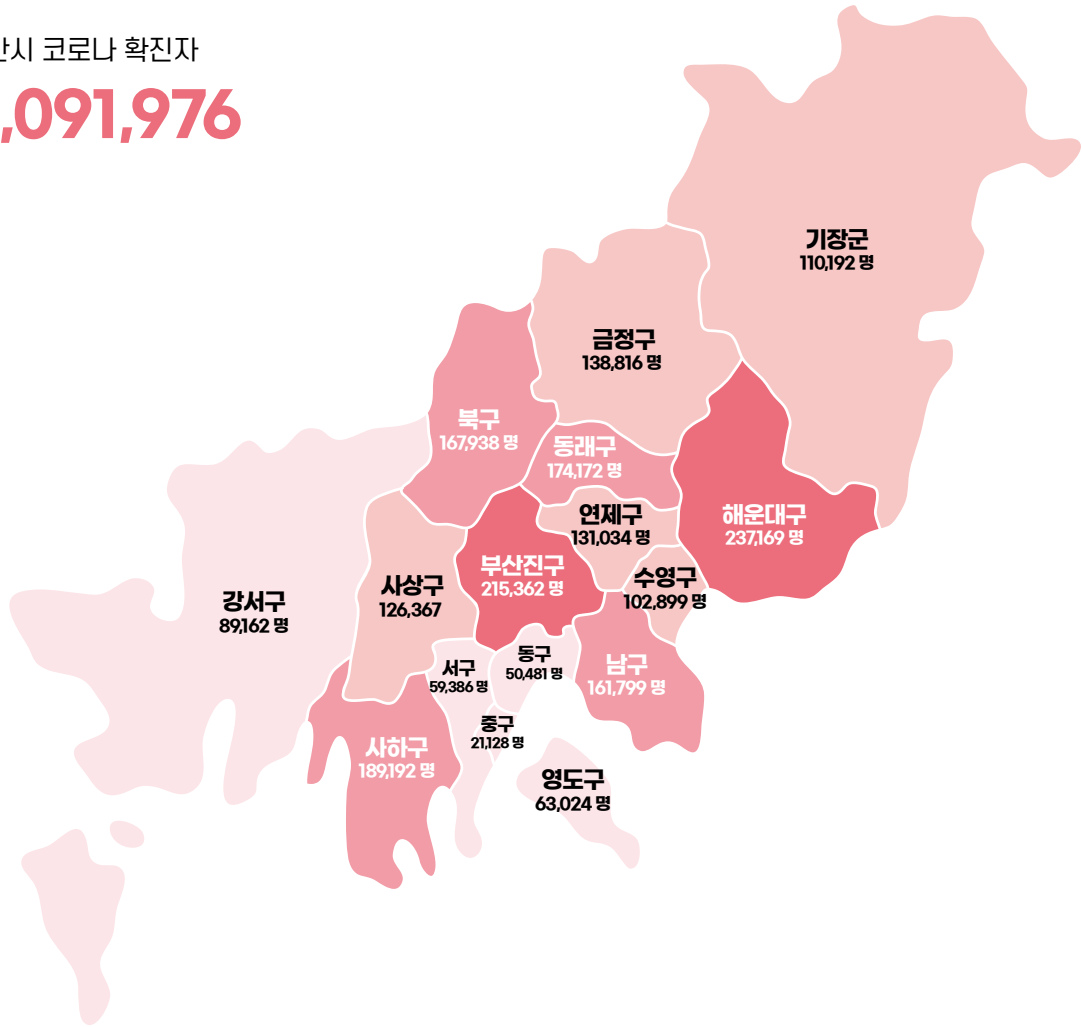
(2020년~2023.8월말 기준)



5. 부산시 구·군별 확진자 현황 (2020년~2023.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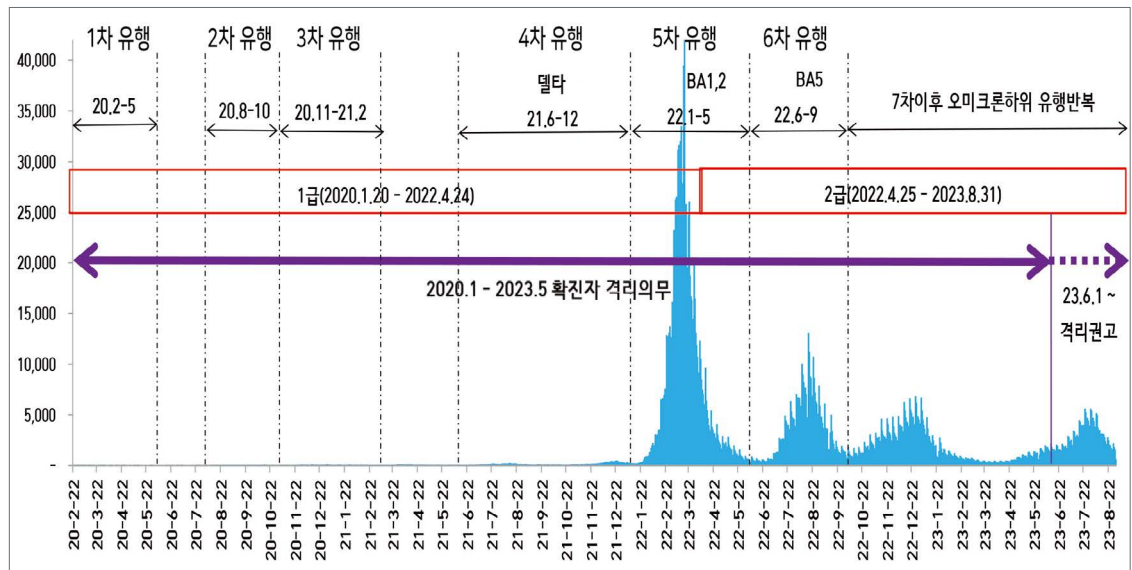
부산시 코로나 확진자

2,091,976



합계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2,091,976	21,128	59,386	50,481	63,024	215,362	174,172	161,799	167,938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기타*
237,169	189,192	138,816	89,162	131,034	102,899	126,367	110,192	53,855

6. 코로나19 발생추이에 따른 의료대응(2020.2.~2023.8.)



검사	← 20.1.23 ~ 23.12.31(선별검사소 운영) →				
			← 22.3.14 RAT 양성 확진으로간주(외래등) →		
치료 시설 / 시 스 템	← 20.12~ 22.5:생활치료센터 →				
			← 21.10. ~23.6.(재택치료) →		
	← 20.12~ 21.9: 소아 자가치료 →	← 재택 전수관리 →	← 22.2~8 : 일반/집중관리 →		
	← 지자체가모든 병상을 관리 →		← 22.3 준비기(지침상 확진자는일반격리병실허용) →		← 안착기 (23.6~) →
			← 22.4월~6월 이행기 (중증 위주만 市 관리) →		
접종	← 21.2: 접종시작(1차,2차,3차..) →		← 22.10: 동절기 추가접종 →		
치 료 제	← 21.2 ~22.2 :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				
	← 20.7: 렘데시비르(산소치료 중환자) →		← 22.4.8: 렘데시비르경증으로 확대 →		
			← 22.1(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도입) /2022.3(라게브리오) →		

숫자로 보는 연도별 부산시 코로나19



2020년 부산시 코로나19

1,919 명

2020년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



50 명

사망자



231,636 건

검사건수



260 명

임시격리시설



52,537 명

해외입국자

58,665 명

자가격리자

5,059 건

코로나 관련 이송



10,493 건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점검

28,981 건

KTX 부산역 선별진료소 검사

35,013 건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168 개소 **366** 건

요양병원 방역관리 점검

53 건

양성



2,189 명중 부산역 운송 **2,006** 명

유학생지원반 입국자

187,379 회

방역소독



670 건

소독장비 무상대여

39,102 건 **1,071,084** 백만원

금융지원

274 건 **25,802** 백만원

지방세기한연장



2021년 부산시 코로나19

23,364명

확진자



247명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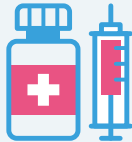
4,771,253건

검사건수



5,331명

재택치료자



2,833,217명(84.4%)

1차예방접종자

2,902명

생활치료센터입소

55,099건

건강관리

40개소

호흡기클리닉



3개소

중증응급센터



2,714,388명(80.9%)

2차예방접종자

28,580건

요양병원 선제검사

4,699개

요양병원 지도점검

1,183,307명(40.2%)

3차예방접종자

102,277개 **415,727**건

다중이용시설 현장 점검



232,970명

자가격리자



12,933건

행정지도

1,024건

행정처분

274,783회

방역소독



95,545건

생활지원비

79,526백만원

집행액

198,087명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166,231명

코로나19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2022년 부산시 코로나19

1,695,744명

확진자



2,380명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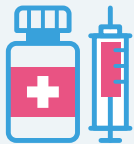
5,763,217 건

검사건수



1,608,405명

재택치료자



2,879,790명(86.5%)

1차예방접종자

256,061회

방역소독



생활치료센터
운영종료

65,504건

생활지원비

47,377백만원

집행액

2,851,325명(85.6%)

2차예방접종자

77,244명

코로나19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342,992명(10.3%)

동절기 예방접종자

1,422,341건

요양병원 선제검사

103,378개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치 점검

63,705건

3,688건

조치내역



2023년(8.30까지) 부산시 코로나19

370,949 명

확진자



328 명

사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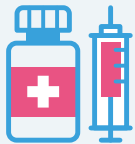
1,168,262 건

검사건수



154,156 명

재택치료자



2,829,202 명(85.2%)

예방접종 기초접종

434,136 명(13.1%)

동절기

84,218 명

건강관리세트

166,470 회

방역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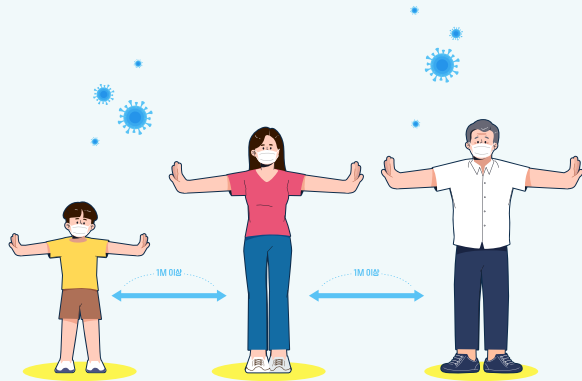
395,946 건

요양병원 선제검사



부산시 코로나19, 타임라인

중앙정부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27일

-코로나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

23일

-1차 유행 대구소재 종교단체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코로나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 중단
권고(3월 22일부터
4월 5일)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월

21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비상 방역 대책반> 운영

22일

재난안전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재난안전 문자 발송 시작

23일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
(위기경보가 상향조정된 당일
신속하게 개소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섬)

2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비상방역
대책반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되고 2담당관 10개반 및
1지원단으로 24시간 운영 체제
돌입)

21일

우리시 최초 코로나19
환자 발생

23일

임시 격리시설 설치 (부산시민
재개발원 임시 격리 시설 전환)

3월

3일

부산시-의회-교육청
대책회의 개최

4일

부산시-구·군 긴급비상대책
회의 개최

24일

코로나 성금 기부 행렬("힘내라
부산" 유관단체 및 지역기업
성금 전달)

25일

코로나 19 통합 심리지원 확대
운영
(정신보건센터에서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1577-0199))

4월

3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해외입국자 관리가 강화되어
비상수송 및 부산역 임시선별
검사소 설치,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을 설치운영)

6일

해외입국자용 부산역
선별진료소 선제적 개소

15일

민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영세자
영업자)

23일

마을건강센터 통한 사랑의
건강꾸러미 나눔(사회적고립
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독거노인,
건강 취약계층 위해 3,100가구
에게 지원)

부산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

-생활속 거리두기 소강상태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QR 코드 활용 전자출입 명부 시행

방역강화조치 조정

2차 유행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증가
-서울 및 경기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5월

7일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인 등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

11일
시민 캠페인

12일
수목 이름표 달기(을숙도 철새 공원내 수목 27종에 시민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달기 행사)

15~26일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및 지도점검 (수도권 클럽에서의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선제적 대응)

6월

8일
코로나 19 혈장 기증 서약서 전달식(부산지역 최초 코로나 19 집단발병지였던 OO교회 신도들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기부에 참여)

24일
감천항 러시아 선원 코로나 대응(러시아 선박 접촉 확진자 증가로 수리조선업 종사자 전수검사를 실시 하였고 항만 방역을 위해 해운항만업계 간담회 개최)

7월

2일
2차 대유행 대비 주요병원 환자 수용 대책회의(단계별 환자 발생에 하여 전담 대응 조직 확대 방안 제한함)

6일
항만해외 입국자관리(산항만 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입국 선원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함)

8월

13일
부산시와 공공기관 코로나1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14일
해운대 해수욕장 등 방역합동 캠페인 실시(해운대 해수욕장과 주변업소 등 방역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대시민 홍보를 펼치며 방역물품을 배부하고 마스크 미착용 행위의 합동단속도 병행)

2020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3차 유행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감염 확산

사회적 거리단계 수도권 2.5단계
상승

9월

10월

11월

12월

4일
고위험시설 등 행정명령(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시행
(목욕장업·대형학원·다단계 설명회·투자설명회·다단계 및 후원방문 판매대상)

9일
생활방역위원회 개최(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정책 결정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과 의료방역경제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25일
추석 특별방역대책(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와 집합제한행정 명령 발령)

8일
울수도 캠페인, 만덕동 지역 방역, (사회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울수도 철새공원 갈대길 개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울수도 핑크 물리 제거)

14일
요양병원 다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만덕동 일원 긴급 방역조치 시행

21일~30일
부산국제영화제 온택트 개최 (사상처음 폐막식 행사 등 전면 취소되고 온택트방식 10.21~30 운영)

27일
한·일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지사 공동대응 협의

18일
대중교통 이용 시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캠페인 실시 (서면화승센터 및 다중집합지에서 대중교통이용 시민 대상으로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의 새로운 방역지침을 홍보)

29일
부산시 코로나 19 안내 홈페이지 전면 개편함(사회적거리두기안내, 온라인브리핑 중계, 마스크 착용의무화, 선별진료소 안내 등 필요한 정보 접근성 높이기 위해 전면개편함)

30일
대학수능일까지 코로나19 방역 2단계 + a 수준 강화

4일
수능직후 물샐 틈없는 방역추진 (서면, 덕천동 대학가 등 수험생 밀집 우려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민·관 합동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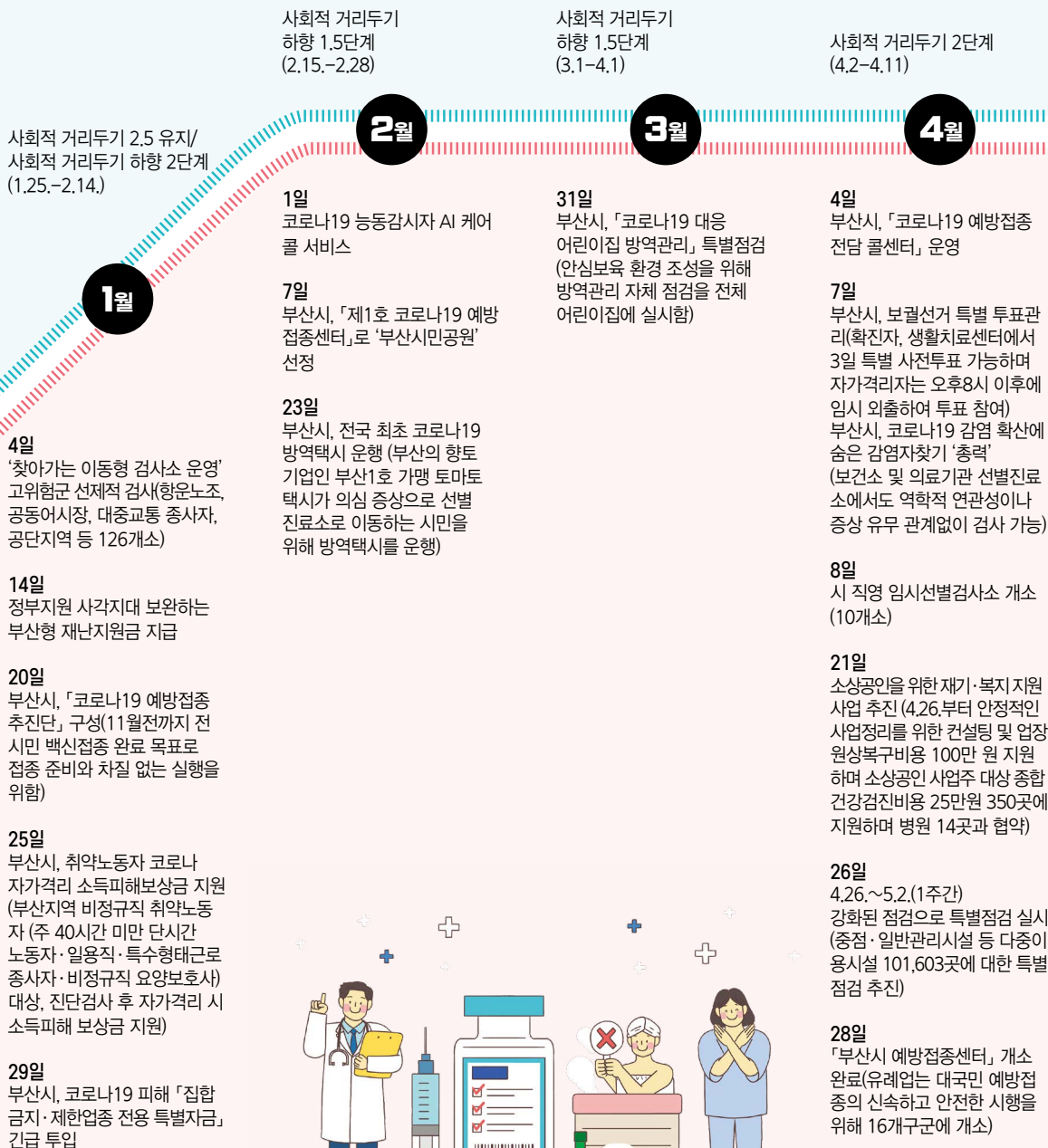
15일
취약계층 지원시설 방역수칙 행정명령(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와 사적모임금지)

19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0.12.19~21. 3.7까지 국비 없이 전액 시비로 구·군에 15개소 운영)

24일
해수욕장 7개소 집합금지(폐쇄) 행정명령

2020년

2021년



2021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5.24~6.1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6.24~6.30)
코로나 4차 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7.8~7.1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7.21~8.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8.2~8.8)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8.10~8.22)

5월

4일
위드코로나 시대 부산시 축제 체계 전환(새로운 시대, 코로나의 긍정적 산물이 될 수 있도록 21년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최대한 끌어 낼 수 있는 축제 개편 추진)

28일
「2021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 개최 (구 군,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등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을 점검하고, 방역, 안전 관리를 점검하는 데 중점)

6월

9일
부산관광 품(선) 결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관광상품 기획사 2곳 선정하여 착한 가격의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14일
부산시, 2021년 폭염 종합대책 발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중단된 실내 무더위쉼터 재운영 하며 백신접종센터 실외대기자 폭염 예방 물품 지원을 지원)

7월

16일
부산시, 가용자원 총동원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7.19.~25.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 연습장 등은 집합금지명령,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사적 모임 인원제한 (05~18시까지 8명, 18시~익일 05시 4명) 역학조사 인력지원·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진단검사 행정명령·방역 특별점검 등 확산세 저지 위해 방역 총력대응)

21일
16개 구·군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4차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대책 집중 논의)

28일
도시가스 요금 동결(어려운 서민경제 부담경감과 산업체 경쟁력 회복을 위해)

29일
부산시 특사경,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 (7.29.~8.8. 11일간 주·야간 단속 뿐 아니라 심야 잠복수사도 병행하며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에 밀집한 음식점·카페 및 민원신고업소 등 중점 단속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여 엄중 조치)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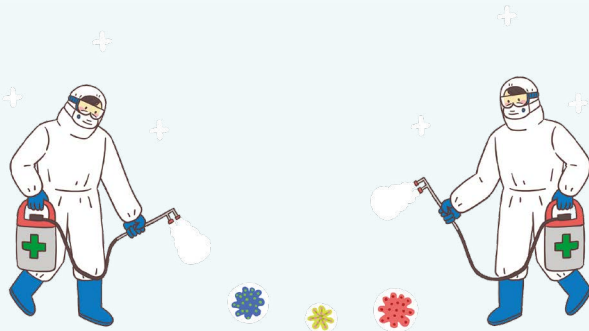
20일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코로나 피해 긴급지원 추경 (8,208억 원 편성 기정예산 대비 5.7%, 8,208억 원 증가한 15조 2천 429억 원, 코로나 위기 상황 대비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추가 적립)

18~20일
부산시, 「찾아가는 응원 커피차 캠페인」 추진 (연일 이어지는 100명대 확진자 발생으로 번아웃 위기에 놓인 최일선 보건소 대응 인력 위해 다과와 응원 메시지 전달)

25~27일
부산국제광고제,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부산시, 코로나 시대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9.6~10.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4~10.31)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1.1~11.30)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 재택치료 체계 도입(11.1)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 일상회복 추진 중단 : 확진자
발생 증가 등 방역상황 악화로
일상회복 추진 잠정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9월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지급 대상 총 280만여 명
총 7천262억 원(국비 5,810
억 원·시비 729억 원 구·군비
723억) 예산 투입, 신속·
편리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
금 지급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도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용콜센터
(☎1661-8112) 운영)

10월

7일
부산 국제영화제 방역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25일
부산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
종 완료율 70% 달성!
(백신 접종 시작 242일 만에
인구수 대비 접종 완료율 70%
달성... 235만 명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고령층
90%·18세 이상 80% 달성)

27일
재택치료 관리팀 신설
(재택치료자의 외래진료센터와
의료상담, 처방약 배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신설)

11월

1일
재택치료 응급 대응 체계 구축
(24시간 응급 핫라인 운영,
관리 의료 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24일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자가
격리 소득피해보상금지급으로
취약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호를 위해 1인당
23만원 현금 지원)

12월

8일
재택치료 개선 방안 마련(외래
치료 센터 활성화, 재택치료자
이송 전담 방역택시, 콜밴 등
운영)

9일
부산시, 고령층 대상 3차 접종
신속추진을 위한 운영 및 홍보
(접종효율 감소 및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선제 대응 위한
3차 접종 적극 독려)

27일
코로나 위기극복 보고회 개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
력 강화,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적극 추진해 일상으로
의 복귀는 물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박차)

31일
재택치료 이송 방역택시 지원
종료

2022년



집중관리군 중심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 조정*으로
최대 관리역량 확보
(*22.2.3, 2.10.)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사망자 발생 (5차 유행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행)

14일
일상회복 시행
(먹는 치료제 국내 도입 및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 치료
체계 단계적 전환)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30만원 미만
소액 자체 심의

일반관리군 비대면 상담을
위한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실시 및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확대 운영

재택치료자 대면진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래진료체계
확대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재택치료 키트 지급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동거가족 공동격리 의무 제외
(*22.2.9.)

방역패스 중단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
확인된 경우 확진으로
인정되어 바로 진료·상담·
처방 가능(*22.3.14.)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제1급
에서 제2급으로 하향 조정)

1월

2월

3월

4월

1일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확대 운영

9일
금정 공영차고지 관련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확산세 이어
지자 단계별 대책 마련
(공동이용시설 폐쇄 및 버스
감축 운행, 버스 내 방역수칙
강화 적용, 관련 버스회사 전
직원 매일 코로나19 진단검사
로 감염 연결고리 차단)

10일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14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 발표
(재택치료자 대상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개시, 재택
치료 건강관리 세트 및 처방의
약품 당일 배송 체계 구축)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신민 호소문 발표

10일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
의료상담센터 운영

14일
행정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24일
부산형 방역체계 계획발표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 시작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추가
신속항원 검사 긴급지원
(시비 43억)

5일
재택치료 관리팀 내, 의료상담
센터 지원을 위한 콜센터 운영

8일
응급의료협의체
구성(시, 응급의료 기관, 소방)

14일
동네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로 확진으로 인정되어
바로 진료, 상담, 처방 가능

17일
부산 코로나19
최대 확진자 발생

3월 중
재택치료 외래 진료센터 지정
확대(소아특화 및 투석 전문 병원
등 6개소 추가)

5일
재택치료 콜센터 운영

20일~21일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인력
응원캠페인」 추진(구·군 보건
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격려를
위한 응원 키트 전달)

2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 재택치료 키트지급 중단,
외래진료 센터 확대, 먹는 치료
대상자 확대)

2022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2)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모든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유지)

5차 오미크론 변이 유행 후
6차 유행의 시작 시기

5월

31일
일반의료체계전환으로
제1생활치료센터인 인재
개발원 운영종료

6월

6월 중
호흡기 환자진료 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20일
해양 치유 프로그램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시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21일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대비 역량강화 워크숍
(시·구·군 56명, 의료기관
33명)

30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최대 12개소 운영)

7월

13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전환 - 부산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강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유사시 치료병상 재가동
준비, 특수·응급환자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
제 적극 투여, 유행 안정 시
까지 격리업무 유지, 자발적
방역에 기반한 시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협조)

7월 중
재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
(정신시설, 요양시설 현장
컨설팅 및 교육, 장기요약
기관 감염예방관리 비대면
교육)

29일
중국발 변이주 유행
임시선별검사소 재운영

8월

12일
건강고위험군 재택치료
자체 관리방안 추진(고위험
1인가구, 기저질환자 등
재택치료 건강고위험군으로
관리)

9월

8일
추석 연휴
부산시,코로나19 검사부터
입원까지 대응체계 구축
임시선별검사소(부산시청,
부산역) 정상 운영, 신속대
응 이동검사소(부산서부터
미널)추가 운영
-코로나19검사부터 진료,
처방,입원 의뢰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및 자율
입원병원 운영
-부산시콜센터(☎120),
구·군 행정안내센터에서
24시간 코로나19 상담
안내
-추석 연휴 코로나19
Q&A 사이트 운영, 연휴
기간 맞춤형 코로나19
정보제공

2022년



2023년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10월

27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변이 유행 대응
부산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실시
-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변이 유행 적극 대응
- 27일부터 사전예약·당일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종사자 ▲ 면역저하자
▲ 50대 이상 연령층
▲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
추가접종 적극 권고

11월

22일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
률 제고에 총력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 대비
요양병원 현장방문 11.21. 행
정부시장 요양병원 현장 방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독
려 및 의료진 격려
11.21.~12.18. 동절기 추가접
종 집중 접종기간 운영,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접종 적극
권고)

12월

21일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산시·부산시의사회,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 발표
동절기 추가접종 통해 안전성
과 접종효과가 큰 2가 백신 접
종 적극 권고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
권고"로 전환)
중국발(홍콩, 마카오) 입국자
PCR검사 의무화



2022년



2023년



중앙정부



동절기 추가접종, 종료
(23.4.8.)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심각 - 경계(6.1)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2급에서 4급으로)
8.31 시행

3월

중국발(홍콩, 마카오)
입국자 PCR검사 의무
화 해제

17일
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수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기관
등은 유지(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
관, 약국(개방형 약국 제
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의무 해제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
교통 이용 시 또는 접촉
자, 고위험군, 3밀 환경
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및 개인 방역
수칙 생활화 거듭 강조)

4월

4월 중
신규 감염증 발생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보

5월

5월 중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종료

31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종료

6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2급에서 4급)

8월



부산시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조직도 및 주요 연혁

01

시민방역추진단 신설

2020년 2월 부산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당시에는 부산시에 감염병 전담 부서가 없었다. 그 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감염병 조직만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요양병원·집합시설 등 집단발생 사례의 증가와 확진자 규모의 확대로 코로나19 상황에 총력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0년 9월 2일 기존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내 2개팀(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대응조직을 3개팀으로 구성된 시민방역추진단(감염병총괄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을 신설하여 코로나19 대응조직을 확대 정비하였다.

2020년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시민방역추진단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부서명	팀명	부서명	팀명
건강정책과	공공의료정책팀	시민방역추진단 (신설)	감염병총괄팀(신설)
	건강관리팀		감염병대응팀
	건강도시팀		감염병예방팀
			재택치료관리팀(2021.10.26.신설)
	감염병예방팀	건강정책과	공공의료정책팀
	감염병대응팀		건강관리팀
	가족건강팀		건강도시팀
	정신건강팀		가족건강팀
			정신건강팀

시민방역추진단은 역학조사, 예산, 물품관리, 청사 내 감염관리 및 2020년 하반기부터 대두된 사회적 거리두기(생활방역위원회 포함) 등 코로나19 대응 분야별·역할 구분하여 총력 대응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부산시 조직개편으로 시민건강국을 신설하여 시민건강국 내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시민방역추진단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시민방역추진단은 2021년 10월 26일 재택치료팀이 추가되어 4개 팀으로 운영하였다.

02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TF) 구성

국내 코로나19 백신 도입으로 예방 접종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2021년 1월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신설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단장인 시장을 중심으로 1개반 5개팀 2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TF로 운영하였다.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2022년 8월에 감염병관리과로 통합하였다.

부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2021. 1. 20.

부서	팀	인원(23명)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총괄 단장: 시장) (반장: 복지건강국장)	시행총괄팀(TF총괄)	5명
	대상자관리팀	3명
	백신수급팀	4명
	접종기관운영팀	6명
	이상반응관리팀	5명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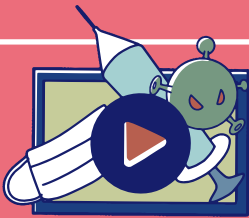
감염병관리과 신설

2022년 8월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변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평상시 감염병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 5일 기존 시민방역추진단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통합하여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였다.

부천시 감염병관리과 신설

변경 전		변경 후	
시 민 방 역 추 진 단	감 염 병 총 괄 팀	감 염 병 관 리 과	감 염 병 총 괄 팀
	감 염 병 대 응 팀		감 염 병 대 응 팀
	감 염 병 예 방 팀		감 염 병 예 방 팀
	재 택 치 료 관 리 팀		재 택 치 료 관 리 팀
코 로 나 1 9 예 방 접 종 추 진 단	시 행 총 괄 팀		예 방 접 종 관 리 T F
	접 종 관 리 팀		이 상 반 응 관 리 T F
	접 종 기 관 운 영 팀		
	이 상 반 응 관 리 팀		





부산시 코로나19 분야별 대응

1. 코로나19 진단검사
2. 역학조사, 자가격리
3. 병상관리
4. 환자이송 및 소방대응
5.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6. 감염취약시설과 취약집단관리
7. 해외입국자 및 해외유입 관련
8. 시민소통(브리핑)
9. 사회적 거리두기
10. 명절·수능·국제행사 대응
11. 예방접종
12. 재택치료
13. 감염병관리지원단
14. 민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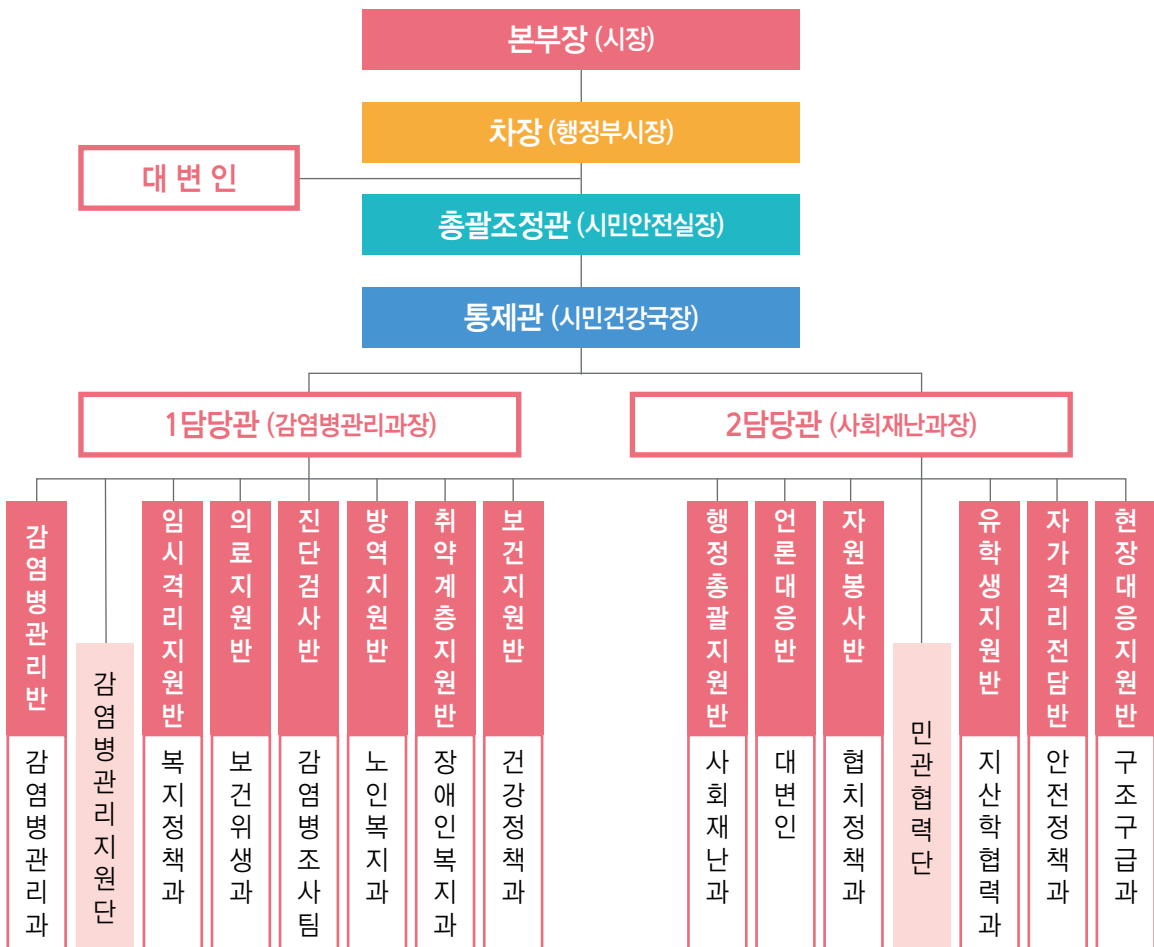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으로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재택회의)를 주 3회 실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해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해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 격상(경계→심각)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계와 중수본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 대응하였다.

부산시는 2020년 2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대응과, 감염병관리과)를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확산으로 2020년 2월 23일 기존 운영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부장인 시장을 중심으로 12개 실무반(1개 단) 78명으로 확대 편성하여 코로나19를 분야별 대응하였다.

▶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기준.2022년8월5일



1.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단검사 확대 필요성이 커졌으며, 보건소와 공공병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전파 및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20년 1월부터 구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부산형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대상 부산역 선별진료소 및 비수도권 최초 임시선별검사소를 시직영으로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01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Test)

부산시는 2020년 1월 23일 선별진료소 운영을 개시하며 선제적인 코로나 대응에 나섰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상향 조정[주의→경계]된 당일에 개소하며 신속하게 재난위기 상황에 응대하며 조치를 했다, 특히 이는 우리 관내 최초 확진자 발생 한 달여 전이다. 보건소의 기능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여 16개 구군에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병원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함으로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선별진료소는 PCR검사를 통해 유증상자·역학적 연관성·고위험군 중심 우선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자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을 위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산시 선별진료소 설치 이전 코로나19 발생 동향 (2020. 1. 25. 기준)

국가 및 지역	확진	사망	비교
중국	1,956	56	49
태국	7	0	2
홍콩 · 마카오	각5	0	0
호주 ·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각4	0	0
한국 · 프랑스 · 일본 · 대만	각3	0	1
미국 · 베트남	각2	0	0
캐나다 · 네팔	각1	0	0
총계	2,012	56	52

※ 부산관내 확진자 0명, 능동감시 7명(밀접접촉자 2명, 우한시 방문 5명임)

보건소·부산시 임시선별진료소·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구군별 운영현황 21년 1월 기준

구군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구군별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구	1	1	1	해운대구	1	1	2
서구	1	1	3	사하구	1	1	
동구	1	1		금정구	1	1	1
영도구	1	1	3	강서구	1		1
부산진구	1	1	5	연제구	1	1	1
동래구	1	1	4	수영구	1	1	2
남구	1	1	1	사상구	1	1	2
북구	1	1	2	기장군	1	1	2
총계	61개소			검사건수	11,934,368건(23.8.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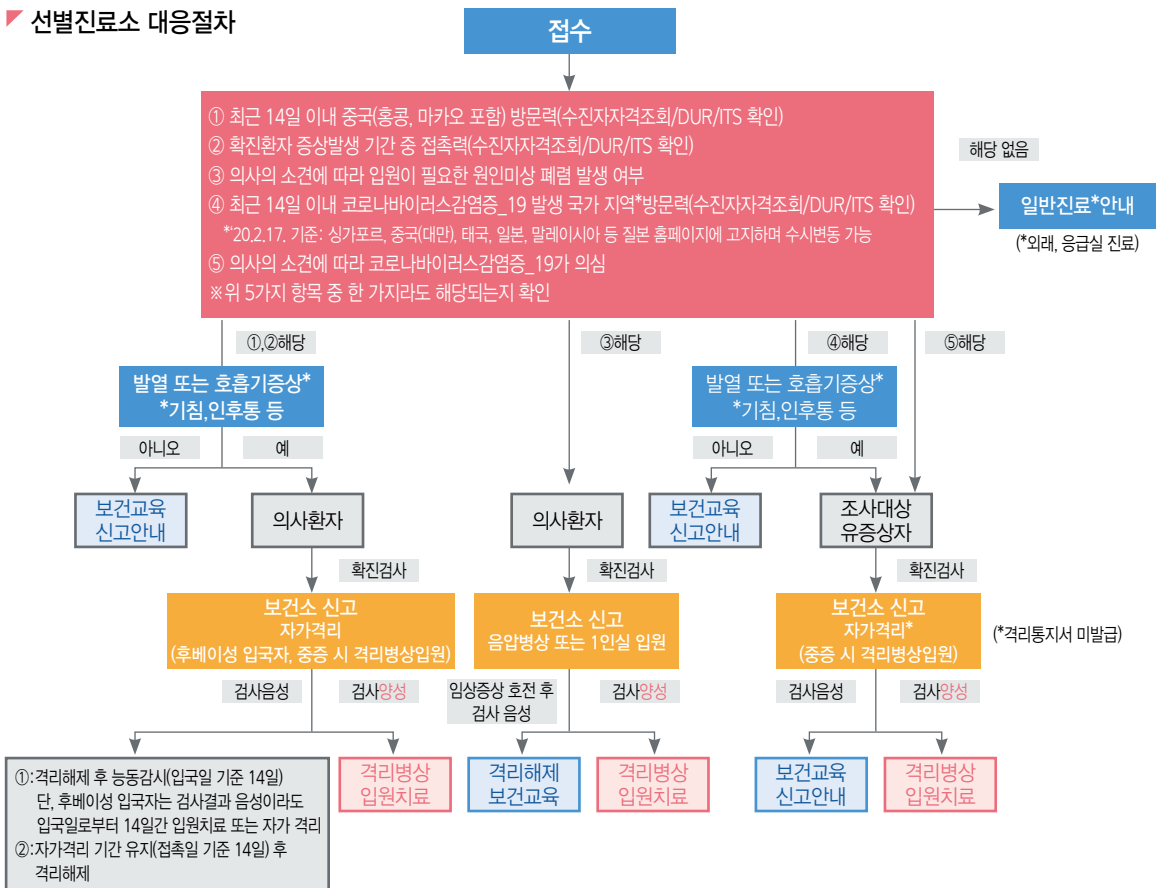
특히, 남구 선별진료소 검사부스의 양방향 워크스루(Walk Thru) 방식은 K-방역의 국제 표준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을 북구보건소와 부산진구보건소에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아울러 부산역에서는 해외입국자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확진자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선별진료소 진료절차

〈 신고 대상 〉

- 1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2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3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4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
- 5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6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선별진료소 대응절차



1. 양방향 워크스루(Walk Thru) 검사부스 선별진료소 제작·운영

2020년 3월 30일 부산 남구는 국내 최초로 음압·양압 양방향으로 변환이 가능한 양방향 검사부스를 설치하였다. 글로브박스 기술을 적용해 현장에 필요한 방호복 수준의 밀폐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부스 내부로 들어가 있는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 안전성과 효율성 두 가지를 다 갖춘 것이다. 이 양방향 워크스루 진료소는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공간이 개방돼 있어 접촉면을 통한 감염 위험이 낮으며 특히 대규모 인원예 대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 부산 남구는 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 워크스루부스

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공중전화박스 크기의 사각형 부스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서 부스에 부착된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 3분이 소요되며 한 사람당 한 시간이 걸리는 음압텐트 검사에 비해 시간이 20분의 1로 단축되며 비용 또한 3분의 1에 해당된다. 특히 워크스루 검사장비는 의료진의 안전성 또한 확보하고 있다. 즉 이 박스 시스템은 안의 공기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음압부스를 바깥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양압부스로 뒤집은 발상 전환이 비결로 피검자가 재채기를 하더라도 공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부스 안으로 비말이 들어가지 않는다. 의료진은 검체를 채취한 뒤 비말이 튈 부스 바깥면을 닦고, 고무장갑만 교체하면 돼 다음 검사를 위한 준비 시간이 또한 크게 단축된다.

워크스루 부스,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 토대 마련

검체 채취용 박스 고안·제작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발생 초기 여객터미널로 검체 채취용 박스를 고안·제작하여 음압텐트 안에 설치하여 시험 사용

음압형 채담부스 도입

2020년 2월, 유리부스에 음성형식만 들어가서 채취하는 음압형 채담부스 도입

양압형 채담부스 도입

2020년 3월, 부스 안에 의료진이 들어가서 채취하는 양압형 채담부스 도입

환자와 의료진의 접촉 없이 신속한 검사 가능

- 의료진은 일회용 장갑만 착용하여 신속한 검사 가능
- 3분의 1 정도의 제작비용으로 경제적
- 삼투설에 등 장소에 구매하지 않아 '워크스루 진료소' 활용 가능

전국 최초 부산 워크스루 검사소,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사례

자자제 (2)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을 통한 해결 노력

- 자전거 자차대를 이동하여 양압형 채담부스 설치
- 의심환자 진료, 검체 채취를 공중보건의 및 보건소 인력만으로 업무 조정
- 남구 재난안전관리과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채담부스 구입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우선심사제 국제특허출원

특허청의 행정지원으로 특허출원 진행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의 토대 마련

전 세계 50여 개국과 수출 논의

K-방역모델 국제 표준화의 토대 마련

워크스루 부스의 효과

- 부스 안의 압력 > 외부 피압자의 비압 압력이 차단
- 강한 무리가 적은 다리에 설치 신속하게 다수의 검체 채취에 효과적
- 확진환자 치료 및 필요해 상담 등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효과

워크스루 효과 창출 기대

국가와 특허출원을 통한 해외 수출로 인한

- 외국 특허 효과
- 고용창출 효과

쏟아지는 언론 찬사

"부산형 '포스트 코로나' 백신 이미징 장비" - 한국경제(2020.04.20)

"부산 남구, 보건소로 안전한 양압형 워크스루 부스 제작" - 서울경제(2020.03.31)

"검사는 1분, 소독은 5분..." - 연합뉴스(2020.03.31)

부산일보(2020.04.20) 서울경제(2020.03.31) YTN(2019.04.01)

2. 드라이브스루(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산시가 2020년 3월 초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검체 채취가 가능한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검사 시간이 짧고 차에 탄 채로 검사할 수 있어 진료소 방문검사 보다 장점이 많고 2차 감염 우려도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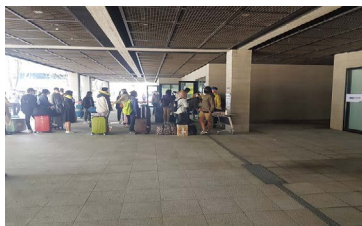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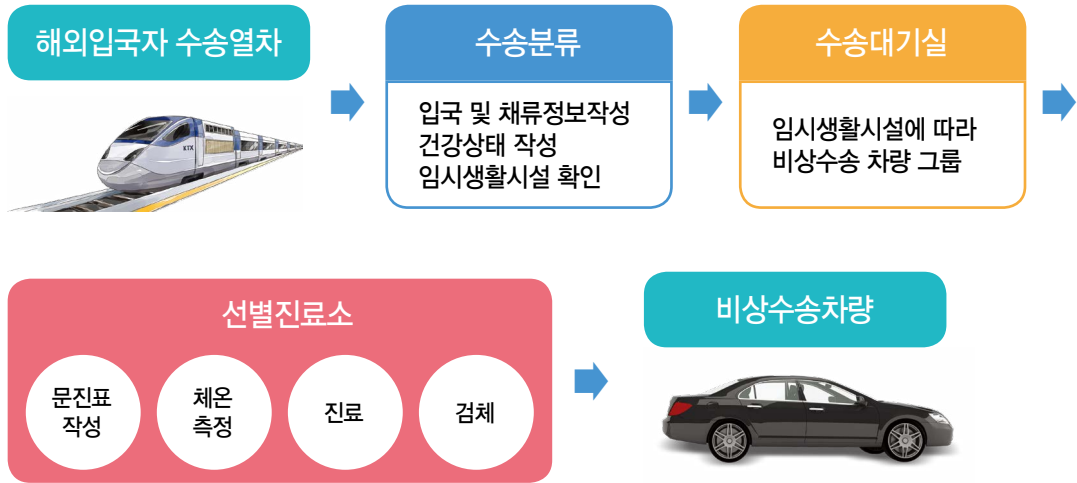


부산진구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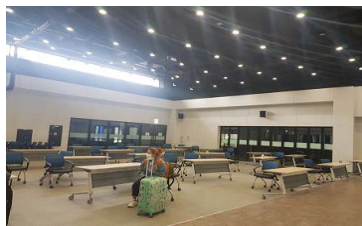
3. 부산형 해외입국자용 부산역 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

2020년 3월 당시 유럽·미국·아시아 등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지역별 입국자 위험도에 따라 유럽 지역과 유럽 외 지역 입국자에 대한 이분화된 관리조치를 추진하였다. 부산시의 3월 24일 이후 확진자 전원이 해외입국자인 상황에서, 부산만의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형 해외입국자 대상 부산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KTX를 통해서 광명역(서울역 포함)에서 부산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2020년 4월 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평일·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770일간 운영하였으며, 이후 해외입국자 지침 변경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및 임시격리시설 입소자 검사소 역할을 하였다. 부산시 자체 예산이 투입되었고, 운영인력은 2개팀 18명(팀별 총괄 1, 의사2, 검체 4, 체온측정 등 지원요원 2), 비상수송지원반과 협력하여 운영되었다.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선별진료소 흐름도(부산역)



비상수송지원반 분류



수송 대기실



선별진료소 설치 공간

검사실적(운영기간 2020년 4월 6일~2022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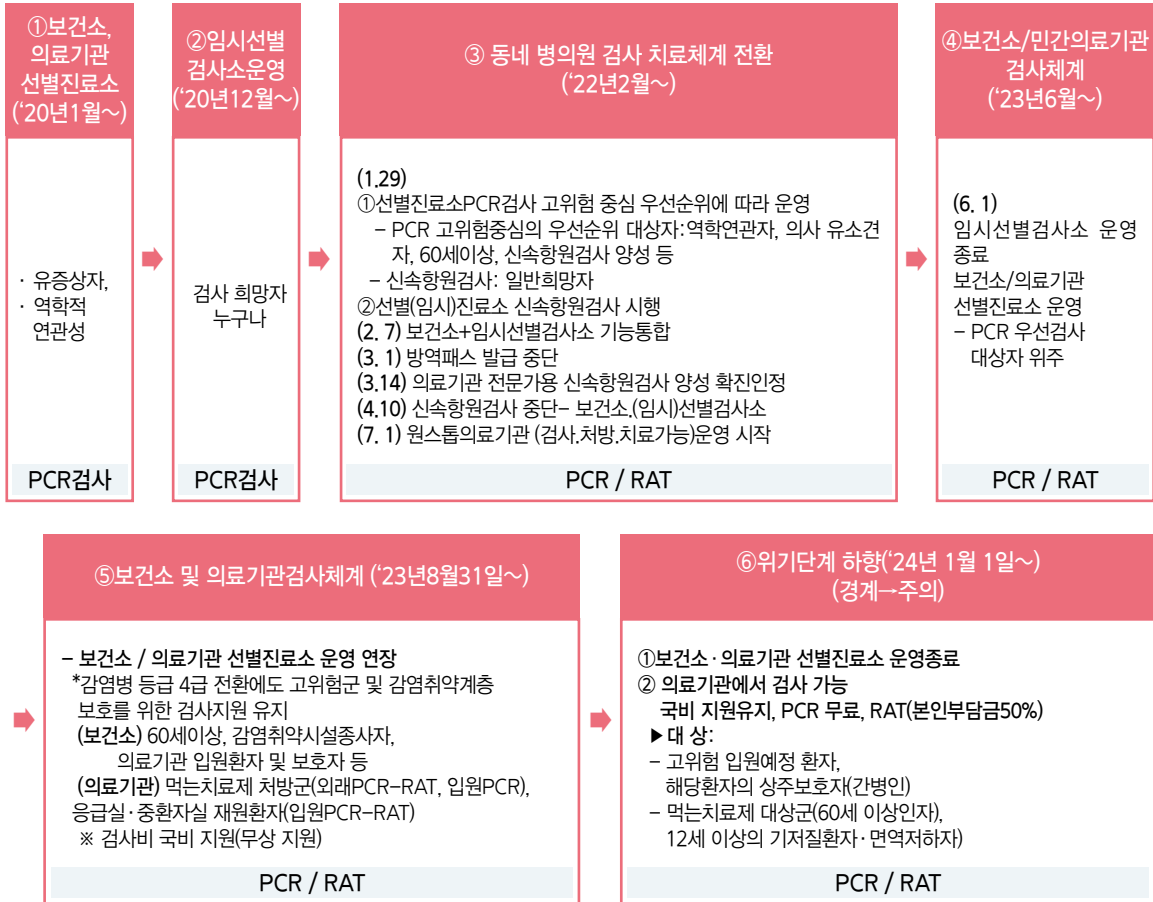
검사건수 총계 (가+나)	PCR 검사(가)				신속항원검사(나)			비고
	검사건수			확진자수	검사 (A)	양성 (B)	양성률 (B/A×100)	
	소계	임시	해외					
302,494	272,442	203,703	68,739	13,280	30,052	2,324	8%	

정부 지원 이전에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부산형 선제적 해외입국자 대응조치로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크게 기여하였다.

02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변천 과정

진단검사의 목적이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코로나19(의심)환자 선별검사, 의료기관 유입 방지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 차단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였으나, 오미크론 유행 시기인 2022년 2월부터는 고위험 중심 우선순위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체계로 변경되었다. 진단검사체계의 변천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03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2020년 1월 23일부터 부산지역 16개 구군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2023년 12월 30일까지 운영하였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의 최일선에서 확진자 발견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진단검사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부산시에서는 2020년 2월에 전체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현장컨설팅을 비롯하여 년2회 종사자 감염관리 및 보호복 착용의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 보호 및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소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선별진료소용 방역장비는 음압구급차 외 4종 72점, 폭염 및 한파 대비 물품,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검사 관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빈틈없는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였다.

보건의료 선별진료소 16개소

검사실적	검사대상	운영기간	운영시간	검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전자증폭검사 (PCR) 9,824,576건 신속항원검사 (RAT) 491,26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월~)유증상자·역학적연관성있는 자 (‘20.12월~)검사희망자 누구나 (‘22.2월~)고위험중심의 우선순위 대상자 	2020.1.23.~ 2023.12.30	(평일·주말·공휴일) 9:00~18:00 확진자 급증시기 9시~21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R검사 (비인두도말물, 구인두도말물) 신속항원검사 (‘22.2월~4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구·군	의료기관명	운영기간	구·군	의료기관명	운영기간
중구 (1개소)	메리놀병원	2020.01.30.~ 2023.03.09.	남구 (1개소)	부산성모병원	2020.01.28.~ 2023.03.31.
서구 (4개소)	부산대병원)	2020.01.30.~ 2022.05.22.	북구 (2개소)	부민병원	2020.02.06.~ 2023.12.31.
	고신대복음병원	2020.02.18.~ 2023.9.1.		구포성심병원	2020.02.03.~ 2023.12.31.
	삼육부산병원	2020.02.11.~ 2023.12.31.	해운대구 (2개소)	해운대백병원	2020.01.28.~ 2023.04.28.
	동아대병원	2020.01.30.~ 2022.06.06.		해운대부민병원	2020.02.24.~ 2023.05.31.
동구 (2개소)	봉생기념병원	2020.01.29.~ 2023.03.01	금정구 (1개소)	세웅병원	2020.01.27.~ 2023.12.31.
	좋은문화병원	2020.02.21.~ 2023.06.30.	강서구 (1개소)	갑을녹산병원	2020.01.28.~ 2023.12.31.
영도구 (2개소)	해동병원	2020.01.28.~ 2023.12.31.	연제구 (1개소)	부산광역시 의료원	2020.01.28.~ 2023.12.31.
	영도병원	2020.02.25.~ 2023.08.31.	수영구 (2개소)	비에이치에스한서병	2020.01.28.~ 2023.12.31.
부산진구 (4개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2020.01.30.~ 2022.12.23.		좋은강안병원	2020.01.23.~ 2023.12.31.
	동의병원	2020.01.28.~ 2023.01.04.	사상구 (2개소)	부산보훈병원	2020.02.03.~ 2023.06.30.
	춘해병원	2020.02.23.~ 2023.03.16.		좋은삼선병원	2020.01.28.~ 2023.12.31.
	온종합병원	2020.01.28.~ 2023.12.31.	기장군 (2개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2020.02.10.~ 2023.01.31.
동래구 (3개소)	대동병원	2020.01.23.~ 2023.12.31.		기장병원	2020.06.10.~ 2023.12.31.
	광혜병원	2020.11.16.~ 2022.04.26.			
	동래봉생병원	2020.11.16.~ 20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기간, 운영시간은 의료기관 자체결정 검사대상, 검사방법 보건소선별진료소와 동일 		

04

오미크론 확산 대응 부산형 방역체계 (코로나19진단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긴급 지원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와 별도로 시 예산 43억원을 투입하여 신속항원검사키트 130만개를 확보하고 감염취약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배부하여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소방서



군부대



자치경찰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 추가확대 설치, 모바일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 서비스 시행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여 추운 겨울 장시간 대기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임시선별검사소(사하구 다대포소각장, 서구 구덕운동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혼잡도와 예상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모바일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서비스 화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동구보건소



수영구보건소



송상현광장 임시선별검사소

05

임시선별검사소
(2020.12.19.
~2023.5.31.)

부산시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상황의 제3차 유행 시기 가운데 수도권 중심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상황 속 선제적 조치였다. 운영 예산은 전액 시비가 투입되었으며, 구군 선별진료소와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면서 직장인 및 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과부하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 초기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7차 이후 오미크론 하위변이 유행시기까지 확진자 추이에 따라 운영 기간을 조정하여 2020.12.19. - 2023.05.31.까지 운영하였다.

1차 임시선별진료소 구군에서 운영(15개소)

구 분		PCR 검사			운영기간	협력의료진
검 사 소		총 계 187,616	양성자 7,107	양성률 3.8%	'20.12.19 ~ '21.03.07	
부산시	부산역	18,919	39	0.21	'20.12.19 ~ '21.03.07	부산의료원
연 제 구	시청등대	25,638	33	0.13	'20.12.22 ~ '21.03.07	시청지원
부산진구	놀이마루	32,875	33	0.10	'20.12.21 ~ '21.03.07	온종합병원
북 구	구포역 앞 육교광장	8,085	7	0.09	'20.12.24 ~ '21.02.14	부민병원
기 장 군	*정관보건지소	62,320	6,949	11.15	'21.01.01 ~ '22.06.31	의사회 등
해 운 대 구	옛. 해운대역광장	7,876	6	0.08	'20.12.25 ~ '21.01.31	부민병원
사 상 구	사상역 인디스테이션	3,409	3	0.09	'20.12.28 ~ '21.01.24	의사회 등
영 도 구	남향대교 하부 친수공간	5,445	7	0.13	'20.12.28 ~ '21.01.24	의사회 등
금 정 구	온천천(장전동1번출구)	7,466	11	0.15	'20.12.30 ~ '21.01.24	의사회 등
남 구	백운포 체육공원	2,852	1	0.04	'20.12.30 ~ '21.01.17	성모병원
수 영 구	민락수변공원	3,639	7	0.19	'20.12.30 ~ '21.01.24	의사회 등
중 구	용두산공원	1,195	5	0.42	'20.12.31 ~ '21.01.24	의사회 등
서 구	구덕운동장	2,214	0	0.00	'21.01.07 ~ '21.01.24	의사회 등
사 하 구	다대 조각장	2,825	3	0.11	'21.01.08 ~ '21.01.24	의사회 등
동 래 구	동래역 하단 온천천	2,858	3	0.10	'21.01.08 ~ '21.01.24	의사회 등

* 정관지소 검사소는 '22. 6.30까지 운영

2차 임시선별진료소 시직영(10개소)

구 분		PCR 검사 (양성률 9.1%)			운영기간	비고
검 사 소		총 계 984,920	양성자 142,116	양성률 14.4 %	'21. 04. 08 ~ '23. 05. 31	
부 산 시 청 (등 대 광 장)		281,711	25,514	9.1	'21. 04. 15. ~ '23. 05. 31	
부 산 역		195,300	14,190	7.3	'21. 04. 08. ~ '23. 02. 19.	
해 운 대		161,981	20,699	12.8	'21. 07. 16. ~ '22. 06. 06	
부 산 서 부 버 스 터 미 널		126,742	23,516	18.6	'21. 09. 03. ~ '22. 06. 06	
동 래 역 환 승 센 터		71,560	17,062	23.8	'21. 04. 26. ~ '22. 05. 15.	
송 상 현 광 장		65,541	17,544	26.8	'21. 12. 23. ~ '22. 05. 15.	
다 대 포		16,671	7,720	46.3	'22. 03. 03. ~ '22. 04. 30.	
구 덕 운 동 장		10,508	4,637	44.1	'22. 03. 08. ~ '22. 04. 30.	
남 부 (부 산 문 화 회 관)		26,345	11,144	42.3	'22. 02. 04. ~ '22. 04. 24.	
서 면 (놀 이 마 루)		28,561	90	0.3	'21. 07. 27. ~ '21. 09. 18.	

부산형 임시선별검사소는 '임시선별(고정형)' [25개소]와 '찾아가는(이동형)' [126개소]으로 구분된다. 부산시는 12개 임시선별검사소(임시 10+기장군1+이동형1)를 동시에 운영하며 유전자 증폭검사(PCR) 및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였고, 총 1,420,666건의 운영실적을 보였다.

▶ 유전자 증폭검사(PCR): 1,207,753건

구 분		검사소	PCR검사	양성자	양성률	운영기간	비고
총 괄		151	1,207,539	149,351	12.3%	'20.12.19~'23.05.31	
임시선별 (고정형)	소계	25	1,172,536	149,223	12.7%	'20.12.19~'23.05.31	
	구·군	15	187,616	7,107	3.8%	'20.12.19~'21.03.07	강서구 미운영
	시청	10	984,920	142,116	14.4%	'21.04.08~'23.05.31	
찾아가는 이동형	시청	126	35,003	128	0.4%	'21.01.04~'22.09.11	

▶ 신속항원검사(RAT)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	양성자	양성률	운영기간	비고
10개소	213,127	15,270	7.1%	'22.1.29. ~ 4.10.	보건소 선별진료소 491,267건

한편, 부산형 선제적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시 직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시민건강 무한책임 대응'을 전개했다. 특히 부산시는 관문지역·다중밀집지·교통요충지에 검사소 설치, 폭염기 야간 운영, 주말·공휴일 연속운영, 모바일 선별진료소 혼잡도 (대기시간) 알림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고정형 임시선별검사소는 컨테이너 주문제작으로 폭염, 한파, 태풍을 대비하여 제작된 것으로 이동형 에어컨 및 난방기구가 실내 구비되어 있으며, 감염 관리 및 환기를 위해 여닫이문 형태로 제작 및 운영되었다.

더욱이, 시민건강 편의성 향상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 운영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다. 이 정책은 감염원 불명, 대중교통 종사자, 항운노조, 외국인 근로자, 공동어시장, 공단지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부산형 임시선별검사소의 구·군 운영, 시 직영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현장사진)



(연제구) 시청 녹음광장(등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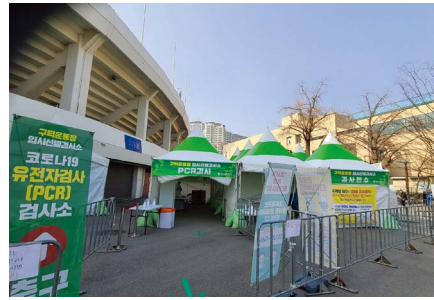


(연제구) 시청 녹음광장(등대) 2

○ (현장사진)



(중 구) 용두산 공원



(서 구) 구덕운동장



(동구) 부산역광장



(영도구) 남항대교 수변공원



(부산진구) 놀이마루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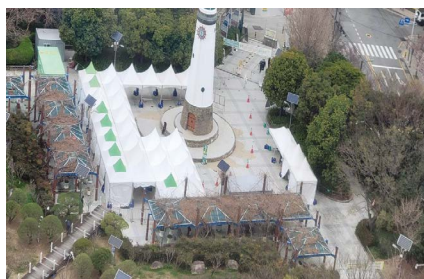
(해운대구) 옛 해운대역사



(남구) 문화회관



동래역 확승센터



부산시청 등대광장



부 산 역 (유라시아 플랫폼)

○ (현장사진)



부산서부버스터미널



해운대



부산시청 등대광장 (2023년 5월)



부산시청 등대광장 (2023년 5월)

▶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126개소)

구 분		PCR 검사			운영기간	비고
대 상	검사소 (126개소)	총 35,003	양성 128	양성률 0.36%	‘21.01.04~’22.09.11	
산업단지 및 대중교통중사자	17개소/동부·녹산산단, 교통기관(택시, 버스, 지하철)	12,155	0	0.00	‘21.01.4~’21.2.08	
영도구 주민	1개소(감염원 불명사례지속발생)	2,243	7	0.31	‘21.02.26~’21.03.07	
(외국인근로자)	94개소(고위험군)	5,718	4	0.07	‘21.03.04~’21.03.26	
수산물냉동냉장업체, 전문체육인	2개소 (고위험군, 선제검사)	1,820	2	0.11	‘21.03.29~’21.04.02	
사하구 주민	1개소(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집단발생)	4,426	21	0.49	‘21.04.04~’21.04.14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1개소 (고위험군, 선제검사)	1,352	0	0	‘21.05.11~’21.05.14	
부산공동어시장	1개소 (고위험군, 선제검사)	1,160	1	0.08	‘21.07.06~’21.07.12	
부산국제영화제	1개소	2,768	1	0.03	‘21.10.07.~’21.10.13	
신속대응 이동선별검사소	8개소	3,361	92	2.73	‘21.12.07.~’22.09.11	

○ (현장사진)



부산 공동어시장 1



부산 공동어시장 2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기장군 명례산업단지



대중교통 종사자(부산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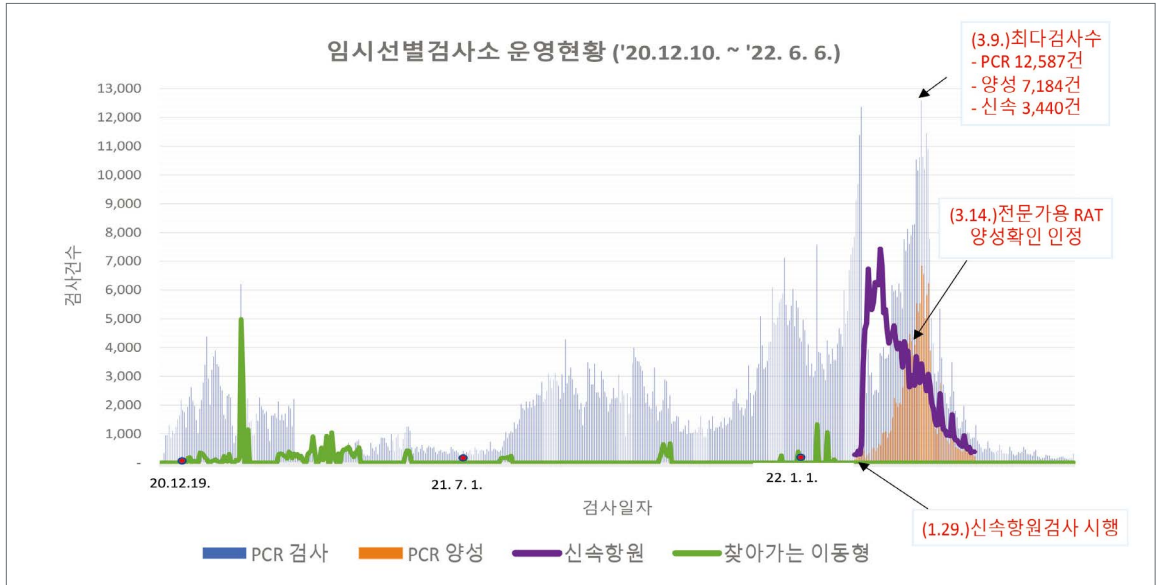
택시 운수 종사자

특히, 부산시는 16개 보건소 합동 대응으로 향운노조원 대상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35개팀 100명으로 구성된 지원인력은 21.2.4 ~ 21.2.8 기간 동안 감천항 향운노조원 지속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항만근로자(9,928명)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추진실적

주 관	항만별 조합원 수		이동 선별검사소 설치·운영		누계	검사(2.4.)	검사(2.5.)	검사(2.8.)	개별 검사	미 검사자
	지부	인원(명)	기간	장소		합계	합계	합계		
총계		9,286			9,150 (98.5%)	4,960 (53.4%)	3,108 (33.5%)	1,019 (11%)	63	136
사하구	남서 등4개	853	2.4~2.5(2일) 10:00~16:00	감천항 (구평부두 지부 주차장)	853 (100%)	453 (53.1%)	400 (46.9%)	-	0	0
서 구	감천 등3개	2,359	2.4~2.8(3일) 10:00~16:00	공동어시장 (공동어시장 주차장)	2,223 (94.2%)	1,017 (43.1%)	785 (33.3%)	401 (17%)	20	136**
중 구	남포동 2개	218	2.5.(1일) 10:00~16:00	북항연안여객터미널 (야외 주차장)	218 (100%)	-	218 (100%)	-	0	0
동 구	1항업 등 3개	1,076	2.4~2.5(2일) 10:00~16:00	북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	1,076 (100%)	927 (86.2%)	145 (13.5%)	-	4	0
남 구	인터지스 등4개	1,533	2.4~2.5(2일) 10:00~16:00	북항신선대부두 (BPT 신선대지부 사무실 1층 주차장)	1,533 (100%)	1,063 (69.3%)	431 (28.1%)	-	39	0
강서구	배후물류등 8개	3,247	2.4~2.8(3일) 10:00~16:00	부산신항 (PNIT 본관주차장)	3,247 (100%)	1,500 (46.2%)	1,129* (34.8%)	618 (19%)	0	0

운영 추이표 [주요시점 중심]



06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검사(Test)

부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부산시 직속 검사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대량검사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초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신속정확한 진단검사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 보건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대응 및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특성을 기반으로 역학조사 등의 방역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영남권역에 판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 virus)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험실 검사기법을 교육(1월17일-1월20일)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숙련도를 평가하기도 했다.

● 판코로나바이러스 실험실 검사법

일반 유전자 증폭검사법으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선별한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염기서열 분석)하는 2단계 절차로 1~2일의 시간이 소요됨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 유전자 검사법보다 검사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 검출검사 시행을 위해 양일(1월29일-1월30일)에 걸쳐 교육과 숙련도를 평가하며, 새로운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대비하였다.

● 실시간 유전자 검출검사법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특화된 검사체계로 한번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비교적 소요시간이 짧으며(6시간) 사용이 편리함

2020년 4월 15일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고 요양병원에서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취합(pooling)방식으로 시행하면서 검사비를 4배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비의 부담을 줄이고 선제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부산환경연구원은 2021년 1월부터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의 선제검사를 확대 시행하여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힘을 보태기도 했다. 2022년 3월 신속항원검사법 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PCR검사가 코로나19에 대한 유일한 양성 판별 검사법이었었고 민간 수탁기관이 대량검사가 가능해지기 전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은 초기 감염병 대응에서 빠르고 정확한 검사로 확진자 판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더욱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와 지역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에 큰 성과를 거뒀다.

2021년 7월 이후로 양성자를 찾기 위한 검사가 민간수탁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량 강화를 통해 변이바이러스(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하위변이 등)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런 바이러스 종 분석을 통하여 확진자의 변이 종류 및 부산시의 우세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여 감염확진자의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바이러스 특성에 따른 방역대응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연도별 및 월별 검사건수와 양성건수는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검사 현황]

연도별 검사실적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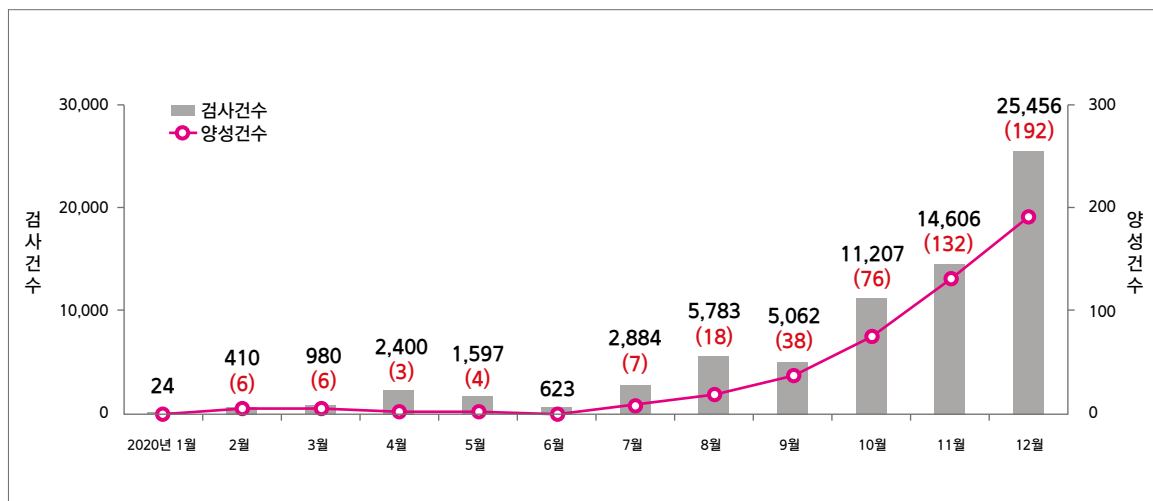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8월)	누적검사건수
검사건수	71,032	200,038	75,837	11,763	358,670
양성건수(양성률)	482 (0.7%)	1,091 (0.5%)	18,589 (24.5%)	142 (1.2%)	20,254 (5.6%)

2020년 1월 ~ 2023년 8월 월별 검사건수 및 양성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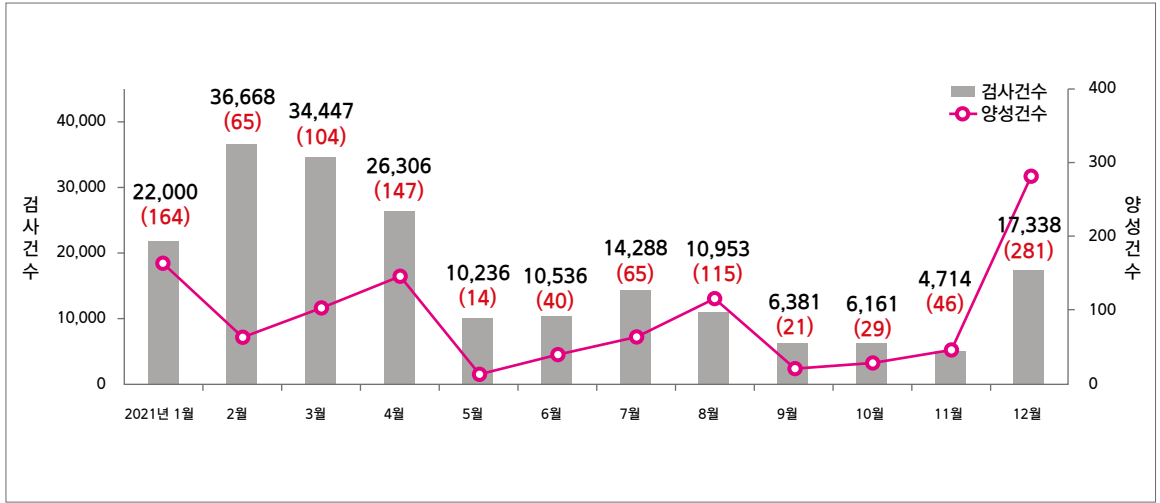
(단위 : 건)

연 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검사건수	24	410	980	2,400	1,597	623	2,884	5,783	5,062	11,207	14,606	25,456
	양성건수	0	6	6	3	4	0	7	18	38	76	132	192
2021	검사건수	22,000	36,668	34,447	26,306	10,236	10,536	14,288	10,953	6,381	6,161	4,714	17,348
	양성건수	164	65	104	147	14	40	65	115	21	29	46	281
2022	검사건수	17,365	14,904	16,193	2,752	1,310	1,074	2,602	8,641	2,396	2,032	3,004	3,564
	양성건수	241	4,910	8,854	1,110	211	54	444	2,477	82	39	72	95
2023	검사건수	2,956	2,087	1,707	1,684	1,851	154	809	515				
	양성건수	61	20	11	11	18	4	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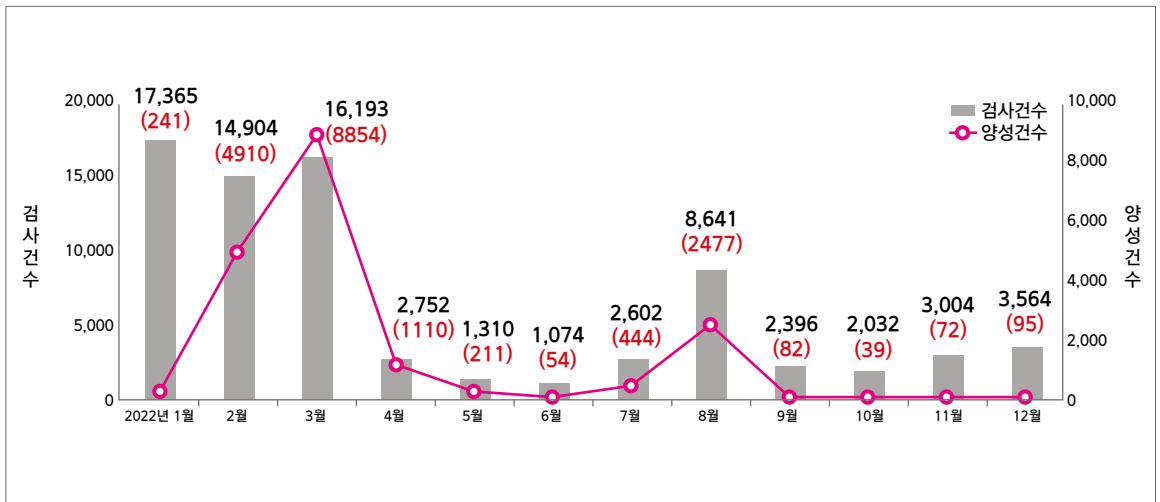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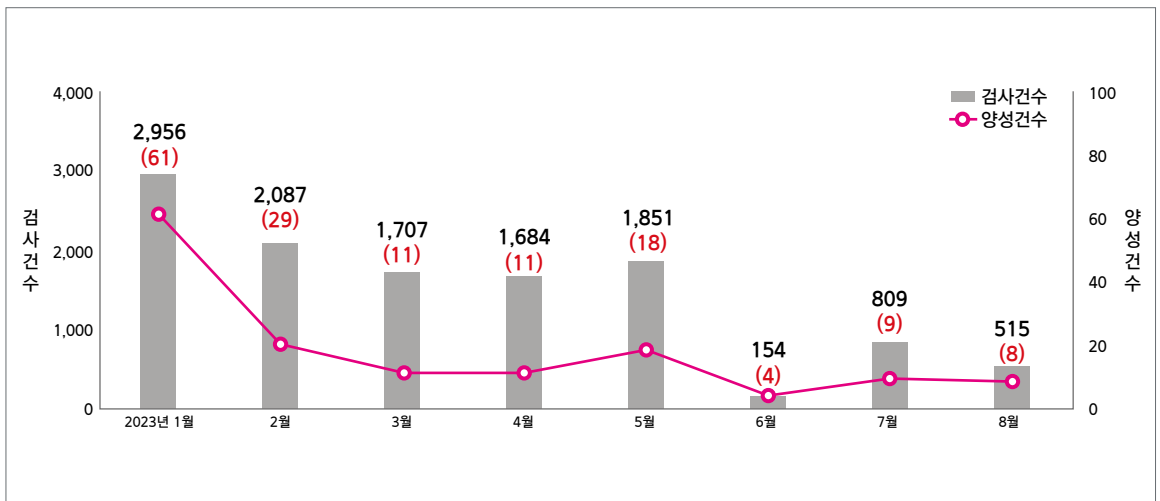
2021년



2022년



2023년



서면 놀이마루 임시선별검사소



출처 : 부산일보

2. 역학조사, 자가격리

01

역학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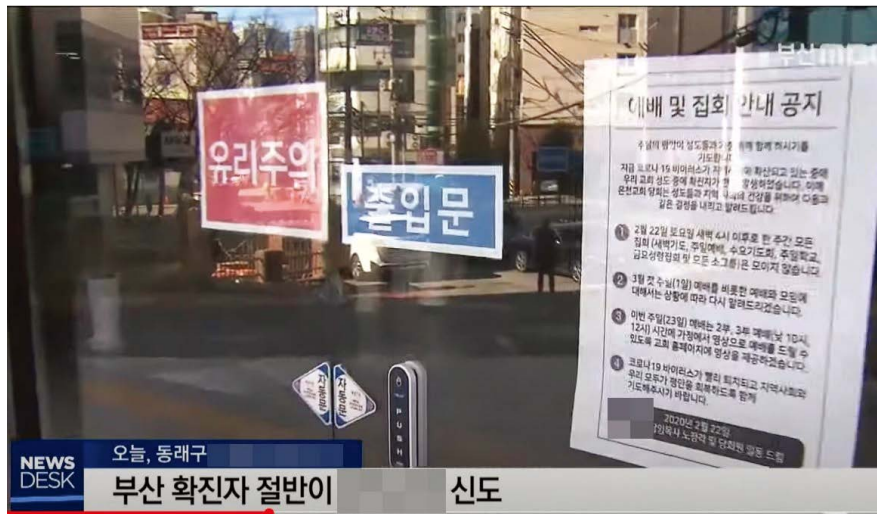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역학조사라고 한다.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발생 규모, 최초 감염원 추적, 전파위험 요인 파악 등을 위한 활동들이 역학조사이며 이를 통해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 지역사회로 확산을 방지한다. 기본적으로 확진자 면담, 현장확인을 통해 동선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였으며, 필요시 의료진 및 가족 인터뷰, 영업주 및 종업원 면담 조사, 핸드폰 위치정보, CCTV, 출입명부·카드사용 자료 등을 수집해 감염원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였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대상 동선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구·군 보건소의 인력난 해결과 신속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역학조사 즉각 대응팀(현장대응팀)을 운영했다. 2020년 2월 21일 부산 첫 확진환자(2명) 발생을 시작으로 현장대응팀은 구군의 확진자 발생 현장의 즉시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며 밀접접촉자의 분류와 접촉자 전수검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역학조사 현장대응팀은 부산형 선제적 대응조치로 구·군 보건소의 인력난과 전문 역학조사관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정보를 제공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매일 하는 브리핑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즉각 방역소독하고,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조치를 실시했다.

역학조사 절차

사례 구분	기초 역학조사	심층 역학조사	접촉자 분류	결과 보고
확진환자 발생시	기초역학 조사 실시	확진자·접촉자 인터뷰	접촉자 범위 설정	재대본, 질병관리청 보고
		현장조사 (필요시)		시스템 등록
집단시설 환자 발생시	확진자 기초 역학조사 실시	확진자, 시설 관리자 인터뷰	접촉자 범위 설정	재대본, 질병관리청 보고
		현장조사 실시 후 위험도 평가	시설격리, 시설폐쇄결정 (필요시)	

1. 부산 최초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과 전국 최초 코호트 격리

부산 최초의 코로나19 집단감염(34명)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동래구 소재의 ○○교회로 부산시 코로나19 1번 환자 발생에 따른 지역감염 확산사례이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1번 확진자는 선별검사 이틀전 2월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력을 확인했다. 전국이 대구 신천지 교회의 집단감염으로 민감한 시기로 종교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회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의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인 8명이 추가 확진 되었고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24일 다시 1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총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첫 확진자 이후 부산시 감염병 당국 및 동래구 보건소의 노력과 ○○교회의 협조로 추가적인 확산을 줄일 수 있었다.



출처 : 부산 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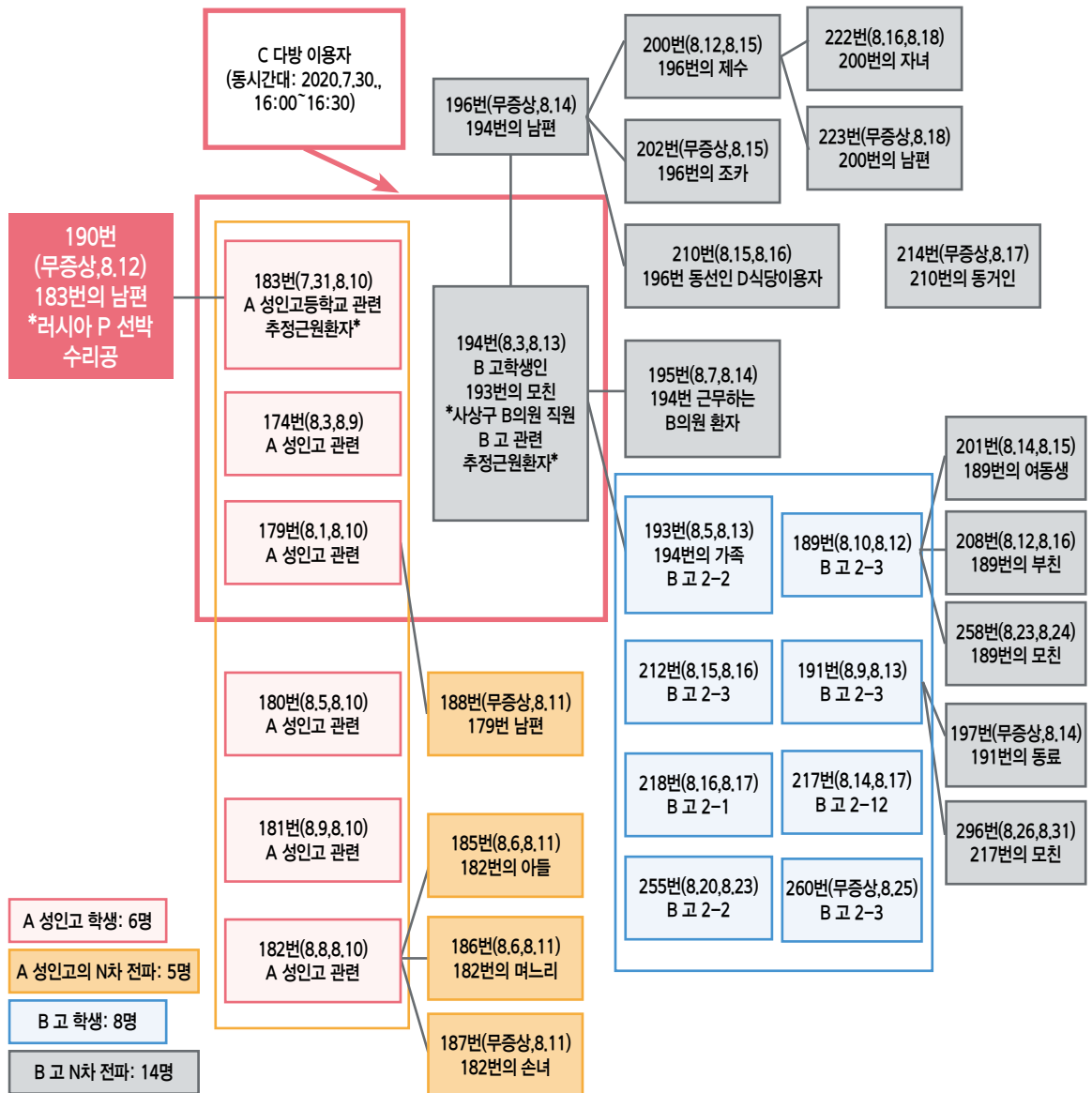
2020년 2월 24일 일부 확진자 중 ○○요양병원의 직원으로 확인되어 관련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시행하였다. 이는 전국 최초의 코호트 격리사례가 되었다. 요양병원의 접촉자들은 노령과 기저질환의 입원환자로 접촉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였다. 요양병원의 종사자들이 자가격리와 코호트 관리로 전환되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군 보건소 간호사 인력지원을 받아 10명을 배치하였으며 밀접 접촉자가 아닌 직원은 근처 호텔에서 숙박을 하며 매일 증상체크 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인력이 ○○요양병원에 상주하여 감염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감염관리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적극 지원 하였고 환자 및 직원 315명 전체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격리해제를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2020년 3월 11일 0시부로 최종 격리해제 하였다.

부산시와 연세구보건소가 즉각적인 대응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격리할 수 있었고 추가 접촉자 확인과 접촉자 자가격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된 동선은 즉시 방역 소독하였다. 전국적인 코로나19 대량 확산 상황에서도 3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코호트 격리로 평가된다. ○○요양병원은 북구 소재의 다른 요양병원 집단발생 상황에서 격리요양병원 역할을 하였고, 대규모의 요양병원 환자 접촉자를 관리하여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공헌하였다.

2. 향만을 통한 확진자 사례 속출

2020년 7월 부산항에 정박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러시아 관련 선박 전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000선박에서 두 자릿수의 외국인 선원들의 확진이 확인되었고, 해당 선박을 수리하던 우리나라 수리공도 확진 되었다. 이 수리공의 가족에 의해 학교로 2차 및 3차 전파가 발생하였다. 해당 그룹의 확진자 유전자 분석 결과 러시아에서 유행하는 GR바이러스 그룹으로 확인되었고, 러시아 선박에서 지역사회로 N차 감염을 일으킨 첫 사례였다.

▶ 러시아 수리공 확진자의 지역사례 확산 도식도



출처: 이정민팀장, 부산항방역의료대안 워크샵 자료

러시아 선원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격리치료 중인 부산의료원으로 러시아 통역사와 시역학조사관이 동행하여 역학조사를 이행하였다. 또한 접촉자 파악 과정에서 여러 업체 등이 해당 선박과 교류가 있었고, 러시아 확진자와 접촉자 간의 접촉력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접촉자 명단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선박 출입자에 대한 QR 코드 도입 행정명령이 2020년 8월 19일에 시행 되었다. 항만도시인 부산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해외 선박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사례이며 역학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차단 할 수 있었다.



감천항 러시아 확진자 대응 관계기관 회의 모습

3. 중구 콜센터 집단감염 등 대규모 검사

2020년 8월 부산 중구 00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지표 환자는 콜센터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이었던 박00으로 7월 31일부터 목이 아프고 미열이 있어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월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허00과 중앙동 식당에서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 환자의 사업장 직원 848명 중 접촉자 568명을 검사한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조사 결과, 주요 노출 대상은 7월 28일 ~ 8월 5일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16층 사무실 근무한 자 및 다른 층에서 이동 근무한 자로 파악되었다. 방역관리 위원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이용자 간 1m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으로 밀집도가 높아 감염전파에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원 휴게실 및 층간 이동근무를 제한하였고 노출자(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및 능동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단계가 조정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4. 북구 요양병원 집단확진과 전국 최초 동 단위 ‘특별방역구역’ 지정

북구의 만덕동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목욕탕과 식당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10월 한달동안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에 북구 000요양병원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이 확진이 되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52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수치로 당시 부산시가 전국 하루 확진자의 57%를 차지하였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10월 12일)에서 이를 지난 시기임에 국무총리가 직접 부산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부산시민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주의를 재환기시켰다.



2020년 9~10월 기간 동안 부산시의 16개 구·군 중 특히 북구 만덕동에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21.8명으로 부산시 평균 3.6명 대비 약 7배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감염경로 불명률이 부산시 전체는 16.1%인 것에 비해 북구 만덕동은 31%로 감염경로 불명률이 높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시는 동 단위 특별방역구역을 지정하는 핀셋방역을 실시하였다.



만덕동 확진자 수 및 감염경로 불명율

구분	확진자 수(명)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명)	감염경로불명자(불명율)
부산시	124	3.6명	20명(16.1%)
북구	16	5.6명	5명(31%)
만덕동	13	21.8명	4명(31%)

출처: 이정민, 부산형 방역의료대안 워크샵 자료

만덕동을 대상으로 주요시설 위험도 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공원 등을 출입제한 하였고 일반음식점(358), 휴게음식점(83), 제과점(15)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효되었다.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활동, 지역주민홍보, 시설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였고 집합제한 대상 업소 466개소에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하였다.

5. 동구 요양병원 코로나19 집단발생에 따른 코호트 격리

2020년 11월 25일 동구 00요양병원 31병동 직원00(1명)가 코로나19 확진되어 요양병원 전체를 전수조사 하였고 최종적으로 요양병원 전체를 봉쇄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였다. 최종확진자 147명(환자 120명, 종사자 27명)이 발생한 사건으로 2020년 11월 26일 ~ 2021년 1월 27일간 전체 또는 부분 코호트를 실시하여 2021년 1월 27일 48일 만에 격리가 해제되었다.

특히, 입원환자 확진자 120명 중 97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그 외 확진자는 동아대병원, 해운대백병원, 고신대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다. 11월 26일부터 48일간의 기간 동안 직원 및 입원환자 전체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 행정, 이송, 격리, 비접촉

환자 요양의 돌봄을 위해 20여 명 이상의 보건소 인력이 10회 이상 투입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의료인력이 확진자,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어 업무가 배제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간호인력 15여 명을 지원받아 의료인력을 충원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사태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보건소가 상호 적극적 교류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이다.

6. 사상구 00교회

부산 000번 확진자가 2020년 11월 2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00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12월 8일까지 교인 35명과 2차 감염자 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그 규모가 40명을 넘어섰다.

첫 확진자로 보고된 부산 000번 환자는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소 관련 서울 광진구 000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11월 22일 부산 사상구 소재 00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감염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00교회는 등록 신도가 100여명 정도인 소규모 교회로 22일 예배에 참석한 3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종교시설은 방역소독 후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하였고, 00교회 관련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22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교인까지 총 64명을 전수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교인 3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

역학조사 상, 교회 목사는 설교 시간에만 잠깐 마스크를 벗었고 교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교회 내 소모임 및 대면 식사를 하지 않았고 성가대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확진율을 보여 파악되지 못한 집단 취식행위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강서구 물류센터 확진 발생과 지역사회전파 차단

강서구 소재 000 부산허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2명(2020년 12월 18일과 19일)이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에 대한 전수 조사 검사를 실시했다.

000 부산 물류 센터 검사현황

(단위: 명)

총 검사자 수	직원	코로나19 확진자	협력업체 직원	가족
770	502	2	244	22

확진자 접촉자가 770명이나 되는 대규모 확진 사례로, 접촉자 768명 중 직원 502명, 협력업체 직원 244명, 가족 22명이었으며, 코로나19 검사는 확진자 접촉자 전수검사로 진행되었다.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12월 18일에 000 부산허브센터 교육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질병관리청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4명, 부산시 역학조사관 2명, 보건소 직원, 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역학조사 관련 회의를 실시하였다. 시 역학조사관 결정에 따라 집단발생 조치사항이 내려졌는데, 확진자 증상 발생 3일 전부터는 전파 가능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총 388명 접촉자를 파악하였다. 이 접촉자를 지침에 따라 92명은 밀접접촉으로 분류하여 자가격리 시키고 일반 접촉자 296명은 물류센터 업무 중단으로 일어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자(직장근무 가능하나 퇴근 후 자가격리하는 방식)로 분류하여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자가격리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후 실시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대상자 전원 음성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지역사회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8. 감천항 향운노조원 및 수산업 근로자 관련 확진 사례

2021년 1월 13일 부산 향운노조 감천지부와 관련하여 부두 종사자가 확진되었고 동료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확진자가 자성대 부두에서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성대 부두, 감만 부두, 신선대 부두 등 북항 내 접촉 근로자 430명을 추가 검사하였다. 부산시는 종사자 및 가족 107명에 대해 자가 격리 명령을 하고 감천항 입항 선박에 대한 검역 강화와 향운노조원 1만 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였다. 사하구 감천항, 서구 공동어시장, 중구 북항연안여객터미널, 동구 북항국제여객터미널, 남구 북항신선대부두, 강서구 부산신항에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9,15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항만 관련 종사자 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이다.

이후 2021년 6월 수산업 근로자 관련 확진자 감염 사례가 또 발생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델타변이 유행 국가인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며 수산업 근로자에게 집단감염을 일으킨 사건이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은 입국 시 인도네시아에서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입국 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조업 기간 동안 선박에서 내·외국인 다수가 밀접생활하며 집단감염을 일으켰다. 관련 부두 종사자들의 지역 전파로 이어질 것을 대비하여 부산시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근해어업 어선원(선주 포함)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72시간 이내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산공동어시장에 이동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종사자 1,160명을 선제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수산업 시설 주변 유흥시설 등에 대한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하였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근해어업 어선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61(2021.6.25.)호]을 하여 처분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선척항을 두거나 위판장을 이용하는 근해어선 선주 및 승선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 ▶ 근해어업 조업을 위하여 출항 준비 중인 어선원은 출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 처분 기간(2021.6.25.) 이전 출항한 어선원이 처분 기간 내 부산광역시로 입항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 행정명령일 이후 진단검사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출항 시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9. 수영구 댄스 동호회와 해운대구 다중이용시설(대형 목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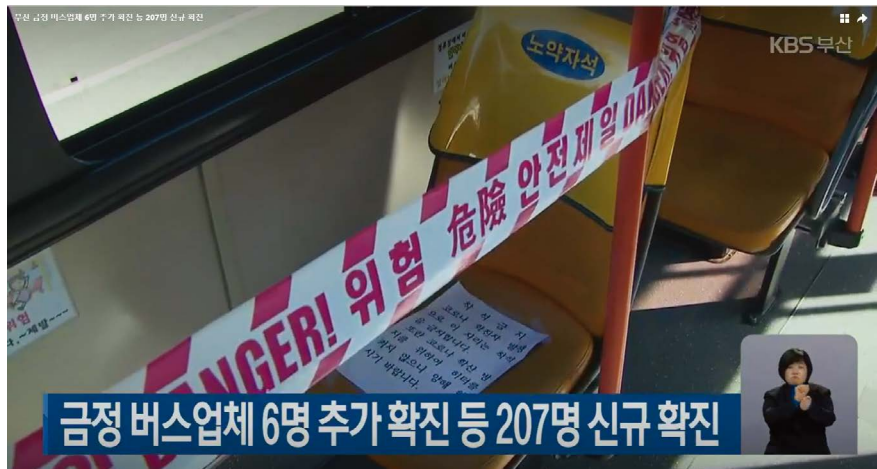
2021년 5월 13일 000온천 이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 시간 이용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 확진자는 5월 6일부터 5월 11일 동안 해당 온천을 이용하였고 해당 온천 이용객 286명을 조사한 결과 6명이 추가로 확진 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해운대구 온천 확진자의 추정 감염경로는 수영구의 oo동 댄스 동호회로, 댄스 동호회 이용자에 대한 전수검사서에서 총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수영구 소재 댄스 동호회 회원들 간의 집단감염이 해운대온천 이용자에게로

확장된 사례다. 수영구와 해운대구보건소는 유선전화를 통한 구두진술 등을 통해 확진자와 동시간 이용자 총 1,002명을 확인하고, 자가격리(452명), 능동감시(30명), 검사(688명)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집합금지(일시폐쇄) 행정명령을 하여 추가 지역 확산을 막았다.



10. 오미크론 첫 집단감염, 금정공영차고지에서

2021년 12월 30일 금정공영차고지 관련 최초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여 부산시의 오미크론 첫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첫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자 차고지 내 버스와 사무실 등을 소독하고, 체력단련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폐쇄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 대응계획이 논의 되었고 부산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0~30% 버스 감축 운영을 결정하고 버스 내 방역도 강화했다. 운전석 바로 뒤 1개 좌석과 앞 출입문 뒤 2개 좌석 이용을 금지하였으며 난방 역시 사용 금지 하였고 더불어 버스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11. 영도구 학원집단 발생

2022년 1월 31일 영도구 관내 A학원에서 강사 1명과 초등학생 2명이 확진되었다. (A학원은 학생 155명과 강사 10명으로 구성된 중·대형 학원) 역학조사 결과 강사 9명은 능동감시, 밀접접촉자인 학원생 67명은 격리 조치하였으며, 그 외 88명의 학원생을 대상으로 PCR검사를 실시하였다. A학원은 영도구 내 초등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대응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확진자 2명과 관련한 초등학교 1개교에 대해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6명의 격리와 16명의 수동감시 조치를 하였다.

2022년 2월 1일 A학원생 13명과 강사 2명의 추가 확진이 발생하여 학원 내 75명의 격리와 10명의 능동감시, 41명의 수동감시 관리를 추가하였고, 접촉자 관련 5개의 초등학교 내 53명의 격리자와 119명의 능동감시자, 6명의 수동감시자를 관리하였다.

2022년 2월 2일 A학원 관련 추가 확진자가 15명(누적 33명) 발생함에 따라 학원 내 격리자가 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개의 초등학교도 동선에 추가됨에 따라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능동·수동 감시자 수도 증가하였다. 추가 확진자 중 유치원생이 포함되어 유치원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차적 확진자의 원생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생 10명, 교사 1명 추가로 확진되어 유치원 전수검사도 시행하였다. 학원의 집단발생이 초등학교 7곳과 유치원 1곳 그리고 가족 간 감염, 그리고 직장으로 번져 N차 감염이 겹잡을 수 없이 일어난 사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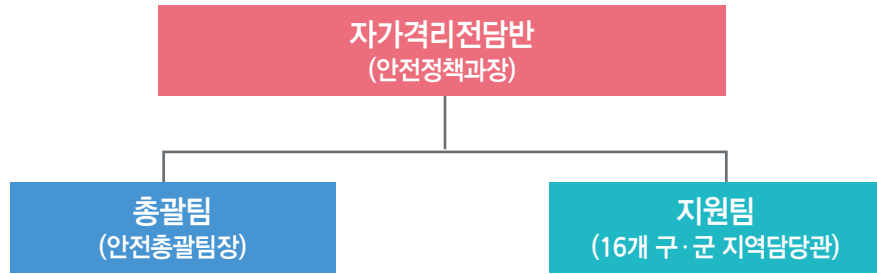
오미크론 변이 시기에는 전파력이 높고 확진자의 규모도 커서 유선이나 CCTV, 카드내역으로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를 추정하는 방식의 역학조사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2022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의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기입식역학조사서로 변경되고 밀접접촉자의 범위도 동거 가족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부산시의 방역대응도 동선을 확인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변경 되었다.

1. 자가격리 개요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는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동선과 감염경로가 겹치는 가족, 동거인 등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들을 최대잠복기(14일) 동안 격리하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을 지칭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 14일, 부산시는 안전정책과장을 전담반장으로 하여 자가격리전담반을 구성하였다. 자가격리전담반은 부산시 자가격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총괄반과 16개 구·군 지역담당관으로 구성된 지원팀으로 구성되었다.

자가격리전담반에서는 자가격리자(접촉자 포함)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며, 지역담당관제 운영을 통해 부산시 내 16개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격리해제일까지 구·군 전담공무원 1:1 전담제 지정,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의 자택 무단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였으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16개 구·군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과 현장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자가격리 물품지원, 관리방법을 마련해 자가격리자 중심 지원 및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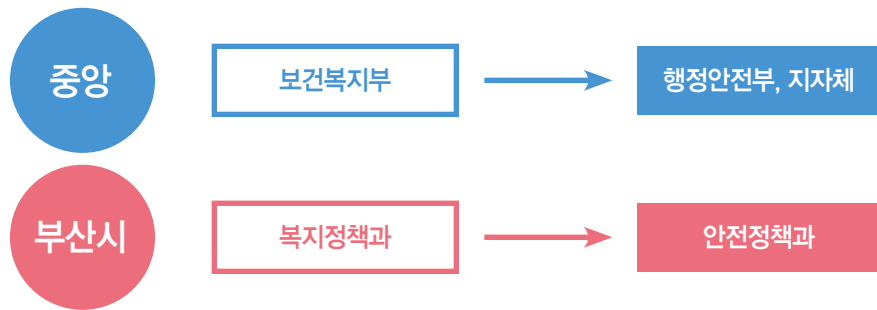
자가격리전담반 구성 조직도



2. 추진사항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접촉자 2명에 대한 1:1 전담 공무원 지정 후 능동감시(1일 2회 유선확인)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자가격리의 시초가 되었다.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대응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즉각적인 코로나19 총괄 비상업무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메커니즘을 재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가격리전담반을 2020년 2월 14일 구성하였고, 기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부산시는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에 대해 행정안전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가격리자 책임담당관 지정 및 업무 일원화, 자가격리자 현황 파악 및 결과공유(매일), 경찰청·소방·병원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하였다.

자가격리자 총괄 업무체계 전환



자가격리 업무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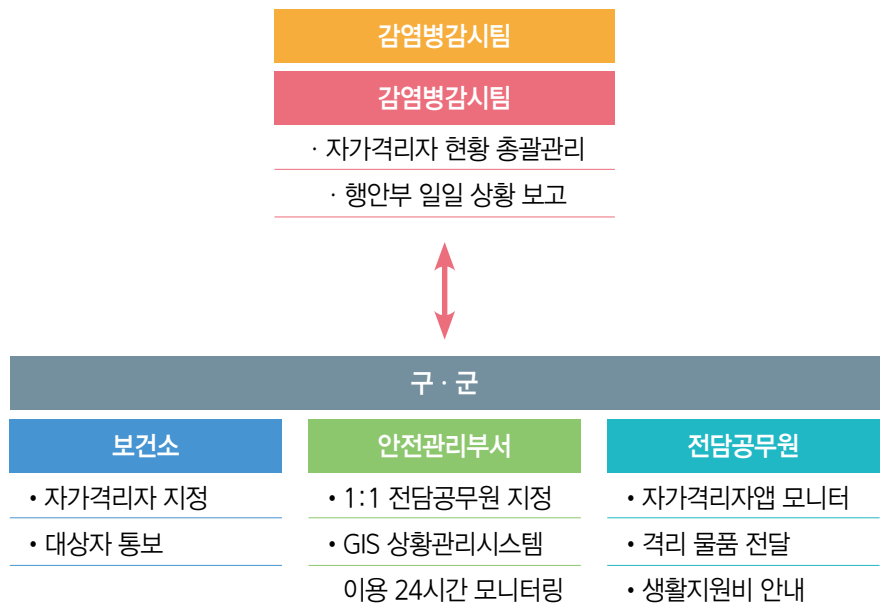
일자	근무반(부서명)	내용	비고
'20.2.1.	격리지원반(복지정책과)	자가격리자 감시 및 생활 지원	
'20.2.23.	격리지원반(복지정책과)	생활곤란자 생활안정 지원 등	자가격리전담반, 중국유학생 지원반 추가
	자가격리전담반(안전정책과)	자가격리자 전담 관리	
'22.2.11.	자가격리전담반(안전정책과)	행정안전센터 민원 응대	자가격리제도 폐지('22. 2. 11.)

3. 자가격리 절차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참석자 등 위험지역 노출자, 확진자 접촉 등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는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이후 부산시 자가격리 전담관리반에서는 전담공무원에게 자가격리자(5명 이내)를 배정하며, 자가격리 관리가 실시된다. 자가격리 관리 전담공무원은 일일 3회(10시, 20시, 임의시간) 코로나19 증상 모니터링을 유선으로 확인, 자가격리앱 설치 안내,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 및 수령증을 징구한다. 또한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쌀, 라면, 생수 등)과 위생키트(체온계, 소독제 등) 전달하며 생활수칙 안내, 애로 및 불편 사항을 접수받아 처리하며 최종적으로 GIS 상황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상시로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 GIS상황관리시스템 : 재난상황의 관리와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전자지도(GIS)에 표출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에 쉽게 상황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

자가격리 절차 및 보고체계



부산시에서는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관리 업무 전반에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GIS상황관리시스템 연동 및 자가격리앱 설치가 필요하나 휴대폰 미소지자 및 2G폰 소지자 등 자가격리자앱 설치가 불가능한 시민들에게는 임대폰을 지원하였다. 또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지원 물품 지원을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 격리 상황에 맞게 조정·확대 운영하였다. 특히 유흥업소발 집단감염('21. 3. 26.) 이후 자가격리자 수가 대폭 증가하자 시·구·군 협치회의('21. 4. 19.)를 통해 시 구·군의 생필품 구입예산을 지원 요청하였다. 그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통해 16개 구·군을 지원하였으며, 구·군별 자가격리자 발생자 수('21년 3월 26일 ~ 6월 20일) 대비 구·군별 1명당 생필품 평균 지원 단가(40천원)의 50%(20천원)를

지원하였고, 총 1,687백 만원을 지원하였다. (1차('21년 5월) 1,034백 만원, 2차('21년 7월) 653백 만원)

한편 자가격리자 지원과 더불어 현장점검 및 관리 또한 철저히 시행하였다. 2020년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로 관리 대상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구·군 전담공무원의 유선전화, 자가격리앱만으로는 격리자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경찰과 합동 현장점검반(16개반 48명)을 편성하여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구·군별 자가격리자 자택 등을 방문하여 격리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였다. 3인 1조로 구성된 시·경찰 합동 현장점검반은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할 시 즉시 고발 조치를 시행하였고, (내국인 :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외국인 : 강제출국 조치) 이탈자에 대한 코드 제로 발동으로 신원 확인 후 철저히 격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운영 기간 동안 19,499명을 불시 점검하여 이탈자 392명을 적발하였다.(송치 268명, 외국인청 통보 12명, 계도 86명, 기타 조치 26명)

자가격리자 및 격리 기간 중대본 지침 변경 사항

일자	내용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14일 자가격리
'22.1.4.	확진자, 밀접접촉자 10일 자가격리
'22.1.26	접종완료자 : 확진자 자가격리 7일변경 3일 권고 밀접접촉자 격리없이
	접종미완료자 : 확진자 10일 격리, 밀접접촉자는 7일격리 3일 주의권고
'22.4.1.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2.4.25.	접촉자 자가격리 해지 확진자만 자가격리
'23.6.1.	5일 자가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

자가격리 업무 상세 추진내역

일자	내용	비고
'20.2.13.	자가격리자 관리 총괄업무 행안부와 지자체(행안부 재난현장협력과-343)	
'20.2.14.	자가격리자 전담반 구성 · 운영(재난대응과-2583)	
'20.4.1.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관리(중대본-395)	
'20.4.3.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반 운영(안전정책과-4127)	
'20.4.16.	자가격리자 임대 휴대폰 지원(안전정책과-4634)	
'20.4.27.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 조치(안전정책과-5020)	

일자	내용	비고
'20.7.2.	취약시간대(야간 등)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강화(안전정책과-7552)	
'20.9.9.	2020년 추석 연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반 정상 가동(안전정책과-10344)	
'20.11.10.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이탈자 원칙적 고발 조치(중대본-2679)	
'21.2.1.	2021년 설 연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반 정상 가동(안전정책과-1637)	
'21.3.25.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부터 이동 상황 모니터링 철저(중대본-1227)	
'21.4.29.	구·군에 대한 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1,881백만원 지원계획(안전정책과-5459)	
'21.9.7.	2021년 추석 연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반 정상 가동(안전정책과-10792)	
'22.2.10.	자가격리 폐지 및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자 격리방식 개편(중수본-6333)	
'22.2.24.	자가격리자 임대폰 운영 종료(안전정책과-2726)	

4. 운영결과

2022년 2월 11일 기준 부산시 자가격리자 발생자 수는 국내 발생 276,331명, 해외 입국 73,526명으로 총 349,857명이 집계되었다. 부산시의 자가격리 및 접촉자 관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자가격리 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기에 파악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였으며, 특히 치명률은 낮지만 전파력은 높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가 등장하자 바이러스 특성에 맞게 방역체계를 전환하였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동반된 자율적 방역으로 참여를 유도하였다.

3. 병상 관리

2020년 2월 21일 부산시 관할 내 첫 확진자(2명)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산시는 확진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와 함께 부산의료원에 즉각 입원토록 하여 관리하였다. 부산시는 제1차 비수도권 중심 코로나 유행을 촉발시킨 대구 소재 종교단체 대규모(556명)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위기 경보단계의 격상(경계 → 심각)에 준해 능동적으로 임시 격리시설을 (2020.2. 23.) 설치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이 임시 격리시설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의 집단감염 발생 사태 대비를 위한 주요 조치이다. 감염병전담 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등의 감염병 재난 상황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2019.04)에 따라서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의료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대동병원, 좋은 강안병원, 부민병원을 지정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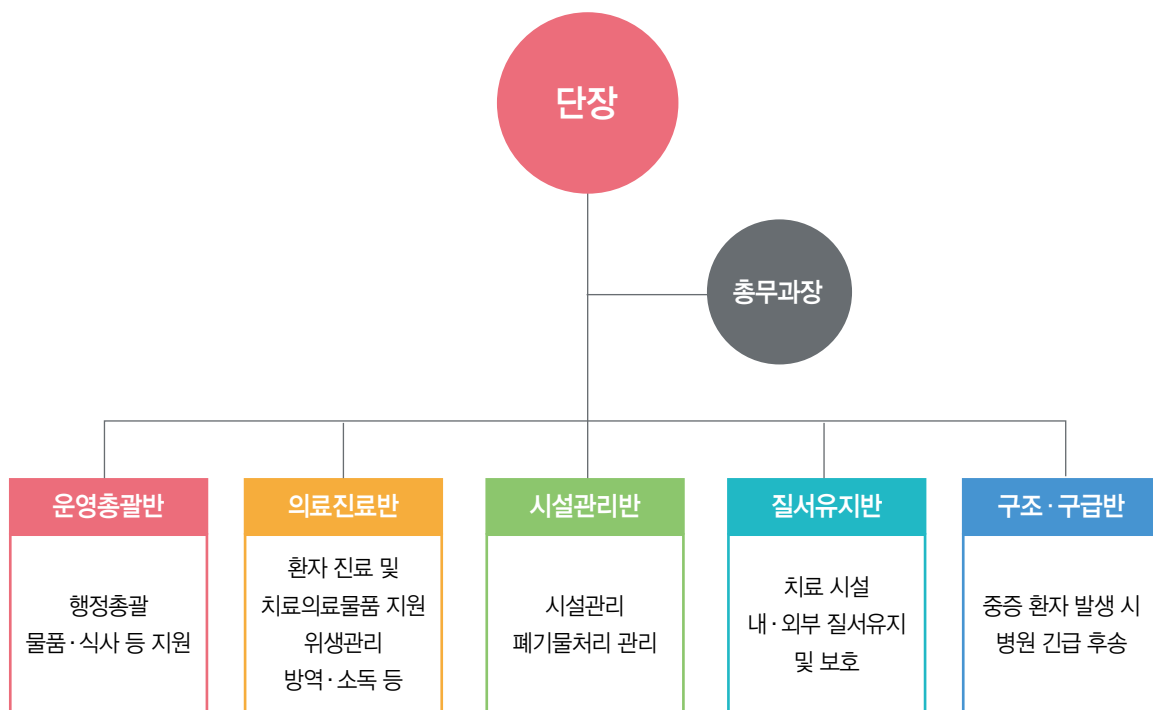


출처: 부산의료원 홍보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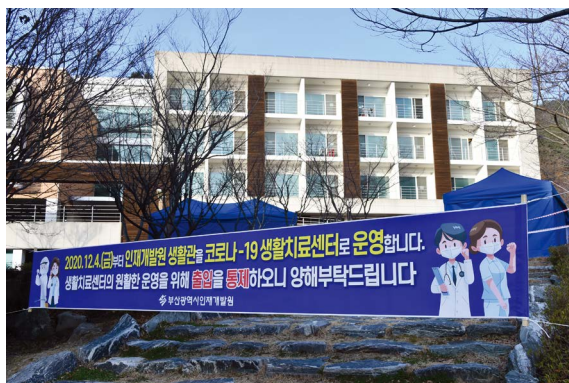
생활치료센터

부산시는 생활치료센터 3개소를 운영하며 2020년 12월경의 경증 확진자 대상 수용시설의 필요에 대응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첫 시기인 2020년은 치료제와 예방접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 관리의 일환으로 별도의 시설이 필요했다. 따라서, 확진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후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과 치료를 병행하는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였다. 부산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생활치료센터는 24시간 운영체제로 군인 등 일부 인력이 상주하고 그 외 인력은 교대근무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

부산시는 임시생활시설인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운영(2020년12월4일)하고 순차적으로 부산은행연수원과 부경대학교 기숙사를 추가로 운영하였다. 2020.12월에 개소한 3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0개 시설을 확진자의 유행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경남권의 사천과 양산지역의 생활치료센터를 공동 운영하며 부·울·경 권역 단위의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감염병 의료 대응에 나섰다.



▶ 부산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시설명	운영기간	정원	협력병원	운영담당	건강관리담당	누적 입소인원
부산1 (부산시 인재개발원)	20.12.4.~ 22.5.31.	130	부산의료원	총무과	보건위생과	3,944명
부산2 (부산은행 연수원)	20.12.14.~ 21.1.29.	75	부산 운영 종료 후 21.12.31.까지 울산 제1생활치료센터로 울산에서 사용			166명
부산3 (부경대 기숙사)	20.12.21.~ 21.9.15.	103	고신대병원	총무과	보건위생과	1,639명
부산4 (커넥트 호텔)	21.7.24.~ 22.4.27.	270	동아대병원	총무과	예방접종 추진단	5,121명
부산5 (해양대 기숙사)	21.7.29.~ 21.9.15.	450	부산백병원	총무과	시민방역 추진단	690명
부산6 (토○○○ 해운대)	21.8.18.~ 22.4.17.	550	해운대백병원	총무과	건강정책과	5,984명
부산7 (토○○○ 서면)	21.12.14.~ 22.3.28.	315	부산백병원	총무과	보건위생과	2,077명
부산8 (라○○ 호텔)	22.1.12.~ 22.5.11.	584	고신대병원	총무과	건강정책과	2,961명
경남권1 (사천 KB손해보험 연수원)	20.11.30.~ 21.11.30.	170	부산, 울산, 경남 공동운영			
경남권2 (양산 ○○○○ 리조트)	21.4.21.~ 22.4.9.	388	부산, 울산, 경남 공동운영			

한편, 생활치료센터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의료 인력·의료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였고 부산시 공무원과 구군 의료지원반을 추가 편성하여 인력지원을 하였다. 식사는 1식 3회 일회용 도시락을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환자를 진료하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진료 공간을 확보하고 급수·배수시설, 세탁시설 및 비상재해대비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폐기물처리를 위한 공간을 설비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였다.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소 여부가 결정되고 입소자는 1인실 또는 다인실에 격리되어 생활하며, 의료진의 진료와 치료도 받을 수 있다. 격리 기간은 기본적으로 10일이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격리 기간은 유행시기별 격리 기간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고 오미크론 변이 이후 생활 치료 센터는 단계적으로 감축 운영하였다. 부산 제1생활치료센터인 인재개발원은 2022년 5월 31일을 끝으로 운영 종료하였다.

02

감염병전담병상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54개 병상을 확보하는 등 감염병 병상 동원에 미리 준비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주의-->경계) 격상에 따른 부산시의 적극적 대응 체계로 일반 격리병상 254개와 음압 병상 95개를 확보하였다.

▣ 병원별 음압병상 및 의료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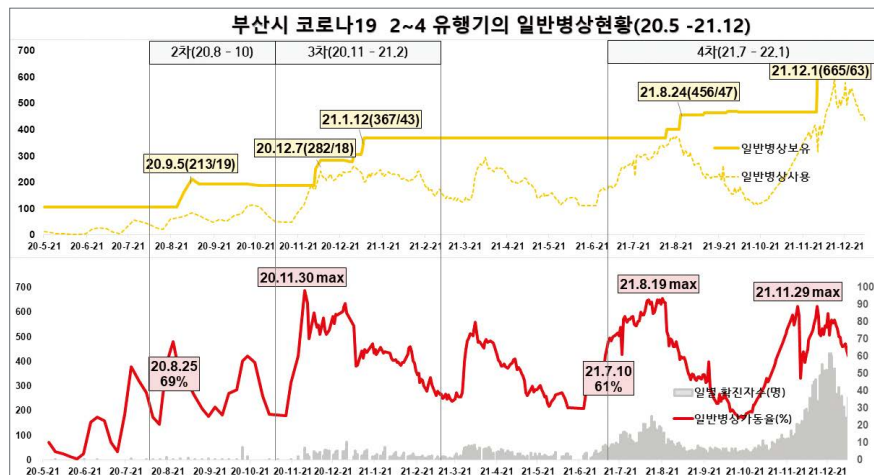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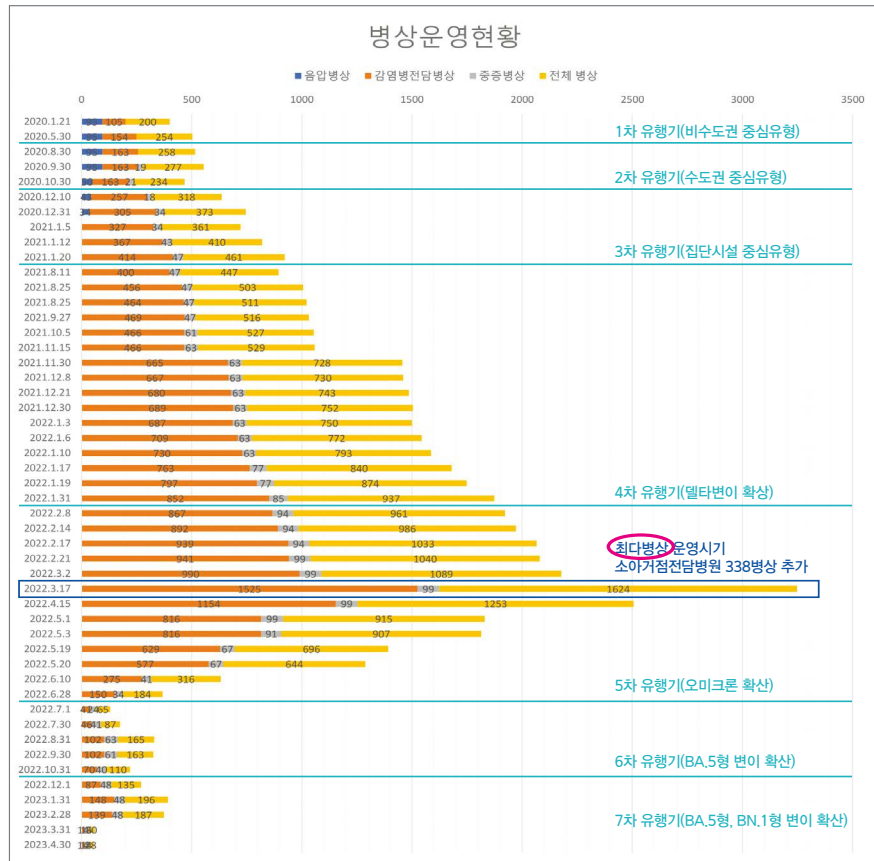
연번	병 원 명	음압 병상					비 고
		총병상	사용 중			잔여	
			소계	코로나*	타질환 등		
총 계		95	81	33	48	14	
1	동 아 대 학 교 병 원	11	11	1	10	0	
2	인 제 대 학 교 부 산 백 병 원	8	7	4	3	1	
3	부 산 대 학 교 병 원	26	24	22	2	2	
4	고 신 대 학 교 복 음 병 원	4	4	2	2	0	
5	줄 은 삼 선 병 원	1	1	0	1	0	
6	대 동 병 원	3	2	0	2	1	
7	인 제 대 학 교 해 운 대 백 병 원	8	5	4	1	3	
8	부 민 병 원	2	2	0	2	0	
9	줄 은 강 안 병 원	2	2	0	2	0	
10	광 해 병 원	1	0	0	0	1	
11	부 산 성 모 병 원	2	0	0	0	2	
12	부 산 보 훈 병 원	3	2	0	2	1	
13	온 중 합 병 원	2	1	0	1	1	
14	삼 욱 부 산 병 원	2	2	0	2	0	
15	메 리 놀 병 원	1	1	0	1	0	
16	줄 은 문 화 병 원	2	0	0	0	2	
17	해운대부민병원	4	4	0	4	0	
18	부산광역시의료원	13	13	0	13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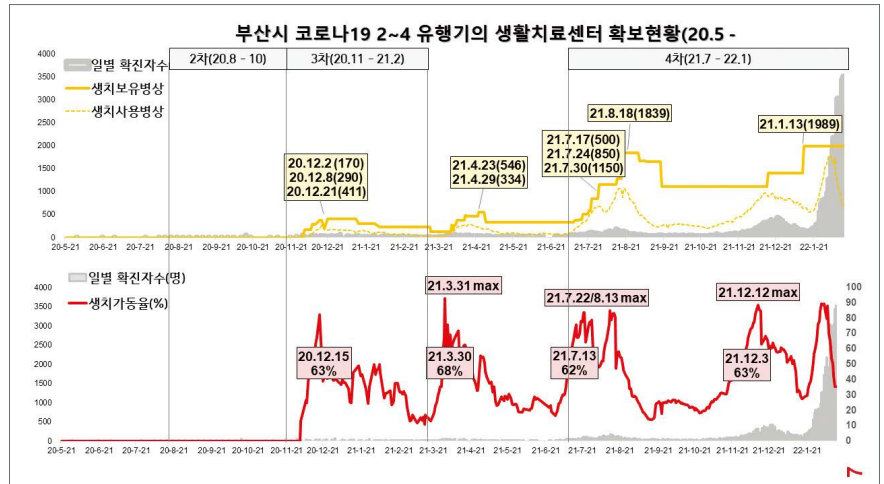
이후 음압 병상을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확진자의 확산 추이와 병상가동률에 따라 부산시는 병상 확보를 위해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1,624개의 병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기준 2022.3.17.)

구분	합계	부산 의료원	부산대 병원	고신대 병원	동아대 병원	부산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	온종합 병원	줄은강안 병원	동남권 의화원	보훈 병원	삼육 병원	동의 병원	봉성 병원	대동 병원	부산 성모	부산 부민	줄은 삼선	메리놀 병원	해운대 부민	김을 녹산	세웅 병원	성소 병원
합계	1,624	315	94	19	38	34	18	90	33	22	56	30	22	21	26	20	22	41	22	18	38	34	22
중환자	99	5	18	10	24	22	9	6	5														
일반	1,525	310	76	9	14	12	9	84	28	22	56	30	22	21	26	20	22	41	22	18	38	34	22
구분	문화 병원	구포 성심	한서 병원	한양 루마리	해동 병원	오성 병원	영도 병원	인창 요양	양정 요양	동래 아동	푸른 바다	아이 서울	행복 어린	부산 아동	금정 병원	부산맘 아동	엘리움						
일반	15	19	15	34	15	26	18	55	54	78	62	25	38	25	34	57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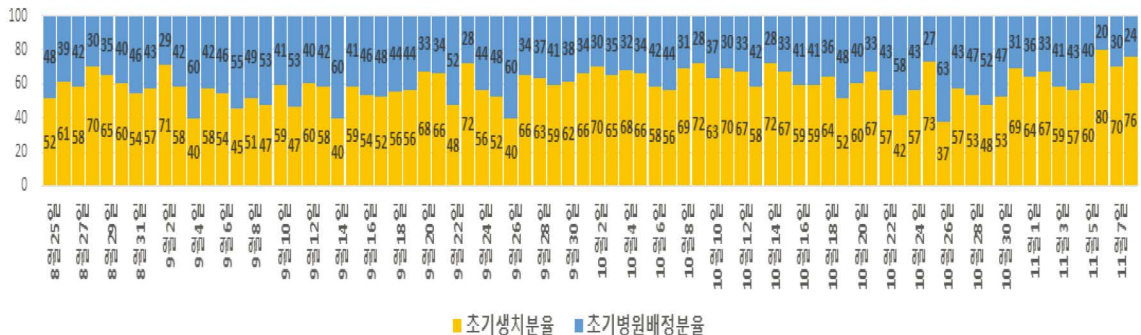
또한 어린이 확진자 치료를 위한 소아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2022.2.28.)하였고, 소아병원 8개소 338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2022.3.17.일은 코로나19 대응기간 동안 부산시 최대로 병상을 운영한 날이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중증 및 응급환자 수용개선을 위해 중증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의료인력을 지원하였다. 지정병원 14개소에 인공호흡기 22대, CRRT(혈액투석용품) 3대, 음압분만용 마취기 1대, 음압기 2대를 지원하였고 291명의 의료인력(의사 14, 간호사 164, 간호조무사 52, 임상병리사 1, 방사선사 7, 영양보호사 36, 간병인 3)을 지원하였다.





생활치료센터와 병원의 초기 배정 분율(2021년 8월 25일 ~ 11월 7일)에 따르면 부산시는 8월에는 생치에 50~60%로 배정 그리고 11월에는 60~80%로 배정하여 일반병상을 관리했다. 대유행 시기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는 일반병상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대응 차원에서 환자 전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등이 제시되었다. 생활치료센터와 재택 또는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병 환자의 산소포화도 저하나 의식 저하 등 주요증상이 발생 시 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경우는 우선 생활치료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화상진료 혹은 방문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병원으로의 전원이 결정된다.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요양시설과 부산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폭증하는 확진자의 병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점이 지난 이후에는 확진자 수 감소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정 병상을 축소하였다.

▶ 2021년도 생활치료센터 / 병원 병상 분율 > 2021년 8월 25일- 11월 7일



출처: 이정민팀장, 부산형방역의료대안 워크샵 자료

4. 환자이송 및 소방대응

01 환자이송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 따라 그에 맞게 구축하였다. 1차 유행기에는 의심 환자 및 접촉자까지 포함하여 이송업무를 부담하였으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중점을 두었고 이후 델타 변이 이전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격리병상 이송,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의 응급 이송 등을 주로 하였다. 델타 변이 유행기에는 확진자의 중증도별 분류에 따라 적정 병상을 배정하는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 2020년 4월 부산시 12개 보건소에 코로나19 이송 전담을 위한 특수응급 구급차를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였다.

2020년 부산시 16개 보건소 구급차 현황(2020.05.27.기준)

단위 : 대

항목	구급차 전체 대수	일반 구급차	특수응급 구급차
보건소 구급차 현황	28	16	12

①보건소 구급차는 비응급 확진자 및 접촉자 등의 이송을 부담하였으며 ②요양시설 입원환자의 확진 및 응급환자 이송은 119구급대에서 이송을 전담하였다.

2020년 부산시 코로나19 환자 등 이송 절차도



2021년 12월 델타 유행 시기에 연일 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송 지연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구급차(주식회사 부산응급환자이송단)와 용역계약(2021.12.27.~2022.4.26.)을 체결하여 추가 배치 지원함으로써 보건소 및 119의 이송 부담을 경감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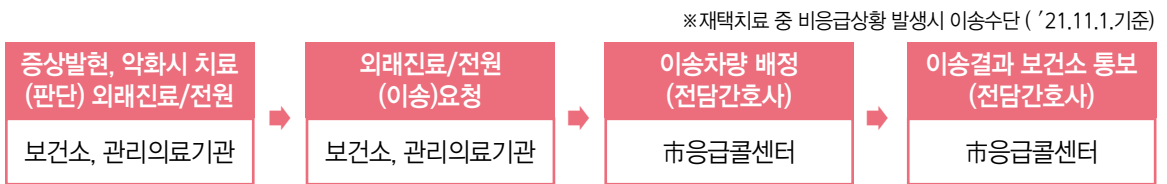
부산시 민간구급차 운영 현황

업체명	계약조건	운영시간	운영실적
(주) 부산응급환자이송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 구급차 2대, - 인원 : 응급구조사 및 운전원 각 2명 - 기타 : 이송시 3인 이하 - 계약기간 : 2021.12.27.~2022.4.26. 	12:00~21:00	449건

또한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21.11.26.~) 이후 재택치료자의 전원, 단기 외래진료 등 이송 수요급증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이송은 한계에 이르렀다. 구급차 이외의 비응급 이송을 위한 이송 수단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재택치료 환자의 이송을 전담으로 하는 방역 택시('21.12.23. 4대 계약, 81,972천원) 및 방역 수송차량('21.12.30. 건당 계약 39,775천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주중에는 외래진료, 외래진료가 없는 토·일에는 전원(병원, 생활치료센터)을 위한 이송 수단으로 운행하였다. 비응급 상황에만 투입되었으며, 운전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방역택시 등 이송수단에 대한 방역기준(질병청, '22.1.25.)」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과업지시서를 별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소방청에서도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비구급차(18대)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의 확보를 추진하였다.

부산시 재택치료 전담 방역택시 등 운영 흐름도



부산시 재택치료 방역수송차량(방역택시) 등 운영 실적

('22.12.31 기준)

구 분	소계 (방역수송차량 / *전체이송건수)	합계	방역수송차량 이송율
전원(병원,생치,응급실)	1,844 / 4,287	2,255 / 4,698	48.0%
외래진료,투석(왕복)	411 / 411		

* 전체이송건수(부산시 응급핫라인 자료 참조) : 방역수송차량(방역택시) 외 보건소구급차, 119구급차, 자차 등 포함

아울러 부산시 재택치료 도입 당시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 대비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유관기관과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응급 핫라인은 市 재택치료관리팀(광역응급 핫라인), 16개 구·군 보건소, 17개 협력(관리)의료기관, 부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로 구성되었으며, 환자 이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02 소방대응

1. 코로나19 대응 소방활동 개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 관심 단계부터 119 신고 접수·의료 상담 및 구급 이송 시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였으며, 코로나19 사람 간 감염 확진자 발생(2020년 1월 30일) 등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및 이송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전담구급대를 지정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였다.

또한 특별재난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구급대원 보호 장비를 구매해 안전한 이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산시 및 유관기관 동원 요청에 따른 소방력 또한 적극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 상황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비상대책단인원 구성 (2020년)

합계 (명)	본부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사하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기장	항만
649	223	36	50	34	43	38	38	31	40	41	41	34

구급대원 인원구성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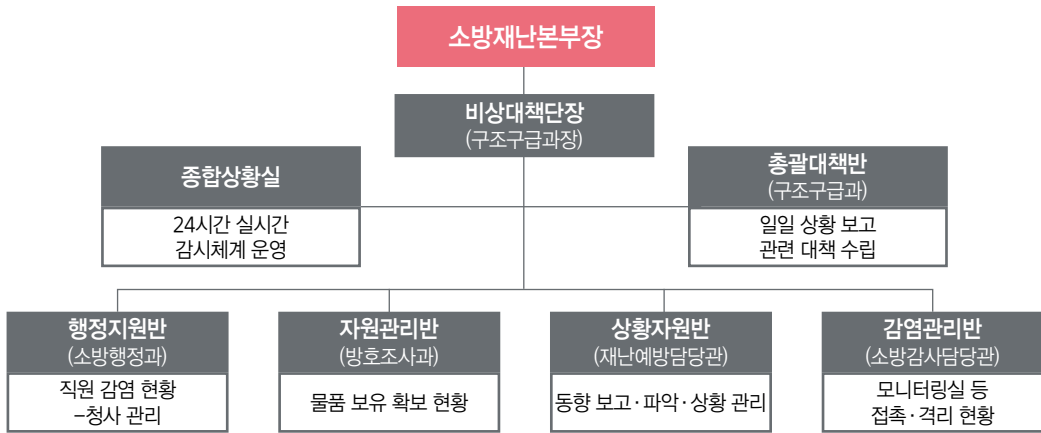
구분	합계 (명)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사하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기장	항만
구급대수 (대)	69	6	8	7	10	6	6	6	6	5	5	4
대원수 (명)	621	54	72	63	90	54	54	54	54	45	45	36



2. 감염병 대응 조직구성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감염병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위해 2020년 1월 27일 코로나19 위기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비상대책단은 비상대책단장(구조구급과장)을 중심으로 종합상황실과 총괄대책반으로 구성·운영 되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밀착 대응하였으며, 총괄대책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전파상황을 소방재난본부 및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일일 보고하여 관련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소방재난본부 내부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구조구급과 구급계에서 전담(20년 2월 23일~21년 1월 4일)하였으나, 감염병관리 전담팀 필요성을 실감하여, 2021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관리계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 감염병 위기 대응 비상대책단 조직도



구분	부서	임무와 역할
총괄대책반	구조구급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대책 수립, 시행 및 감염병 재난 현황 보고서 작성 - 감염병 전담구급대 편성 및 운영 관리 - 중수본, 방대본 회의 참석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본부장 지시사항 관리
상황관리반	종합상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구급상황 일보 및 동향 보고 - 감염병 확진·의심환자 이송 기준에 따른 소방력 지원 및 관리 - 위기상황 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관리
행정지원반	소방행정과 소방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 예산 지원 및 인력·장비 재배치 - 소방대원 예방접종, 청사 소독 및 출입자 관리 등 안전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 - 소방대원 감염 현황 관리 및 보고 - 소방력 조정 및 청사 폐쇄 등 소방력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관리반	방호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대원 보호장비 및 소모품 확보 - 감염병 대응 물품 현황관리 - 시청 등 파견인력 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연락관 파견 등
언론정보반	구조구급과 (소방홍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동향 모니터 및 보도자료 배포 - 대국민 행동 요령 홍보·교육

3. 위기 경보단계별 대응과정

코로나19 위기대응 비상대책단에서는 위기 경보단계별 대응 과정을 설정하여 단계별 필요한 인력·장비·대응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였고, 이러한 대응 과정은 후일 코로나19로부터 부산시민의 일상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위기 경보단계별 대응 과정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외 및 국내 감염병 전파·확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정되었다.

■ 위기 경보단계별 대응 현황

위기경보단계	운영변경 사유	기준일	편성인원 (상황실 제외)	일근무인원
관심	코로나19 해외 발생 및 국내 대비	해외발생~ '20.01.19.	-	-
주의	주의단계 격상	'20.01.20.	전담구급대 3개대	-
경계	경계단계 격상	'20.01.27.	전담구급대 11개대 비상대책단 3개팀 143명	46명
심각	심각단계 격상	'20.02.24.	전담구급대 22개대 비상대책단 5개반 109명(3조)	36명
	생활속거리두기 시행	'20.05.06.	전담구급대 22개대 비상대책단 3개반 78명(18조)	5명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조정	'20.11.01.	전담구급대 22~29개대 비상대책단 구조구급과 10명	1명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및 방역지침 완화	'23.04.01.	전담구급대 22개대 비상대책단 운영 종료(감염관리계 상시 대응)	
경계	위기 경보단계 조정 (심각→경계)	'23.05.12.	전담구급대 11개대 감염관리계 상시대응	

03

감염관리 및 소방활동 사항

1. 감염병 재난 소방대응 체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태세 사전 구축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종식 유도를 최우선 대응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으로 인한 부산시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위기 경보단계별로 대시민 정보를 공유하고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규정을 통해 부산시 소방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예방 및 대비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및 정비,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구축·점검, 감염병 재난 대책 수립 협력, 비상연락체계 구축(비상소집,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응 [감염병 발생 시 위기대응 지원본부 운영 총괄, 24시간 소방상황실 지속 운영,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가동,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전담구급대 지정 등) 구축·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사고 수습 협력체계 유지,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전달체계 확립], 복구 [위기관리 대응에 대한 평가, 감염병 위기관리 및 위기대응 개선대책 마련,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수정·보완]의 3가지 역할을 자체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2. 감염병 전담구급대 운영

감염병 전담구급대는 음압 장비 및 PAPR(전동식 호흡보호구) 등 감염병 대응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송 환자 및 구급대원의 2차 감염 예방을 통해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감염병 전담구급대는 소방청 119구급과 「감염병 환자 대응 단계별 조치 사항 강조지시」(2017년12월8일)호를 근거로 실시되었다. 감염병 전담구급대의 지정기준은 음압 구급차(음압 이송형 들것 포함) 및 PAPR 보유를 기본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평상시-관심-주의-경계-심각)에 맞추어 지정되었다. 평상시~주의 단계의 경우 음압 구급차를 보유한 구급대 4대 지정, 경계~심각 단계의 경우 음압 구급차 보유 구급대 11대를 지정하였고, 각 소방서별 1대를 지정하여 지역 감염병 전파 방지에 기여하였다. 감염병 전담구급대에 의해 이송된 최초 의심환자는 20년 1월 31일 기침, 호흡곤란으로 병원 이송되었고, 최초 확진자는 20년 2월 22일 PCR 양성자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기존의 대응 기준으로는 확진자 이송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특별히 감염병 전담구급대의 오미크론 대응 확대 편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 기간제 전문인력 93명을 채용하였으며, 예비 및 불용연장 구급차 18대를 추가로 확보하여 역대 최대인 전담구급대 29대를 운영하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오미크론 대응 확대 편성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에서 실시한 「감염병 전담구급대 지정기준 변경」(2023.4.6.) 조치의 계기가 되었다.

■ 감염병 전담구급대 지정기준

위기단계 구분		지정 기준 (기준)		⇒	지정 기준 (변경)	
평상시		3대	권역별 지정 (강서, 기장, 향만)		4대	음압구급차 보유 (북부 만덕, 금정 산성, 해운대 우동, 강서 대저)
관심	해외 발생					
주의	국내 유입					
경계	제한적 전파	11대	각 소방서별 1대		11대	각 소방서별 1대 (심각단계: 확대지정 가능)
심각	전국적 확산	22대	각 소방서별 2대			

2023년 현재 코로나19 전담구급대는 총 11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할 감염병 전담구급대로 우선 지정·편성되고 있다. 호흡곤란 및 의식 저하가 관찰되거나 관할 전담구급대 부재 시에는 최 인근 119구급대가 편성되어 즉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 관할 전담구급대 확인 불필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신종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도, 의심 환자는 최 인근 감염병 전담구급대에 지정 및 편성되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감염병 전담구급대는 2023년 11월 30일 집계 기준 총 33,685명, 일 평균 24.1명을 이송하였다.

▶ 감염병 전담구급대 지정현황

소방서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사하	해운대	금정	남부	강서	기장	항만
관심·주의				만덕		우동2	산성		대저		
심각·경계 (현 기준)	중앙	안창	연산1	만덕	신평2	우동2	산성	광안1	대저	정관2	부두
심각 (확대편성)	충무	당감	수안1	감전	신평1	센텀	부곡	대연2	지사	장안	영선

▶ 감염병 전담구급대 이송현황 총계 '20.1.31.~'23.11.30

기준	합 계	일평균	확진환자	의심환자	이상반응	동원령
합 계 (1,400일)	33,685	24.1	9,702	22,301	903	779
2020	5,824	17.3	622	4,484	-	718
2021	12,189	33.4	2,935	8,299	894	61
2022	12,312	33.7	5,132	7,171	9	-
2023.11.30	3,360	10.1	1,013	2,347	-	-

▶ 감염병 전담구급대 이송 상세 현황

○ 2020년 코로나19 이송 지원 현황 : 5,824명(일 평균 17.3명/확진자 1,340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심환자	4,484	1	286	545	381	421	594	396	404	321	384	326	425
확진환자	622	-	5	5	7	5	16	72	19	11	95	70	317
동원령	718	-	261	308	103	-	-	-	-	-	-	-	46
합계	5,824	1	552	858	491	426	610	468	423	332	479	396	788

○ 2021년 코로나19 이송 지원 현황 : 12,189명(일 평균 33.4명/확진자2,996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심환자	8,299	528	423	614	614	644	630	759	945	868	708	764	802
확진자	2,935	137	85	46	159	45	118	262	680	241	155	339	668
이상반응	894	0	2	49	55	101	243	72	134	124	57	25	32
동원령	61	12	-	-	-	-	-	-	-	-	-	-	49
합계	12,189	677	510	709	828	790	991	1,093	1,759	1,233	920	1,128	1,551

○ 2022년 코로나19 이송 지원 현황 : 12,312명(일 평균 33.7명/확진자5,132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심환자	7,171	845	916	965	531	342	247	476	895	616	430	383	525
확진자	5,132	221	767	1472	511	101	48	262	758	265	102	248	377
이상반응	9	9	-	-	-	-	-	-	-	-	-	-	-
합계	12,312	1,075	1,683	2,437	1,042	443	295	738	1,653	881	532	631	902

○ 2023년 코로나19 이송 지원 현황 : 3,360명(일 평균 10명/확진자1,013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의심환자	2,347	454	296	308	246	263	170	291	203	59	36	21	-
확진자	1,013	265	85	37	40	63	97	184	185	30	17	10	-
이상반응	0	-	-	-	-	-	-	-	-	-	-	-	-
합계	3,360	719	381	345	286	326	267	475	388	89	53	31	0

3.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자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운영하였으며,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지원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은 최초, 1차 조정, 2차 조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이송 수요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실시하였다. 2021년 3~4월 최초 지원 시에는 구급차 16대(출동 7, 예비 9대), 구급대원 48명(간호사 32명, 응급구조사 16명)을 지원하였는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 초기 부족한 접종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후 2021년 8월 17일 부산시 소방재난본부는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과 협의 끝에 간호인력 10명을 감축하여 구급대원 38명을 지원하였으며, 2차 조정에서는 각 구·군 소방서와 보건소 간 추가 조정 논의 끝에 출동차량 1대, 예비차량 9대를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구급대원 또한 27명으로 조정하였다.

▣ 구·군 예방접종센터 지원 조정 현황

구 분	최초 지원(2021.3.~4.)	1차 조정(2021.8.)	2차 조정(2021.9.)
구급차	16대 (출동 7, 예비 9)	16대 (출동 7, 예비 9)	10대 (출동 1, 예비 9)
구급대원	48명 (간호사 32, 응급구조사 16)	38명 (↓ 간호사 10)	27명 (↓ 간호사 7, 응급구조사 4)

구·군 예방접종센터 지원 상세 현황

순번	소방서	구·군(개소일)		지원 사항		
				최초지원	1차조정	2차조정
총계		16		16대(48명)	16대(38명)	10대(27명)
1	중부	중구	4.29.	예비(3)	예비(3)	×
		서구	4.29.	부민2선(3)	부민2선(3)	예비
2	부산진	부산진구	3.10.	예비(3)	예비(2)	예비
		동구	4.29.	안창(3)	안창(2)	×
3	동래	연제구	4.29.	예비(3)	예비(2)	×
		동래구	4.29.	연산2선(3)	연산2선(3)	예비
4	북부	북구	4.8.	구포1선(3)	구포1선(3)	예비
		사상구	4.29.	예비(3)	예비(2)	×
5	사하	사하구	4.22.	예비(3)	예비(2)	예비
6	해운대	해운대구	4.29.	예비(3)	예비(2)	예비
7	금정	금정구	4.8.	예비(3)	예비(3)	예비
8	남부	남구	4.1.	대연2선(3)	대연2선(2)	대연2선
		수영구	4.29.	광안1선(3)	광안1선(2)	×
9	강서	강서구	4.29.	강동(3)	강동(2)	×
10		기장군	4.22.	예비(3)	예비(2)	예비
11	항만	영도구	4.22.	예비(3)	예비(3)	예비



예방접종센터 모의훈련



예방접종센터 지원

04

감염병 대응 의료장비·물품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미 감염병 대비 물품 및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119구급대원 감염병 현장표준 지침(감염관련 장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음압 구급차 확보 알림(소방청119구급과-1104(2020.2.4.)호)을 근거로 감염병 대응장비, 물품 및 의료장비 비축에 힘썼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 설비 및 의료장비를 갖춘 구급차량 및 감염병 대응 장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장비 구매에 필요한 부산시 자체 재원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음압 구급차 및 음압 들것 등 6종 396점의 의료장비를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확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감염 예방 물품 또한 월 사용량과 비축량을 조절하여 감염병 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있다.

의료장비 구매현황

연번	장 비 명	단가	보유현황	배치부서
1	음압 구급차	17,400만원	4대	해운대(20), 강서(22), 북부(23), 금정(23)
2	음압 들것	770만원	27대	소방서 26대 / 특수구조단 항공대 1대
3	전동식 호흡보호구	215만원	214대	119구급대 213대(각 3대), 구급버스 1대
4	대인소독기(통과형)	720만원	12대	소방학교 및 11개 소방서 각 1대
5	대인소독기(스텐드형)	180만원	73대	각 센터 및 청사별 1대
6	공간멸균소독기	780만원	66대	소방서 60대 / 본부 5(구조구급3, 특구단1, 체험관1), 학교 1

방역물품 구매현황

품명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D급 보호복	196,708	32,123	129,700	34,885	
긴팔가운	166,313	1,728	129,700	34,885	
고글(페이스섶드)	28,238	138	19,950	8,150	
일회용 글러브(100매)	29,273	773	4,200	15,300	9,000
마스크(KF94)	492,820	36,020	176,000	163,800	117,000
마스크(덴탈)	206,500	51,500	155,000		
공간소독제	7,160	1,300	800	5,060	
손소독제	7,600	1,300	2,000	4,300	
소독티슈	21,960	800	10,650	5,860	4,650
음압들 것 필터	1,510	430	1,080		
비재호흡마스크	10,630		3,640	6,270	720
비강케놀라 등	9,035			7,160	1,875
성문외기도유지기	2,246			826	1,420
플라즈마 소독기 약제	3,110			1,000	2,110
멸균소독 포장지	425			324	101
1회용 주들 것 시트	46,790		30,000	12,000	4,790
호흡기용 멸균증류수	1,827			127	1,700
수동식인공호흡기 필터	3,390		2,500	890	
수동식인공호흡기 마스크	296				296
PAPR 후드	516		300	216	
PAPR 필터	21			21	
자가진단키트	12,300		3,300	9,000	
1회용 보온시트	2,000				2,000



음압구급차



음압들것



전동식 호흡보호구('21년 3M)



전동식 호흡보호구('22년 오토스)



공간멸균 소독기



방역물품 배부

5.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01

코로나19 방역소독

1. 민·관 협력 방역대응팀 구성·운영

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부산시는 민·관 협력으로 방역소독 대응팀을 구성하여 공공장소 및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16개 구·군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205개의 주민자율방역단으로 구성되어 총 221개 팀, 3,165명의 방역반을 투입하였다. 특히 부산지역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민간 주민자율방역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보건소 공공방역단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활동하였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소독 비상체계 구축

부산시는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소독의무대상시설(전통시장 등 9,113개소)에 대하여 긴급 소독실시 및 ‘코로나19 안전한 소독지침’,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물’ 등을 안내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소독 비상 체계를 구축 운영하였다. 아울러 경로당(노인복지과), 어린이집(출산보육과), 무료급식소(복지정책과), 버스정류장(버스운영과), 콜라텍(보건위생과), 전통시장(일자리경제과),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산시 주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였다.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업종

구분	종류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 시장, 면세점, 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3.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

부산시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취약시설 표면소독, 확진자 동선 업소·시설 등에 대한 100%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보건소 공공방역단의 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 ‘동시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확진자 동선 업소·시설의 소독여부, 소독일자를 공개하여 확진자 지속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역소독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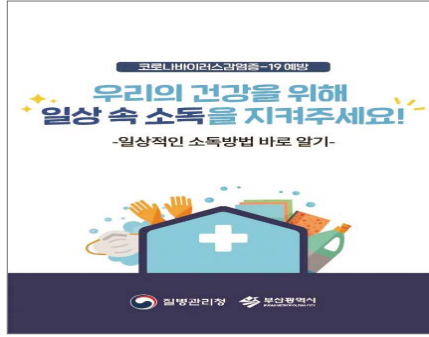
4. 열화상감지카메라 및 방역소독 장비 대여

코로나19 방역소독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에 2020년 3월부터 확진자 발생 공간이나 밀폐공간 등 실내공간에 사용하는 무인자동분사기, 마이크로입자분사기를 대여하였으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2대의 열화상카메라를 김해공항, 부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부산시 주요 관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지원하였다.

5. 코로나19 올바른 소독방법 시민 홍보활동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무분별한 소독제의 살포로 인체에 유해하며 환경오염, 방역효과 미흡 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소책자(2021.5.21.), 카드뉴스(2021.6.26.), 홍보 영상물 등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소독 현장에서 부적절한 분무소독을 자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소독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 소책자, 카드뉴스 등 코로나19 홍보활동 매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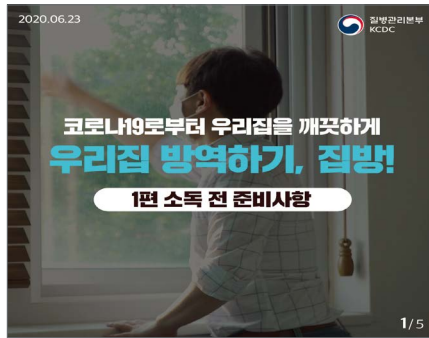


① 슬기로운 Smart 방역생활!
일상속 소독방법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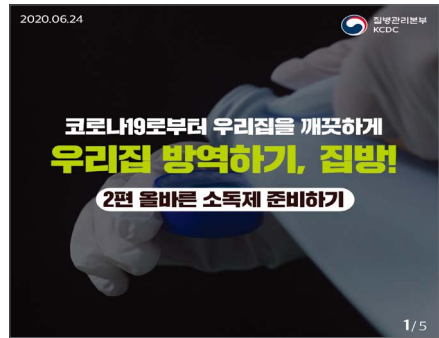


② 가정에서도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수칙

❖ 코로나19 올바른 소독방법 콘텐츠 카드뉴스·영상 배포(2021.6.26.)



①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편>
소독 전 준비사항
(링크) <https://vo.la/EfPP>



②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2편>
올바른 소독제 만들기
(링크) <https://vo.la/xqzo>



③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3편>
올바른 소독방법
(링크) <https://vo.la/Jybw>



④ <올바른 소독방법 영상물 3편>
가정에서 · 사업장에서 · 공공장소에서
(링크) <https://vo.la/GvFO>

6. 코로나19 올바른 소독제도 교육 및 홍보

부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소독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부산시, 구·군 보건소 방역단, 한국방역협회 부산지부(민간소독업체 협의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2023.6.2.)하였으며 구·군 보건소 공공방역기동반(500명) 역량강화 및 안전교육을 실시(2023.3.8.)하는 등 방역소독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표면소독 준수, 분무·분사 소독 금지 등 올바른 소독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올바른 소독제도를 위한 부산시 방역소독 협의회 활동사진



부산시-보건소-소독업소 회의



표면소독 시범



소독약품 제품 용법 및 희석법 점검

02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방역물품의 수급 관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응 인력의 안전과 역량 유지를 위한 의료용 방역물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대응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방역물품 지원 대상기관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정신시설, 양로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의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월1회 정기적으로 방역물품 수요량을 파악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요청·공급받아 신속하게 배부하였으며, 코호트 시설의 경우 긴급 지원 형태로 당일 배부하는 등 시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였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폭증으로 부산시 기존 보관창고로는 수급상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 방역창고와 별도로 2020년 12월 물품 수송 및 물류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강서구에 방역물품 전용 창고를 추가로 확보하여 대량의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신속하게 공급하였다. 의료용 방역물품의 종류는 N95마스크, 레벨D보호복, 일회용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덧신, 헤어캡, 장화, 고글, 안면보호구, 손소독제, 소독스프레이, 소독티슈 등이며, 총15종 총8,168,170점(2023년 12월 기준)을 공급하였다.

방역물품 수송 현장사진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 오염 방지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파우더 알려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일회용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 전신이나 의복에 튼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튼	신발덮개 대신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튼	눈의 점막 오염 방지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튼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등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기침유도 시술 시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6. 감염취약시설과 취약집단관리

01

감염취약시설

1. 주기적 선제검사

2020년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이후 감염취약시설이며 고위험시설인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부산시에서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20년 10월 14일에서 11월 6일까지 부산시 전체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정신시설 포함) 299개소 종사자 27,067명 그리고 주야간 시설의 종사자 및 입소자 202개소 7,298명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 4명(종사자1, 환자3)을 발견하여 초기에 확진자 치료와 접촉자 격리를 위한 동일집단관리(이하 '코호트')를 실시하였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본부의 방침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에서 2020년까지 12월 22일 고위험시설 종사자 515개소 26,878명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후로 고위험시설인 요양시설 등은 주기적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기적 선제검사의 검사 주기는 확진자의 발생 추이와 접촉률 등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실시하였으며 4급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2023년까지 선제검사를 하였다.

부산시 감염취약시설 현황(2023.08 기준)

(단위 : 개소)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정신의료기관
162	100	22	164	23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쉼터
2	64	67	436	3

부산시 요양시설 선제검사 및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건)

	선제검사	지도점검
2020년	61,243건	366건
2021년	28,580건	4,699건
2022년	1,422,341건	462건
2023년 8월까지	395,946건	

2. 코호트 관리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코로나19 확진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사망률 또한 높아서 부산시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 체계로 관리하였다.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감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속대응팀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감염병 전파 위험도 평가와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를 평가하였다. 평가 도구는 코로나 대응지침 내 평가 도구표와 부산시 자체 평가표, 감염관리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였으며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코호트 관리 결정을 하였다. 코호트 범위는 확진자가 종사자인지 입원환자인지와 확진자의 동선이나 입원실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 2020년 무렵 비교적 초기 대응 시기에는 확진자를 격리치료시설로 이송하여 격리하였으며,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는 요양시설 입원환자 및 종사자는 14일간 코호트 격리하여 3회에 걸쳐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하였다. 3회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코호트 관리가 해지되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코호트 범위와 기간을 다시 결정하여 관리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코호트 관리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14일, 10일, 7일로 격리기간에 따라 변경되었다. 확진자의 관리도 확진 시 즉시 이송에서 일반관리로 전환되었으며, 증상 유무 및 환자의 응급도에 따라 이송이 결정되었다. 관리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에서도 보건소 또는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여 환자를 관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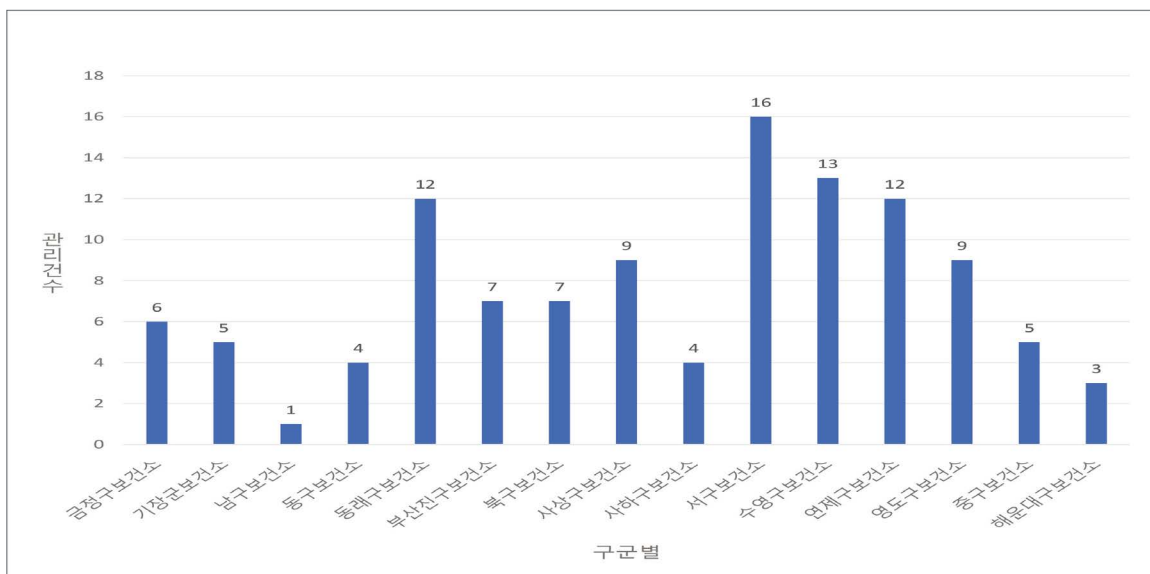
2020년 감염취약시설 25개소에서 코호트 관리가 이루어졌고 동구의 ▲▲요양병원에서 2020년 최장기간 57일간 코호트 관리를 실시하였다.

부산시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코호트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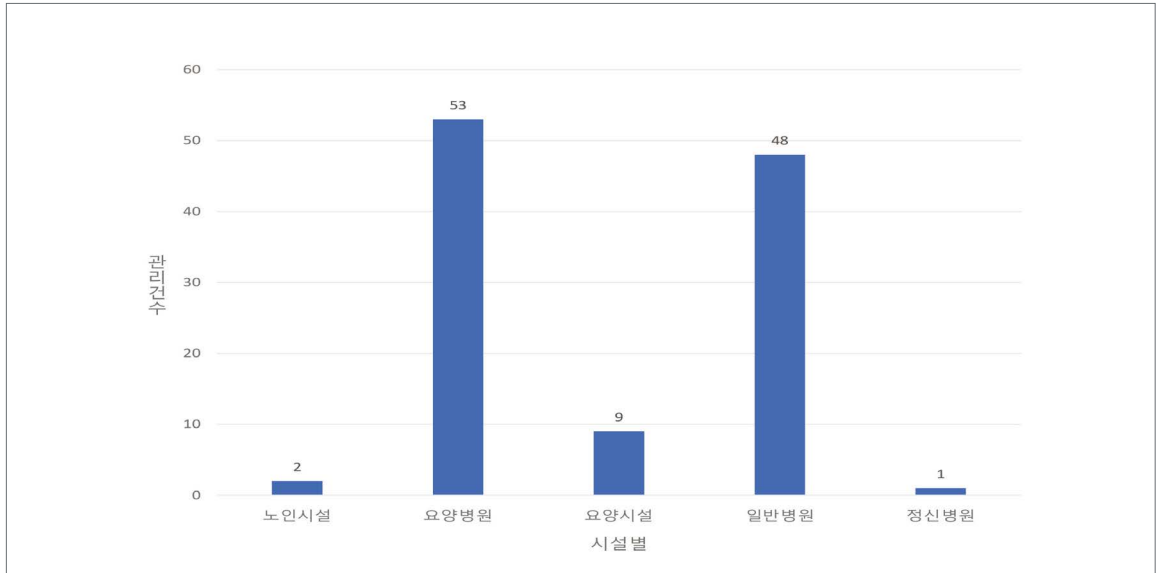
	2020	2021	2022	2023.8월말까지
전체	11	113	185	15
요양시설	2	2	42	3
요양병원	8	53	124	8
정신시설	1	1	12	4
일반병원	0	48	7	0

2021년은 확진자 발생 의료시설을 전수 관리하였으며 113개소의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코호트 관리하였다. 감염취약시설이 가장 많은 서구에서 가장 많은 코호트 관리를 하였으며 연제구 관할의 ○○요양병원에서 최장기간인 61일간 코호트 관리를 하였다.

2021년도 부산시 구·군별 감염취약시설 코호트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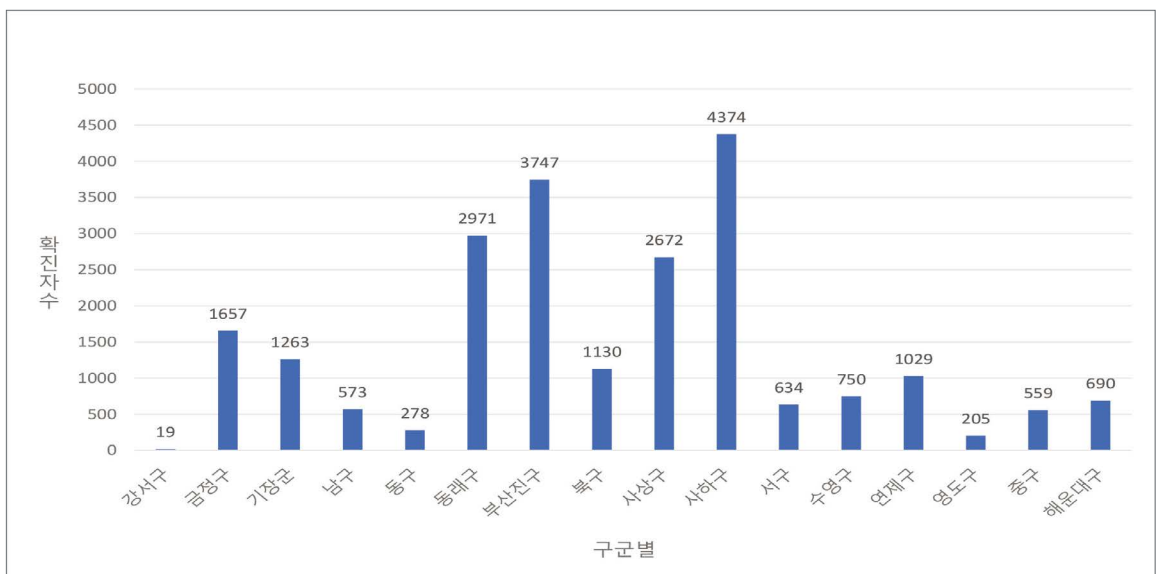


2021년도 부산시 감염취약시설 코호트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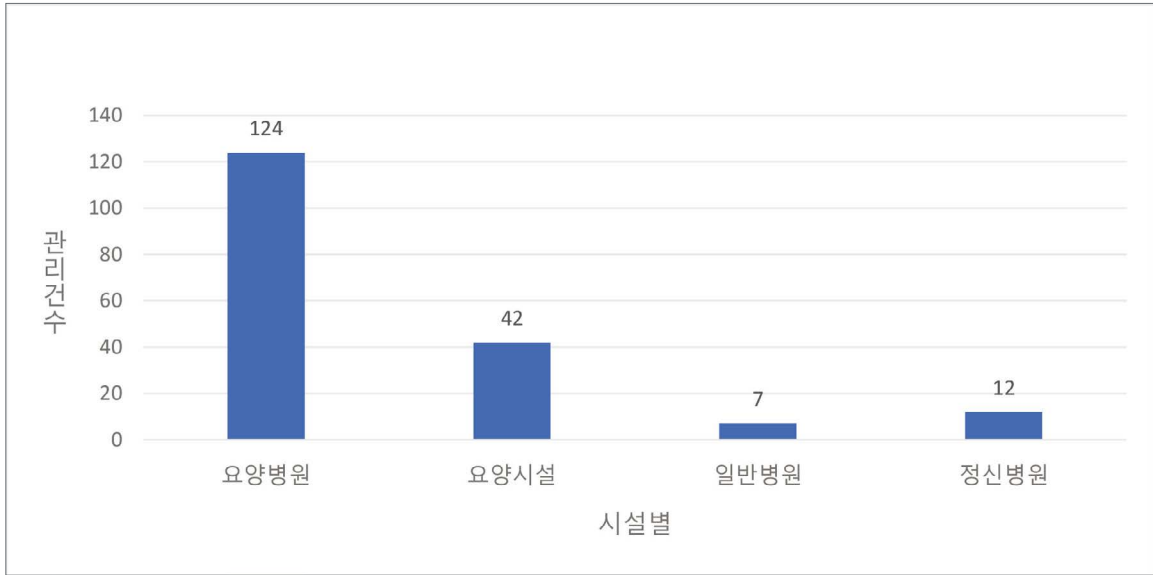


2022년 오미크론 대 유행기 재택치료 시기에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에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관리 대상은 전수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요양원), 정신병원 등)에서 코호트 관리를 실시하였다. 구·군별로는 감염취약시설이 많은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구 순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동래구 소재의 ○○○요양병원의 경우 65일간 코호트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부산시 감염취약시설 중 최장기간 코호트를 시행한 사례가 되었다.

2022년도 부산시 감염취약시설 구·군별 코호트 관리 확진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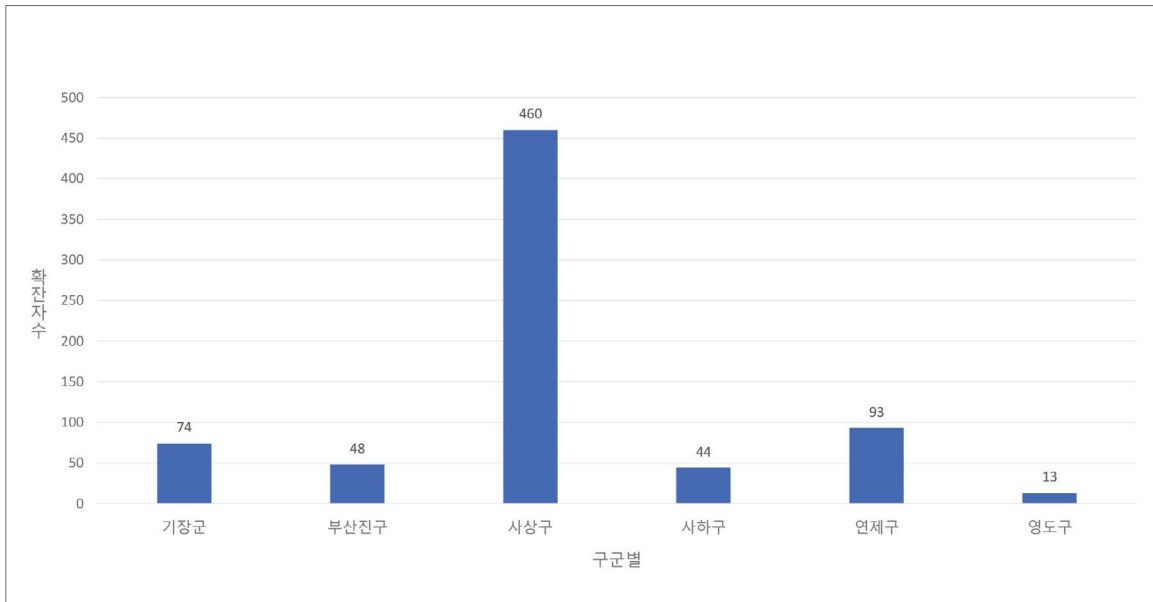


2022년도 부산시 감염관리시설별 코호트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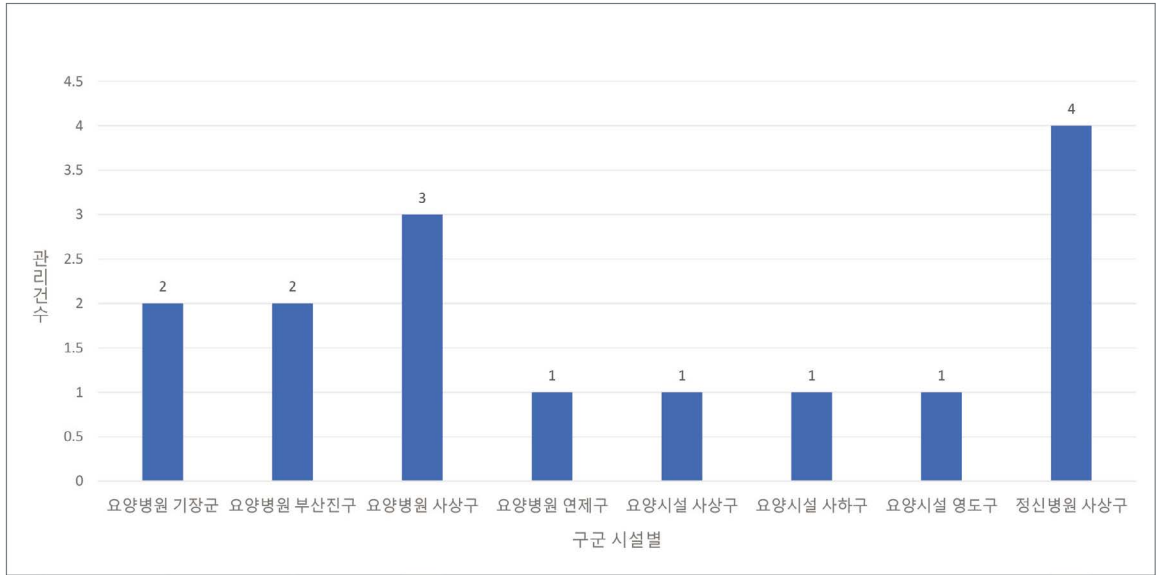


2023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떨어지는 3월까지 코호트 관리를 실시하였고 코호트 관리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구는 사상구로 정신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였다. 연제구 소재의 ○○요양병원에서 200명 이상의 규모로 2023년 최장기간인 38일간 코호트 관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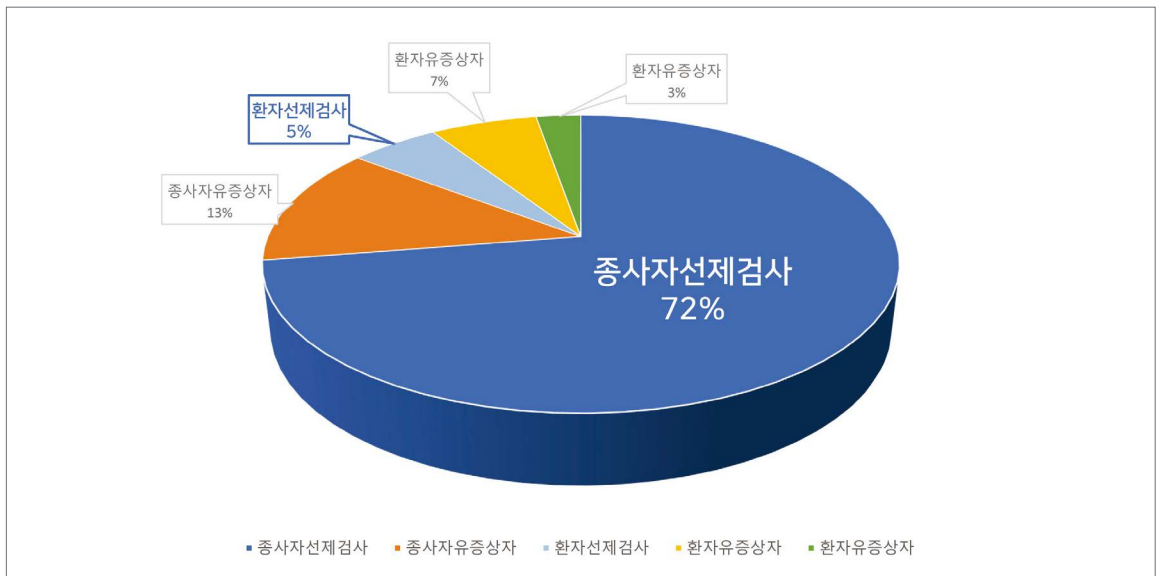
2023년도 부산시 구·군별 감염관리시설별 코호트 확진자 수 현황



2023년도 부산시 구군별 감염관리시설별 코호트 확진자 수 현황



부산시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인지 경로 2020.1. ~ 2023.8.



감염취약시설의 확진자 인지경로는 2020년부터 3년 이상 실시 한 요양시설 종사자와 환자의 선제검사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77%를 차지하였다. 선제적 검사가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요양시설 확진자 관리에 이루어졌던 코호트 관리는 확진자를 신속하게 이송시키고 접촉자를 관리하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환경평가를 통해 요양시설의 감염위험 공간을 개선하고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페이스 쉴드, 일회용 가운, 보호복, 소독 티슈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동전담반 구성 및 운영

요양시설의 확진자 발생시 기존 격리치료시설로 이송하였으나 오미크론변이의 유행시기에는 확진자의 증가, 위중증률 감소, 병상부족 등의 이유로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관리하게 되었다.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요양시설에서는 적극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기동전담반(의사1, 간호사1) 20개소 의료기관을 지정하였으며 확진 입소자 대상으로 진료, 처치 등 대면 진료를 실시하여 요양시설에 있는 확진자의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기록

일시	대응 내용	
20.10.23.~계속	현장대응팀 운영 확진자발생시 시설 조사, 위험도 평가, 감염예방교육 실시	방역관(시민방역추진단장), 역학조사관 (시·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관 등), 보건행정요원
20.5.28~09.23	부산시 노인요양시설 신규입소자에 대한 PCR 진단검사 실시	593명
20.10.14~10.15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 구성 및 운영	
22.04.24.	고위험시설 집단 확진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팀 구성	3개팀/12명
22.05.30.	감염취약시설 집단 확진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팀 추가편성	4개팀/19명
22.06.20.~07.12	재유행대비 요양시설 현장 감염교육 및 컨설팅	9개소
2022.07.26.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현황 일일모니터링	기관→보건소→市 보고를 통한 확진자 관리 및 발생 현황 통계관리
2022.07.26.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 시 주요 대응요령 포스터 제작·배포	
2022.08.01.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기관 소집단 분류·관리	집단발생 대응 및 지속 관리 (감염관리 및 먹는 치료제 독려 등)
22.07.18.~29	정신의료기관 12개소 감염관리실 점검 및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대응체계점검	
22.07.27.~28	재유행 대비 감염취약시설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	167개 기관 287명
22.09.26.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모의훈련 시나리오 제공	
22.11.16.	동절기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대응 방안 회의	
22.11.21.~23.08.20	감염취약시설 현장조사 등 지원	4개팀 8명 (2일 20명 이상 발생 신규 소집단)
23.08.07	코로나19 사망 분석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방안 회의	여름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사망자 분석 및 '부산형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 방안' 회의
23.08.21.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지원팀 구성	5팀 36명

일시	대응 내용									
23.08.21.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기관 현장점검	시설별 집중 관리·점검 시행 (시설별 자가점검표 양식 제작·배포)								
	<table border="1"> <thead> <tr> <th></th><th>요양병원</th><th>요양병원 외 시설</th></tr> </thead> <tbody> <tr> <td>대상</td><td>1주 이내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1주 동안 재원환자 50% 이상 확진자 발생</td><td>1주 동안 입소자 50% 이상 확진자 발생</td></tr> <tr> <td>관리 방안</td><td> ① 요양병원 : 자가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 : 현장점검 후 市 결과보고 ↓ ③ 市 : 먹는치료제 처방률 30%이하 및 추가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④ 지원단 : 긴급한 감염관리 필요시 기술지원 </td><td> ① 시설 : 자가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 : 유선 및 현장점검 후 市 결과보고 ↓ ③ 市 : 추가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 ④ 지원단 : 긴급한 감염관리 필요시 기술지원 </td></tr> </tbody> </table>		요양병원	요양병원 외 시설	대상	1주 이내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1주 동안 재원환자 50% 이상 확진자 발생	1주 동안 입소자 50% 이상 확진자 발생	관리 방안	① 요양병원 : 자가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 : 현장점검 후 市 결과보고 ↓ ③ 市 : 먹는치료제 처방률 30%이하 및 추가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④ 지원단 : 긴급한 감염관리 필요시 기술지원	① 시설 : 자가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 : 유선 및 현장점검 후 市 결과보고 ↓ ③ 市 : 추가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 ④ 지원단 : 긴급한 감염관리 필요시 기술지원
	요양병원	요양병원 외 시설								
대상	1주 이내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1주 동안 재원환자 50% 이상 확진자 발생	1주 동안 입소자 50% 이상 확진자 발생								
관리 방안	① 요양병원 : 자가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 : 현장점검 후 市 결과보고 ↓ ③ 市 : 먹는치료제 처방률 30%이하 및 추가점검 ↓ 필요시 현장점검 ④ 지원단 : 긴급한 감염관리 필요시 기술지원	① 시설 : 자가점검표 작성 및 보건소 제출 ↓ ② 보건소 : 유선 및 현장점검 후 市 결과보고 ↓ ③ 市 : 추가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 ④ 지원단 : 긴급한 감염관리 필요시 기술지원								

▶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시 대응요령 포스터 제작·배포(22.7.26)

부산광역시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시 대응 요령

부산광역시

01
물품
공급

- 선제검사 기관 : 방역물품 공급(월1회, 매월 3일)
- 코호트격리 기관 : 방역물품공급(필요시, 수시공급)
- 신청물품 : N95 마스크, 긴팔가운, 고글, 페이스선퉴드, 장갑, 비닐가운
-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02
환자
치료

- 고위험군 환자 위중증 방지 : 확진 후 초기에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처방
-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계약 의사/ 협약 의료기관/ 의료기동전담반(원외처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통해 처방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코로나19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
- 시설 내 확진자 : 의료기동전담반 방문 진료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비코로나 증상 처방·처치, 입원 필요성 판단)

03
환자
전원

- 무증상·경증환자 : 재택치료·자율입원·호흡기진료센터 진료 우선
- 중증증 이상 호흡기 증상자 : 부산시 감염병전담병원 요청 (시설 → 관할보건소 → 부산시 병상요청 → 병상배정 → 입원)
- 시 환자관리반 : 환자 증상 및 기저질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소치료 이상의 처치가 필요한 환자 위주로 지정 병상 우선 배정
- 이송 : 자차 또는 신속히 전원이 필요한 경우 119 응급의료체계 활용

04
비상
대응

- 집단감염 발생 시 시설 내 코로나19 비상대응팀 조직·운영
 - 환자관리, 행정지원 등 담당자별 업무분장 명시, 비상연락망 게시
 - 비상대응팀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은 보건소와 공유
- 감염관리 담당자는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통보 양식'을 작성하여 보건소 담당자와 일일 확진자 발생 현황 공유
- 인력요청 : 코호트 지정 시 인력파견 가능(인력부족시)
- 인력파견 : 요청기관 → 관할보건소 → 부산시 → 중수본 → 인력파견통보

05
감염
관리

- 시설 및 기관 관리
 - 환자접촉 전후, 장갑 착용 전후, 손씻기(손소독) 철저히 시행
 - 정밀구역과 오염구역 지정·분리
 - 확진자와 비확진자(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는 구역 분리
 - 환기 준수 :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연환기
- 종사자관리
 - 확진자 구역에서는 4중 보호구(방수성 긴팔가운, KF94마스크, 페이스선퉴드, 장갑, 필요시 헤어캡) 착용
 - 직원들은 함께 식음료 섭취 금지, 식당 동시 이용시 거리두기 준수
 - 종사자 대상 순환생, 보호구착탈의 교육 필요시 현장교육 지원 요청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요양병원 코호트관련 현장조사 및 위험도평가
[2022. 11. 24(목) 10:00기준]

1 확진자 현황(누계) 총 73명 (직원 20, 입원환자 53)

구분	2A병동 (신관)		3병동		4A병동 (신관)		4병동		5병동		7병동		9병동		직원
확진일자	입소자	직원	입소자	직원	입소자	직원	입소자	직원	입소자	직원	입소자	직원	입소자	직원	
2022.11.15.			10												
2022.11.16		1	3	2									1		
2022.11.17.			2												
2022.11.18.			5	1			1	2	10	2					1
2022.11.19.			1	1					6						
2022.11.20.							1		5	2					
2022.11.22.							2		1						1
2022.11.23.				2				1				2			2
2022.11.24.											5				
누계	0	1	21	6	0	0	4	3	22	4	5	2	1	0	4

2 시설 현황

- 시설명: ☆☆☆요양병원
- 규 모: 본관 11층, 신관 5층
본관 : 3층, 4층, 5층, 6층, 7층, 9층 신관: 2A, 3A, 4A 요양병원 운영
: 본관과 신관은 별도 출입구 사용중(교류 없음)
- 직원현황: 총 146명(확진 20명 포함) ※ 실습생 없음
- 입원환자 현황: 총 219명(확진 53명 포함) ※3·5병동 환자 전원 확진

3 조치사항 : 보건소

- 사상구보건소 현장조사 실시(11/23)
- 4병동, 7병동 코호트 격리 조치(2022. 11. 24. 0시부터~)
- 해당 병원에서 확진자 치료 실시(치료제 투약)

투약일자/약명	11.15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팍스로비드	0	0	0	0	0	0	0	0	0
라브게리오	0	0	0	0	0	0	0	0	0
렉키로나주	0	0	0	0	0	0	0	0	0

4 현장조사점검 결과

○ 점검일자: 2022. 11. 23.

○ 점 검 자

- 사상구 보건소: ○○○ 팀장 외

- 현장조사 참여 기관 담당자 : 원무과장, 각 병동 담당자(4, 7명동)

○ 점 검 결 과

- 병실마다 창문이 있고 상시 자연 환기가 가능함

- 병상 간 간격은 약 150cm-200cm정도임

-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보호구는 구비되어 있으나 병실 및 업무 이동 시 손위생 철저히 하지 않음

- 착의 및 탈의 구역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일부 직원의 보호구 착의 상태 불량, 환자의 마스크 착용 상태 일부 미착용

⇒ 개인보호구 착·탈의 교육 실시함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안내함

⇒ 환자간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손 위생 및 기침예절교육 실시함

⇒ 방에 있는 다른 환자를 돌보기 전에 손 위생 철저히 안내

-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 및 관리 상태 양호함

⇒ 폐기물 또는 환자가 사용한 세탁물을 만질 때는 4종(KF)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간헐가운,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선택 사용 가능함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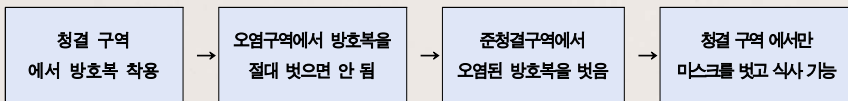
⇒ 격리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넣기(폐기) 당부함

※ 동선 관리

오염구역과 청결 구역을 모두 가야 하는 직원(간호사)일 경우 동선은 청결 구역, 준 청결 구역부터 업무를 마치고

오염구역 순으로 하도록 교육



⇒ 환자 및 직원 병동간 이동 제한

5 위험도평가 결과

○ 전반적인 노출상황

추정노출 기간	추정노출 장소	주요노출 대상	KI pass 설치/활용 여부
11월 12일 추정	병동	환자 및 직원	수기 장부

○ 위험요인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 별첨

건물내 호흡기 감염병의 위험도 종합평가 *54점 (고도위험)

[위험도 평가기준] 0~14점: 경도위험, 15~39점: 중등도 위험, 40~69: 고도위험, 70~100: 초고도위험

○ 관련사진



6 향후 조치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관리 철저 당부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함
- 코호트 지정 및 해제 관리
- 4병동, 7병동 코호트 격리 조치(2022. 11. 24. 0시부터~)
-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격리 해제에 따라 감염관리 계획 수립을 확인하고 코호트 해제 구역 운영하도록 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도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지속 유지해야 하는 노숙인 시설에서의 감염병 차단은 중점적인 방역대책이 요구되는 시설 중 하나이다. 집단의 특성상 개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민간 자율급식 중단에 대응하여 공공지원 급식을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감염취약집단의 코로나19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가 필요하였다. 진단검사 실시를 위해 진단검사와 확진자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의료기관(부산의료원)을 선정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양성 시 부산의료원에서의 입원치료를 받고 음성일 경우 개별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실적으로는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소)에서 2020년 6월 08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 노숙인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및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연계한 코로나19 검진사업을 실시하였다. 부산시에서는 2020년 8월 25일 ~ 2020년 9월 4일 사이에 코로나19 지역확산에 따른 노숙인 긴급 진단검사를 계획하여 1,084명(거리노숙인 148명, 쪽방주민 936명)을 대상으로 부산역 선별진료소 및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1년 1월 18일 ~ 2월 10일에는 市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종합지원센터(2개소) 및 쪽방 상담소(2개소)에서 아웃리치 및 거주자에게 검사 안내하고 임시 선별진료소 등 검사소에 현장 동행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노숙인 생활시설의 감염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 지침에 따라 확진자 발생 현황 등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방역장비 및 약품을 구매하거나 지원하여 생활시설의 예방적 감염관리에 중점적으로 대응하였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초기에 노숙인시설 입소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기록하였다. 부산시는 노숙인 시설 12개소와 부산희망등대종합센터, 응급잠자리, 진구쪽방상담소에 손소독제와 개인위생품, 마스크 1,650매,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키트 1,500개 지원하고 각 시설의 생활 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숙인 시설 현장 접종 및 종사자 접종을 독려하여 기본접종 완료율 종사자 95% 이용자 86%, 가점종완료율 84% 이용자 52% (21.12.31기준)를 달성하여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7. 해외입국자 및 해외유입 관리

01

외국인 유학생

2020년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확산되면서 52%가 중국 유학생인 부산시의 유학생 입국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유학생 관리·지원 대처가 요구되었다. 부산시는 먼저 교육부를 통해 지역대학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며 대학의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 요구 사항을 수집하고 중국 외 아세안 유학생의 입국시 중국을 경유하지 않도록 권고 조치와 중국유학생이 3월16일 개강 이후 입국 시에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개학 한달 전에 유학생 관리지원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외유학생 입국자 자율격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부산시는 해외유학생 임시(격리)생활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에 격리생활자를 위한 도시락 비용 일부(시50%, 대학50%)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20년 3월경 구군을 통해 재원을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해외유학생 임시(격리)생활자 1,176명

○ 지원내용 : 도시락 등 비상식량

○ 지원금액 : 금 98,784,000원(금구천팔백칠십팔만사천원)

구군명	대학명	도시락 등 지원 임시(격리)생활자 수(명)	대학별 도시락 등 지원금액(원)	구군 교부 금액(원)
영도구	고신대	8	672,000	924,000
	해양대	3	252,000	
남구	부경대	657	55,188,000	63,420,000
	경성대	63	5,292,000	
	동명대	35	2,940,000	
해운대구	영산대	65	5,460,000	5,460,000
사하구	동아대	17	1,428,000	1,428,000
금정구	부산대	125	10,500,000	23,352,000
	부산외대	153	12,852,000	
사상구	동서대	50	4,200,000	4,200,000
총계		1,176	98,784,000	98,784,000

부산시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에 유학생 등을 위한 마스크 25,000장을 배부하였다.

학교명	수	학교명	수	학교명	수	학교명	수
부산대	4,500	동아대	1,900	부산과기대	900	동의과학대	50
부경대	4,200	동의대	800	한국해양대	300	경남정보대	50
부산외대	2,100	경성대	2,900	고신대	220	부산여대	50
신라대	1,900	영산대	1,300	부산가톨릭대	180	대동대	50
동서대	2,100	동명대	1,400	부산교대	50	동주대	50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정책 및 지침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임시(격리)시설을 대학에 마련하였다.(일부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 이용) 입국 전부터 입국 절차 안내,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선별검사소 이용 등 방역 전 과정을 안내하였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구.국제교류재단)을 통하여 통역서비스와 카카오톡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철저한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2020년 유학생 입국 현황

○ 2,339명 중 2,189명 입국(94.5%), 미입국자 150명

▶ 부산역 수송현황

합계	두리발 (방역택시)	학교픽업	市 시설		
			소계	커넥트	라마다
2,189	829	1,258	162	106	46

□ 2021년 유학생 입국 현황

○ 3,172명 중 2,193명 입국(69%), 미입국자 979명

▶ 부산역 수송현황

학기 구분	합계	두리발 (방역택시)	학교픽업	市 시설			
				소계	커넥트	라마다	아르반
1학기	1,106	427	567	112	77	35	
2학기	1,087	332	607	148		55	93

(1학기 : '21. 2. 1. ~ 7. 31. / 2학기 : '21. 8. 1 ~ '22. 1. 31)

외국인 대상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접종이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사상구 모라동 소재)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현장 접종센터”를 (2021년 10월 21일 ~ 2021년 11월 14일 주말 운영) 운영하였고, 총 267명에게 안센접종을 실시하였다.

국 적 별						접종유형	
필리핀	베트남	중 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기타	1회	추가
119명	46명	52명	9명	8명	33명	176명	91명(11.14일)

외국인 확진자 지속 발생에 대한 대응으로 2022년에는 외국인 거점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하여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 다수 근무·거주하는 산업단지, 대학교 등 인근 거점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편의성을 높여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2022년 2월 6일 ~ 7월 31일까지 902명 접종실시)

대 상	지정기관	비 고
근로자	갑을녹산병원(강서구)	녹산산업단지 인근
	예인의원(사상구)	사상공단 인근, 외국인 근로자 친숙
유학생	수이비인후과의원(금정구)	부산대학교 인근, 외국인 유학생 친숙
	최내과의원(금정구)	



BGCF부산글로벌도시재단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부산응원 영상

02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계획

해외입국자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월 29일 중대본에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지침이 시달되고 부산시에서도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격리지까지 귀가할 수 있도록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지원단을 운영하였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든 교통약자 콜택시 두리발을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에 투입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방역열차(KTX입국자전용칸)로 부산역에 도착한 입국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장소까지 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실행하였다. 두리발은 30대 차량을 10대씩 3교대로 긴급수송에 투입되었으며 이후 방역택시(토마토택시)로 변경될 때까지 운영되었다. 이는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2020년 12월 3일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매주 1회 목요일 청다오 부산편이 운항되었다. 그에 따라 김해공항에서도 해외 입국에 대한 원스톱 방역대응이 요구되어 김해공항에 입출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하였고 입국자는 입국 후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격리지까지 점보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철저한 방역절차와 비상수송계획 덕분에 부산역을 경유한 해외입국자 중 5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감염자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입국자 수송열차 부산역 KTX도착 현황

구분	열차 번호	출발·도착시간
경 부 선	KTX 115	광명 08:17 - 부산 10:43
	KTX 121	광명 10:16 - 부산 12:42
	KTX 125	광명 11:16 - 부산 13:42
	KTX 129	광명 12:46 - 부산 15:07
	KTX 135	광명 13:46 - 부산 16:10
	KTX 141	광명 15:16 - 부산 17:42
	KTX 145	광명 16:16 - 부산 18:36
	KTX 151	광명 17:41 - 부산 20:07
	KTX 159	광명 19:16 - 부산 21:37
	KTX 169	광명 21:46 - 부산 00:12
	KTX 173	광명 22:46 - 부산 01:03

부산역KTX 비상수송지원반 운영현황

차종	두리발	방역택시(토마토택시)
운영기간	2020.3.28.~2021.12.31.	2022.1.1.~2022.4.30.(입국자 지침변경)
실적	29,831명	4,169명

※ 매주 목요일만 운항

김해공항 입국현황 : 352명('20.12.3.~'21.12.30.)

계	12월(5회)	1월(4회)	2월(4회)	3월(4회)	4월(5회)	5월(4회)	6월(4회)	7월(5회)
2,511	57	81	334	370	153	140	120	191
8월(4회)	9월(5회)	10월(4회)	11월(4회)	12.2.(목)	12.9.(목)	12.16.(목)	12.23.(목)	12.30.(목)
418	434	92	68	6	24	10	13	0



03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산역 부근에 임시격리시설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시 설 명	소재지	지정규모	지정일	지정해제일	비고
인재개발원	북구 화명동	64실	'20.2.23.	'20.4.29.	
라○○호텔	동구 초량동	250실	'20.4.5.	'21.11.22.	
커○○호텔	중구 중앙동	216실	'20.7.1.	'21.7.22.	
아○○호텔	연제구 연산동	129실	'21.7.22.	'22.4.1.	
베○○호텔	동구 초량동	60실	'21.11.22.	'22.5.1.	
토○○호텔	중구 중앙동	22실	'22.5.1.	'22.6.8.	해수부 지정 시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실적

('22.6.30. 기준)

시 설 명	누 계				
	입소	퇴소	건강 모니터링	양성	이송
합 계	15,394	15,394	335,255	285	346
인재개발원	126	126	2,220	0	0
라○○호텔	6,922	6,922	158,426	98	128
커○○호텔	4,829	4,829	118,953	60	88
아○○호텔	2,512	2,512	43,127	86	81
베○○호텔	920	920	11,880	40	48
토○○호텔	85	85	649	1	1

입·퇴소 및 이동 동선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안부콜 서비스(2021년2월2일)를 통해 입소자 안전·건강 상태 확인(매일 20시~21시)하는 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모든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2022년6월8일)으로 임시생활시설은 운영을 종료하였다.

8. 시민소통(브리핑)

01

2020년 브리핑

부산시는 2020년 2월 21일(금) 부산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부터 부산시민의 코로나19로 인한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접촉자 자가격리 및 확진자 역학조사 현황, 병상 배정 현황 등을 언론에 알리는 브리핑을 매일 실시하였다.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히 알려 부산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전파 방지에 주력하고자 2월 21일(금)부터 3월18일(수)까지는 매일(평일, 토·일, 공휴일) 대면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부산시의 전체 방역대책은 시장, 부시장, 기조실장이 진행하였고 역학조사 관련은 건강정책과장(이후 시민방역추진단장, 현재 감염병관리과장)이 담당하였으며 시청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부산시 자체의 브리핑은 질병관리본부(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먼저 전국적인 현황발표 후 바로 부산의 발표가 이어져 실시간 부산시민에게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알릴 수 있었고 부산의 현황을 사실대로 알려줌으로써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었지만, 자세한 동선 공개에 따른 확진자 개인 정보유출 우려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제1차 유행기간 2020년 3월19일(목)부터 5월4일(월)까지는 ‘확산 예방 차원’을 목적으로 브리핑 참여 인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실시 하였으며 ‘카카오톡’으로 기자 질문방을 운영하여 확진자 역학조사와 부산시의 방역 대책 등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소강상태이던 2020년 5월6일(수)부터 8월10일(월)까지는 온라인과 서면 브리핑을 병행하였다.

2차 유행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8월11일(화)부터 9월29일(월)까지는 다시 시청 출입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서면 브리핑을 없애고 모두 온라인 브리핑으로 환원하였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였고, 8월 22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작되었다.

2020년 10월13일(수)부터 11월18일(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1단계)’ 되어 온라인과 서면브리핑이 병행되었다. (온라인(월, 수, 금), 서면(화, 목, 토·일))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 되면서 2020년 11월19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다시 온라인 브리핑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보도지원팀과 시민방역추진단은 시청 출입 기자단과 협의에 의해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브리핑 방법을 조정하였다.

02

2021년 브리핑

2021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온라인 브리핑을 실시 하였다.(토요일은 서면)

3차 유행부터 4차 유행인 델타 변이 시기에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치명률이 높아 병상가동률,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중요해지자 브리핑 내용에 추가되었다. 2021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적도 브리핑의 내용에 추가 되고, 2021년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환자 수도 브리핑 내용에 추가 되었다.

11월1일(월)부터 11월28일(일)까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온라인(월, 수, 금), 서면(화, 목, 공휴일)브리핑을 하였고 11월29일(월)부터 12월31일(금)까지는 질병관리청의 발표 요일과도 나란히 맞추어 온라인(화, 목), 서면(월, 수, 금, 공휴일) 브리핑을 했다.

03

2022년 브리핑

4차 유행인 델타 변이로 시작해서 오미크론변이(BA1,2)에 따른 5차 유행, 4월24일(일)까지는 계속 그대로 온라인(화,목), 서면(월, 수, 금, 공휴일) 브리핑이 유지되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는 폭증하였으나 치명률은 높지 않았다. 2022년 2월 코로나19가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었지만 브리핑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었으며, 9월26일(월)부터는 서면 브리핑만으로 변경 되었다.(평일, 공휴일)

04

2023년 브리핑

2023년 6월1일(목)까지 서면 브리핑이 유지 되었다.(평일, 공휴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2023년 6월2일(금)부터 8월30일(수)까지 서면 브리핑을 주 1회(수요일) 실시하였다.

2023년 8월31일(목) 감염병 등급 하향(2급→4급)조정되면서 브리핑 운영이 종료되었다.



시민방역추진단장 이소라입니다.

6월 30일 부산시 코로나19
현황보고를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0일 오전 15명,
누계 6,23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은 서울시 확진자의 지인입니다.
****번은 서울시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번은 ****번의 접촉자로 격리해제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번은 경남 ** 확진자의 가족으로 격리해제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 ****번은 경기도 **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번은 **에서 입국한 분입니다.
****번은 ****번의 동료입니다.
****번은 **시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번은 ****번의 접촉자이며, ****번은 ****번의 가족입니다.
****, ****~****번은 감염원 조사중입니다.

역학조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 근로자 집단 발생 관련 내용입니다. 기존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1명이 격리상태에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업 관련 확진자 누계는 근로자 63명(16명 포함), 가족 접촉자 1명이며 소속된 사업체는 11개입니다.(**업체 9개, **업체 2개)

** 목욕탕 관련하여 이용자 1명과 가족 접촉자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이용자 9명, 접촉자 2명입니다.

오늘 18명의 환자분이 퇴원하여 격리해제자 누계 5,865명입니다.

오늘 오전 5921번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자 누계는 125명입니다.

현재 241명 환자는 부산의료원 118명, 부산대병원 29명, 동남권원자력병원 18명, 포항의료원 1명, 국방어학원 1명, 경남권제2생활치료센터 34명, 부산제1생활치료센터 37명, 수도권생활치료센터 3명 입원하였고 현재 병상배정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타지역확진자 17명은 부산의료원 15명, 부산제1생활치료센터에 2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 4명입니다.

일반병상 367개 중 사용하고 있는 병상은 176개 병상이며, 중환자 병상은 47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은 4개 병상입니다.

어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은 164명이며 검사를 받은 분은 89명입니다.

29일 검사 실적은 8,962건입니다. 총 검사건수에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39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일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15명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접촉자 2,283명, 해외입국자 3,977명 합계 6,260명 격리중입니다.

□ 최근 1주간(6.23~6.29) 환자 발생과 관련한 지표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주 총 확진자는 151명이었으며 1일 평균 확진자 21.6명으로 지난주 (6.16~6.22) 총 확진자 102명, 1일 평균 확진자 14.6명보다 증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확진자 중 해외입국자가 12명으로 전체의 8%를 차지하여 지난 주 해외입국자가 19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0.76, 지난 1주는 0.85였습니다. 감염경로 조사중인 불명 사례는

26명으로 지난주 21명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2%로 지난주 20.6%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불명 사례에 대하여 감염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관련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질병관리청에서 새로 확인된 부산의 주요 변이바이러스 사례는 알파형 변이 6명과 델타형 변이 15명입니다. 알파형 변이는 모두 지역감염으로 집단감염 관련 3명, 개별 사례 3명입니다. 델타형 변이 15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신규 사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부산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정 사례는 모두 104명입니다. 상세 내역은 알파형 변이 82명, 베타형 변이 6명, 델타형 변이 16명입니다. 그 외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예방접종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6월 29일 21시 기준 일일 예방접종 인원은 1차 접종은 1,673명으로 총 1,100,64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중 11,98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326,68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 부산시 전체 인구의 32.8%가 1차 접종을 하였으며, 9.7%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의 1차 접종률은 83.9%, 2차 접종률은 71.3% 입니다.
-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의 1차 접종률은 80.5%입니다.

- 어제 이상반응 신고는 176건으로, 이중 175건은 근육통, 발열 등 일반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사망사례 1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 누계는 7,978건입니다.

□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누리집,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이 예방접종한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 7월 1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종이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 쿠브(COOV)를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종이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1일부터 발급합니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부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으실 경우는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에게 부산시 차원의 인센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 공연, 영화의 전당 영화 관람과 마티네 콘서트,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 할인을 비롯하여 국립부산과학관, 부산현대미술관,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부산 관광공사에서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지금 말씀드린 7개의 공공시설 및 기관과 별개로 민간업체와 구군에서도 인센티브를 진행하거나 기획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종이증명서나 전자 접종증명서 또는 증명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하면 해당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으며, 참여 시설별로 인센티브 내용과 대상자,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의해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은 산책, 운동, 등산 등 한적한 곳에서의 여가 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되며, 2차 접종후 2주가 경과된 예방접종완료자들은 집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되는 예방접종은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며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나와 이웃을 보호합니다.

- 접종순서가 되시는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2022년 7월 26일 부산시
코로나19 현황보고입니다.

□ 병상 현황입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24개
중 8개 사용하여 가동률
33.3%이며, 일반 병상
41개(준·중환자 병상 18개,
중등증 병상 23개) 중 20개
사용하여 가동률 48.8%입니다.

□ 환자 현황입니다.

- 금일 사망자 4명입니다. 80대 3명, 6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3월 발생한 사망자 자연 신고 2건은 금일 질병청 승인으로 누계에 반영됨
- 현재 위중증 환자 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연령대는 80세 이상 7명, 70대 1명, 40대 1명입니다.
- 7월 2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6,315명, 누계 1,165,443명입니다.

□ 재택치료 현황입니다.

- 신규 재택치료자 4,928명, 현재 관리 인원은 21,313명이며, 이 중 집중관리군은 현원의 6.5%인 1,385명입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 누적 인원은 1,093,947명입니다.

□ 다음은, 최근 1주간 부산시의 코로나19 현황 및 관련 지표입니다.

7월 3주인 지난 주(07.17~07.23) 총 확진자는 25,969명, 1일 평균 확진자 3,709명으로 직전 주인 7월 2주(07.10~07.16) 확진자15,867명, 1일 평균 확진자 2,266명에 비해 약 1.64배 증가하였습니다.
확진자 연령대는 20대가 전체 확진자의 16.1%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0대가 16.0%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17.0%로 7월1주 13.9%, 직전주 1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부산시 코로나19 연령별 확진자 수 및 비중 (2022년 7월 3주)

구분		계	10세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7월 3주 (07.17.- 07.23.)	명	25,969	2,719	4,143	4,185	3,526	3,942	3,041	2,631	1,271	511
	%	100.0	10.5	16.0	16.1	13.6	15.2	11.7	10.1	4.9	2.0

지난주 사망자는 10명이며 연령대는 60대 1명, 70대 3명, 80세 이상 6명으로 접종현황은 미접종
2명, 1차 1명, 3차 4명, 4차 3명이었습니다.

위중증환자는 일 평균 6.1명으로 7월 1주 4.9명보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직전주 6.7명보다 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PCR진단검사 총 49,054건, 일 평균 7,00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평균 1.20으로 7월 1주 1.32, 직전주 1.33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먹는 치료제 처방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난 7월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투여시 만60세 이상 대상자의 중증화 위험을 63%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56%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복용 대상은 만 60세 이상 연령대와 만 12세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중 증상발생 5일 이내이며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먹는치료제 처방은 568개 의료기관(원스톱 의료기관 및 일부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가능하며 78개 담당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약값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되오니(※진찰료 본인부담금은 발생), 복용 대상이 되는 확진자들은 전문의료진 상담을 받으시길 권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올을 적극적으로 처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이상으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핑의 내용도 초기에는 확진자 동선 관리 등 역학조사 위주에서, 병상, 예방접종, 재택치료, 통계 등 세세하게 동선을 알려줌으로써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다가, 이후 유행 상황에 따라 확진자 관리보다는 전반적으로 정보를 단순하게 바꾸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9. 사회적 거리두기

01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을 최소화하여 집단감염의 원인이 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2020년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으며, 부산시는 정부지침에 따라 2022년 4월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감염병 대응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추진하였다.

유형시기별 거리두기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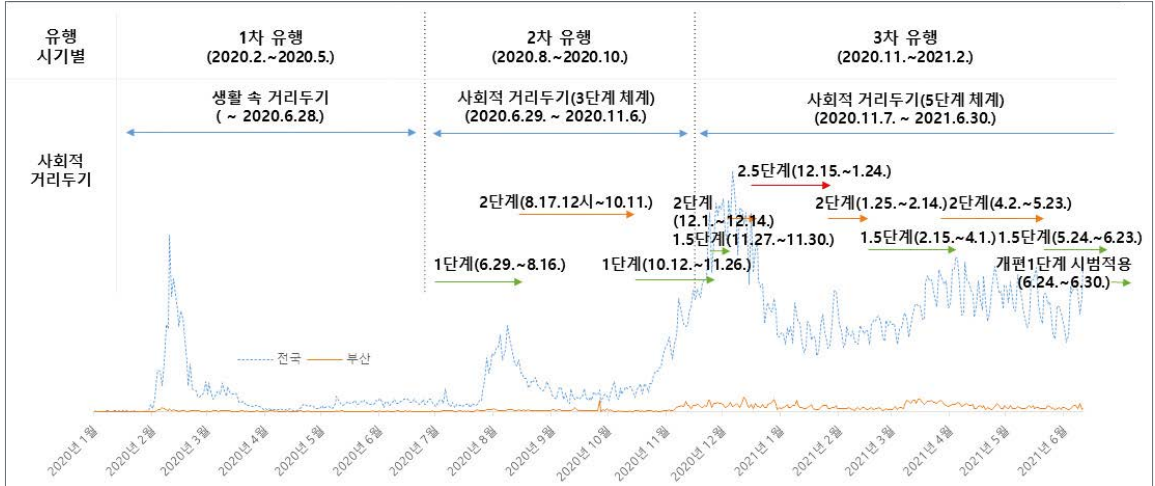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20.02.29. ~ 21.10.31.)	단계적 일상회복 (21.1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유행(비수도권 중심 유행, 202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된 거리두기(20.3.22.~4.19.) - 완화된 거리두기(20.4.20.~5.5.) - 생활 속 거리두기(20.5.6.~20.6.27.)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6.28.~20.10.31) • 2차 유행(수도권 중심 유행, 2020. 8. ~ 20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9.27.) • 3차 유행(집단시설 중심, 2020.11. ~ 20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20.11.1.~21.7.11.) • 4차 유행(델타변이 확산, 2021.7. ~ 202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21.7.1.~21.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일상회복 1차개편(21.11.1.~22.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21.11.1.~) -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 전환(21.11.26.~) • 5차 유행(오미크론 확산, 2022.1. ~ 2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 발표(22.1.14.~)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해제(마스크 제외)(22.4.18.~) • 6차 유행(BA.5형 변이 확산, 2022.7. ~ 2022.9.) •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완화(22.5.2.~) - 전면해제(22.9.26.~) • 7차 유행 (BA.5형 변이, BN.1형 변이 확산, 2022.10. ~ 2023.1.)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해제(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유지) (23.1.30.~) - 추가해제(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해제)(23.3.20.~)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23.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 의무(7일) → 권고(5일) 전환 • 코로나19 등급조정(2급→4급)(23.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권고 유지,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1차 개편, 2022년 4월 18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자가격리 의무(5일)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며, 코로나19 대응 기조가 정부 중심에서 통제에서 지자체·시민 자율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있었지만 부산시-시민-의료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실내, 실외 모두 단계적으로 해제되었고, 2023년 6월 1일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 자가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다. 2023년 8월 31일 마침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며, 3년 8개월 만에 코로나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02

유행 시기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현황

1~3차 유행 및 거리두기 체계 경과



1. 1차 유행(비수도권 중심 유행, 2020.2. ~2020.5.)

신천지 대구교회를 매개로 556명의 확진자가 발생(2월 23일)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염두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2020년 2월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4월 19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외출 자제, 사업장 재택근무 등 밀집환경 최소화가 요청되었으며,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행정명령 등이 시행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 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였다. 4월 27일 생활방역 관련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부처별 생활방역 전담조직(생활방역위원회)이 구축되었다. 5월 6일부터 신규 확진자수, 집단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본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하에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생활 허용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행되었다.

- ① 사회적 거리두기(2.29. ~ 3.21.) → ②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3.22. ~ 4.19.) →
- ③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 ~ 5.5.) → ④ 생활 속 거리두기(5.6. ~)

2020년 5월 11일 ~ 7월 26일까지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공공이용 시설은 잠정 폐쇄되고, 고위험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 등이 도입되었다.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주요 조치사항

· 5.12.	71개 유흥주점·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 6. 2.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연장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재난대응과, 2020.6.2. 6.2~별도해제시)
· 6. 9.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재연장
· 6.10.	'전자출입명부(KI-PASS)'전국 해당시설에 의무적 시행
· 6.23.	(중대본)고위험시설 추가 선정 및 핵심방역수칙 마련, 운영제한 조치 통보 → 부산시 고위험시설 추가 운영제한 조치 시행 (재난대응과, 6.23~별도해제시) 조치대상 :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 6.28.	중앙사고수습본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통일,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2020.6.28

구분 (최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환자 수(명) (지역사회 환자 중시)	50명 미만	50명~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건)	감소 또는 억제	지속적 증가	급격한 증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증가 또는 80% 이상	-	-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2. 2차 유행(수도권 중심 유행, 2020. 8. ~ 2020. 10.)

2020. 8월 광복절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와 서울 성북구 소재 종교시설 중심의 집단감염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8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환자 267명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신규환자가 23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자 수도권(서울·경기)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하였다.

2020. 8.16. 부산시장 권한대행 긴급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는 지난 8.10~8.16(7일간) 확진자가 39명 발생으로 시 방역 매뉴얼 상 상향기준(7일간 확진자 평균 6명 초과 발생)에 해당하여, 지역감염을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8월17일 12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였다.

2020.8.16.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방안 (재난대응과, 2020.8.17. 12시~)

8.16.~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학교 등 원격수업 전환 조치 해수욕장 방역관리 강화, 프로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강화, 시차출퇴근제 등 공공·민간기업 참여 협조
8.19.~8.29.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8.8. 경북공 인근 집회, 8.15 광화문 집회 8.7.~8.13. 서울 성북구 교회 방문자
8.19.~8.31.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행정명령 방역강화 대상 국가, 러시아 출항-부산항, 감천항에 입항·정박하는 선박
8.19.~8.31.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부산시 종교시설/정기적임 모임 외 소모임, 식사제공, 수련회 등 대면 면회 금지
8.20.	광화문 집회 참가자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행정명령
9.17.~9.27.	고위험시설(대형학원) 행정명령(교육협력과, 2020.9.17.고시 제2020-356호)

2020년 8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고위험시설 점검강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등을 강력하게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상 주요내용				
구분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구분		현재(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서울·경기 조치	우리시 강화조치(8.21~)
조치	집합·모임·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현재 30%)	무관중 경기	무관중 경기
	다중 시설	공공 * 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이용객 50% 제한	이용객 50% 제한
		민간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추가, 방역수칙 추가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추가 (현재 12종+PC방, 결혼식장 뷔페 추가(8.19)),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학교, 유치원, 학원	등교·원격 수업 병행(자제 판단)	집단발병 지역 원격 수업 - 2주간	전지역 원격 수업 - 1주간 우선 시행 - 학원 휴원 권고(~8.23.)
	어린이집	구군 자체 결정 (방역수칙 준수)	-	9개 이상 구군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발생 시 휴원검토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기타		타시도 이동자제 권고 서울 종교시설 집합제한 경기 종교시설 집합금지	

2020. 8. 21.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방역을 강화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실내, 실외(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2020. 8. 23.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이 심각해지자,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역으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도 2020.9.1.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하였다.

-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고위험시설(13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2020.1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13.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간	주요 방역 수칙
2020.8.17.12시 ~ 8.20.	<p>〈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고위험시설(12종) + PC방, 결혼식장 뷔페 추가(8.19.) -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p>※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0.8.16.~8.18.)</p>
2020.8.21. ~ 8.31.	<p>〈거리두기 2단계 강화 주요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시설(12종) 집합금지, 실내 공공시설 운영 중단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그 외 모임·행사, 식사 금지 - 7개 해수욕장 조기폐장, 민락수변공원 폐쇄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 시 인재개발원 교육 잠정 중단(인사고 자체, 8.27.~) <p>※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2020.8.19.~8.30.) 전 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2020.8.23.~8.30.)</p>
2020.9.1. ~ 9.6.	<p>〈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주요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시설(12종) 집합금지 연장 - 다중이용시설(11종) 집합제한, 목욕탕·사우나 집합금지(8.29.~9.6.) - 종교시설 집합제한 연장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2020.9.7. ~ 9.27.	<p>〈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주요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외 지역 방역조치 연장(2회) 시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9.4./9.21.)
2020.9.28. ~ 10.11.	<p>〈거리두기 2단계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시설(12종)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 다중이용시설(13종) 집합제한 연장 - 종교시설 집합제한 연장 -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연장
2020.10.12. ~ 11.6.	<p>〈거리두기 1단계 조정 주요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체 권고 - 일부 다중이용시설 필수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 집합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3. 3차 유행(집단시설 중심, 2020.11. ~ 202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급격한 방역대책 변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 3단계였던 거리두기 체계를 11.7.부터 5단계로 세분화하였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1.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명령이 시행되었다. 부산시는 11.5. 중앙정부의 권역별 단계 전환 기준을 자체 단계 전환 기준을 설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장기화에 대비 지속가능한 부산형 생활방역 방안을 수립하였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 (처분기간: 11.7.~)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① PC방 ② 결혼식장 ③ 장례식장 ④ 학원 ⑤ 직업훈련기관 ⑥ 공연장 ⑦ 영화관 ⑧ 놀이공원·워터파크 ⑨ 오락실·멀티방 ⑩ 목욕장업 ⑪ 실내체육시설 ⑫ 이·미용업 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⑭ 독서실·스터디카페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 조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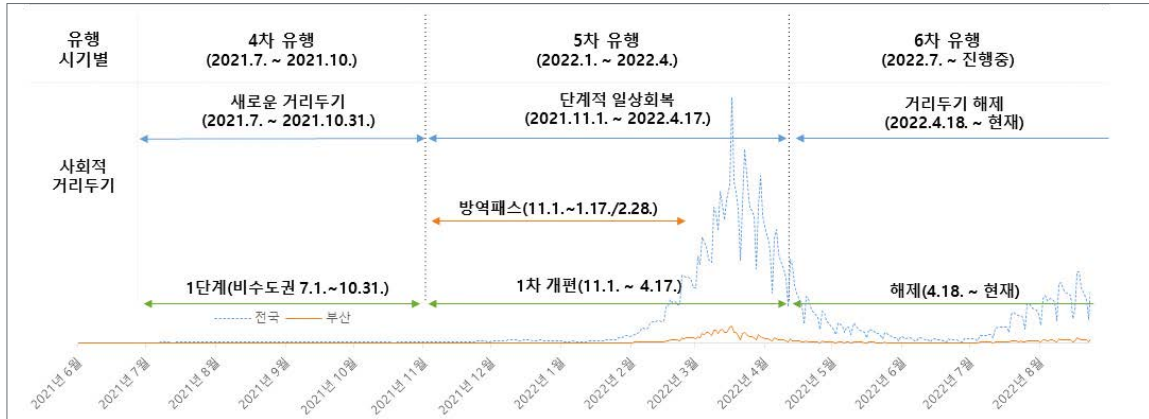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모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역수칙 의무화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스포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 입장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스크 착용 의무화

3차 유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영향까지 겹치면서 특정 집단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1, 2차 유행과는 달리 가족·지인간 모임, 학교, 직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확산하는 산발적 소규모 집단 감염형태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국적 감염 재확산과 안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11.2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모임·행사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기 간	주요 방역 수칙
2020.11.7. ~ 11.26.	※ 2020.11.7. 거리두기 세분화 개편(3→5단계) 〈거리두기 1단계 주요 방역조치〉 - 중점(9종)·일반관리시설(14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500명 초과 모임·행사 지자체 방역관리계획 신고·협의, 방역수칙 의무화 - 스포츠경기 관중 수용 50% 입장 - 예배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숙박행사 금지)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11.27. ~ 11.30.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방역조치〉 -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확대,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국공립시설 30%이내 제한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정규예배 좌석수 20%이내 제한, 모임·식사 금지

기 간	주요 방역 수칙
2020.12.1. ~ 12.14.	<p>〈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발한실 운영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종교활동 좌석 20%이내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
2020.12.15. ~ 2021.1.3.	<p>〈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조치〉</p> <p>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포장마차 21시 이후,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p>일반관리시설 대부분 21시 이후 운영중단, 발한실 운영금지</p> <p>종교활동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대면 예배 가능) 및 모임·식사 금지</p> <p>※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강력 권고 -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관광명소) 집합금지(폐쇄·통제)
2021.1.4. ~ 1.24.	<p>〈거리두기 2.5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식당·편의점·포장마차 21시 이후,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홀덤펍 등 집합금지 <p>PC방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및 비밀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p>※ 1.18.부터 노래연습장 등 일부시설 집합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p>
2021.1.25. ~ 2.14.	<p>〈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2.8.부터 22시 이후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p>결혼식 및 모임·행사 100명 미만 가능</p> <p>※ 설 특별방역대책(2021.2.1.~2.14.)</p>
2021.2.15. ~ 4.1.	<p>〈거리두기 1.5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p>유흥시설 6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이후 운영제한</p> <p>※ 유흥시설 6종 3.15.부터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 22시 이후 운영제한 해제</p>
2021.4.2. ~ 5.23.	<p>〈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p>※ 유흥시설 6종 4.12.부터 집합금지</p>
2021.5.24. ~ 6.13.	<p>〈거리두기 1.5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 22시(5.31.부터 23시) 이후 운영 중단
2021.6.14. ~ 6.23.	<p>〈거리두기 1.5단계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 중단(6.21.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
2021.6.24. ~ 6.30.	<p>〈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적용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4~6차 유행 및 거리두기 체계 경과



4. 4차 유행(델타변이 확산, 2021.7. ~ 2021.12.)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7.1.부터 비수도권에서 우선 시행하였고,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입을 연기하다 7.12.부터 시행하였다. 부산시도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2주(7.1.~7.14.)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였다.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20대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델타변이 확산 우려로 7.8.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7.10.부터 운영시간 제한 및 사적모임 등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관련 집단감염 발생과 수도권 4단계에 따른 원정 유흥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1그룹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하는 등 7.19.부터 한차례 더 방역수칙을 강화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단감염 사례나 확진자 발생이 급증으로 일부 방역수칙 강화(집합금지)
-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지역 내 유행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 5명 이상 제한

방역수칙 강화에도 사회 전반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7.21.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였다. 7월 말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등 4차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였다. 7.23. 수도권 4단계로 유흥시설 집합금지에 대한 다른 원정 유흥과 같은 풍선효과 차단 및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7.30. 유흥시설 외 노래연습장, 목욕탕, 학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수도권 원정 유흥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등 1그룹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였다.

기간	주요 방역 수칙
2021.7.1. ~ 7.7.	※ 2021.7.1.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거리두기 1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8명까지(접종완료자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유흥시설 5종 종사자 2주마다 주기적 검사 실시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50%까지
2021.7.8. ~ 7.9.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8명까지(접종완료자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유흥시설 5종 24시 이후 운영 중단, 운영·종사자 2주마다 주기적 검사 실시 - 1그룹, 2그룹 일부 시설 24시 이후 운영 중단
2021.7.10. ~ 7.20.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8명까지(18시~다음날 5시 4명까지) - 유흥시설 5종 24시 이후 운영 중단, 운영·종사자 2주마다 주기적 검사 실시 - 1그룹, 2그룹 일부 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 7.19.부터 1그룹+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2021.7.21. ~ 8.9.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4명까지, - 1그룹+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중단
2021.8.10. ~ 9.5.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4명까지(18시~다음날 5시 2명까지), - 1그룹+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중단
2021.9.6. ~ 10.31.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조치〉 - 사적모임 4명까지, - 1그룹, 2그룹 일부 시설 22시 이후 운영 중단 - 1그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학원 등 사업장내 모든 종사자 주기적 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중단(10.4.부터 인센티브 적용)

2021.10.13. 21년 11월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21.10.29. 중수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및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구분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전환 기준	① 예방접종완료율 (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40%) ③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2021.10.29.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11.1.) 전환에 맞춰 부산시민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제1차 부산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개최하여 부산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주요 대책을 마련하였다.

5. 5차 유행(오미크론 확산, 2022.1. ~ 2022.4.)

2021.11.1.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점진적 방역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를 시행하였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하였고,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 분위기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통제 및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0.29 접종 완료자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완화)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11.2.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거리두기 개편방향 및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가 일부 개정(5-1판)되어 안내되었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접종 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관련 사항과 최신 실내 환기 기준이 반영되어 있었다. 11.13.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현장 적용 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모임·행사 등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변경하였다.

2021.11.29.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도 12.1.부터 추가 접종 등 특별방역대책 실시와 함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위해 12.6.부터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및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등 거리두기 강화 조치 명령을 시행하였다.

-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실시

2021.12.31. 중수본은 델타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확산하자 병상확보, 유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1.14.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거리두기 기본방향으로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 본격화 및 비상상황 발생 시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방안으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는 설 연휴(1.29.~2.2.)와 연결되어 있어 3주간 시행이 필요하며, 사적모임을 완화(전국 4인 → 6인), 운영시간은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여 1.17.부터 시행하였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2022.2.18.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급증하고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요구가 가장 높은 부분만 소폭 조정하여 2.19.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QR 운영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시행)대로 시행 시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우려되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를 4.1.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2022.2.28.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자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관련 소송이 증가하였다. 2.28.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및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방역조치와 관련된 각계 의견,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의료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역패스
중단을 포함한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재연장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불편,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함
- 사적모임 제한: (현행) 7명 이상 금지 → (변경) 9명 이상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차 유행의 정점이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4.4.부터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다. 이후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여도 판단, 실내 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모든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약 2년
1개월 만인 4.18. 해제하였다.

- 2022.4.18. ~ 별도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사회재난과, 2022.4.15.고시
제2022-145호)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4.18.~),
실내취식금지 해제(4.25~)
-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4.25~)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자율방역체계로 전환되면서 생활방역수칙(2022.4.25.전면개정)에 의거
부처별 소관 시설·분야별 자율적 방역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협회 논의 등을 거쳐 실행력 있는
자율방역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4.25.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였다.
4.27 관계차관회의 결과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하는 조정방안이 논의되었고, 4.29 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5.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 2022.5.2.~별도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변경(사회재난과, 22.4.29.고시
제2022-155호)

- (주요 개정사항)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실내 전체, 50인 이상 참석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기 간	주요 방역 수칙
2021.7.1. ~ 7.7.	<p>※ 2021.11.1.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개편(1,2,3차) 〈단계적 일상회복 1차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12명까지 - 식당·카페 12명까지 가능하나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일부 시설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 행사·모임 접종무관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500명 미만 <p>※ 2021.11.29. 특별방역대책 발표,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p> <p>※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2021.12.6. ~ 12.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접종여부 구분없이 8명까지 - (식당·카페) 8명까지 가능(일행 중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 - (운영시간) 유흥시설 5층, 콜라텍·무도장 24시 이후 운영 중단 <p>※ 방역강화 조치 연장(2021.12.18. ~ 2022.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접종여부 구분없이 4명까지(2022.1.18.부터 4명→6명까지) - (식당·카페) 4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그룹 22시 이후 운영 중단 <p>※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022.2.19. ~ 3.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 (식당·카페) 6명까지 가능(미접종자는 1명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1~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22시 이후 운영 중단 <p>※ 방역패스 중단(2022.3.1. ~ 3.4.)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중단</p> <p>※ 거리두기 소폭 조정(2022.3.5. ~ 3.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 (운영시간) 1~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23시 이후 운영 중단 <p>※ 거리두기 소폭 조정(2022.3.21. ~ 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접종여부 구분없이 8명까지 - (운영시간) 1~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23시 이후 운영 중단
2022.4.4. ~ 4.17.	<p>〈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주요 방역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모임 10명까지 -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24시 이후 운영 중단 - 행사·모임 접종완료자 구분없이 최대 300명 미만, 음식 섭취 금지 원칙
2022.4.18. ~ 현재	<p>〈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2022. 4. 25.(월) 0시부터)

6. 6차 유행(BA.5형 변이 확산, 2022.7. ~ 2022.9.)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7.13.)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양하고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일상 방역의 생활화가 필요하였다. 7.18. 지자체·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특히 취식) 자제, 지자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현장 점검 강화 및 개인·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홍보 강화, 소관 시설별 방역관리 및 권고사항 안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6월 이후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시설 가동 증가 등으로 밀폐된 환경 형성, 비말 확산

위험 및 감염 취약도가 상승하여 다중이용시설별 소관부처·지자체를 통하여 실내마스크 의무 등 일상 속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부산시 의료협의체를 구성, 8.16. 1차 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8.30. 2차 회의를 통하여 추석연휴 코로나19 원활한 대응을 위한 비상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추석 연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였으며, 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부서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민원 응대를 위하여 추석 연휴 코로나19 시민 대상 Q&A를 제작 배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회의(9.23.)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26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9.23)에 따라 부산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실내 전체

7. 7차 유행(BA.5형 변이, BN.1형 변이 확산, 2022.10. ~ 2023.1.)

2022.10.1. 입국 후 PCR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낮은 치명율 등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입국 후 PCR 의무 검사 중단 및 위증상 중심 입구 관리체계로 전환하였다. 검사 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는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PCR 검사가 가능하였다.

2022.12.19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 등 논의를 위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2.23 중대본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본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 등 고려하여 단계적 조정
- (조정시점) 아래 4개 평가지표 중 2개 이상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검토(안)

평가 지표	평가 항목	참고치*	최근 현황
환자 발생 안정화	■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증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전주 대비 감소	증가
	■ 주간 치명률	0.10% 이하	0.08%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68.7%
고위험군면역 획득	■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이상	27.4%
	■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	45.8%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2023.1.20. 방대본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22.12.23.중대본 발표)에서 제시한 조정지표 상황분석 및 중국 유행 영향 등 검토 결과 1단계 착용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되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설연휴 이후 1.30.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2023.1.30. 부산시도 방대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하였다.. 2.7.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판)도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에 배포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였다.

- 2023.1.30. ~ 별도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변경(사회재난과, 23.1.27.고시 제2022-373호)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8.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착용 의무 조정(1.30)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평균 확진자수, 신규 위중증 환자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하였다.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기간 내 유행 급증이 가능한 신규 변이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국 또한 발생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변동 요인 또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 그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추가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3.15. 방대본은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2023.3.15. 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3.20. 부산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였다.

- 2023.3.20. ~ 별도 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변경(사회재난과, 23.3.16.고시 제2023-91호)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2023.5.15. 중수본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심각→경계) 발령 통보에 따라 유관부서 및 기관에 전파하였다. 부산시는 방대본의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 통보에 따라 6.1.부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주 1회에서 권고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대면면회 시 입소자 취식허용, 격리 7일 권고 전환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사항에 대해 안내하였다. 2023.5.26. 방대본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제9판)에 따라 부산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하여 발령하고, 개정된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을 안내하였다.

- 2023.6.1.~별도해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감염병관리과, 23.5.30. 고시 제2023-197호)

· (주요 개정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조정, 의원·약국 권고 전환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

2023.6.1.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었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 의원·약국 실내마스크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 등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되었다.

- 확진환자 격리 권고 전환
 -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격리 권고
 - 확진자에 대한 격리 통지 중단(양성확인 통지만 시행)
 -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및 이행한 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유지
-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전환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접촉 대면면회 시 입소자 취식 허용)
- 감시·통제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에서 주단위 발표
- 한시 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 채택치료 지원, 검사비, 입원치료비, 방역물자 지원, 치료제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유지
-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부산시청 1개소),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18개소) 운영 유지

2023.6.1.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법무부의 외국인 격리자 관리 통역지원 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날을 맞이하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료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3.6.8. 부산시는 6.1.부로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주요 방역조치가 전환됨에 따른 각 구·군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고자 구군 보건소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2023.8.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마침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발표)에 따라 2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 운영 또한 종료되었다.

- (주요 방역조치) 여름철 확산세 대응하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 당분간 유지
 -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시 실시하는 선제검사(입원·입소 전 음성 확인)는 현행대로 유지
-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 의료기관 유료검사 체계 전환 및 병상·선별진료소 유지
 - 방역상황 고려 상시지정병상(現 28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의 現 대응체계 지속
 - *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한 먹는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 유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현 31개소) 당분간 유지로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선제검사 지원
 - 의료기관 유료검사 체계 전환 및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지정 해제로 채택치료 지원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종료
 - *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종료
- (코로나19 감시체계) 전수감시 ⇒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 운영
 - 확진자 발생 조기 감지를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 지속 수행

03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산시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필요시마다(수시 4회 개최) 의료·방역 전문가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방역 단계를 결정하였다. 방역 단계 결정은 시민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20년 9월 10일 감염병 대응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 생활 방역에 필요한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논의하는 생활방역위원회로 확대하고 정례화하여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위원장(권한대행), 실·국장, 시의회, 의료·방역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교육계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한 역할로는 감염병 대응 및 생활방역에 대한 자문·정책 결정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을 논의(위험도 평가)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 조정 절차 〉

◇ (절차) 재난대응TF^① ⇒ 생활방역위원회 개최^② ⇒ 중대본 협의 후 결과발표^③ ⇒ 행정명령 조치 등 필요절차 시행^④

- ① (재난대응TF) 주요 재난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등 실·국·본부 간 사전 조정, 市 생활방역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필요시 개최)
- ② (생활방역위원회) 거리두기 기간 종료 D-3~4일 전 개최, 단계 조정(안) 보고, 확진자 발생 추이 및 위험도 평가 등 논의, 단계 조정을 비롯한 방역 강화 방안 자문 등(필요시 개최)
- ③ (결과발표) 거리두기 관련 중수본 회의 및 중대본 협의 후 거리두기 발표(브리핑)
- ④ (행정조치) 행정명령 고시, 보도자료, 구군·관련 기관·협회 등 안내, 시민홍보 등

2020년 9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는 2021년 10월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 구성·운영으로 실질적 운영을 종료하기 전까지 총 15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방역 강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등을 심의·조정하였다.

부산시 생활방역위원회 운영 현황

회의차수	회의일자	회의 주요사항
제1차	2020. 09. 10.	고위험시설 지원금 지급방안 및 행정명령 완화 방안 회의
제2차	2020. 09. 1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회의(2단계 연장 등 의견수렴)
제3차	2020. 09. 24.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 강화방안 심의(2단계 연장 등 서면심의) ※ 10. 4. 특별방역기간(2주차)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시행 긴급검토
제4차	2020. 10. 08.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방역수칙 의무화 강화) 방안 심의
제5차	2020. 11. 03.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검토
제6차	2020. 11. 30.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및 방역 강화 방안 검토
제7차	2020. 12. 1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및 방역 강화 조치 심의
제8차	2021. 01. 14.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고위험군 방역강화) 조정(서면심의)
제9차	2021. 04. 01.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발한시설 금지) 조정
제10차	2021. 05. 20.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1그룹,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제11차	2021. 06. 08.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발한시설 금지, 주기적 검사) 조정(서면심의)
제12차	2021. 06. 23.	새로운 거리두기 시범 도입 논의(개편 1단계, 사적모임 8명 허용)
제13차	2021. 09. 02.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발한시설 금지, 주기적 검사) 조정
제14차	2021. 09. 30.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발한시설 운영 및 접촉자 인센티브 적용)(영상)
제15차	2021. 10. 14.	단계 및 방역수칙(영업시간, 주기적 검사 업종 및 대상자 축소)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안전에 대한 사전 검토를 포함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관련 실·국·본부 간 사전 조정 및 숙의 과정을 통한 주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재난대응TF를 구성·운영하였다. 재난대응TF는 2022년 9월 3일부터 2020년 2월 17일까지 총 74회 개최하였다.

04

사회적 거리두기 평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부산시에서는 자가 격리와 시민들의 자율적인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 전파 방지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식 행사는 물론 각종 사적 모임까지도 행정명령을 통해 통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이 차례로 마련되었다.(2020.03.~2022.04.)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만큼 부산시의 사회경제적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이 가중되었던 만큼 빠른 시간에 해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며 고도화된 부산시 감염병 당국의 대응 역량과 부산시민들의 자율방역 실천 덕분에 2022년 9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었음에도, 별다른 확산세 없이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자율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자체 검토도 시작 되었다.이에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23년6월), 마침내 코로나19 등급이 조정(23년8월) 되었다.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동시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의 성과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일상 회복을 앞당긴 의미 있는 정책으로 기록되고 있다.

〈 향후 과제 〉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시행일 전 대중매체에 먼저 보도되어 방역수칙 점검 등 애로사항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침 변경시 시·구·군이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전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 필요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옥외집회 및 시위만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내 외 행사 기자회견 형태의 시위 등 사회질서와 관련된 분야의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부서 간 갈등 야기
- * 경찰, 유관기관 등에서 현장 협조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코로나19 상황실로 요청되어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 및 피로도 누적,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 감염병 위기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사회질서 유지, 위기관리, 대응 등 분야별로 관리(주관)부서를 명확히 지정 하여 대응 필요

10. 명절·수능·국제행사 대응

01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대응

부산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시민들이 우리 고유의 명절을 안전하고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명절 특별방역 대책들은 장기적인 방역 강화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격리되어 있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평상시와는 다른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 종교시설 등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부산시는 연휴기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우려에 따라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2020.09.28.~2020.10.11.)을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 486곳의 방역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연휴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강화와 응급진료체계 가동하여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마련하였다. 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공설 및 시설 봉안묘지시설 8곳을 전면 폐쇄하고, 온라인추모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이동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객의 감염 예방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수송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택시, 시내버스, 버스터미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속버스 등이 151회 추가 운행하였다. 한편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7대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하였다. 온누리상품권의 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고 동백전과 제로페이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 등 8,380곳의 생활안정을 위해 업체당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지역 관광업계는 최대 200만원의 위기극복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 장애인, 결식노인 등에 대한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공하여 소외계층에게도 나눔으로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한다. 이 밖에도 생활방역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2021년 설 연휴기간(2021.2.11.~2021.2.14.)에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예방접종 독려에 총력을 다하였고 시민들의 병·의원 진료와 의약품 구입, 코로나19 검사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진료 대책을 마련하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학교병원을 비롯한 35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정상 운영하였으며, 병·의원 390개소, 약국 974개소가 연휴기간 동안 병·의원 및 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코로나19 검사는 16개 구·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였으며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 캠페인 전개하여 가족, 개인 간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민 홍보를 하는가 하면 운수업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추진하였다.

응급상황 등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 바로콜센터(☎120), 119종합상황실(☎119), 129보건복지콜센터(☎129) 구·군 보건소 응급진료상황실을 통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www.busan.go.kr) 및 구·군 홈페이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설 연휴 4일간 영락공원, 추모공원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을 전면 임시 폐쇄를 결정하였다. 명절 기간 약 29만 명의 추모객이 집중되는 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대신 1.30~2.21 기간 중 설 연휴, 평일을 제외한 주말 6일간 '1일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1일 봉안당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 인원은 영락공원 1,300명, 추모공원

2,88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봉안당 추모 시 제례실 및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하고 또한, 제수 음식 반입 및 실내 음식물 섭취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부산시는 이와 별도로 1월 18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추모·성묘 서비스도 운영하였다.

2021년 추석 연휴 기간(2021.9.18.~2021.9.22.)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가족 모임 8인 이상 허용되었고 추석 전 1차 예방접종 235만명(인구의 70%)에 달성하여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일상에 가까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역량에 집중하였으며 추석 이후 확진자 급증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산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추석 연휴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생활정보 안내 사이트(<https://www.busan.go.kr/holiday/>)는 안전, 의료, 교통,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으며 의료 분야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약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알려주어 시민들이 건강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의료정보, 문화생활 정보 등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사이트를 운영하니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많은 이동량이 예상되는 만큼, 백신접종을 완료하신 분이나 최소 인원만 고향을 방문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하였다.

성묘와 봉안시설이 2년 만에 정상 운영됨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시·보건소·응급의료기관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와 선별진료소 31개소를 정상 운영하였다. 또한 부산시민들의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해소를 위한 비대면 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과 추석 연휴에 즐길 수 있는 ‘Lucky 홀로(Holo) Day’ 등 다양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하였고, 박물관·문화재단 등 예약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명절 문화생활 향유를 지원하였다.

“너만 건강하면 나는 다 괜찮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령·장기 병원을 지체하고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2021 추석
안전·방역 수칙 지키며
건강한 연휴 보내세요

2021 추석
연휴에 아플 때는 문여는 병원·약국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21 추석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2021 추석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문화생활을 즐겨주세요

2021 추석
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일을
확인하고 버려주세요

2022년 설 연휴기간(2022.1.29.~2022.2.2.)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가족 모임이 6인까지 허용되었고 오미크론 변이주의 우세종화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특별방역 점검하였고 예방접종 독려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시·보건소·응급의료기관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였다. 선별진료소 16개소와 임시선별진료소 6개소가 운영되었고 치료시설 병원 27개 병상 840개를 운영하였으며 생활치료소 6개소 1,989병상을 운영하여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였다.

귀성객의 감염 예방과 편의를 위해 고속버스, 철도 등의 수송력을 증강(평시 대비 운행 횟수 168회 증가, 수송 인원 1만4986명 증가)하는 한편, 학교 운동장 등 주차장 479개소 4만5705면을 개방하고 교통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자제를 위해 광안대교·부산항대교 등 8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 캠페인, 연휴 기간 이동자제 및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였다.

2022년 추석연휴(2022.09.09.~2022.09.12.)에는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해 취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의 치료와 관리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 연휴의 특별 방역대책은 그동안 해왔던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자제와 시설 차단 대신에 집단감염 취약 시설의 점검과 단속뿐만 아니라 증상이 있는 시민은 신속하게 검사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과 집단 감염(감염취약시설) 등 환자관리에 중점을 두는 비상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 지역협의체(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의 협의와 자발적 참여 유도로 16개 구군 어느 지역에서나 응급실과 원스톱진료기관과 담당약국이 공백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택치료 시 위급상황에 대비한 핫라인을 지속 운영하였다. 아울러 60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성질환자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2022년 추석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운영현황('22.8.29.기준)

(단위: 개소)

구 분	운영개소수	9.9.(금)	9.10.(토)	9.11.(일)	9.12.(월)
원스톱진료기관	189	81	12	26	168
원스톱진료기관 외	70	31	5	10	71
담당약국	96	69	23	40	80

아울러 재택치료 중 증상 발현 및 악화 시 비대면 진료를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4개소를 운영하였다.

※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부산의료원, 삼육부산병원, 세웅병원, 한양류마디병원

2023년 설 연휴(2023.1.29.~2.2.)에는 코로나19 재유행(제7차)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중국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확산 우려와 일상 유지 속에서 빈틈없는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단-치료-처방을 완결할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 191개소, 담당약국 117개소, 의료상담센터 4개소, 자율입원병원 5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구군 보건소 및 임시선별 2개소, 이동선별 1개소(필요시)를 운영하였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을 대비해 동절기 추가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따른 접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설 연휴 전 비상점검반 15개반 32명을 편성하여 사전점검(22.1.9~1.19)을 실시하였다.

02

수능대응

확진자나 격리의무자인 수험생에게 균등한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능 3주 전부터 수능현장관리반과 공동상황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확진과 격리통지 단계부터 수험생의 시험장 배정과 수송까지 시 교육청과 시 감염병관리과, 16개 보건소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였으며 확진 수험생이 시험을 응시 할 수 있는 거점병원(22년 기준 3개병원 10병상)과 비확진 격리자의 시험응시장을 확보하였고 수능 시험생의 코로나 검사 및 결과 확인을 수능 14일 전부터 통보받을 수 있게 부산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였다. 수능 전날 긴급상황반을 운영하여 수험생이 신속항원 PCR검사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결과 확인 및 시험장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으며, 수능확진자의 이송을 위해 방역수송차량 20대(1대1 매칭)를 편성하였고 소방청과 보건소에서는 긴급이송 지원을 맡았다. 수능 이후에는 시험장 학교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은 시험 후 10일간 임상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수험생 코로나19 관련 관리절차 및 체계



1. 부산국제영화제

2020년 온택트로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한 후 2년 만에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열리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기간으로 영화제가 방역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최 기간 방역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영화제 개최 72시간 이내 조직위 임직원,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 총 655명 전원 PCR검사를 시행하였고 운영인력 100%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영화의전당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리고 전 출입구 안심콜, 체온 측정, 손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상영 회차 마다 전 상영관 소독을 실시하였다.

2021년 10월 6일에 개최되는 개막식 행사를 위해 야외임에도 실내 상영관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전석 1,203석 규모로 조정하고 50% 좌석 띄우기와 전 좌석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였으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레드카펫 행사에서는 배우 차량의 하차지점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배우를 1인씩 입장시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였으며, 이후 확진자 접촉으로 배우들과 스태프에 대해 역학조사와 추가 검사도 실시하였다. 적극적이고 빈틈없는 감염관리로 2차 감염 없이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영화의전당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영화포스터로 의자에 씌워 좌석 띄우기 실시
xbeidocks00 님의 네이버 블로그

2. 지스타 등

지스타는 최신 게임 기술과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수능 기간에 매년 개최되어 많은 고교생들이 참여하는 국제게임 전시회이다. 2019년의 3,208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운영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2020년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2021년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준하여 이전과 다른 경험의 모습으로 개최되었다.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흥행보다는 안전을 선택하였고 관람객중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줄을 나눠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입장하였으며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람객이 많았던 지스타의 풍경과 달리 대기 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관람객의 접촉을 최소화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방식으로 개최되어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게임을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선보여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시기에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사례 중 하나이다.

부산시는 2021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국제광고제, 2022년 6월10일 부산국제연극제, 2022년 10월 13일 부산국제관광전, 2022년 10월 15일 BTS 부산콘서트(Yet To Come in Busan)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11. 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은 이전의 어떤 감염병보다도 빠른 기간 내 첨단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오래 지속되는 면역 세포와 항체를 형성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면역이 형성된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더 빠르고 더 나은 면역반응을 일으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코로나19 백신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 종류

□ **핵산백신(mRNA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RNA형태로 만들어 우리 몸에 투여하는 백신으로 인체에 주입된 mRNA는 우리 몸의 세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게 된다. 우리 몸은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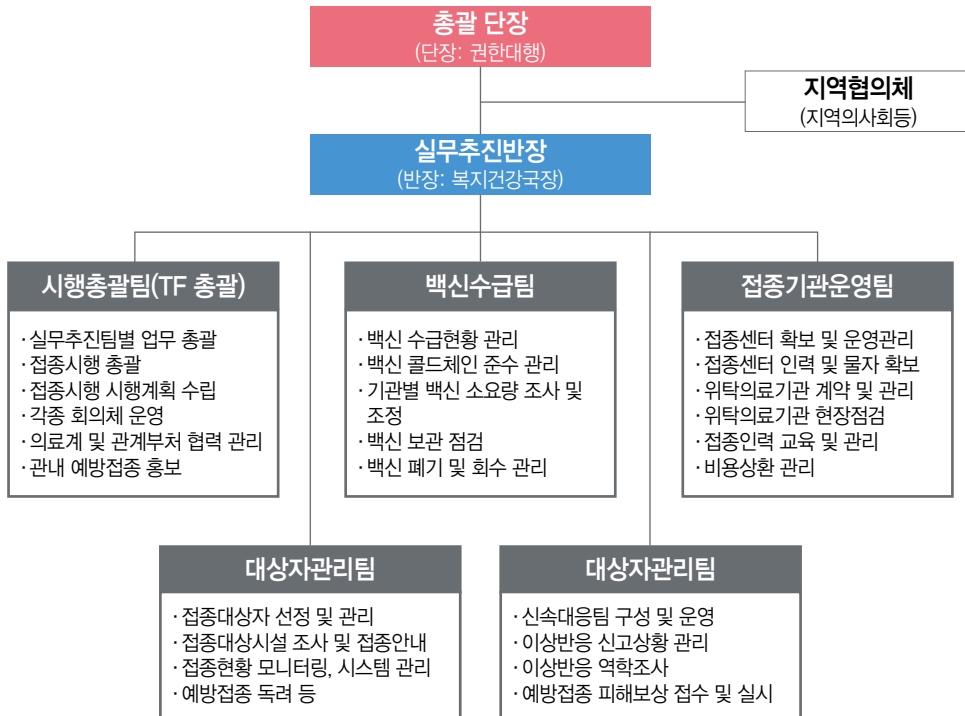
□ **재조합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해한 단백질 항원(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면, 인체의 면역체계는 단백질 항원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 **바이러스백터 백신** :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물질을 포함한 바이러스로 만들어 지는데 이때 사용되는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른 약독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인체에는 무해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의 유전 물질을 포함한 백터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

※ 국내 도입된 백신은 바이러스백터 백신 2종(아스트라제네카, 얀센), mRNA 백신 2종(화이자, 모더나), 재조합백신 2종(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등 총 6종임(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예방접종의 국내 도입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전담할 예방접종추진단이 시민건강국에 신설되었다.(2021.1.20.)

부산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추진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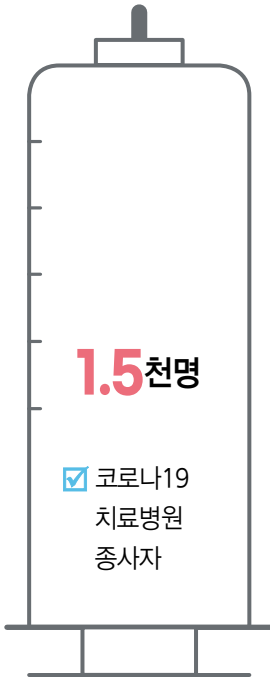
예방접종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수적이기에 민관 협력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위원회(市, 부산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등 14개 단체 및 기관)를 구성(2021.1.)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규모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상반응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및 「이상반응 사례평가위원회」를 구성(2021.2.)하였으며, 부산시의사회·간호사회 등과 연계·협력하여 접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방접종 인력 운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산시-의료단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021.2.)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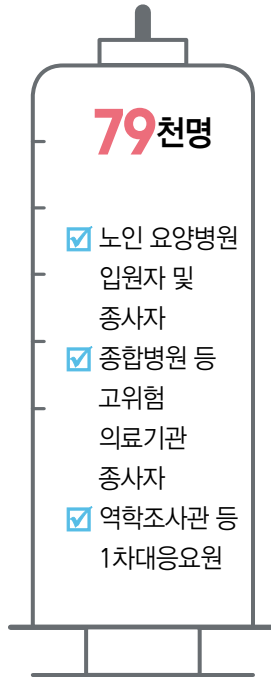
의료기관·예방접종센터·자체

2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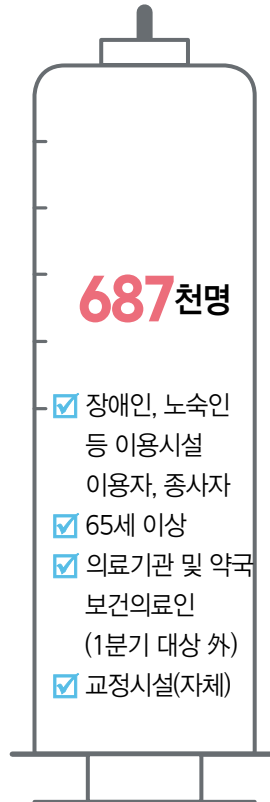
권역접종센터
1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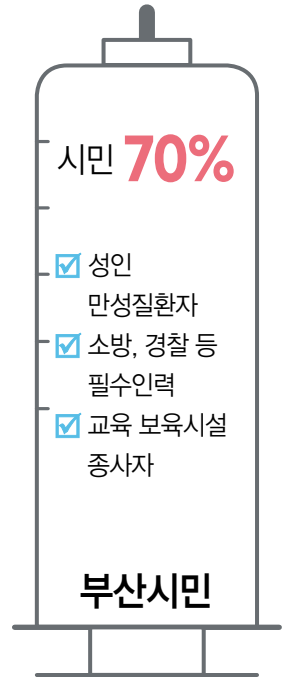
부산우선 접종센터
1개소
의료기관 자체접종

5월~



위탁의료기관 약 **1,000**개소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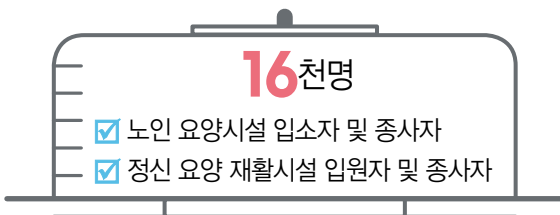


접종센터 **16**개소
(구·군별 1개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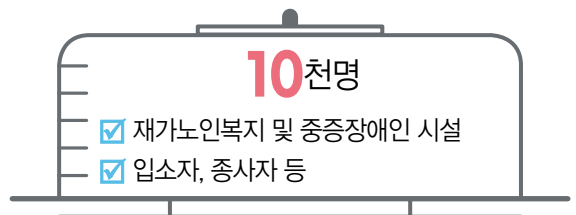
찾아가는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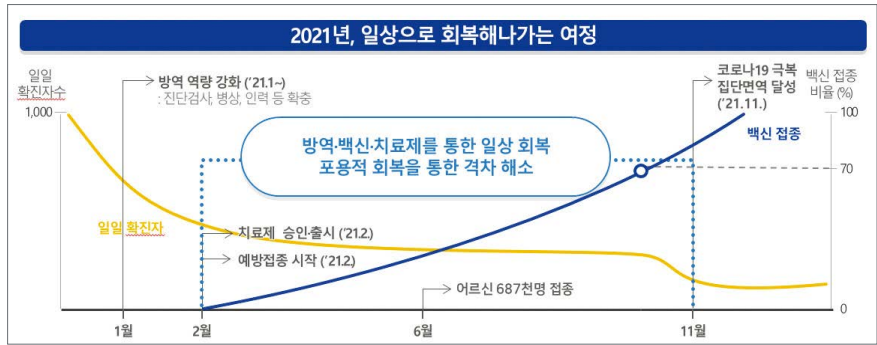
2월 말~



위탁의료기관·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2**명)

5월~





부산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부산시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21.2.11)하여 시행하였다. 백신의 종류와 보관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시행기관을 구분하였으며 백신 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안센은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는 화이자, 모더나는 접종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아울러 접종 순위와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자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종류에 따른 예방접종기관 종류

백신	mRNA 백신 (화이자, 모더나)	바이러스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접종기관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보건소당 1개팀)
기관 수	16개소 (구·군별 1개소)	1,000개소 (지정기준 충족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관장비	냉장고/초저온 냉동고	냉장고(백신용)		

2021년도 상·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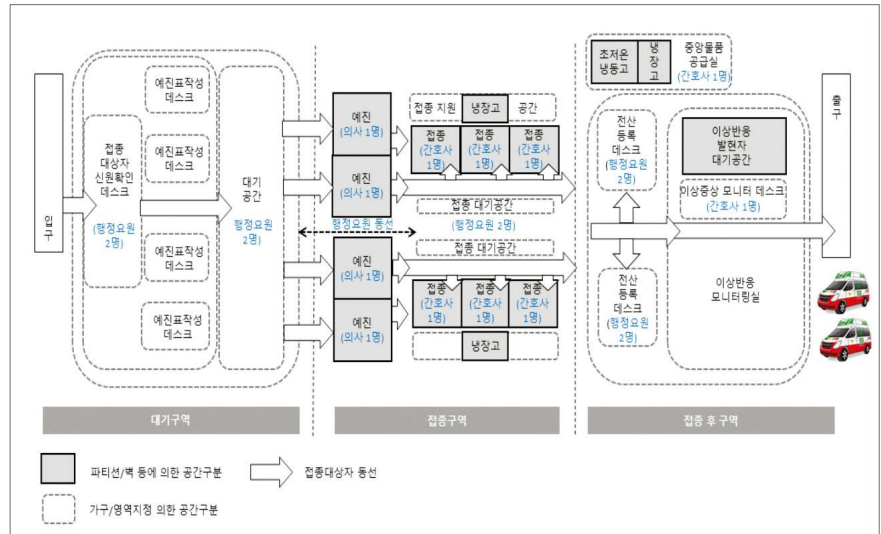
시기	대상인원(천명)	접종대상자
상반기	638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하반기	1,736	만성질환자, 경찰, 소방, 교육기관 종사자, 18~64세 등

02

예방접종센터 설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였으며 부산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를 구·군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예방접종센터는 신속하고 안전한 시행을 위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충분한 부지와 주차 공간 확보, 초저온 냉동고 설치를 위한 자가발전 설비 및 시설의 설치, 동선 정리를 위한 입·출구 분리 등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현장점검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다. 부산시 제1호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3월 10일 부산진구에 소재한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 개소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16개 구·군이 순차적으로 개소하였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실시한 접종 실적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244일간 976,778회(1차 495,032 2차 480,201회 추가 1,545회) 접종하였다.

▶ 예방접종센터 설치 모델



▶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접종센터 전경



접종센터 사전점검



부산1호 예방접종센터 개소식(부산진구)



접종센터

2021년 예방접종센터 설치 현황

구 분	시설 용도 (관리주체)	면적	접근성		보유시설·설비			개소 시기
			대중교통	주차장	자가 발전	냉난 방	환기	
가톨릭센터 (중구)	문화시설 (천주교재단)	572㎡	시내버스 도시철도	20면	○	○	○	메리놀병원 4.28.
서구 가족센터 (서구)	문화시설 (서구)	438㎡	시내버스 도시철도	18면	○	○	○	부산대병원 4.26.
부산진역 공터 (동구)	유흥지 (철도청)	400㎡	도시철도	75면	○	○	○	봉생병원 좋은문화병원 4.28.
국제크루즈터미널 (영도구)	교통시설 (항만공사)	1,188㎡	시내버스	136면	○	○	○	해동병원 영도병원 4.22.
시민공원 시민사랑채 (부산진구)	문화시설 (시설공단)	1,111㎡	시내버스 도시철도	902면	○	○	○	부산의료원 부산백병원 온종합병원 3.10.
사직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동래구)	실내체육관 (체육사업소)	784㎡	시내버스 도시철도	890면	○	○	○	대동병원 광혜병원 부산의료원 4.28.
남구국민체육센터 (남구)	실내체육관 (남구)	1,782㎡	시내버스	203면	○	○	○	부산성모병원 4.1.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	문화시설 (북구)	600㎡	시내버스 도시철도	156면	○	○	○	부민병원 구포성심병원 4.8.
문화복합센터 (해운대구)	문화시설 (해운대구)	597㎡	시내버스 도시철도	150면	○	○	○	해운대백병원 효성시티병원 4.26.
교통공사 신평체육관 (사하구)	실내체육관 (교통공사)	571㎡	도시철도	14면	○	○	○	부산본병원 4.22.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문화시설 (금정구)	608㎡	시내버스 도시철도	193면	○	○	○	대동병원 세웅병원 광혜병원 4.8.
강서체육공원 (강서구)	실내체육관 (체육사업소)	2,052㎡	시내버스 도시철도	300면	○	○	○	갑을녹산병원 부민병원 4.28.
연제국민체육센터 (연제구)	수영장 (연제구)	868㎡	시내버스 도시철도	83면	○	○	○	부산의료원 4.28.
수영구국민체육센터 (수영구)	실내체육관 (수영구)	600㎡	시내버스 도시철도	20면	○	○	○	좋은강안병원 BHS한서병원 4.28.
부산보훈병원 체육관 (사상구)	실내체육관 (부산보훈병원)	704㎡	시내버스	430면	○	○	○	부산보훈병원 4.26.
기장체육관 보조경기장 (기장군)	실내체육관 (체육사업소)	1,110㎡	시내버스	322면	○	○	○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기장병원 4.2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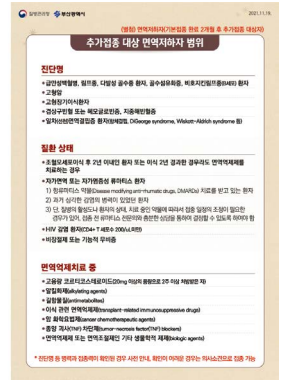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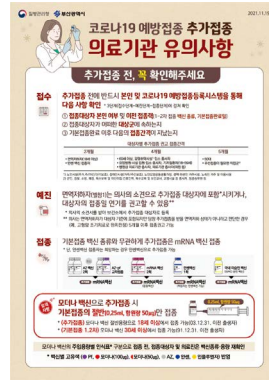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부산시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 접종을 위해 지역 의료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시의사회, 병원회, 간호사회로 구성된 3개의 의료단체와 접종 의료인력 확보 및 관리방안,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2021년 5월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됨에 따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백신의 보관과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예진 및 접종 방법과 접종 이후 접종자의 관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오접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인식표를 제작하였으며, 백신냉장고 문열림방지 장치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 - 의료단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협약식



업무협약식



위탁의료기관 접종 유의사항 안내문

04

찾아가는 방문 접종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의 거동 불편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접종팀 총 16개조(의사1, 간호사1명, 행정요원2명)를 운영하였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경로당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568개 기관, 544회 방문하여 17,297명의 방문접종을 실시하였다.

구 분	활동실적		
	방문횟수	접종인원	대상시설(경로당 등)
계	544	17,297	568
중구	20	331	13
서구	23	1,069	20
동구	6	250	6
영도구	6	389	5
부산진구	47	1,259	41
동래구	52	1,339	70
남구	26	280	72
북구	35	1,288	28
해운대구	56	1,211	56
사하구	45	1,425	44
금정구	31	1,385	31
강서구	30	675	28
연제구	40	1,967	36
수영구	20	625	19
사상구	34	1,026	30
기장군	73	2,778	69

05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7차 유행 이후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 반복으로 2022~20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이 시작되었다. 만 12세 이상 기초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기초접종 후 3개월(9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하도록 하였다.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여[2022.11.21.(월)~12.31(토)] 감염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접종을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을 1:1 지정 운영, 보건소장 회의 매주 실시, 의료협업체 회의 개최, 행정부시장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사망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최선이었다. 특히 “동절기 예방접종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 연시를 준비합시다”라는 메시지로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등을 통하여 집중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06

예방접종 홍보활동

부산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접종 참여 안내방송(총 1,337만회), 라디오 CM송 송출(2개 방송국 1일8회), 대상별 맞춤 접종안내문(49만부), 캠페인(6회), 현수막 게첨(총 1,020개소), 각종SNS와 홈페이지 게시, 접종 대상자에 대한 개별 문자 발송 및 유선 안내, 부산시 부기를 활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07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부산시는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시에 71개의 콜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예방접종의 안내와 병의원 예방접종 예약지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상반응 신속 대응을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운영을 하였다. 자체 응대메뉴얼을 마련하여 예방접종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시 전담콜센터는 2021.4.5.~2021.12.31.까지 행정복지센터는 2022.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로 인력이 축소되어 현재 보건소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구·군 콜센터 운영모델(안)

구분	시간	주요임무	인력(예시)	비고
주간	08: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예약지원(등록, 변경, 삭제 등) 접종기관, 접종절차, 전·후 주의사항 안내 이상반응 기본 대응사항 안내 및 접수 	공무원(1) 보조인력(3)	
야간	18:00~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기관, 접종절차, 전·후 주의사항 안내 이상반응 기본 대응사항 안내 및 접수 	공무원(1) 보조인력(1)	
(당직)	22:00~익일 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반응 기본 대응사항 안내 및 접수 중증이상반응의 경우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인계 	공무원(1)	

2021.5.6.~2021.5.13.일 8일간 16,175건의 전화가 폭주하기도 하였으며 문의유형에는 접종예약 81%, 시기와절차문의(15%), 이상반응(1%), 기타(3%)를 차지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예약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의 예약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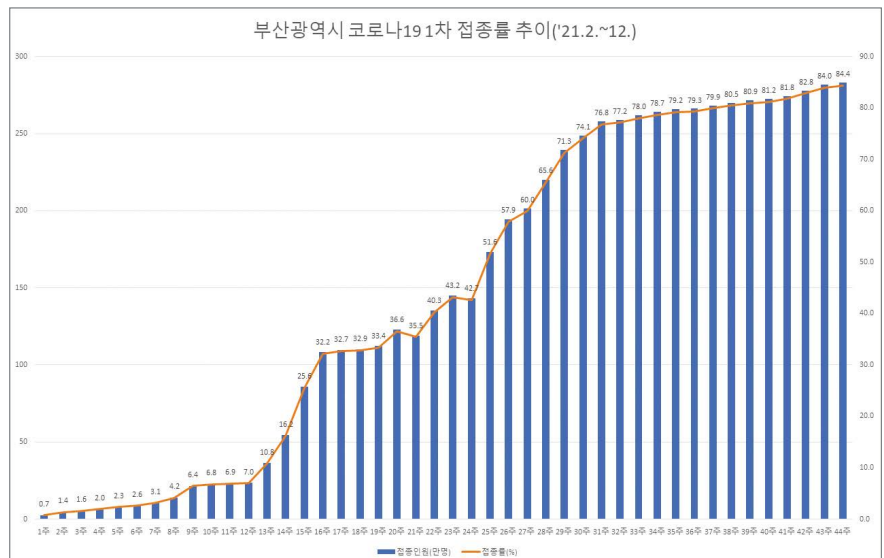
08

예방접종 실적

부산시는 시민참여와 대응 인력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인구수 대비 예방접종률 70%(시민 235만명)를 242일(2021.10.25.)만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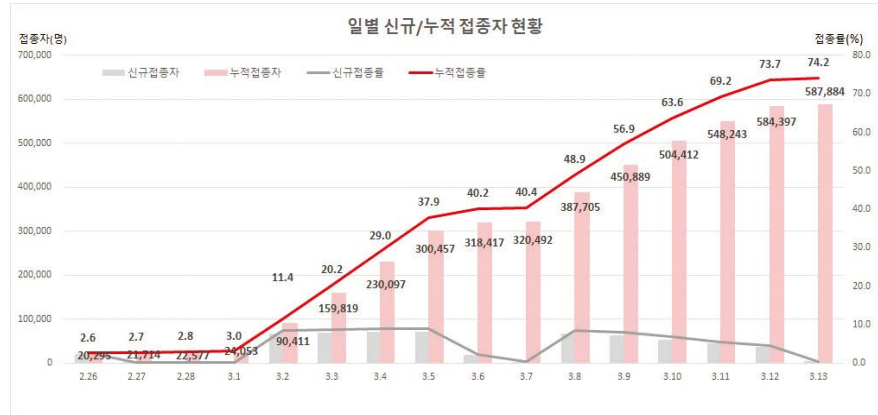
일부산광역시 코로나19 1차 접종률 추이('21.2~'22.)

(2021년3월15일기준)



일별 신규/누적 접종자 현황

(2021년3월15일기준)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연도별 실적

	1차	2차	3차	
2021년	283만명(84.3%)	285만명(80.8%)	111만명(34.3%)	—
2022년	288만명(86.5%)	285만명(85.6%)	—	34만명(10.3%)
2023년	285만명(87.9%)	282만명(87.1%)	212만명(65.4%)	43만명(13.4%)

09

이상반응 관리 및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이상반응에 대한 개인의 건강과 예방접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 유지를 위해 2021년 1월 25부터 추진중으로 접종받는 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중증·사망 사례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역학조사, 인과성 검토에 따른 피해보상 등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접종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민관 연학조사반을 위촉 운영하였다. 이상반응 신고 대응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및 관리, 조사 및 상담, 보상 체계 등을 강화하였다.

부산시는 대규모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예방접종추진단과 예방접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였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예방접종 콜센터를 운영하여 8.8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브리핑 시 예방접종 분야를 포함하고, 부산시-의사회가 공동으로 대시민 권고문을 발표하는 등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인식표를 제작 배부하고, 합동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접종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감염취약시설 접종률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통해 접종률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의 증가로 역학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역학조사 전담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이상반응 업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전문인력 지원 및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구성을 통해 부산시 이상반응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적 소통과 홍보, 일관된 정책방향, 지침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반시민과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능숙한 시니어를 활용하여 모바일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을 돕는 활동가들을 모집하여 다변화된 소통 방법을 마련하고, 감염취약 시설의 입소·입원자의 보호자, 요양보호사, 의료진 등의 의사 결정자의 의견, 신념에 따라 접종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 설득과 시설 평가 항목에 감염관리 항목과 예방접종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관된 예방접종 예약지원 시스템 마련, 방문접종팀 구성·운영 및 촉탁의 활용에 대한 유연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상반응 심의결과 ‘기각’ 사례에 대한 민원 불만 및 이의신청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인과성 검토 및 결과 안내 등 숙련된 의료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오접종 발생 유형 중 유효기한 경과 백신으로 인한 오접종 발생이 가장 많은 만큼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 및 지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12. 재택치료

01

재택치료 도입 배경 및 목적

2021년 10월 코로나19 델타 유행 시기에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한 재택치료는 7, 8월 여름철 수도권 유행시 확진자 급증으로 서울, 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이는 그 이전에 도입한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소아환자 자가치료 개념을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소아환자 자가치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2020.12.29.)에 잘 나타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 개정으로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시설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으로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에, 임상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이는 소아 환자 등에 대해 친숙한 환경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서는 '재택치료'는 입원대상이 아니거나 환자의 상태, 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자가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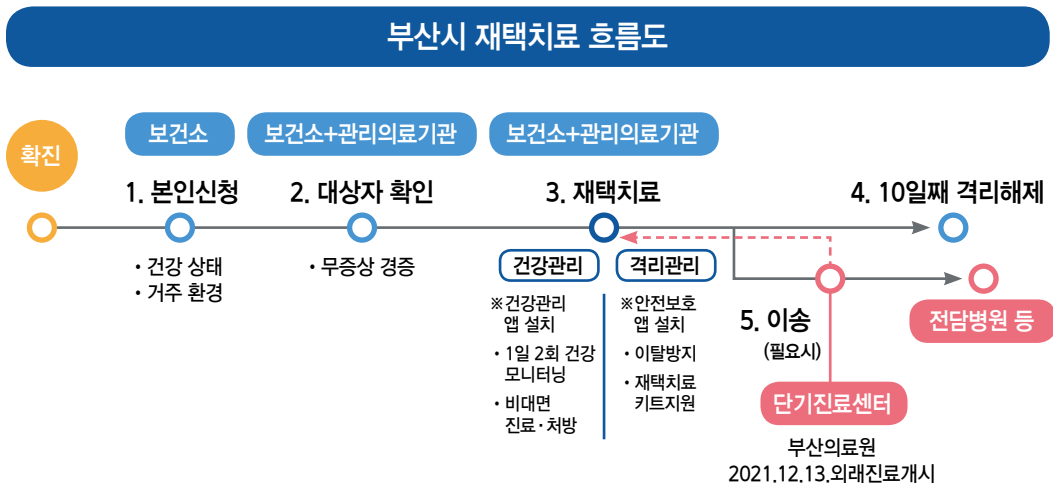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델타변이의 수도권외 지방 도시까지 확산과 함께 재택치료 본격 도입·시행하였으며, 앞서 부산시도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확보하여 정비하는 등 확진자 폭증에 미리 대비하였다.(2021.10.18.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아울러 재택치료 중에 발생하는 응급·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응급핫라인을 중심으로 재택치료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03

부산시 코로나19 재택치료(유행시기별)

가. 4차 대유행(델타 변이 ~2021.1. 재택치료 본격 시행)

▶ 델타유행 시기 부산시 재택치료 흐름도



*재택치료 안내서 제4판(2021. 11.) 참조

이 시기에는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방안 발표(2021.10.8.)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재택치료를 확대 개편하게 되었다. 정부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확대하고,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및 이송시스템 구축과 이송수단 마련 등 응급 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에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계획(2021. 10. 5.)을 수립하고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시민방역추진단(감염병총괄과) 내 재택치료 업무를 시작(2021.10.18.) 하였고, 2021년 10월 27일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재택치료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 등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 1일자로 응급핫라인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재택치료 관리 강화 발표(2021.11.5.)로 부산시는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1) 부산시 재택치료 전담조직 구성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인 재택치료 도입을 위한 준비 인원으로 2021년 10월 18일 재택치료 담당자 3명을 발령하였으며 2021년 10월 27일 재택치료관리팀이 시민방역추진단 내에 신설되면서 4명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시작하였다. 이후 재택치료 초기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7명과 실무수습 1명, 응급핫라인 기간제간호사 4명으로 조직되었으며 델타 확산시기에는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내 타 부서의 지원 근무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확진자 폭증으로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대응 인력을 신속히 추가 확보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응급핫라인 근무하는 간호사는 2021년 11월 1일 4명을 시작으로 오미크론 유행시기에는 최대 15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으며 그 외 의료상담센터 지원인력 및 전산입력 등 행정지원인력을 다수 채용하여 대응하였다.

2) 부산시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 구축

자가치료는 델타 유행 시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격적인 재택치료 이전의 지침인 자가치료 안내서(제1판~제3-1판, 2020.12.~2021.9.1.)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등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2021년 10월 8일자 중앙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재택치료 확대 시행”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계획(2021.10.4.)”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또한 부산시 민·관 의료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코로나19 재택치료 응급 대응체계 구축 계획(2021. 11. 14.)”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부산시 재택치료 24시간 응급핫라인 구축 체계도



부산시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는 재택치료관리팀에 설치한 응급핫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재택치료 중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산시 재택치료관리팀, 보건소, 관리의료기관(14개소), 119, 이송 의료기관(사전지정 5개소) 등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재택치료 도입에 앞서 재택치료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3) 재택치료 전담 이송수단 확보

델타 변이의 비수도권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확진자 규모의 증가는 재택치료자 이송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의 응급대응체계 전환(2021. 11. 26.)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응급대응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그 일환의 하나로 소방청에서는 전국 119 구급차 1,581대(특수구급차 295대) 운영 중이었으나 전국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 137대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운영인력 확보를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수본에서는 보건소, 119의 이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방역택시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허용하였다.(2021. 12. 8.)

이에 부산시는 재택치료 이송을 전담하는 방역택시(2021. 12. 13. 운영) 4대와 방역수송차량(2021. 12. 31. 계약) 20여 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자체 확보한 재택전담 이송수단 차량들은 비응급 이송으로 보건소나 관리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산시 응급핫라인의 연계를 통하여 치료 주사제의 처방이나 진료를 받기 위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담병원으로 전원시에 지원함으로써 보건소와 119의 이송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택치료 비응급 이송수단 참여 업체 현황

응역명	수행기관(업체명)	주소	임차내역	기타
코로나19 이송 재택방역택시	보은산업(주) (토마토택시)	부산시 영도구	방역택시 4대	단가계약
코로나19 이송 재택방역수송차량	(주)휴먼케어서비스	부산시 해운대구	렌터카 20대	이송건당계약

4)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2021년 11월 14일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연말에는 28개소의 관리의료기관(재택치료 최대 관리인원 2,600명)으로 지정·확대하였으며 관리의료기관은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운영하였다.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설문지, 상태기록지, 환자동의서 등을 확인하여 중증도를 판단하고 부산시 대응팀(환자배정) 및 보건소와 추가 확인을 통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정하고 재택치료 대상자를 대상으로 초기문진, 건강모니터링 1일 2회, 필요시 비대면 진료, 응급이송 판단 및 요청을 하였다.

5) 부산형 광역 응급하라인 운영

부산시 재택치료 응급하라인 운영과 함께 같이 시작한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은 향후 대응하는데 있어 좋은 선례를 남겨주었다. 이는 부산시 재택치료 대응 전체 기간동안 큰 사고 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충분한 업무 숙지나 교육과정 없이 간단한 요령 전달만으로 현장에 투입하였던 시기였음에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대응 유형별로 나누어 응급하라인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그 유형에 맞게 숙지한 후 대응하였다. 델타 유행 시기는 오미크론 유행시기처럼 걸려 오는 전화상담이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응급하라인을 이용하는 재택치료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가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야간 응급상황 시 이송 의료기관과의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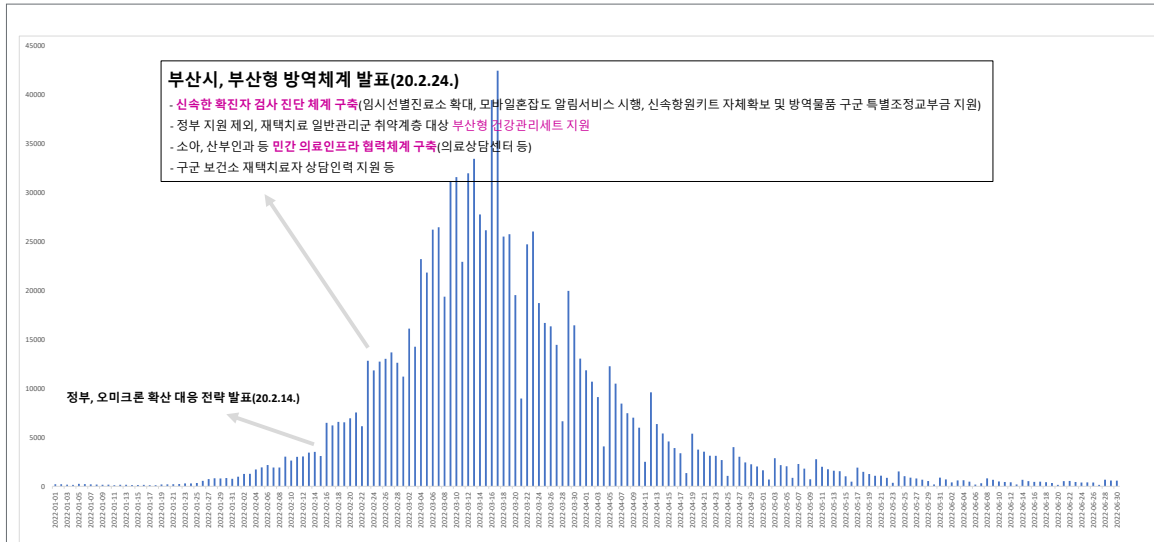
한편 보건소에서는 본격적인 재택치료 도입에 앞서 사전 대비에 바빴던 시기였다. 보건소의 재택치료관리는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명부 작성 등), 격리 통지서,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 및 생활수칙 교육(1:1전화), 재택치료키트, 약배송, 건강관리세트 등 재택치료자에게 지원하는 물품의 전달을 위한 관련 업무들,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및 조치, 외래진료 지원(예약, 이송 등), 상부 기관 보고자료 작성, 전산작업, 제증명 업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다. 아울러 증가한 재택치료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의 구성이 시급히 필요하였으나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TF 형태의 임시 조직으로 편성하였으며 팀장의 경우는 기존 감염병 대응 관련 팀장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팀원의 경우 기존 인원의 재배치와 타부서 지원근무자, 실무수습, 기간제 근무자 등 대부분 임시적으로 총원하는 인원으로 구성하였다.

6) 재택치료키트 지원

아울러 건강모니터링 시 반드시 필요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키트(건강관리세트)는 질병관리청에서 전국 단위로 기초자치단체의 수요량을 주간 단위로 시·도에서 파악하였으며,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구·군에 공급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수요량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고 일부 공급 차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5차 대유행 오미크론 변이(2022.1.~2022. 7. 31.)

부산시 오미크론 확산 시기 부산시 대응, 2022. 1. 1. ~ 2022. 6. 30.



오미크론 변이주의 대규모 확산으로 정부의 주요 대응 체계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델타 유행이 끝나고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 시기인 2022년 1월 한 달 동안은 오미크론 변이 대규모 확산에 맞서 대응체계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시기였다.(지속 가능한 일상 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발표, 2022.1.14.) 먹는 치료제를 국내에 도입(2022.1.14.)하였으며 동네 병·의원 중심 검사·치료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한 조치가 있었고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2022.2.10.)하여 발표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반관리군에 대하여 비대면 상담을 위한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24시간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확진된 경우 확진으로 인정(2022.3.14.)되어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하게 확진자 판정 기준을 변경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격리기간 단축(7일→5일), 통계주기 전환(일→주),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 '22.4.25.)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이행기, 안정기)을 발표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으로 새로운 일상 전환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의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발표(2022.1.14.) 시기, 확진자 폭증으로 취약계층 등 일부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민 불안이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시기였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 대응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과 민·관 의료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택치료 대응체계 중심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취약계층을 위해 끝까지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에 맞서 부산형 방역체계를 수립·시행하였다.(발표 2022. 2. 24. 시장)

부산형 긴급 방역체계의 주요 골자로는 ①신속한 확진자 검사 진단 체계 구축, 모바일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 서비스 시행, ②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 추가 설치, ③정부와 별도 신속항원키트 부산시 자체 확보 및 방역물품 구입 등 구·군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④정부 지원 재택치료키트 대상자에서

소외된 일반관리군에 대하여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⑤민간 의료인프라 협력체계 구축(확진 산모 출산병원 안전관리비용 지원, 소아 전담 의료상담센터 긴급확대,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동네 병·의원 확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확대), ⑥ 구·군 재택치료자 상담인력 지원 등이다.



부산시,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 발표(2022. 2. 24,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형
긴급 방역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시 방역·의료 대응체계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T 전략(Testing, Tracing, Treatment)의 첫 번째인 "신속한 확진자 검사 진단 체계의 구축"으로 이를 위해 부산시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선별진료소 혼잡도 알림 서비스를 즉시 시행하고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사하구 다대포 소각장, 서구 구덕운동장)를 추가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정부가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구하기 어려워진 신속 항원 진단 키트를 부산시는 정부와 별도로 자체 확보하여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신속히 대응하였으며 방역 물품 등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긴급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의 재택치료키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부산형 건강관리세트를 긴급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위중증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의 인프라 활용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향후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또 다른 신종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시에 우리 시가 미리 대비하고 구축해야 할 중요한 감염병 주요 정책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평상시 민간 의료자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그리고 감염병 유사시 동원이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부산형 의료대응체계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1) 부산형 광역 응급핫라인 확대 운영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급증 및 상담수요의 급증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핫라인의 규모 또한 확대해 나갔다. 델타 유행 시기 4명으로 시작했던 인원을 오미크론 확진자 정점 구간에는 최대 15명까지 확대하였으며, 일 최대 153,488명(22.3.20)의 재택치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비응급 상황에 대한 24시간 의료 대응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와 관련된 문의·상담 전화 폭주 등으로 응급핫라인의 대응 인력(기간제간호사)을 긴급히 확대 투입·운영하였다.

2)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지원 정책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또한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부산시는 의료상담센터의 정상화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형 방역·의료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지원 정책(인센티브)을 도입하고 재택치료관리팀 내 의료상담센터 지원 콜센터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시민들의 재택치료 관련 상담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효율적 상담인력 활용을 위한 콜센터를 응급핫라인과 함께 운영하는 등 이러한 의료상담센터 지원(인센티브 + 콜센터 지원) 사례는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모형으로 개발·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택치료관리시스템(HUB)에 확진자 정보 등을 입력하기 위한 행정지원 인력 10명을 채용하는 등 탄력적인 응급핫라인의 운영으로 재택치료 관리 및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3)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확대

오미크론 유행 당시 관리의료기관은 정부의 방침(재택치료 안내서 제6판, 2022. 2. 16.)에 따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관리군은 전화 상담·처방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재택치료 집중관리군과는 달리 일반관리군을 차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실시 등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업무량 급증으로 이어져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본인이 진료 필요 시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요청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한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일반관리군에 대한 비응급 이송수요(외래진료, 투석 등)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야간 상담·처방 필요 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부산시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맞게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가능한 재택치료 환자 수를 수요에 맞추어 확대 지정하였으며 2022년 4월 22일 기준 부산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수는 82개소와 관리 가능한 재택치료 환자 수 33,725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확진자 규모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축소하여 2022년 8월 1일자 일반관리체계 전환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 부산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확대 현황과 정부의 주요 정책 변경 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 오미크론 유행 시기 부산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확대 과정

일자	'22.2.2.	'22.2.9.	'22.2.16.	'22.2.25.	'22.3.4.	'22.3.11.	'22.3.18.	'22.3.25.	'22.4.1.	'22.4.8.	'22.4.15.	'22.4.22.
관리의료기관	48	48	49	56	60	64	77	77	78	80	82	82
관리가능인원	6,506	11,050	11,500	11,530	17,671	20,935	27,015	32,905	32,995	33,435	33,725	33,725
관리의료기관 관련 주요정책		('22.2.10.) 정부, 재택치료 건강관리 체계 개편 ○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 전화 상담·처방 ○ (일반관리군)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전화 상담·처방										
					○ ('22.3.1.) 재택치료 집중관리자 대상자 기준 변경 → 관리의료기관 업무량 확대 - 60세 이상, -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용어수정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 코로나19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재택치료 대상자로 간주하여 확진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가능							
					('22.3.29.) 대상자 분류 체계 개편 ○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변경 - 60세 이상 -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단, 의료기관에서 RAT 양성으로 확진 인정받은 경우 집중관리군에서 제외) *본인 희망시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검사기관이 집중관리의료기관일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해당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 가능							
※ 2022. 8. 1.자 일반관리체계 전환 이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22. 8. 8.자 운영 종료												

4) 지역사회 동네 병원 중심 대면·비대면 진료 확대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로 정부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의 전환으로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흡기 환자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여부 검사, 검사 후 재택치료(경증) 등 환자에 대한 의료적 통합관리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초기에 진단하고 내원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확인, 환자 진료(대면·비대면 처방 등), 재택치료, 중증 환자 전원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였다.

부산시는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래진료센터 확대 및 의료 취약군에 대한 전문관리, 비코로나 질환에 대한 진료역량 확보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외래진료센터 시설 및 장비구입비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했고 이를 통해 참여기관 6개소를 확보하였다.

또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외래진료센터) 8개소를 지정하여 진료 취약계층인 소아에 대한 대면진료 전담 체계를 구축하였고, 부산시 호흡기 클리닉 35개소에 대한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독려하여 1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법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변경(병원급 3.30일, 의원급 4.4일부터)되었다. 그 전까지 부산시 자체로 확보한 외래진료센터 지정기관은 총 19개소로 881건의 외래진료 예약 및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외래진료센터 지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변경된 후 외래진료센터는 400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부산시는 기존에 지정 운영하고 있었던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진료·검사·처방)를 확대하는 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2022.2.10.시행)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2022.2.10.시행, 24시간 운영) 등의 신청을 받아 비대면 진료 체계 확대에 노력하였다.

부산시 동네 병·의원 등(대면·비대면) 의료기관 확대 현황

명칭	2022.2.10	2022.2.22	2022.3.5	2022.3.15	2022.3.23	2022.4.1	2022.4.20	2022.6.22	비고
호흡기전담클리닉	-	-	16	16	16	18	18	17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	221	239	259	276	292	292	
전화상담·처방 동네병의원	-	-	151	171	199	220	235	235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7	6	10	11	11	11	11	4	‘23.6.1. 종료
소아·청소년 진료가능 의료기관	-	-	65	68	76	79	80	83	
합계									

기존의 외래진료센터 및 외래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인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동네 병·의원 등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1일 자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용어를 일원화하여 사용하였다.

5) 먹는약 치료제 도입

2021년 11월 이후 재택치료 초기 도입 당시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건강모니터링 시 약 처방 및 배송이 필요한 경우 관리의료기관과 연계된 지정약국을 통하여 재택치료 환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재택치료의 처방의약품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전달 가이드라인(2022.2.10.)’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 델타~오미크론 유행 시기 의약품 전달체계 변경 과정



*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이에 부산시에서는 2022년 1월 14일 도입된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의 효율적인 공급과 처방을 위하여 2월 16일자로 구·군 별 1개소 이상의 약국을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으로 지정·운영하였다. 또한 팍스로비드 등 재택치료 처방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IRA)을 활용하여 당일 공급량, 사용량 등의 재고 관리를 하는 등, 구·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약국과 협력하여 약배송 체계를 구축·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폭증으로, 급증하는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전달 업무의 과부하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은 한계에 다 달았고, 부산시는 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택치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市 특별조정교부금(처방 의약품 배송비 등)을 구·군에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 부산시 오미크론 유행 시기 재택치료 담당약국 지정 현황(2022.1.~2022.4.)

구분	2022. 1.	2022. 2.	2022. 3.	2022. 4.
담당약국(구, 지정약국)	39	51	58	62

※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자 등 확대 조치로 담당약국 지정 확대(2022. 8. 기준 187개 담당약국 지정)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 사용화면



6) 재택치료 응급·비응급 이송체계 구축

재택치료 본격 도입 시기(델타 유행 시기) 정부에서는 비응급 상황에 대비한 이송 수단 및 이송 시 준수사항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재택치료 안내 제5판 ‘21.12.13.) 이송 수단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체 관리하는 민간 이송 수단을 허용(외래진료 등 비응급 이송)하였으며 접촉완료 운전자, 창문개방, 이송 시 구급차와 동일한 동선 활용, 운전자와 대각선 방향 등의 이송 시 준수사항과 비응급 이송 가능 여부 판단, 이송 수단 및 이송 의사 확인, 수칙·동선 교육, 자택 복귀 확인 등의 관리 방안을 지침에 마련하였다.

부산시 재택치료 응급 이송체계는 市 시민방역추진단(재택치료관리팀), 보건소, 119 소방본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이송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상연락체계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하라인을 운영하였으며, 응급하라인은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로 재택치료 이송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외래진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안정적인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부산시 자체 이송 수단의 확보가 시급하였으며 외래진료 등 비응급 이송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택시업체와 재택치료환자 이송전담 방역택시를 긴급 계약하는 등 민간 이송 업체 2곳을 선정·계약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택치료 본격 시행 초기에는 방역택시 등 비응급 이송 수단을 적기에 확보하여 보건소 및 119의 이송부담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는 확진자 폭증으로 대규모 이송수요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투석 등 외래진료를 위해 도보나 본인 운전 및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게 하는 등 이송 수단을 완화하였으며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외래진료 등 비응급 이송과 응급 이송을 구분하여 차별·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의 어려움으로 증가하는 대규모 이송수요에 대한 적시에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부산시 코로나-19 재택치료 응급 이송체계 요약

	주요 항목	소아 자가치료 '20.12~'21.9	델타유행 2021.10.1.~2022.1.15.	오미크론 유행 2022.1.16.~2022.4.25.
부산시 응급 이송 대응 체계	이송체계	○ 환자이송체계 구축	○ 이송체계 구축 - 재택치료자 안내, 이송수단확보, 사전 이송 의료기관 지정, 비상연락망, 전원 절차 등	○ 이송체계 구축 - 재택치료자 안내, 이송수단확보, 사전 이송 의료기관 지정, 비상연락망, 전원 절차 ·준수 등 - 외래진료센터 확대→왕복체계구축 (안내서 제6판)
	비상연락 체계	○ 전담팀, 관할보건소, 시·군·구, 소방서, 의료기관	○ 24시간 응급 핫라인 구축 : 재택치료팀, 관리의료기관, 119, 시도 병상배정반, 이송의료기관	○ 24시간 응급 핫라인 구축 : 재택치료팀, 관리의료기관, 119, 시도 병상배정반, 이송의료기관
	이송수단	○ 구급차(보건소, 의료기관, 119) 사전 이송 의료기관 지정	○ 구급차(보건소, 민간구급차, 119) 및 지자체 확보 방역택시 4대 ○ 사전 이송 의료기관 지정	○ 도보, 개인차량, 구급차(보건소, 민간구급차, 119) 및 지자체 확보 방역택시 4대, 방역수송차량 20여대 ○ 사전 이송 의료기관 지정
	커터	○ 자가치료 누적 12명 (이송실적 없음)	○ 재택치료 전원 이송 : 509건 ○ 재택치료 단기외래등 이송 : 102건 ※ 지자체확보 방역택시 운행	○ 재택치료 이송 실적 : 2,583건 · 전원(병원·생치) 이송 : 1,973건 · 재택치료 외래등 이송 : 610건 ※ 지자체확보 방역택시 운행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자체 이송 수단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이송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부산의 의료 여건을 반영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은 모범적인 대응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또 다른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광역 단위의 응급 핫라인 운영과 민간 이송 수단의 조기 확보에 대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방안으로 평상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민·관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간 의료자원의 비상시 활용에 대한 공감대 및 협력을 사전에 형성하고 시설·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평상시 감염병 대응 인력의 양성이 중요한 것과 같이 감염병 유사시 긴급 동원할 수 있는 감염병 의료자원(지역사회 민간 부문의 물적자원) 또한 예비 전력으로 평상시에 양성·대비함으로 미래 대규모 신종감염병 사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7)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부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부산시가 성실하게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2년 2월 10일, 오미크론 변이주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차별관리가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였다. 그동안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건강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만 환자 본인의 필요시에 동네 병·의원이나 의료상담센터 등의 진료체계(대면·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여 재택치료 중 건강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반관리군에 대한 관리 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은 격리 중에 제공받았던 건강관리세트를 지급 받지 못한 상태로 격리되는 등 집중관리군 위주의 정부 재택치료 지원으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일반관리군에 대한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산시는 신속한 확진자 검사 진단 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산형 긴급 방역체계를 발표 구축”(2022. 2. 24. 브리핑, 시장)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일반관리군에 대한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을 위한 TF팀을 신설하여 2022년 2월 24일부터 지원하게 되었다.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택치료에 필요한 물품을 100,000개 긴급지원함으로써 시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시행하였다.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날짜	주요경과
2022. 2. 18.	<p>재택치료물품지원TF팀 설치(2.18., 자치분권과 내)</p> <p>○시장 지시사항(2.21.)</p> <p style="text-align: center;">〈 오미크론 확산, 시민불편 최소화 당부 (22.2.21., 주간정책회의) 〉</p> <p>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시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공포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해주고 재택치료자분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및 소통 강화에도 적극 힘써주기 바람.</p> <p>○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원계획 수립 (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22.2.10.정부 방역체계 개편으로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에게만 질병관리청 키트를 지급함에 따라 취약계층 일반관리군에게 건강관리세트 지급하여 재택치료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12~59세 일반관리군 취약계층* 중 신청자 (외국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1인가구 - (구성물품) 해열제, 종합감기약, 체온계, 신속항원키트 * 신속항원키트는 시민방역추진단 지원으로 별도 구입 불요 <p>○오미크론 확산 대응 부산형 방역체계 발표 (2.24.)</p> <p style="text-align: center;">〈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 (22.2.24.브리핑, 시장) 〉</p> <p>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산시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공포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대응해주고 재택치료자분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및 소통 강화에도 적극 힘써주기 바람.</p>
2022. 2. 24.	<p>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신청·배송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시작) '22. 2. 24.(목) 검체채취자의 확진자 안내 문자 전송시부터 - (신청시작) '22. 2. 25.(금) 12:00 개시 - (배송시작) '22. 2. 28.(월) ※ '22. 8. 2. 지급완료 - (지원수량) 성인용 60,000세트 - (추진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보건소(D+1)</p> <p>확진통보SMS 내 신청주소(URL) 안내</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신청자(D+1)</p> <p>URL 접속, 신청</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市 시민방역추진단(D+1)</p> <p>- 발송명단 취합 배송업체 전달 - 65세이상 명단 각 구(군) 보건소 전달</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택배업체(D+2)</p> <p>재택치료지비대면 수령</p> </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구(군) 보건소</p> <p>중복자 배송명단 제외 처리</p> </div> </div>

2022. 3. 11. ~

정부 재택치료 지원 정책 축소기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대상 연령 확대 (3.11.)

– (조정배경) 3.11.부터 질병관리청 성인용 재택치료키트 지급대상 상향 조정 (60세 이상 → 65세 이상)

– (조치사항)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연령 상향 조정

▶ 12세~59세 일반관리군 취약계층 → 12세~64세 일반관리군 취약계층 신청자

○부산형 건강관리세트(소아용) 제작·배부 (3.11.~3.17.)

– (추진배경) 오미크론 변이종 전국 확산에 따른 질병관리청 소아용 재택치료키트 수급 지연

– (조치사항) 부산형 건강관리세트(소아용) 10,000세트 제작

▶ (구성물품) 해열제, 종합감기약, 마스크 5매

▶ (지원절차) 각 구·군 보건소 배부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대상 확대 (3.18.)

– (추진배경) 65세 이상 집중관리군에 대한 질병관리청 성인용 재택치료키트 수급 불안정

– (조치사항)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연령 상향 폐지

▶ 12세~64세 일반관리군 취약계층 → 12세이상 일반관리군 취약계층 및 65세이상 집중관리군 취약계층 신청자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대상 추가 확대 (3.31.)

– (추진배경) 중증도가 높은 60세이상 발생률 및 발생 비중 지속 증가

– (조치사항)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기준 확대

▶ 12세이상 일반관리군 취약계층 및 65세이상 집중관리군 취약계층 → 12~59세 취약계층 및 60세이상 확진자 중 신청자

일 시

2.25.(신청개시)

3.11. ~

3.18. ~

3.31. ~

대 상

12~59세 취약계층

▶ 12~64세 취약계층

▶ 12세 이상 취약계층

▶ 12~59세 취약계층 + 60세 이상 전체

변 경 내 용

변 경 내 용

60~64세 취약계층 추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추가

60세 이상 비취약계층 추가

2022.4.25.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전환에 따른 방역물품 비축

○이행기 기간(4.25.~)동안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취약계층 보호용 건강관리세트 선제 확보 및 필요시 활용

– (조치사항) 비축분 20,000세트 구입·확보

– (배부시기) '22. 8. 3.~ '22. 12. 19.

▶ '22. 2월 구입한 60,000세트 소진 직후 배부 개시

– (구성물품) 이전과 동일

2023.1.3.

동절기 재유행 대비 사업 지속 추진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결정

– (조치사항) 추가제작분 10,000세트 구입·확보

– (배부시기) '23. 1. 3.~ 5. 31.

▶ '22. 비축분 소진 후 의약품 수급 안정되어 정상 납품

2023.6.1.

위기단계 하향조정 등에 따른 지원사업 종료

○격리 의무 권고 전환 등 주요방역조치 조기 완화 및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지원사업 종료 ('23. 6. 1.)

– (조치사항) 비축물량(재고물량 5,781) 감염취약시설(252개소) 등 배부

– (배부시기) '23. 6. 13.~ 6. 23.

▶ 배송업체를 통한 감염취약시설 등 직·배송

※ 투입예산 : 1,274,228천원(건강관리세트구입비 : 895,172천원, 포장·배송 용역비 : 410,032천원)

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시기(2022. 8. 1. ~ 2023. 8. 31.)

정부는 일반 의료체계 전환 이전까지는 기존의 재택치료 체계는 유지하되, 집중·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2022.6.6.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진료 강화 및 기존의 24시간 재택치료 대응체계 유지 등의 내용으로 하는 “단계적 재택치료 조정 추진방안”(2022.6.6.)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를 조정하여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방식(1일 2회→1회)을 변경하고, 재택치료 중 필요한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일반관리군 추가 보호조치 완화(수가 인정 횟수 조정 2회→1회), 대면진료 확대·강화, 자율격리 전환 연기 등 재택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외래진료센터 확충,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한 대면 진료 활성화 및 24시간 대응체계 점검 등 재택치료 개편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8월 1일자로 재택치료자 구분 폐지(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구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택치료 안내서 제8판을 배포하였다. 부산시는 부산시 홈페이지 및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일 업데이트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 건강관리는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해 신속히 진료를 받고 필요시 치료제 처방을 받아 관리하도록 하였다.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신속히 확대 운영하여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재택치료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경우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 24시간 의료상담센터)으로 연락하여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한 문진 등 진료를 통해 입원 필요시 일반병상에 자율 입원 또는 절차를 거쳐 병상 배정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재택치료자의 의료상담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4개소)와 재택치료 관련 행정지원 문의에 대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도 지속 운영하였다.

재택치료자가 격리 중 외래진료 등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고, 필요시 부산시 자체 확보한 이송체계(이송수단 : 방역수송차량)를 활용하여 자택→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다. 아울러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심의 대상군별(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관리체계 폐지로 인한 재택치료 환자의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재택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시는 여건 변화에 따른 재택치료 응급 대응체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1)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 재정비(부산시 재택치료 응급대응체계 재정비 2022. 7. 26. 감염병관리과-17793)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폐지, 대면진료 확대, 자율입원 및 중증환자 발생 시 가용 중증병상의 부족 등 재택치료체계 개편으로 인한 여건 변화로 고위험군 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산시는 재택치료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현장 수요 해소를 위해 재택치료 건강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골자로 부산시 재택치료 응급 대응체계를 재정비하였다. 부산시 재택치료관리팀내 운영하던 응급찾아인을 재정비하고,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군 보건소별로 관내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자율입원병원) 및 119 구급대와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재택치료자 현장 상황을 상시 공유하여 신속 대응하도록 하였다.

재택치료자의 진료·자율입원 안내, 응급상황 신속 대응, 건강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에 24시간 안내를 전담하는 인력(기간제 간호사 등)을 확보하여 보건소

응급 핫라인(비상연락체계)을 구축하여 관리하였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중증 병상의 부족(자율병상 확대)이 예상됨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방지를 위해 먹는 치료제 투약의 필요성을 적극 권장하였다.(팍스로비드 처방효과 : 60세 이상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이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을 확대하였으며 의료기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환자 정보 입력항목을 축소하는 등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와 카드뉴스 등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먹는 치료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고위험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한 보건소 및 부산시 의사회를 통한 먹는 치료제 우선 처방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시민 홍보 및 안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아울러 보건소 비상연락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자율입원병원, 응급실 등의 운영 현황을 현행화하는 등 재택치료 개편과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건강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구축하는데 노력하였다.

부산시, 건강 고위험군 재택치료 자체관리방안 추진

▲ 감염취약시설 · © 일력 2022.08.12 11:31 · 1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폐지에 따른



부산에 거주하는 고령층 1인가구,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코로나19 재택치료체계 개편에도 재택치료 시 여전히 건강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재택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건강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6개 구·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난 1일 재택치료체계 개편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미실시 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

2)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재택치료자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22.7.1.부터 기존에 있던 재택치료 관련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하고,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호흡기 유증상자의 검사, (비)대면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운영하였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재유행(22년 하절기 5차 유행시기)에 대비하여 원스톱 진료기관을 '22.7.26. 기준 총 736개소를 지정(당초 708개소 목표)하여 초과 달성하였고 이후에는 이들 기관의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 관리하였다. 또한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아 진료기관, 야간·주말 진료기관, 명절 연휴 운영기관 등을 탄력적으로 지정·관리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였다. '23.4.1. 기준 부산시는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1,048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802개소를 운영하였다.

부산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대면·비대면) 등 확대 현황

(단위 : 개소)

시기별	2022.7.1.	2022.8.1.	2022.9.1.	2022.10.1.	2022.11.1.	2022.12.1.	2023.1.1.	2023.2.1.	2023.3.1.	2023.4.1.
호흡기환자진료센터	925	981	1,007	1,015	1,029	1,055	1,055	1,044	1,048	
원스톱 진료기관	437	671	750	758	776					

3) 재택치료 관련 담당약국 등 의료인프라 확대

재택치료 시행 초기, 재택치료 대상자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구·군별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정약국을 정하였으며 조제된 의약품은 보건소 및 지역약국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자택으로 배송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2.1월 먹는치료제 국내 도입 및 60세 이상으로 투약 대상이 확대되면서 먹는 치료제 조제 활성화를 위해 담당약국을 사전에 지정,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 운영이 가능한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 초기인 '21.12.10.기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별 지정약국은 18개소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 담당약국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23.8.31. 기준 부산시는 289개소의 담당약국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22.2.7.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재택치료자를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운영을 발표하였다. 이에 부산시는 초기 의료상담센터 7개소를 운영하였는데, 병·의원에서도 가능하였던 비대면 의료상담이 시행 초기 의료상담센터에 집중되자 참여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결국 중도 포기 기관이 발생하여 4개소만 남게 되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많은 의료상담센터를 확보하고자 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상담센터 참여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그 결과 총 11개소를 확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상담의 수요가 줄어들며 '22.12.31. 기준 부산시는 의료상담센터 4개소(진료실적 총 36,028건)를 운영하고 있다.

▶ 부산시 재택치료 의료인프라 현황

구분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담당약국
				전체	원스톱	
2021.12월	28	1	-	-	-	지정약국
2022. 1월	34	2	-	-	-	39(기존)
2022. 2월	56	3	4	-	-	51
2022. 3월	78	29	11	-	-	58
2022. 4월	82	519	11	-	-	62
2022. 5월	72	525	4	-	-	62
2022. 6월	68	525	4	-	-	62
2022. 7월	67	7.1.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4	970	656	74
2022. 8월	8.1. 종료	-	4	1,007	750	187
2022. 9월	-	-	4	1,009	758	195
2022.10월	-	-	4	1,015	762	198
2022.11월	-	-	4	1,025	775	200
2022.12월	-	-	4	1,035	783	202
2023. 1월	-	-	4	1,045	796	208
2023. 2월	-	-	4	1,044	797	227
2023. 3월	-	-	4	1,048	802	287
2023. 4월	-	-	4	1,048	803	288
2023. 5월	-	-	4	1,046	803	289

4)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발생 되는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국가의 부담이다.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였으며, 초기에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보건소(관련서류 첨부)를 경유하여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재택치료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방식 전환 이후 폭증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공기관 위탁사업 방식으로 변경되어 부산시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 사업을 위탁·운영하였다.

※ 2023.4.30.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내역 : 부산시 41,429,320천원 / 796,610명

5)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 지속 운영

부산시 재택치료 응급 핫라인은 재택치료 관리팀과 재택치료 종료까지 재택치료 이송 및 비대면 진료 안내 등 격리치료 중인 재택치료 환자의 상담창구 역할까지 재택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지원 및 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다.(2023년 4월까지 운영)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응급 핫라인을 운영하였으며, 총 13,065건에 대해 상담하였다.

단순 처방/ 진료 문의	⇒	일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HIS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환자 조회 (관할 구군, 이름, 주민번호 확인) ②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 부산시 코로나 홈페이지 참조 ③ 비대면 진료/처방 - 의료상담센터 안내(부산시 코로나 홈페이지 참조) - 주말·공휴일은 세웅병원 단독방에 환자이름, 연락처 상담신청
먹는약 처방	⇒	일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PHIS 코로나19 대응 허브시스템 환자 조회 (관할 구군, 이름, 주민번호 확인) ②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안내 후 확진자에 한해 의사 처방 가능 (담당약국→부산시 코로나 홈페이지 참조)
이송 문의	⇒	일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역수송차량 계약 종료(2022.12.31.)로 원칙적 이용 불가 -3건 남아있으므로 이용 시 방역수송차량 회사 전화 요망 000-0000-0000 문의 후 방역수송차량 단독방에 기재 (부축하여 거동 가능환자에 한해 이용 가능) ② 외상환자, 거동불편환자 관할 보건소 문의 ③ 응급상황 시 119 또는 사설구급차 이용 권유
문자 전송 요구	⇒	일반시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행정포털 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 (발신번호 051-888-6666으로 수정할 것!)

응급 핫라인 대응 간호사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며...



간호사 김OO

재택 치료 초기에, 늘어나는 재택 치료 환자와 체계화되지 않은 내 외부 시스템, 아날로그식 확진자 검토 등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투입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담당 주무관님들이 새벽까지 근무했다.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주무관님들을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어 밤낮으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하루 지침이 바뀌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협력했던 119 측에서는 바뀐 지침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19 상황실, 각 구군 119구급대원들에게 지침을 숙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힘들다고 느꼈을 때는 오후 8시 밤 근무를 출근하자마자 입원 가능한 잔여 병상이 '0'이라는 인계를 들었을 때다. 밤새워 12시간 근무하는 동안 쉬지 않고 밀려오는 전화를 받아 '잔여 병상이 없으며,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면 119를 불러 음압격리실이 있는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대응할 수밖에 없을 때였다.

환자와 보호자의 컴플레인을 고스란히 받으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코로나를 겪으며 단계적으로 의료체계가 확립되었으니, 앞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확산된다면 의료사각지대 없이 더 빠르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공간들이 지원되기를 바란다.

유선상으로 환자 증상을 파악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를 느꼈다.

매우 위급해도 자신의 증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입원순서에 밀리고, 경증이라도 증상을 속인다면 바로 입원이 가능했다.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활력징후 측정 물품들을 공급하여 환자등록과 동시에 환자의 증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면 한다.

간호사 황OO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다가 시청의 코로나19 대응직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병원 외의 곳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악성 민원에 힘들기도 했고, 공무원의 고충도 알게 되었으며, 저의 의료적 지식으로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도 느꼈습니다.

메르스가 유행할 때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감염병 재난 초기 대응은 개선된 것 같았지만, 초기에 119, 보건소, 병원과 잦은 문제가 발생하여 부처 간 협업,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거적으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여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을 경험으로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박OO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보건소, 시청에서 코로나 관련 일을 함으로써 병원에서 근무하던 때와는 근무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과 달리 의료인으로 환자를 직접 보살피지는 못하였지만,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또 다른 모습의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정부 기관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하였으며, 잠시나마 그 일원으로 일할 수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많은 감염병을 보내왔었지만,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매뉴얼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을 당시 코로나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수용 가능한 병원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환자를 중증, 경증 구분하여 병상을 의뢰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외래 진료가 필요한 환자, 코로나 위중증 환자, 코로나 외 증상 치료를 원하는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환자들은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음에 답답해하며 정부기관에 전화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병상여유만 좀 더 있었더라도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심적으로 덜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에 관한 안정적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상상조차 싫지만, 다음 감염병이 도래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13. 감염병관리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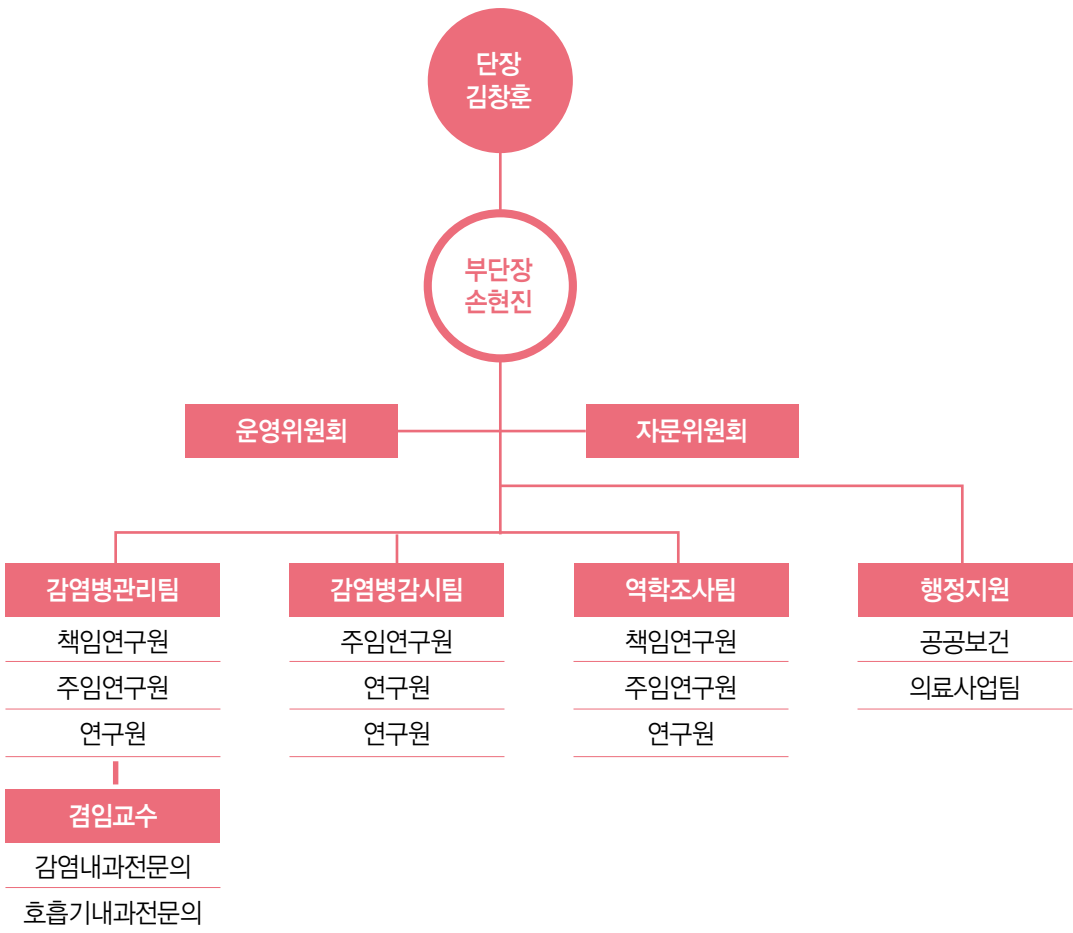
01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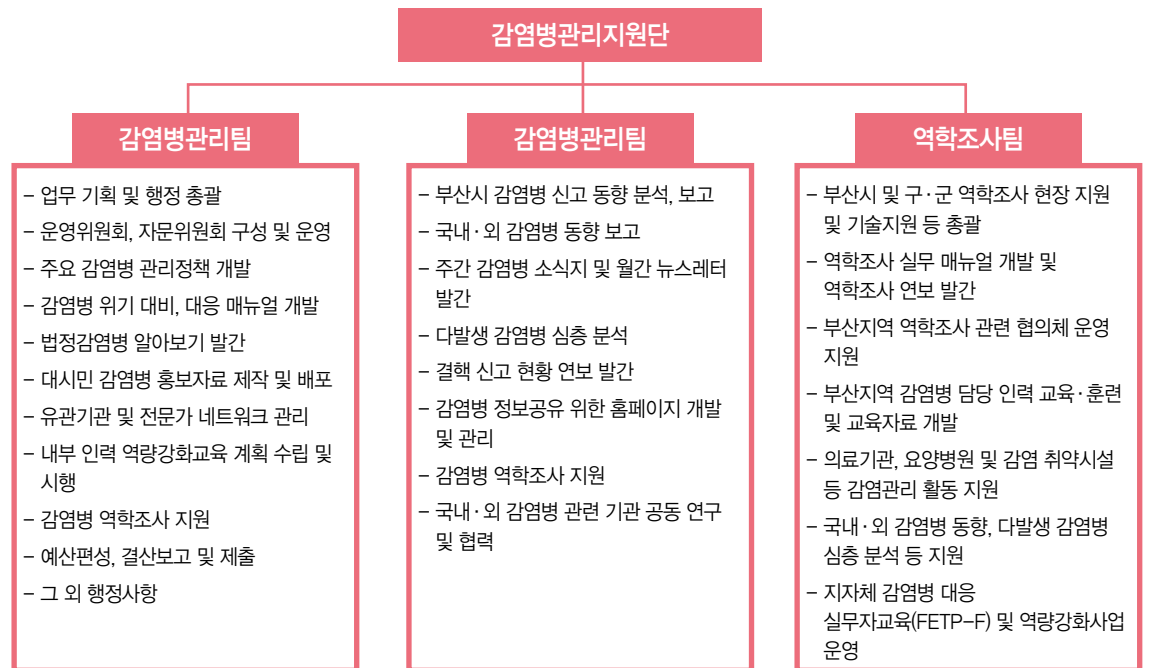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부산시와 협력하여 감염병 발생 감시, 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자문, 감염병 실무자 역량강화, 감염병 취약집단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감염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9월 1일 출범하였다.

부산광역시와 부산대학교병원이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본부 설치·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후 감염병관리지원단은 3팀 13명 (단장 1, 부단장 1, 연구원 11명)으로 구성되어 평상시 (‘관심’단계)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 역학조사,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감염병 위기 시 (‘주의’ 단계 이상)에는 질병관리청과 부산시, 16개 구·군의 업무를 지원한다. 2023년 기준 소요예산은 607백만원 (국비303.5만원, 시비303.5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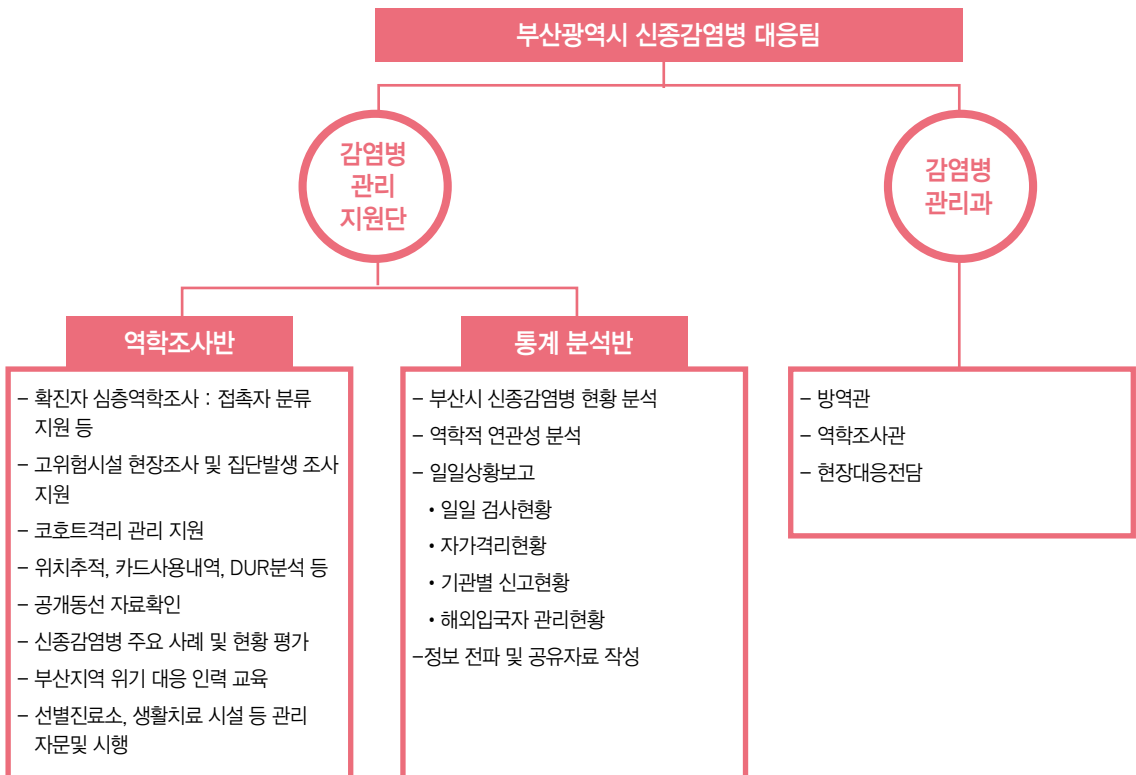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조직도



▶ 평상시(‘관심’단계) 업무 분장표



▶ 감염병 위기 시(‘주의’단계 이상) 조직체계 및 업무 분장



02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집단발생 기술지원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시 및 16개 구·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현장 역학조사를 지원하여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기술지원을 하였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시 및 자치 구·군 보건소에 전파하였으며, 방역 물품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집단 확진 발생 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설 관계자와 방역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코호트격리 시 구간 분리, 접촉자 분류를 지원하였다.

부산광역시 INFECTIOUS DISEASE NEWS LETTER

감염병 뉴스레터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T.888-6931-8 (www.busanidk.or.kr) 부산광역시 시민행복지원단 T.888-3351-7

코로나19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 받으세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 14시~21시
* 평일·주말·공휴일운영

부산시청 (동대광장) 2022.7.29 ~ 상항중로 시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2022.8.5 ~ 상항중로 시
--	--

유전자검사(PCR) *무선소독대형
*만 15세 이상 고열(38.5도 이상) 호흡기 증상 있는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병의사로부터 선별검사,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2022. 8. 1. 7:00

감염병(코로나19) 뉴스 레터 작성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Busan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전체

지원단 소개 | 감염병 소식 | 발간 자료 | 법정 감염병 정보 | 알림 마당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실시!

로타바이러스란?

- 영유아에서 흔하게 감염성 설사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겨울철에 주로 발생합니다.
- 바이러스로 오염된 대변이 손에 묻어 입을 통해 감염되거나, 식품·주방기구·장난감·오장판 등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범대상

- 시범대상: 생후 2개월~4개월 영아
- 접종대상: 만14세 미만, 만14세 3명
- 접종방법: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 39개월, 42개월, 45개월, 48개월, 51개월, 54개월, 57개월, 60개월, 63개월, 66개월, 69개월, 72개월, 75개월, 78개월, 81개월, 84개월, 87개월, 90개월, 93개월, 96개월, 99개월, 102개월, 105개월, 108개월, 111개월, 114개월, 117개월, 120개월, 123개월, 126개월, 129개월, 132개월, 135개월, 138개월, 141개월, 144개월, 147개월, 150개월, 153개월, 156개월, 159개월, 162개월, 165개월, 168개월, 171개월, 174개월, 177개월, 180개월, 183개월, 186개월, 189개월, 192개월, 195개월, 198개월, 201개월, 204개월, 207개월, 210개월, 213개월, 216개월, 219개월, 222개월, 225개월, 228개월, 231개월, 234개월, 237개월, 240개월, 243개월, 246개월, 249개월, 252개월, 255개월, 258개월, 261개월, 264개월, 267개월, 270개월, 273개월, 276개월, 279개월, 282개월, 285개월, 288개월, 291개월, 294개월, 297개월, 300개월, 303개월, 306개월, 309개월, 312개월, 315개월, 318개월, 321개월, 324개월, 327개월, 330개월, 333개월, 336개월, 339개월, 342개월, 345개월, 348개월, 351개월, 354개월, 357개월, 360개월, 363개월, 366개월, 369개월, 372개월, 375개월, 378개월, 381개월, 384개월, 387개월, 390개월, 393개월, 396개월, 399개월, 402개월, 405개월, 408개월, 411개월, 414개월, 417개월, 420개월, 423개월, 426개월, 429개월, 432개월, 435개월, 438개월, 441개월, 444개월, 447개월, 450개월, 453개월, 456개월, 459개월, 462개월, 465개월, 468개월, 471개월, 474개월, 477개월, 480개월, 483개월, 486개월, 489개월, 492개월, 495개월, 498개월, 501개월, 504개월, 507개월, 510개월, 513개월, 516개월, 519개월, 522개월, 525개월, 528개월, 531개월, 534개월, 537개월, 540개월, 543개월, 546개월, 549개월, 552개월, 555개월, 558개월, 561개월, 564개월, 567개월, 570개월, 573개월, 576개월, 579개월, 582개월, 585개월, 588개월, 591개월, 594개월, 597개월, 600개월, 603개월, 606개월, 609개월, 612개월, 615개월, 618개월, 621개월, 624개월, 627개월, 630개월, 633개월, 636개월, 639개월, 642개월, 645개월, 648개월, 651개월, 654개월, 657개월, 660개월, 663개월, 666개월, 669개월, 672개월, 675개월, 678개월, 681개월, 684개월, 687개월, 690개월, 693개월, 696개월, 699개월, 702개월, 705개월, 708개월, 711개월, 714개월, 717개월, 720개월, 723개월, 726개월, 729개월, 732개월, 735개월, 738개월, 741개월, 744개월, 747개월, 750개월, 753개월, 756개월, 759개월, 762개월, 765개월, 768개월, 771개월, 774개월, 777개월, 780개월, 783개월, 786개월, 789개월, 792개월, 795개월, 798개월, 801개월, 804개월, 807개월, 810개월, 813개월, 816개월, 819개월, 822개월, 825개월, 828개월, 831개월, 834개월, 837개월, 840개월, 843개월, 846개월, 849개월, 852개월, 855개월, 858개월, 861개월, 864개월, 867개월, 870개월, 873개월, 876개월, 879개월, 882개월, 885개월, 888개월, 891개월, 894개월, 897개월, 900개월, 903개월, 906개월, 909개월, 912개월, 915개월, 918개월, 921개월, 924개월, 927개월, 930개월, 933개월, 936개월, 939개월, 942개월, 945개월, 948개월, 951개월, 954개월, 957개월, 960개월, 963개월, 966개월, 969개월, 972개월, 975개월, 978개월, 981개월, 984개월, 987개월, 990개월, 993개월, 996개월, 999개월, 1002개월, 1005개월, 1008개월, 1011개월, 1014개월, 1017개월, 1020개월, 1023개월, 1026개월, 1029개월, 1032개월, 1035개월, 1038개월, 1041개월, 1044개월, 1047개월, 1050개월, 1053개월, 1056개월, 1059개월, 1062개월, 1065개월, 1068개월, 1071개월, 1074개월, 1077개월, 1080개월, 1083개월, 1086개월, 1089개월, 1092개월, 1095개월, 1098개월, 1101개월, 1104개월, 1107개월, 1110개월, 1113개월, 1116개월, 1119개월, 1122개월, 1125개월, 1128개월, 1131개월, 1134개월, 1137개월, 1140개월, 1143개월, 1146개월, 1149개월, 1152개월, 1155개월, 1158개월, 1161개월, 1164개월, 1167개월, 1170개월, 1173개월, 1176개월, 1179개월, 1182개월, 1185개월, 1188개월, 1191개월, 1194개월, 1197개월, 1200개월, 1203개월, 1206개월, 1209개월, 1212개월, 1215개월, 1218개월, 1221개월, 1224개월, 1227개월, 1230개월, 1233개월, 1236개월, 1239개월, 1242개월, 1245개월, 1248개월, 1251개월, 1254개월, 1257개월, 1260개월, 1263개월, 1266개월, 1269개월, 1272개월, 1275개월, 1278개월, 1281개월, 1284개월, 1287개월, 1290개월, 1293개월, 1296개월, 1299개월, 1302개월, 1305개월, 1308개월, 1311개월, 1314개월, 1317개월, 1320개월, 1323개월, 1326개월, 1329개월, 1332개월, 1335개월, 1338개월, 1341개월, 1344개월, 1347개월, 1350개월, 1353개월, 1356개월, 1359개월, 1362개월, 1365개월, 1368개월, 1371개월, 1374개월, 1377개월, 1380개월, 1383개월, 1386개월, 1389개월, 1392개월, 1395개월, 1398개월, 1401개월, 1404개월, 1407개월, 1410개월, 1413개월, 1416개월, 1419개월, 1422개월, 1425개월, 1428개월, 1431개월, 1434개월, 1437개월, 1440개월, 1443개월, 1446개월, 1449개월, 1452개월, 1455개월, 1458개월, 1461개월, 1464개월, 1467개월, 1470개월, 1473개월, 1476개월, 1479개월, 1482개월, 1485개월, 1488개월, 1491개월, 1494개월, 1497개월, 1500개월, 1503개월, 1506개월, 1509개월, 1512개월, 1515개월, 1518개월, 1521개월, 1524개월, 1527개월, 1530개월, 1533개월, 1536개월, 1539개월, 1542개월, 1545개월, 1548개월, 1551개월, 1554개월, 1557개월, 1560개월, 1563개월, 1566개월, 1569개월, 1572개월, 1575개월, 1578개월, 1581개월, 1584개월, 1587개월, 1590개월, 1593개월, 1596개월, 1599개월, 1602개월, 1605개월, 1608개월, 1611개월, 1614개월, 1617개월, 1620개월, 1623개월, 1626개월, 1629개월, 1632개월, 1635개월, 1638개월, 1641개월, 1644개월, 1647개월, 1650개월, 1653개월, 1656개월, 1659개월, 1662개월, 1665개월, 1668개월, 1671개월, 1674개월, 1677개월, 1680개월, 1683개월, 1686개월, 1689개월, 1692개월, 1695개월, 1698개월, 1701개월, 1704개월, 1707개월, 1710개월, 1713개월, 1716개월, 1719개월, 1722개월, 1725개월, 1728개월, 1731개월, 1734개월, 1737개월, 1740개월, 1743개월, 1746개월, 1749개월, 1752개월, 1755개월, 1758개월, 1761개월, 1764개월, 1767개월, 1770개월, 1773개월, 1776개월, 1779개월, 1782개월, 1785개월, 1788개월, 1791개월, 1794개월, 1797개월, 1800개월, 1803개월, 1806개월, 1809개월, 1812개월, 1815개월, 1818개월, 1821개월, 1824개월, 1827개월, 1830개월, 1833개월, 1836개월, 1839개월, 1842개월, 1845개월, 1848개월, 1851개월, 1854개월, 1857개월, 1860개월, 1863개월, 1866개월, 1869개월, 1872개월, 1875개월, 1878개월, 1881개월, 1884개월, 1887개월, 1890개월, 1893개월, 1896개월, 1899개월, 1902개월, 1905개월, 1908개월, 1911개월, 1914개월, 1917개월, 1920개월, 1923개월, 1926개월, 1929개월, 1932개월, 1935개월, 1938개월, 1941개월, 1944개월, 1947개월, 1950개월, 1953개월, 1956개월, 1959개월, 1962개월, 1965개월, 1968개월, 1971개월, 1974개월, 1977개월, 1980개월, 1983개월, 1986개월, 1989개월, 1992개월, 1995개월, 1998개월, 2001개월, 2004개월, 2007개월, 2010개월, 2013개월, 2016개월, 2019개월, 2022개월, 2025개월, 2028개월, 2031개월, 2034개월, 2037개월, 2040개월, 2043개월, 2046개월, 2049개월, 2052개월, 2055개월, 2058개월, 2061개월, 2064개월, 2067개월, 2070개월, 2073개월, 2076개월, 2079개월, 2082개월, 2085개월, 2088개월, 2091개월, 2094개월, 2097개월, 2100개월, 2103개월, 2106개월, 2109개월, 2112개월, 2115개월, 2118개월, 2121개월, 2124개월, 2127개월, 2130개월, 2133개월, 2136개월, 2139개월, 2142개월, 2145개월, 2148개월, 2151개월, 2154개월, 2157개월, 2160개월, 2163개월, 2166개월, 2169개월, 2172개월, 2175개월, 2178개월, 2181개월, 2184개월, 2187개월, 2190개월, 2193개월, 2196개월, 2199개월, 2202개월, 2205개월, 2208개월, 2211개월, 2214개월, 2217개월, 2220개월, 2223개월, 2226개월, 2229개월, 2232개월, 2235개월, 2238개월, 2241개월, 2244개월, 2247개월, 2250개월, 2253개월, 2256개월, 2259개월, 2262개월, 2265개월, 2268개월, 2271개월, 2274개월, 2277개월, 2280개월, 2283개월, 2286개월, 2289개월, 2292개월, 2295개월, 2298개월, 2301개월, 2304개월, 2307개월, 2310개월, 2313개월, 2316개월, 2319개월, 2322개월, 2325개월, 2328개월, 2331개월, 2334개월, 2337개월, 2340개월, 2343개월, 2346개월, 2349개월, 2352개월, 2355개월, 2358개월, 2361개월, 2364개월, 2367개월, 2370개월, 2373개월, 2376개월, 2379개월, 2382개월, 2385개월, 2388개월, 2391개월, 2394개월, 2397개월, 2400개월, 2403개월, 2406개월, 2409개월, 2412개월, 2415개월, 2418개월, 2421개월, 2424개월, 2427개월, 2430개월, 2433개월, 2436개월, 2439개월, 2442개월, 2445개월, 2448개월, 2451개월, 2454개월, 2457개월, 2460개월, 2463개월, 2466개월, 2469개월, 2472개월, 2475개월, 2478개월, 2481개월, 2484개월, 2487개월, 2490개월, 2493개월, 2496개월, 2499개월, 2502개월, 2505개월, 2508개월, 2511개월, 2514개월, 2517개월, 2520개월, 2523개월, 2526개월, 2529개월, 2532개월, 2535개월, 2538개월, 2541개월, 2544개월, 2547개월, 2550개월, 2553개월, 2556개월, 2559개월, 2562개월, 2565개월, 2568개월, 2571개월, 2574개월, 2577개월, 2580개월, 2583개월, 2586개월, 2589개월, 2592개월, 2595개월, 2598개월, 2601개월, 2604개월, 2607개월, 2610개월, 2613개월, 2616개월, 2619개월, 2622개월, 2625개월, 2628개월, 2631개월, 2634개월, 2637개월, 2640개월, 2643개월, 2646개월, 2649개월, 2652개월, 2655개월, 2658개월, 2661개월, 2664개월, 2667개월, 2670개월, 2673개월, 2676개월, 2679개월, 2682개월, 2685개월, 2688개월, 2691개월, 2694개월, 2697개월, 2700개월, 2703개월, 2706개월, 2709개월, 2712개월, 2715개월, 2718개월, 2721개월, 2724개월, 2727개월, 2730개월, 2733개월, 2736개월, 2739개월, 2742개월, 2745개월, 2748개월, 2751개월, 2754개월, 2757개월, 2760개월, 2763개월, 2766개월, 2769개월, 2772개월, 2775개월, 2778개월, 2781개월, 2784개월, 2787개월, 2790개월, 2793개월, 2796개월, 2799개월, 2802개월, 2805개월, 2808개월, 2811개월, 2814개월, 2817개월, 2820개월, 2823개월, 2826개월, 2829개월, 2832개월, 2835개월, 2838개월, 2841개월, 2844개월, 2847개월, 2850개월, 2853개월, 2856개월, 2859개월, 2862개월, 2865개월, 2868개월, 2871개월, 2874개월, 2877개월, 2880개월, 2883개월, 2886개월, 2889개월, 2892개월, 2895개월, 2898개월, 2901개월, 2904개월, 2907개월, 2910개월, 2913개월, 2916개월, 2919개월, 2922개월, 2925개월, 2928개월, 2931개월, 2934개월, 2937개월, 2940개월, 2943개월, 2946개월, 2949개월, 2952개월, 2955개월, 2958개월, 2961개월, 2964개월, 2967개월, 2970개월, 2973개월, 2976개월, 2979개월, 2982개월, 2985개월, 2988개월, 2991개월, 2994개월, 2997개월, 3000개월, 3003개월, 3006개월, 3009개월, 3012개월, 3015개월, 3018개월, 3021개월, 3024개월, 3027개월, 3030개월, 3033개월, 3036개월, 3039개월, 3042개월, 3045개월, 3048개월, 3051개월, 3054개월, 3057개월, 3060개월, 3063개월, 3066개월, 3069개월, 3072개월, 3075개월, 3078개월, 3081개월, 3084개월, 3087개월, 3090개월, 3093개월, 3096개월, 3099개월, 3102개월, 3105개월, 3108개월, 3111개월, 3114개월, 3117개월, 3120개월, 3123개월, 3126개월, 3129개월, 3132개월, 3135개월, 3138개월, 3141개월, 3144개월, 3147개월, 3150개월, 3153개월, 3156개월, 3159개월, 3162개월, 3165개월, 3168개월, 3171개월, 3174개월, 3177개월, 3180개월, 3183개월, 3186개월, 3189개월, 3192개월, 3195개월, 3198개월, 3201개월, 3204개월, 3207개월, 3210개월, 3213개월, 3216개월, 3219개월, 3222개월, 3225개월, 3228개월, 3231개월, 3234개월, 3237개월, 3240개월, 3243개월, 3246개월, 3249개월, 3252개월, 3255개월, 3258개월, 3261개월, 3264개월, 3267개월, 3270개월, 3273개월, 3276개월, 3279개월, 3282개월, 3285개월, 3288개월, 3291개월, 3294개월, 3297개월, 3300개월, 3303개월, 3306개월, 3309개월, 3312개월, 3315개월, 3318개월, 3321개월, 3324개월, 3327개월, 3330개월, 3333개월, 3336개월, 3339개월, 3342개월, 3345개월, 3348개월, 3351개월, 3354개월, 3357개월, 3360개월, 3363개월, 3366개월, 3369개월, 3372개월, 3375개월, 3378개월, 3381개월, 3384개월, 3387개월, 3390개월, 3393개월, 3396개월, 3399개월, 3402개월, 3405개월, 3408개월, 3411개월, 3414개월, 3417개월, 3420개월, 3423개월, 3426개월, 3429개월, 3432개월, 3435개월, 3438개월, 3441개월, 3444개월, 3447개월, 3450개월, 3453개월, 3456개월, 3459개월, 3462개월, 3465개월, 3468개월, 3471개월, 3474개월, 3477개월, 3480개월, 3483개월, 3486개월, 3489개월, 3492개월, 3495개월, 3498개월, 3501개월, 3504개월, 3507개월, 3510개월, 3513개월, 3516개월, 3519개월, 3522개월, 3525개월, 3528개월, 3531개월, 3534개월, 3537개월, 3540개월, 3543개월, 3546개월, 3549개월, 3552개월, 3555개월, 3558개월, 3561개월, 3564개월, 3567개월, 3570개월, 3573개월, 3576개월, 3579개월, 3582개월, 3585개월, 3588개월, 3591개월, 3594개월, 3597개월, 3600개월, 3603개월, 3606개월, 3609개월, 3612개월, 3615개월, 3618개월, 3621개월, 3624개월, 3627개월, 3630개월, 3633개월, 3636개월, 3639개월, 3642개월, 3645개월, 3648개월, 3651개월, 3654개월, 3657개월, 3660개월, 3663개월, 3666개월, 3669개월, 3672개월, 3675개월, 3678개월, 3681개월, 3684개월, 3687개월, 3690개월, 3693개월, 3696개월, 3699개월, 3702개월, 3705개월, 3708개월, 3711개월, 3714개월, 3717개월, 3720개월, 3723개월, 3726개월, 3729개월, 3732개월, 3735개월, 3738개월, 3741개월, 3744개월, 3747개월, 3750개월, 3753개월, 3756개월, 3759개월, 3762개월, 3765개월, 3768개월, 3771개월, 3774개월, 3777개월, 3780개월, 3783개월, 3786개월, 3789개월, 3792개월, 3795개월, 3798개월, 3801개월, 3804개월, 3807개월, 3810개월, 3813개월, 3816개월, 3819개월, 3822개월, 3825개월, 3828개월, 3831개월, 3834개월, 3837개월, 3840개월, 3843개월, 3846개월, 3849개월, 3852개월, 3855개월, 3858개월, 3861개월, 3864개월, 3867개월, 3870개월, 3873개월, 3876개월, 3879개월, 3882개월, 3885개월, 3888개월, 3891개월, 3894개월, 3897개월, 3900개월, 3903개월, 3906개월, 3909개월, 3912개월, 3915개월, 3918개월, 3921개월, 3924개월, 3927개월, 3930개월, 3933개월, 3936개월, 3939개월, 3942개월, 3945개월, 3948개월, 3951개월, 3954개월, 3957개월, 3960개월, 3963개월, 3966개월, 3969개월, 3972개월, 3975개월, 3978개월, 3981개월, 3984개월, 3987개월, 3990개월, 3993개월, 3996개월, 3999개월, 4002개월, 4005개월, 4008개월, 4011개월, 4014개월, 4017개월, 4020개월, 4023개월, 4026개월, 4029개월, 4032개월, 4035개월, 4038개월, 4041개월, 4044개월, 4047개월, 4050개월, 4053개월, 4056개월, 4059개월, 4062개월, 4065개월, 4068개월, 4071개월, 4074개월, 4077개월, 4080개월, 4083개월, 4086개월, 4089개월, 4092개월, 4095개월, 4098개월, 4101개월, 4104개월, 4107개월, 4110개월, 4113개월, 4116개월, 4119개월, 4122개월, 4125개월, 4128개월, 4131개월, 4134개월, 4137개월, 4140개월, 4143개월, 4146개월, 4149개월, 4152개월, 4155개월, 4158개월, 4161개월, 4164개월, 4167개월, 4170개월, 4173개월, 4176개월, 4179개월, 4182개월, 4185개월, 4188개월, 4191개월, 4194개월, 4197개월, 4200개월, 4203개월, 4206개월, 4209개월, 4212개월, 4215개월, 4218개월, 4221개월, 4224개월, 4227개월, 4230개월, 4233개월, 4236개월, 4239개월, 4242개월, 4245개월, 4248개월, 4251개월, 4254개월, 4257개월, 4260개월, 4263개월, 4266개월, 4269개월, 4272개월, 4275개월, 4278개월, 4281개월, 4284개월, 4287개월, 4290개월, 4293개월, 4296개월, 4299개월, 4302개월, 4305개월, 4308개월, 4311개월, 4314개월, 4317개월, 4320개월, 4323개월, 4326개월, 4329개월, 4332개월, 4335개월, 4338개월, 4341개월, 4344개월, 4347개월, 4350개월, 4353개월, 4356개월, 4359개월, 4362개월, 4365개월, 4368개월, 4371개월, 4374개월, 4377개월, 4380개월, 4383개월, 4386개월, 4389개월, 4392개월, 4395개월, 4398개월, 4401개월, 4404개월, 4407개월, 4410개월, 4413개월, 4416개월, 4419개월, 4422개월, 4425개월, 4428개월, 4431개월, 4434개월, 4437개월, 4440개월, 4443개월, 4446개월, 4449개월, 4452개월, 4455개월, 4458개월, 4461개월, 4464개월, 4467개월, 4470개월, 4473개월, 4476개월, 4479개월, 4482개월, 4485개월, 4488개월, 4491개월, 4494개월, 4497개월, 4500개월, 4503개월, 4506개월, 4509개월, 4512개월, 4515개월, 4518개월, 4521개월, 4524개월, 4527개월, 4530개월, 4533개월, 4536개월, 4539개월, 4542개월, 4545개월, 4548개월, 4551개월, 4554개월, 4557개월, 4560개월, 4563개월, 4566개월, 4569개월, 4572개월, 4575개월, 4578개월, 4581개월, 4584개월, 4587개월, 4590개월, 4593개월, 4596개월, 4599개월, 4602개월, 4605개월, 4608개월, 4611개월, 4614개월, 4617개월, 4620개월, 4623개월, 4626개월, 4629개월, 4632개월, 4635개월, 4638개월, 4641개월, 4644개월, 4647개월, 4650개월, 4653개월, 4656개월, 4659개월, 4662개월, 4665개월, 4668개월, 4671개월, 4674개월, 4677개월, 4680개월, 4683개월, 4686개월, 4689개월, 4692개월, 4695개월, 4698개월, 4701개월, 4704개월, 4707개월, 4710개월, 4713개월, 4716개월, 4719개월, 4722개월, 4725개월, 4728개월, 4731개월, 4734개월, 4737개월, 4740개월, 4743개월, 4746개월, 4749개월, 4752개월, 4755개월, 4758개월, 4761개월, 4764개월, 4767개월, 4770개월, 4773개월, 4776개월, 4779개월, 4782개월, 4785개월, 4788개월, 4791개월, 4794개월, 4797개월, 4800개월, 4803개월, 4806개월, 4809개월, 4812개월, 4815개월, 4818개월, 4821개월, 4824개월, 4827개월, 4830개월, 4833개월, 4836개월, 4839개월, 4842개월, 4845개월, 4848개월, 4851개월, 4854개월, 4857개월, 4860개월, 4863개월, 4866개월, 4869개월, 4872개월, 4875개월, 4878개월, 4881개월, 4884개월, 4887개월, 4890개월, 4893개월, 4896개월, 4899개월, 4902개월, 4905개월, 4908개월, 4911개월, 4914개월, 4917개월, 4920개월, 4923개월, 4926개월, 4929개월, 4932개월, 4935개월, 4938개월, 4941개월, 4944개월, 4947개월, 4950개월, 4953개월, 4956개월, 4959개월, 4962개월, 4965개월, 4968개월, 4971개월, 4974개월, 4977개월, 4980개월, 4983개월, 4986개월, 4989개월, 4992개월, 4995개월, 4998개월, 5001개월, 5004개월, 5007개월, 5010개월, 5013개월, 5016개월, 5019개월, 5022개월, 5025개월, 5028개월, 5031개월, 503

경험을 공유하고 원활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여 담당자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감염병 설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대규모 발생으로 집단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원인분석과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03

감염병 예방 홍보·교육 강화

부산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2020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감염병관리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전파하였다. 또한 월간 감염병 뉴스레터 발행·배포를 통해 매달 유행이 예상되거나 이슈가 되는 감염병을 주제로 일반 시민이 궁금해하거나 알아야 할 정보를 부착물 형태로 발행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요청하는 유관 기관에 필요시 전문 강사 지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다. 부산시와 협의에 의해 보건소, 유관기관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관련 기본 지식 등의 업무교육을 연 1회 이상 계획하였고, 유관기관 감염병 담당자에게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 개인보호구 착용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원하였다.



개인 보호구 착의 탈의 훈련



구·군 보건소 역학조사 지원 교육



코로나19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선별진료소 현장 지원

■ 감염병관리지원단 연도별 실적

연도	추진성과			계획
	2020	2021	2022	2023
고위험 집단 역학조사	○고위험 집단 역학조사 85회	○고위험 집단 역학조사 479회	○고위험 집단 역학조사 시 요청 대비 지원을 100% 완료, 13건	※ (변경: 심층역학조사 지원 내역에 포함)
동일집단격리 (코호트격리) 관리	○동일집단격리 (코호트격리) 관리 44회	○동일집단격리 (코호트격리) 관리 237회	○동일집단격리 (코호트격리) 관리 84건	※ (변경: 심층역학조사 지원 내역에 포함)
심층 역학 조사 지원	○구·군 심층역학조사 지원 1,155회	○구·군 심층역학조사 지원 925회	○구·군 심층역학조사 지원 233건	○구·군 심층역학조사 지원 요청 대비 지원 100%
신종 감염병 상황 등 자료 분석 산출	○주간 코로나19 현황 분석 36회	○주간 코로나19 현황 분석 96회	○주간 코로나19 현황 분석 64회	○코로나19 현황 분석 65회 이상
	○주요사례 및 상황평가 분석 32회	○주요사례 및 상황평가 분석 46회	○주요사례 및 상황평가 분석 52회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중단)
	○일일 발생 및 관리 현황 분석 1,192회	○일일 발생 및 관리 현황 분석 992회	○일일 발생 및 관리 현황 분석 417회	※(코로나19 상황 변화로 중단)
부산지역 맞춤형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12개월	○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12개월	○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12개월	○지원단 홈페이지 운영 연중 상시
	○월간뉴스레터 발행 12회	○월간뉴스레터발행 12회	○월간뉴스레터발행 14회	○월간뉴스레터월 1회
	○월간뉴스레터 모니터링 2회	○월간뉴스레터 모니터링 2회	○월간뉴스레터 모니터링 2회	○월간뉴스레터 모니터링 2회
	○학생 감염병 예방 소식지 발행 12회	○학생 감염병 예방 소식지 발행 12회	○학생 감염병 예방 소식지 발행 12회	○학생 감염병 예방 소식지 발행 12회
부산지역 감염병 담당 인력 교육 훈련	○부산 지역 감염병 담당자 직무교육 16회	○부산 지역 감염병 담당자 직무교육 21회	○부산 지역 감염병 담당자 직무교육 12회	○부산 지역 감염병 담당자 직무교육 1회 이상
	○감염병 관련 교육 지원 12회	○감염병 관련 교육 지원 27회	○감염병 관련 교육 지원 71회	○감염병 관련 교육 지원
부산시 및 구·군 역학조사 현장 지원 및 기술 지원	○역학조사 현장 및 기술지원 46회	○역학조사 현장 및 기술지원 85건	○역학조사 현장 및 기술지원 89회	○역학조사 현장 및 기술지원 시 요청 대비 100%
	○역학조사 연보 발행 1건 (책자 제시)	○역학조사 연보 발행 1건 (책자 제시)	○역학조사 연보 발행 1건 (책자 제시)	○역학조사 연보발행 1건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가이드 개정 1건 (책자 제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가이드 개정 1건 (책자 제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가이드 개정 1건 (책자 제출)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가이드 개정 1건

14. 민생지원

01

격리치료의료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방지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원·격리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는 격리기간 동안 치료비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 등의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자로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의 범위에서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중 해외 유입에 따른 외국인 환자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아울러 2022년 7월 11일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하였다.

부산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	지원(명)	지급액(천원)	외국인(명)(천원)
2020년	631	553,680	101(942,631)
2021년	9,304	5,037,814	388(965,357)
2022년	70,444	35,753,102	1,420(766,877)
2023년(8월말 기준)	4,790	1,248,000	90(36,112)

0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된 후 퇴원하거나 격리를 끝낸 시민이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생활비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확진 및 접촉 등으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생계의 위험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줄이고자 하였다.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2020년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8월30일을 코로나19가 4급전환된 기점으로 생활지원비 사업이 종료되었다.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 주요 개편 내용

구분	당초	개편1차(22.2.14.)	개편2차(22.06.16)	개편3차(22.7.11)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 (가구원수 기준)	격리자 수로 차등지급	정액지원 (1인 10만원/2인이상 15만원)	정액지원 (1인 10만원/2인이상 15만원)
단가	33,900원(1인최대)	34,910원(1인)	2만원(1인)	2만원(1인)

▶ 지원 제외 대상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 4.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실적

(단위:천원, 건)

연도	집행액(합)	집행액(국)	집행액(시)	집행액(구군)	지급건수
2020	7,412,825	3,715,445	3,697,379	-	10,647
2021	77,457,062	38,895,278	25,769,861	12,791,922	97,774
2022	173,627,244	87,097,441	57,631,648	28,898,155	672,966
2023. 8	11,074,623	5,539,219	5,535,404	-	99,271

03

소상공인 지원

1.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개요

일자(기간)	지원 사례	지원주체
2020.4.	(1차)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부산시
2020.5.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2020.9.	(2차) 집합금지시설 긴급 지원금	부산시
2020.9.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
2021.1.~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정부
2021.2.~	(3차) 부산형 재난지원금(플러스지원금)	부산시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행정명령(집합금지, 집합제한,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피해 및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고강도의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반복 시행되면서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가 곤란해질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고, 이에 부산시는 가용 자원과 재난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생업보호에 적극 대처하였다.

■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부산시 지원금 지급

일자 (기간)	지원금 명칭	지급대상	지급액	집행액
20.4.	(1차)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업체당 100만원	199천개소 2,000억원
20.9.	(2차) 집합금지 시설 긴급 지원금	2차 팬데믹(8~9월)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시설	고위험시설(100만원) 목욕장업(50만원)	79억원
21.2.~	(3차) 부산형 재난지원금 (플러스지원금)	12.1 이후 市집합금지 • 제한시설 (업종)	집합금지(100만원) 집합제한(50만원)	73,600명 555억원
	추가 민생경제 지원	전세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관광업체 문화예술인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보상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23만원)	

2.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20. 4월)

부산시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 신속한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생업 보호에 힘쓰기 위해서였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소상공인 기준),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제3조의 2(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를 법적근거로 하여 실시되었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은 부산시 주소지 및 사업자 등록된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지급 총건수는 199,373건, 총 199,38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665억원(재해구호기금 882억, 재난관리기금 633억, 예비비 150억), 구·군비 371억으로 총 2,036억원이 소요 되었다. 소상공인 피해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는 초기 추진부서인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소상공인지원팀(팀장 1명, 주무관2명)과 함께 집행부서인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민생지원TF팀(팀장1명, 주무관2명)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3. 집합금지시설 긴급 지원금('20.9월)

집합금지시설 긴급지원금은 2차 팬데믹(8~9월),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시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타격이 심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및 목욕장업에 지원되었다. 집합금지시설 긴급 지원금의 지급액은 고위험시설 종사자에게는 100만원, 목욕장업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되었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집합금지기간이 장기간인 종사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8.21~10.11 기간동안), 목욕장업은 금지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차등 지급되었다. 집합금지시설 긴급지원금 총 79억원이 집행되었다.

4.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 지급('21.2월~)

부산시에서 추진한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영업피해 및 고정비용 경감하기 위해서였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제3조의 2(기금의 용도)를 법적근거로 하여 실시되었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형 집합금지(제한)업종 플러스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종사자에게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종사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지급 총건수는 73,600건, 총 55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389억원(재해구호기금 389억), 구·군비 166억으로 총 555억원이 소요 되었다. 접수, 심사,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을 예측하여, 부산시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구·군 사무관리비 1억원, 구·군 보조인력(취업연수생 200명)을 채용하여 긴급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초기 추진부서인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소상공인지원팀(팀장 1명, 주무관6명)에서는 TF팀 구성없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실무수습 주무관 2명을 총원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실시하였다.

5. 추가 민생경제 지원현황

부산시에서는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민생경제를 지원하였다. 지원 내역은 전세버스기사(100만원), 법인택시기사(100만원), 관광업체(50만원), 문화예술인(50만원),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 보상(23만원)으로 다양한 업종종사자에게 지원되었다.

6. 정부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부산시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지원)을 신설하고 2021년 7월 공포함으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본격 시행되었다.

정부지원금은 부산시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원되었다.

7) 정부지원금

일자(기간)	지원금 명칭	지급대상	지급액
2020. 5.	(1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이하 보편 지원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2020. 9.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팬데믹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 ~ 200만원
2021. 1.~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팬데믹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 제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업종	100 ~ 300만원

1) 긴급재난지원금('20.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들에게 보편 지원되었고,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지원되었다. 상세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기준	1인	2인	3인	4인
지원규모	40	60	80	100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0. 9월)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차 팬데믹,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종사자에게 지원되었으며, 지급액은 100 ~ 200만원이며, 상세 지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집합금지	유흥주점, PC방, 학원 등	200만원
집합제한	일반음식점 등	150만원
일반업종	연매출 4억원 이하	100만원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1. 1월)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3차 팬데믹,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제한) 및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업종 종사자에게 지원되었으며, 지급액은 100 ~ 300만원이며, 상세 지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집합금지	유흥시설 등 11종	300만원
집합제한	일반음식점, 목욕장업 등	200만원
일반업종	전년대비 매출 감소	100만원

04 장례지원

1.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추진개요

2020년 3월 13일, 부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부산시민들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3월 22일 강화된 거리두기(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 중단 강력권고) 조치가 실시되었다. 부산시 전직원과 의료종사자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코로나19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부산시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병 전파 방지를 목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여, 병원 및 장례식장 내 감염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접수되어 2023년 10월말까지 총 2,640명 지원 189억원 집행되었다.

☞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10월말
지원대상	14	145	1,912	569
예산액	1.58	15.96	199.10	11.00
지원액	1.58	15.96	172.23	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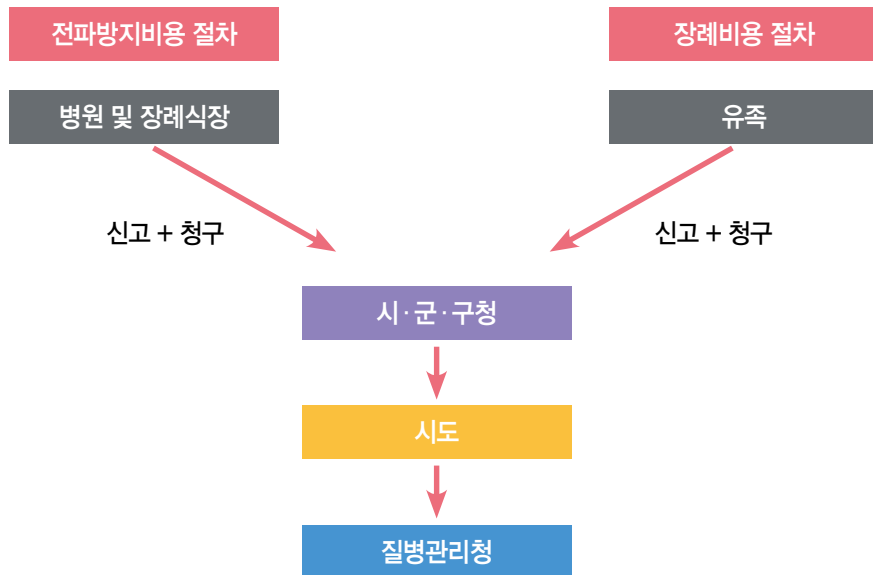
2. 사업 주요내용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던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및 제67조(국고 부담 경비)를 근거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목적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방지였으므로, 부산시는 사업시행 주체를 16개 구·군으로 지정하여 사망자 유족이 접수 후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사업기간은 2020.3.1.~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실비 및 유족 장례비 지원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지원 상세내용은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사망자 장례비 10,000천원 정액지원('22.4.24.까지 사망자에 한정), 전파방지비용 실비 3,000천원 이내 지원('22.6.19.까지 사망자에 한정)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격리·사망기간 등의 증빙 제출서류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심사 통과 시 즉시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절차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2024년도까지 신청기간을 유예·연장하여 홍보 중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10850(2023.9.20.)호 관련)

▶ 전파방지비용(실비 최대 300만원) 지급세부내역]

구 분	내 역
인건비	- 시신 수습한 장례지도사 등
시설 이용비	- 장례식장 입관 및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물품비	- 방수용 시신백(비닐), 관, 유골함 등
기타	- 유족 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 등

▶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신청 절차



05

긴급돌봄서비스

코로나19 자가격리 노인이나 자가격리 중인 중증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과 복지,요양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황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하였으나 사회서비스원 미설치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다가, 2022.3.29.일 부산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2020.4월부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전담인력 2명과 돌봄인력 38명(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을 확보하여 백신3차 접종 완료, 돌봄 서비스 교육,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완료 후 배치하였고, 복지,요양시설 파견 시에는 개인보호구 4종 물품 지원,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돌봄인력과 서비스 이용자의 감염관리에 힘썼다. 돌봄인력은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택치료 부서에서 고위험군 건강관리 모니터링 시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청 업무도 대신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음

구 분	주요 내용	
일상생활지원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보기 및 식사지원 -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간호	시설	-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을 대신하여 돌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 기간 중 응급·치료 상황 발생 시 방문간호 - 만성질환자 처방 및 의약품 수령 후 전달 * 병원비 및 의약품 비용은 본인부담

2022.4~11월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실적

서비스 유형	이용자수(명)	제공횟수(건)	제공시간(시간)
계	74	235	919.5
가정돌봄지원	71	220	801
돌봄시설파견	3	15	118.5

2022.1~6월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실적

서비스 유형	이용자수(명)	제공횟수(건)	제공시간(시간)
계	35	100	338
가정돌봄지원	34	96	306
돌봄시설파견	1	4	32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 등으로 인해 우울감에 빠진 시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는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을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3월 15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부산시민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트라우마) 등을 해소하고 대민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정신건강상담 전화(1577-0199) 운영하였다. 아울러 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심리지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부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감염 확진자 유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 02-2204-0001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감염 확진자 및 가족, 격리자, 일반인 : 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관명	전화	주소
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051-242-2575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1,12층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57-7057	중구 흑교로 48, 중구복합건강센터 3층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46-1981	서구 구덕로 127 서구가족센터 2층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11-4600	동구 구청로 1 동구의회 2층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404-3379	영도구 동삼북로 3 동삼1주공아파트상가 209호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38-2662	부산진구 시민공원로30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복지센터 2층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07-7306	동래구 명륜로 187번길 56 동래구보건소 4층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626-4660	남구 유엔평화로 4번길 61 3층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334-3200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 북구보건소 덕천지소 3층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41-3567	해운대구 양운로 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2층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265-0512	사하구 장림번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층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518-8700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37 3층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973-3418	강서구 공항진입로 8 (주)제이슨 2층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861-1914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보건소 1층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714-5681	수영구 수영로 637-5 수영구보건소 2층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1-314-4101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다누림센터 3층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051-727-5386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1 정관통합보건지소 4층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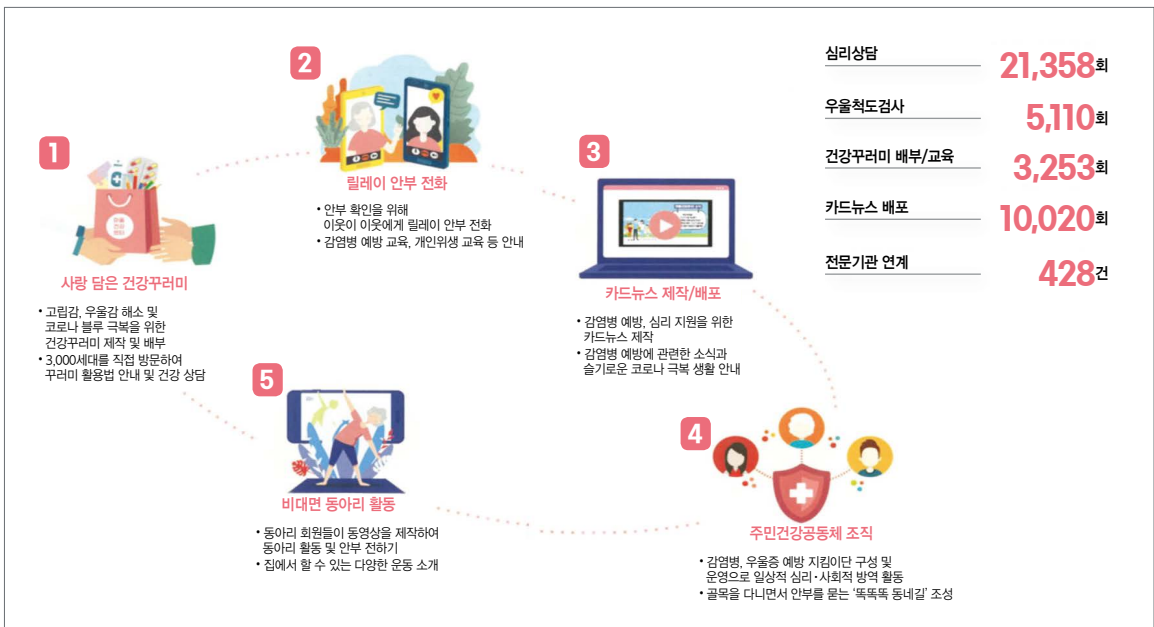
마을건강센터 코로나19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2007년~2009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해운대구 건강한 반송만들기사업을 기점으로 지역간 건강격차 및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 2010년에 부산형 건강한 마을만들기사업을 9개동에 추진하였다. 2016년 부산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건강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읍면동 단위 거점 보건기관인 마을건강센터 사업으로 전환하여 16개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2023년 기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에 마을건강센터 75개소를 설치·운영 중으로 마을간호사와 마을활동가가 상주하여 기초건강체크, 상시건강상담,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치매선별검사, 건강리더 양성, 노쇠예방사업 등 부산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집단활동과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주민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을건강센터 사업은 위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주민과 관계를 맺고 건강꾸러미사업, 감염병 예방지킴이단, 건강관리활동, 고립감 완화를 위한 안부확인 등을 시행함으로 보건소 업무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상적 주민건강관리를 마을건강센터에서 수행하였다. 특히 감염병 예방지킴이단은 마을 단위 감염 유해 지역을 파악하고 감염병 예방 캠페인 및 골목길을 걸으면서 독거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발골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감염병예방지킴이단 조직 구성 현황

구군별 감염병예방지킴이단 현황(2021년 기준)											
구·군	중구	서구	동구	진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합계
지킴이단 수	1	3	1	5	4	4	5	4	6	1	34

또한 기저질환자 및 독거인(4,000가구)을 대상으로 높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에게 건강꾸러미(두유, 칠고, 컬러링북, 호일아트, 퍼즐, 스포츠스테킹캡, 식물키우기 등) 배부와 심리상담 관리를 위해 “사랑담은 건강꾸러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주민(건강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차단, 마스크 구매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 국가정책사업을 안내하고 카드뉴스, 현수막 등을 배포·게시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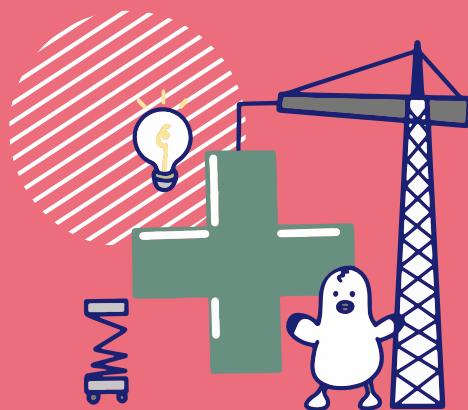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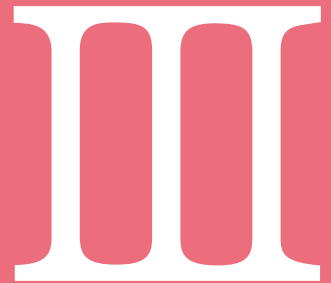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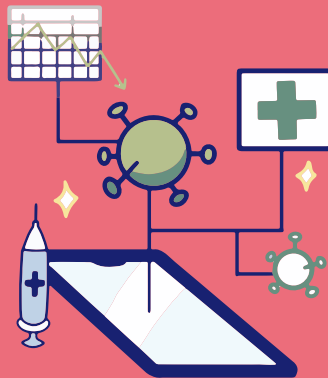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코로나19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업대상	사업내용	추진실적
사랑담은 건강꾸러미 사업	마을건강센터 등록 기저질환자, 독거(4,000가구)	높은 우울감 호소 주민에게 건강꾸러미 배부 및 심리상담 관리	- 인력교육 : 사업담당자, 마을건강활동가, 마을간호사 등 5회 134명 - 우울증검사 5,110회, 건강꾸러미 배부 3,253회, 심리상담 21,358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428건)
사랑의 릴레이 안부전화	건강동아리 회원 및 지역주민 등 약 15,000명	고립감 해소 및 안전확인을 위한 '이웃이 이웃에게' 릴레이 안부전화 - 코로나 19 의심증상 유선확인, 감염병예방 및 개인 위생관리교육 - 가짜뉴스 차단, 마스크 구매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예방 국가정책사업 안내	안부전화 23,771건
카드뉴스 제작 배포	마을건강센터 등록자 및 지역주민	감염병예방 및 심리지원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감염병 예방 관련 소식과 즐거운 코로나19 극복생활 안내	10,020회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코로나19 지원사업 활동사진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과제 연구

1. 서론
2. 연구결과
3.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 제언
4. 참고문헌

부산은 고령층이 많은 인구구조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라시아 관문도시의 특성을 품고 있다.¹⁾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부산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형 방역의료체계를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응으로 부산시의 ‘이중적’인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역사적 이정표를 남겼다.

특히 부산시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보건환경연구원은 각각 ‘수문장’, ‘침병’,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인 검사(Test)체제이며 부산시민의 안녕을 위해 검역과 격리를 통한 통제에 방점을 둔 방역대응이다. 또한 부산시는 고위험 시설 및 감염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그리고 의료 대응과 함께 탄력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대응 또한 이어나갔다. 특히 4차 대유행(델타 변이) 이후 부산시 의료 체계의 주요 특징인 재택치료를 통한 선제적 대응과 광역응급하이라인 운영이 있었다. 더불어 요양시설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노숙인 등 사회 취약집단 관리를 통한 부산시의 포용성을 통해 감염難을 극복했다. 즉, 코로나 팬데믹의 3년 반의 기간 동안 부산시는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 ‘동행’으로 코로나19로 각종 폐해(감염률과 사망률 등)를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부산시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이 전국 시·도별 사망률(연령표준화 사망률) 기준 높게 기록되었다.²⁾ 이에 감염에 취약한 집단 및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 방안으로 전담팀의 신설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부산광역시 그리고 감염병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제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을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감염병을 담당하는 과단위 이상의 전담부서가 보건소에 있다. 하지만, 우리시의 16개 구·군 보건소에는 감염병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부산시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요양병원 시설수가 216개(인구대비 최고)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한 상황 속에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다음 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세계 최저수준의 코로나19 사망률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경험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의 경험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 경험을 총 결집하여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365일 감염병에 안전한 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할 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는 보건의료분야를 넘은 차원의 인간안보를 위해서 2023년 12월 새롭게 발효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도시 조항을 현실화하여 전행정적 전사회적 건강도시조성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2023년 현재 기준 부산 고령인구 비중은 22.2%임

2) 통계청 보도자료, 2023. 9. 23. : 2022년 코로나19의 사망원인통계 전국 시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2005년 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이 26.3명으로 대구,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

〈표 차례〉

- 〈표 1〉 국가위기의 구분: 안보와 재난
- 〈표 2〉 국내 최근 감염병 유행기간 및 발생 규모와 경제적 손실(2023. 5. 기준)
- 〈표 3〉 최근 감염병의 이슈와 대응과제
- 〈표 4〉 신종 감염병 병원체
- 〈표 5〉 신종감염병 국내 발생 규모에 따른 개선 내용 및 대응 주체
- 〈표 6〉 신종감염병 대비 계획 이행 전후 변화
- 〈표 7〉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비교(기준: 2023.7. 27)
- 〈표 8〉 국가재난관리 4단계 과정
- 〈표 9〉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감염병 안전관리대책 부분
- 〈표 10〉 감염병 관리 사업 시 관련 기관별 역할
- 〈표 11〉 감염병 재난 국가 위기경보 수준 및 대응 주요 활동
- 〈표 12〉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시도, 시·군·구 임무 및 역할
- 〈표 13〉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에서의 역할
-주요 대응 활동 중심으로
- 〈표 14〉 감염병 위기 대응 단계에 따른 기관별 주요 활동
- 〈표 15〉 부산 감염병 유행과 근대적 의료체계의 대응
- 〈표 16〉 시·도별 코로나19 연령표준화 사망률(2022년)
- 〈표 17〉 시·도별 사망자 수, 조사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21-2022
- 〈표 18〉 부산시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 〈표 19〉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별 실무반 기본 임무
-총괄 및 의료 부분
- 〈표 20〉 부산시 수립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정계획 및 목적
- 〈표 21〉 부산시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감염병 대책
- 〈표 2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부산시 대응 계획
- 〈표 23〉 보건소 업무조정 안내서
- 〈표 24〉 부산시 보건소 인력과 조직 현황(2과 체계)
- 〈표 25〉 전국 보건소 감염병 전담 부서 현황
- 〈표 26〉 전국 보건소 감염병 관리 전담 부서 세부 현황
- 〈표 27〉 수원특례시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보건소 감염병전담
관리부서 비교(인구수 등)
- 〈표 28〉 전국 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감염병 전담 인력 현황
- 〈표 29〉 자문위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 30〉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 〈표 31〉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미흡한 항목
- 〈표 32〉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및 내용
- 〈표 33〉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 〈표 34〉 코로나19 대응 방안 주요 시사점
- 〈표 35〉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평과 제안
- 〈표 36〉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표 37〉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시 문제의 정도
- 〈표 38〉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체계 필요의 정도
- 〈표 39〉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
- 〈표 40〉 업무 관련 스트레스 현황
- 〈표 41〉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 정도
- 〈표 42〉 우울감 경험률
- 〈표 43〉 전문가 상담 경험 여부
- 〈표 44〉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
- 〈표 45〉 감염필수종사자를 위한 정책적 함의
- 〈표 46〉 부산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체계(안)

〈그림 목차〉

- 〈그림 1〉 건강재난의 발생경로
- 〈그림 2〉 독감과 관련된 바이러스 유행의 흐름
- 〈그림 3〉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 〈그림 4〉 감염병 재난관리 체계도
- 〈그림 5〉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조직도
- 〈그림 6〉 대한민국 사망원인 순위 추이
- 〈그림 7〉 대한민국 코로나19 사망자의 연령별 구성비 및
월별 사망자 수
- 〈그림 8〉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 〈그림 9〉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조직도
- 〈그림 10〉 경기도 보건건강국 조직도
- 〈그림 11〉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국 조직도
- 〈그림 12〉 전문가 자문위원 일반적 특성
- 〈그림 13〉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우수한 부분
- 〈그림 14〉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미흡한 부분
- 〈그림 15〉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및
내용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 〈그림 16〉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련 문제점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 〈그림 17〉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적 의견 제시 등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 〈그림 18〉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평과 발전적 제언 등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 〈그림 19〉 보건소 직원의 일반적인 특성
- 〈그림 20〉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시 문제의 정도
- 〈그림 21〉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위한 필요 정도
- 〈그림 22〉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
- 〈그림 23〉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

I. 서론

1장 연구배경

현대사회는 아파트와 빌딩과 같은 주거 공간으로 인한 일상의 공유, 공장식 축산형태의 자본주의에 기댄 효율성,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복잡다기(複雜多岐)한 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症) 즉 인간과 동물과의 접촉면이 확대되면서 병원체 전파와 이로 인한 감염이 또 다른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비단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대와 전근대에 걸쳐 역병이 창궐했고 이에 대한 치료법 등의 대응이 있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며 전염병의 시기와 규모 정도가 증폭되고 있다. 2020년 3월11일 세계보건기구는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이어 세 번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혹은 범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감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대규모 세계적 대유행은 천연두와 결핵이 있었다. 1918년 세계보건기구 출범 전 스페인 독감 역시 전 세계로 확산되어 5천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특히 이 시기 우리나라의 경우 부산순치(전염)병원에 수용된 환자수가 705명(1919년 수용환자의 수)으로 1904년에서 1935년에 걸친 기간 중 가장 많았다.³⁾ 콜레라도 20세기 중반까지 위험했으나 위생적 환경과 항생제 개발로 사망률은 크게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곧바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므로 팬데믹 생존해법은 “면역력, 공중보건, 생존경제, 도시계획”이 조화된 건강도시 ‘하이게이아(Hygeia)’가 필요하다.^{4),5)}

이러한 관점에서 3부는 과거로 복기(服忌)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겪은 지혜를 통해 현재와 근미래의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해 선제적 대응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 지구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코로나 사태’화된 현실 속에 부산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복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인간안보와 국가위기의 논의가 담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부산형 방역·의료 대응 체계의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 둘째, 국내 감염병 대응관리체계를 탐색하여 부산 감염병 대응 체계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부산의 감염병 역사를 조망하며, 부산의 코로나 대응 체계의 선조성을 확인한다. 넷째, 부산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체계 통해 코로나19 대응 기제를 고찰한다. 다섯째, 부산시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 특히 코로나19 시기 보건소의 대응을 파악한다. 여섯째, 앞서 파악된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을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3가지 접근(①전국 특·광역시 및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 현황 2차 데이터 분석; ②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 설문조사; ③ 부산보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을 통해 부산시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종합 고찰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는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을 제시한다.

3) 부산부립병원사 편찬자료 제1권, 자료제공: 부산광역시 의료원 원저자는 1938년 부산부청서기 마쓰오 다카히라

4) 팬데믹 -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홍윤철 (지은이)포르체2020-0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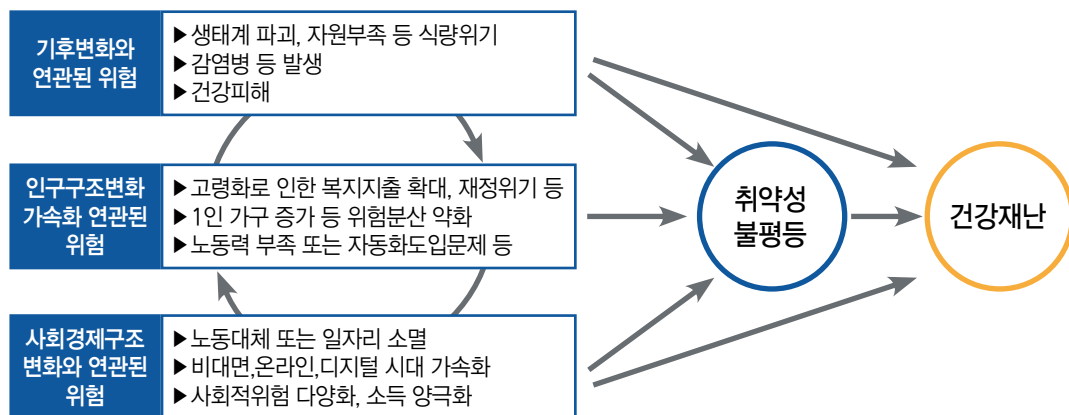
5) ‘하이게이아’는 질병이 없는 이상적인 도시를 가리키는 용어로, 1875년 영국의 위생학자 벤저민 리처드슨이 ‘위생도시’ 이론을 전개하며 제시함. ‘하이게이아’는 영국의 유명한 위생개혁가 채드윅의 제자인 벤저민 리처드슨은 위생도시 하이게이아를 이상적인 건강도시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2장 이론적 고찰

1절. 인간안보와 국가위기 차원에서의 코로나19

인간안보(Human Security)는 기존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의 보완적 개념으로, 각 개인의 안전, 풍요, 행복 추구 등을 안보화시킨 개념이다. 즉, 인간안보는 전통적 안보(Traditional Security)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초국가적 문제 등의 발생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은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제기되었으며, 기존의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군사적 위협은 물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인간으로 설정하는 비전통적 안보(Non Security)개념이다.⁶⁾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 교란의 반작용으로 파생된 코로나19는 기존에 인류가 누리던 일상과의 단절을 초래 했다. 즉,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손실 및 대규모 실직과 실업 등을 야기한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이 가중되며 가치 ‘건강재난’으로 까지 확장되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 그림은 위의 논의를 도식화한 것으로 인간안보의 주체인 인간의 ‘건강재난’은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사회경제구조‘변화’와 같은 3대 ‘변화’가 ‘취약성 불평등’을 통한 발생 경로성을 보인다.

▣ 〈그림 1〉 건강재난의 발생경로



출처: 김창보 인간안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특징과 건강정책의 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 Vol. 5 Special Article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바로 ‘보건안보’의 위협이다.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전통적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만큼 세계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⁷⁾

한편, 인간안보는 세계적인 문제(universal concern)를 사람을 중심(human-centered)에 두고 접근하는 관점이다. 인간안보를 이루는 요소들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며 조기예방(early prevention)으로 이와 같은 요소 등을 통해 안보의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글로벌 또는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단위에서도 인간안보와 건강재난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적 준거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천 도시외교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쟁과 같은 위협뿐 아니라 시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는 질병, 환경·생태, 빈곤 등 여러 사회·경제적 위협에 주목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의제를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하여 부산에서도 참조할 만하다.⁸⁾

한편, 2015년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감염병은 국내 유행 이후 국가위기로 접근하고 있다.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6) 이해정과 박지범, 인간안보: 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2013 봄 pp.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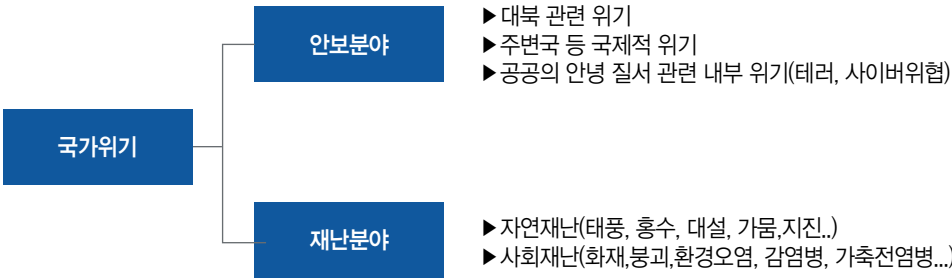
7) 팬데믹 - 바이러스의 습격,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홍윤철 (지은이)포르체2020-08-19

이수훈,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인간안보 개념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책분석, 2020년 4월 28일 file:///C:/Users/ghost/OneDrive/%EB%AC%B8%EC%84%9C/%EA%B1%B4%EA%B0%95%ED%95%9C%EB%B6%80%EC%82%B023/NASA_%EA%B5%AD%EC%A0%9C(%EC%9D%B4%EC%88%98%ED%9B%88).pdf

8)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61053356580497

위기소통의 이해”의 발췌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은 국가위기 중 재난분야에 포함이 된다. 국가위기는 안보분야와 재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재난분야는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과 같은 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감염병, 가축전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으로 구분이 된다. 이 중 감염병관리 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의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다.

▣ < 표 1> 국가위기의 구분: 안보와 재난



출처: 중대본_감염병 위기소통의 이해발췌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사회재난인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유행기간과 발생규모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다음 <표 2>와 같다. IMF(2022)는 2024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16,815조(추산 중)의 막대한 금액이며, 최근 국내 감염병의 경제적 손실 규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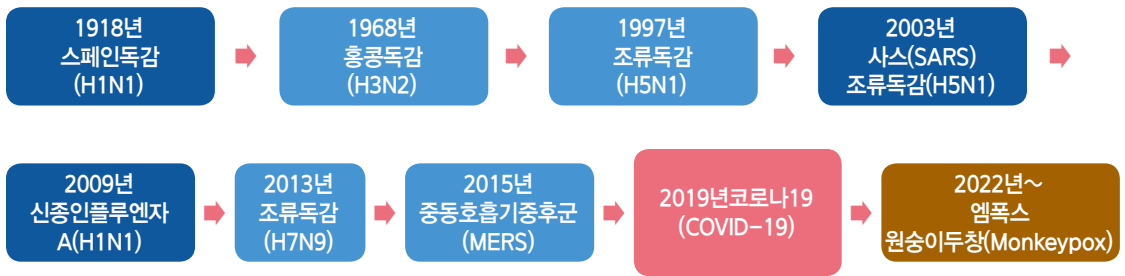
▣ < 표 2> 국내 최근 감염병 유행기간 및 발생 규모와 경제적 손실(2023. 5. 기준)

감염병	국내 유행기간	발생규모(명)				경제적손실 (조원)
		해외		국내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사스	3개월 (2003.3.~5)	8,098	774	3	0	-
신종플루	12개월 (2009.5~2010.4.)	300,000	3,917	15,160	260	8
메르스	8개월 (2015.5.~12)	2,578	888	186	38	20
코로나19	3년 이상 경과 (2020.1.~진행 중)	7억6천만	7백만	3.1천만	3만4천	추산 중 세계:16,815조

출처: 중대본_감염병 위기소통의 이해발췌

한편, 독감과 관련된 바이러스 유행 흐름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18년 스페인 독감(H1N1)을 시작으로 1968년 홍콩독감(H3N2), 1997년 조류독감(H5N1), 2003년 사스(SARS) 조류독감(H5N1),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2013년 조류독감(H7N9),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9년 코로나19(COVID-19), 2022년 앵무새 독감(Monkeypox)이 있다.

■ < 그림 2> 독감과 관련된 바이러스 유행의 흐름



출처: 중대본_감염병 위기소통의 이해발체

특히, 이전의 주요 감염병별 핵심 이슈와 대응 정도는 다음 <표 3>과 같이 각 감염병마다 다르다. 이전 감염병과 비교해 이번 코로나19 주된 차이점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취약성의 노출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이슈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음압병상과 같은 의료대응 인프라 부족이다.

■ < 표 3> 최근 감염병의 이슈와 대응과제

감염병	핵심이슈	대응과제
사스	• 해외 유입 효과적 차단	• 중앙 방역기관 역량 강화(질병관리본부 설립)
신종플루	• 중증도 낮은 대규모 감염 • 효과적인 대응수단(백신, 치료제) 존재	• 항바이러스제 비축 • 백신 개발역량 확보(세포배양 백신 개발)
메르스	• 의료기관 감염관리 취약성 노출 • 해외정보 부족으로 초기대응 미흡 • 높은 치명률로 신속한 대응 필요	• 의료기관 대응 역량 대폭 확충 • 신속한 3T 위한 제도 개선(역학조사관 확충 등) • 24시간 EOC 신설
코로나19	• 감염취약시설 관리취약성 노출 • 음압병상, 중환자실 등 인프라 부족 • 백신 등 대응수단 확보에 애로 • 사회대응 조치 장기간 지속	• 감염취약시설 대응역량 강화로 취약계층 보호 • 호흡기 감염병 의료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 백신·치료제 등 의료적 대응 개발기술 확보 • 범부처 대응을 넘어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

출처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 5. 11), 관계부처 합동

따라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5.11.)은 코로나 핵심 이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감염취약시설의 대응역량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② 호흡기 감염병 의료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③ 백신 및 치료제 등 의료적 대응기술의 확보, ④ 범부처 대응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 강화

이러한 맥락에서 선제적이며 선도적인 부산형 방역·의료 대응 구축을 위해서 이전의 메르스 감염병 등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방역체계를 넘어서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2015. 9.)을 통한 방역·의료 역량 확충은 코로나19 초기대응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방역체계 개편안은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시에는 한계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산형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위한 감염병 전담조직과 인력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

한편, 아래 <표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980년대 초반의 AIDS를 시작으로 신종 감염병 병원체가 매 3~4년 정도의 주기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 < 표 4> 신종 감염병 병원체

연도	감염병 병원체	연도	감염병 병원체
1981	AIDS	2009	Pandemic influenza A H1N1 2009
1986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2009	SFTS
1989	Hepatitis C	2013	MERS
1992	Vibrio Cholerae 0139	2013	Avian influenza(H7N9)
1994	Human case of equine orvillivirus	2014	Ebola virus disease(West Africa)
1997	Avian influenza(H5N1)	2016	Zika
1999	Nipha encephalitis	2019	COVID 19
2003	SARS	2022	Mpox

출처: WHO, Public Health Emergency International Concern, 정은경(2023. 11.6),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지역의 역할 발표 재인용

1. 신종감염병 유행발생에 따른 대응 개선 사례

‘괴질’로도 알려져 있는 급성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 SARS)은 2002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⁹⁾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3월 16일부터 전 세계 사스 경계령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국에 사스 경보를 발령하며 방역시스템 가동했다. 특히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하며 검염소를 통합하고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제도적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진행했다.

또한, 2009년 3월 18일에 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Influenza A)가 발생했다. 국내 신종인플루엔자는 한 달여 이후인 4월 28일에 확인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국가재난 단계 ‘주의’로 상향 조정하며 방역대응체계를 이어나갔다.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정부는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비축 확대 및 인플루엔자 연구개발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를 신설하며 방역과 의료체계를 개선시켰다.

한편, 메르스 유행은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며 24시간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 운영과 위기소통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다. 또한, 감염병 신속진단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역학조사관 확충과 의료감염관리가 강화되었다. 더욱이 감염병 대응주체도 이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주체였던 방역당국과 의료계에서 메르스 발생을 계기로 지자체도 주요 대응주체로 확장되었다.

9) 정진원, 우준희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이해” 대한내과학지, 제65권 제 2호 2003, p. 154

▣ < 표 5> 신종감염병 국내 발생 규모에 따른 개선 내용 및 대응 주체

감염병종류	국내 발생규모	개선 내용	대응주체
SARS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명 의심환자 • 3명 추정환자 • 사망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설립(검역소 통합) • 격리병상 확충 • WHO, IHR개정(2005)에 따른 국내 법·대응체계 개선 	방역당국
신종 인플루엔자 (2009~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만명 발생 • 263명 사망 (집계중단 후 표본감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비축 확대 • 인플루엔자 연구개발 •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신설 	방역당국 + 의료계
메르스 (2015년,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86명발생 38명 사망 • (2018년) 1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 24시간 EOC 운영 -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 신속진단체계 - 역학조사관 확충 - 중앙권역 전문병원 - 의료감염관리 강화 	방역당국 + 의료계 + 지자체
코로나19 (2019년)	(2023년 4월 29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3,111만명 발생 • 34,474명 사망 	<주요 개선 필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전파 관련 병원 인프라 확충 • 감염취약시설 관리체계 보완 • 취약계층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범부처 범사회

출처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5.11.), 관계부처 합동, 재구성

한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관점에서 사스와 메르스 감염병 대응 사례를 분석한다면, 재난 이후의 거버넌스 개선이 미흡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기획, 리더십, 상호의존성, 멤버십, 자원, 정보, 학습 등이 모두 법 제도 기반, 인력 및 예산, 재난 종결 이후 학습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¹⁰⁾ 따라서,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관점에서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대비 및 대응단계 리더십, 거버넌스 참여기관들 간 상호의존성,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태도 등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종감염병 유행발생에 따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의 미흡한 면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비단계에서의 감염병의 징후 포착, 정보수집, 대응단계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거버넌스 내 참여기관들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며, 훈련의 정례화를 통해 기관들간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재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는 선제적 투자와 과잉대응의 기초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신종 감염병 지향할 바는 다음 <표 6>과 같다.

10) 고대유, 박재희, (2018), 감염병 재난 거버넌스 비교연구 - 사스와 메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7(1), 243-280.

▶ < 표 6 > 신종감염병 대비 계획 이행 전후 변화

구 분	현재는(AS-IS)	앞으로는(TO-BE)
감시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시 수행중이나 분절적 관리, 대표성 부족 등으로 활용도 제한 • 글로벌 네트워크 부족으로 해외정보 수집 취약 • K-방역 인지도는 높으나 국제보건정책 의제 주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민감하고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및 통합적 관리로 위기징후 조기감지하여 선제적 대응 • 현지근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획득 • 보건분야의 중심국(pivot state)으로 글로벌 정책 리더십 강화
대비·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3T전략으로 효과적인 초기대응하였으나 전통적 기술·방법론에 주로 의존 • 유행시 마다 반복되는 병상·인력 부족으로 다급한 대응 • 지역간, 지역내 병상불균형으로 병상이 있어도 여러 병원 전전 • 유행만 끝나면 대응조직 해체, 새 유행 시 새로운 인력으로 대응 • 장기간 개선되지 않는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 취약한 3密 환경, 감염병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집단감염 빈번 및 건강피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신기술 확보 및 예측·분석장비 고도화로 신종감염병(Disease X) 유행에도 민첩하게 대응 • 상시병상 3,500개 확보 및 질관리로 안정적인 위기관리 • 권역완결형 대응체계 구축 및 병상자원 등 실시간 공유로 One-stop 병상배정 등 효율성 극대화 • 감염병 대응 상시조직 구성으로 경험 축적 및 대응 역량 강화 • 체계적·지속적 지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인력 안정적 확보 • 환기구조 개선 등 환경 개선, 교육훈련 및 평가 강화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로 전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발생 시마다 반복되는 사후적 법·제도 개선 • 카톡, 엑셀로 역학조사, 병상배정 입력하는 비효율적 구조 • 숫자 위주 데이터 및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은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 가능한 체계적·선제적인 법·제도 마련 • Digital 혁신을 통한 업무 자동화 및 효율성 극대화 • 대시보드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보 시각적으로 쉽게 제공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도 치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소득공백, 저소득층은 더욱 취약 • 자영업자·소상공인 온전한 피해보상 지원, 단, 시기는 다소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병수당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아파도 쉴 수 있는 소득 지원체계 마련 • 보상기준·제도 사전정보로 위기 발생 시 즉각 지원하여 경제적 충격 완화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미확보로 해외백신·치료제 의존, 적시확보 애로 • 방역적 필요성과 괴리된 R&D기획 및 소규모 분산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NA 등 핵심기술 보유하고 100일/200일 내 백신·치료제 신속개발하여 국내제품으로 위기대응 • 방역정책에 기여하는 체계적·집중적 R&D 투자로 성과 가속화

출처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5.11.), 관계부처 합동, 재구성

2절 국내 감염병 대응관리체계와 코로나19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인간은 항상 크고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중 이러한 위험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때 우리는 재난이라 부른다. 이러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도 재난관리 시스템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업무는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축소되거나 타부서로 이관되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자원봉사자 관리부실로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재난정보의 공유 미흡으로 재난관리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초기 많은 봉사자들이 수제 마스크 제작 외에 다양한 봉사에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와 개선점도 노정한다.¹¹⁾

따라서 재난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¹²⁾ 부산형 방역의료체계 도출을 위해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감염병 대응

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개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선언했다. 2023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는 32,866,350명이었으며 사망자는 35,159명으로 나타날 정도로 파급력이 큰 질환이다.

▣ < 표 7 >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비교(기준: 2023.7. 27)

국가명	누적 확진자 수	사망자 수	100명당 백신 접종자 수(1차 접종)
미국	103,436,829	1,127,152	68.87
중국	99,298,516	121,536	87.30
인도	44,995,332	531,915	68.99
프랑스	38,997,490	167,985	78.36
일본	33,803,572	74,694	81.76
대한민국	32,866,350	35,159	83.81

출처 : covid19.who.int/table 재인용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도시화·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신종감염병의 발생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가 국민을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이다. 법적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두고 있다. 국가안전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국가재난관리과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으로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재난관리 4단계 과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각국에서 기본적인 모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인간안보 관점에서의 대안 도출 때에도 동일한 틀을 사용할 수가 있어 매우 유용한 모형이다. 같은 법에서 안전관리는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1) 고광욱, 김혜숙, (20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 사례보고, 농촌의학·지역보건, 46(3), 144-152.

12) 현석환. (2015).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10(1), 39-56.

▣ 〈표 8〉 국가재난관리 4단계 과정

단계	내용
예방(Prevention)	평상시 재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활동
대비(Preparation)	재난발생을 가정하여 재난시 수행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대응(Response)	재난이 발생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응급대처 및 구조 구급활동 등을 포괄하는 활동
복구(Recovery)	재난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복구활동

자료: 최낙혁, 최슬기(2022), 재난안전 대응체계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사회과학연구, 33(2), pp379-400.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감염병 안전관리대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안전관리대책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법정감염병 사망자수 감소 및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유입방지-조기발견-신속 대응을 향상한다. 둘째,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조기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통한 확산을 방지한다. 셋째, 야생동물 질병(AI, ASF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및 사람·가축으로의 질병전파 등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및 체계적 복구대책을 강구한다. 넷째, 현장중심의 사전대비로 감염병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 능력 강화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주요대책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관리 시스템 정보들을 통합·연계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재난관리계획은 지역보건소가 감염병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9〉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감염병 안전관리대책 부분

대책 단계	부서	주요내용
예방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감염병 진단등 감염병 확산 조기차단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적극적 예방관리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배포 · 감염병관리 시스템 정보 통합연계 ·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 관리지원, 요양시설 관리 등 ·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체계 구축 · 학생·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 및 학부모 홍보 강화 ·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만4-6세 및 만 11-12세 시기 실시하는 예방접종) 예방관리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관련 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야생동물 질병(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브루셀라, SFTS, 광견병 등) 발생정보 제공, 야생동물 질병진단정보 등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체제 구축
대비	보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립검역소 운영지원 · 해외감염병 의심환자 밀접접촉자 격리·관찰을 위한 검역소 관할 국가격리시설 관리 및 운영(인천공항 50실, 부산 11실, 제주 24실) · 국가비축물자 등의 보관 및 항바이러스제 유효기간 연장 추진 등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운영 유지비 지원 · 지자체 진단제제 보급 및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 세계보건기구 표준실험실 운영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련 긴급행동지침 마련 · 재난대비 대국민 홍보 교육 및 훈련

대책 단계	부서	주요내용
대응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추가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파악 보건당국 협의 및 역학조사 등 · (재난상황 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 침해 보호 및 수업결손 최소화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 국제협력 강화 · 기후변화 매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 추진
복구	교육부	· 감염병 위기 대응 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응 체계 보완 및 대응 능력 향상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지역 환경 등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 지속적 검사 및 야생동물 서식현황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자료: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중앙안전관리위원회(2019)
부산광역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재인용, 2023

4)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관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와 국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을 실시한다.

▣ < 표 10 > 감염병 관리 사업 시 관련 기관별 역할

기관			역할
중앙 정부	질병 관리청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신고·보고 관리, 정보 수집·분석 및 환류 ·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역학적 특성 분석 및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 · 감염병 실험실 검사 계획 수립 및 실험실 검사 표준에 관한 업무 · 감염병병원체에 대한 국가 표준실험 수행 및 표준검사법 확립 · 감염병병원체의 분자역학적 특성 규명 ·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검역 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 감염병 관계 법인 및 단체 지원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권역 질병 대응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상시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 구축 및 대비·대응 역량강화 지원 · 권역내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지원 · 권역내 결핵 및 의료관련 감염병의 감시조사 및 유관기관 지원 · 권역내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역학조사 수행·지원 · 권역내 매개체 감시 및 감염병 병원체 확인검사 수행·지원
		국립 검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검역 수행 ·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역조사(역학조사) 수행 및 의심환자 이송 · 검역단계 검역감염병 의심환자, 접촉자 등 입국자 추적감시 대상 시·도 통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및 감염질환 정책관련 협의 및 지원 · 감염질환 관련 법령

기관		역할
지방 자치 단체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감염병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시·도 단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홍보 및 교육 · 시·도 단위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유행여부 파악 · 시·도 단위 감염병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 시·도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및 시·군구 역학조사 지휘
	보건환경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감염병병원체 실험실 검사 및 감시 · 시·군·구 보건소 대상 감염병병원체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점검 · 지역사회 감염병병원체 감시자료 분석 및 환류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환자 발생 신고 접수 및 발생 보고 ·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실시 및 환자 관리 · 지역사회 민관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법정감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 감시 · 지역사회 감염병 자료 분석 및 정보 환류 ·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감염병관리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자료분석 지원 등 기술자문 · 시·도 단위 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기술자문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심 환자 진단 및 신고·보고 · 감염병의심 환자발생 시 역학조사 및 감염병 관리 협조

자료: 2023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지침, 질병관리청

2.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체계

감염병 재난 시 국가는 위기경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도 위기경보 수준을 4개 수준으로 분류하며 다르게 규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수준으로 나눈다. 위기유형은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 기타 위기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분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보건소가 감염병 재난관리 대응의 최일선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되었으며, 2020년 1월 27일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어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20년 2월 23일 국가위기관리본부지침 및 감염병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법정부적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심(Blue)단계는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과 국내 원인 불명이나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등의 상황으로,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경우는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를 통해 발령된다. 관심단계는 징후활동감시와 대비계획점검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은 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항공검역, 예방교육 및 홍보, 감시체계 운영 등과 같은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비상대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의 지속적 점검 및 개선, 대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긴급상황 대비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된다.¹³⁾

13) 고광욱, 김혜숙. (2021), 부산광역시 동래구 코로나-19 지역사회 초기대응 사례보고, 농촌의학·지역보건, 46(3), 144-152.

주의(Yellow)단계는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와 국내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감염병 위기관리 기관 간 협조체제가 가동된다. 해외 감염병의 경우 주의단계는 자체위기 평가회의를 거쳐 발령되며, 해외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된다. 또한 해외 감염병의 유입이 확인된 지방자치단체는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해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하며, 검역 등 관련 조치가 강화하여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 대응조치가 실행된다.¹⁴⁾

경계(Orange)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전파 및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추가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의 상황으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이 단계는 역학적 연관성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간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주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지원본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심각(Red)단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 및 국내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징후가 보일 때 발령된다. 이 단계에서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및 운영되며, 정부의 대응역량이 총동원된다.

▣ < 표 11> 감염병 재난 국가 위기경보 수준 및 대응 주요 활동

위기경보 수준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제한적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전국적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출처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3

14) ibid
15) ibid
16) ibid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시·도, 시·군·구(보건소)의 임무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표 12 >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시도, 시·군·구 임무 및 역할

관심(blue)	주의(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방역대책반 운영 대비 체계 점검 및 필요시 운영 · 지역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 지속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준비 태세 점검 · 지역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 운영 강화 · 지역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대응 및 접촉자 관리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감염병 관련 정보 관한 의료기관 배포 및 점검 · 해당 감염병에 대한 담당자 임무숙달 교육 및 훈련 실시 ·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강화 · 관한 주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 중앙-지역 정보공유체계 점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에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 지역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운영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경계(orange)	심각(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발생지역 시·도 및 관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 지역 역학조사, 현장방역조치, 환자 이송, 접촉자 파악 지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강화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강화 · 시·도,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 중앙-지자체 실무협의체 운영 협조 및 지역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 지역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 지역 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 방역 인프라 총 가동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주민 대상 교육·홍보 등 소통 강화

* 출처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3

▣ < 표 13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에서의 역할-주요대응활동 중심으로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보건소)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시활동(발생동향 모니터링) 강화 · 방역대응체계 및 방역 인프라 점검 · (복구) 발생동향 모니터링유지 · (복구) 공공보건의료체계 재정비 	하라인 유지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전파(재난부서, 보건부서, 유관기관 등) · 역학조사반 현장 출동 · 지역사회 유행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출동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보건소)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협조체계 가동 · 방역자원 및 의료인력 총동원 ·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시설 및 치료병상 확보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 모든 협조체계 가동 · 방역자원 및 의료인력 총동원 ·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격리시설 및 치료병상 확보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대응반 출동 · 비상소집 · 사상자 현황 조사 · 조치사항 보고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지휘소 연락체계 유지 · 비상근무체계 돌입 · 필요시 지원요청 · 사상자현황조사 지속 · 조치사항 보고

자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2022),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23),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2023), 부산광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2020), 부산연구원

감염병 대응 업무에 대한 유관기관 주요 활동에는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출동대기 상태를 준비한다. ‘경계’ 단계로 격상 시에는 발생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상황 파악 및 보고를 시행한다. ‘심각’ 단계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대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수행한다.

▣ < 표 14 > 재난응급 의료대응 단계에 따른 기관별 주요 활동

구분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체
관심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감시 ·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핫라인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핫라인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핫라인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핫라인유지
주의 (Yel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기관 상황전파 · 출동대기 요청 · 주기적 상황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출동 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출동 대기 · 비상연락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확인
경계 (Or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요청 · 현장출동요청 · 응급자원정보 수집/제공 · 인근병원수용 대비요청 · 사상자 추적 · 조치사항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대응반 출동 · 비상소집 · 사상자 현황 조사 · 조치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 · 본진 소집 · 조치사항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내대응 개시 · 비상소집 · 수용환자 현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동대기

구분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	응급의료기관	이송업체
심각 (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 확대편성 • 응급자원정보 수집/제공 • 사상자 추적 • 조치사항 통보 • 필요시 추가자원 동원 • 필요시 중앙 DAMT* 파견 • 인근지역 지원 확보 • 물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현장지휘소 연락체계 유지 • 비상근무체계 돌입 • 필요시 지원 요청 • 사상자현황 조사지속 • 조치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료 • 본진 출동 • 필요시 지원 요청 • 조치사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근무체계 돌입 • 수송환자 현황보고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이송 • 조치사항 보고

*DAM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의료지원팀)
자료: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2022),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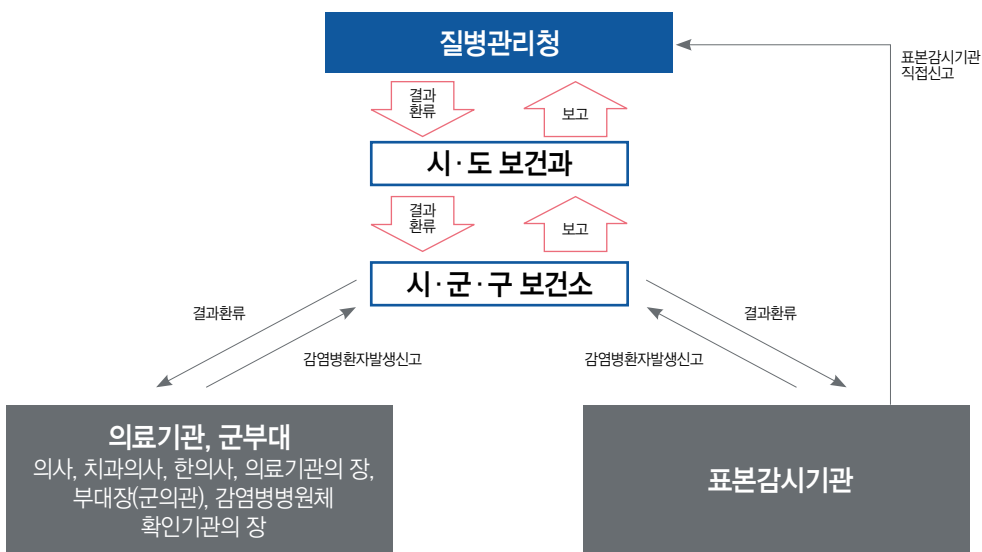
3. 법정감염병 대응 체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법정감염병 감시체계는 전수감시, 표본감시, 보완감시로 나뉘며, 전수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원),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로 제1급에서 제3급감염병이 이에 속한다. 제1급감염병(17종)은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제2급(23종)과 제3급(26종)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표본감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로 제4급감염병이 이에 속하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소는 의료기관 등에서 신고받은 후 제1급감염병은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고 및 보고체계는 아래 <그림3>과 같다.

▶ <그림 3> 법정감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 출처 : 2023년 감염병관리사업 안내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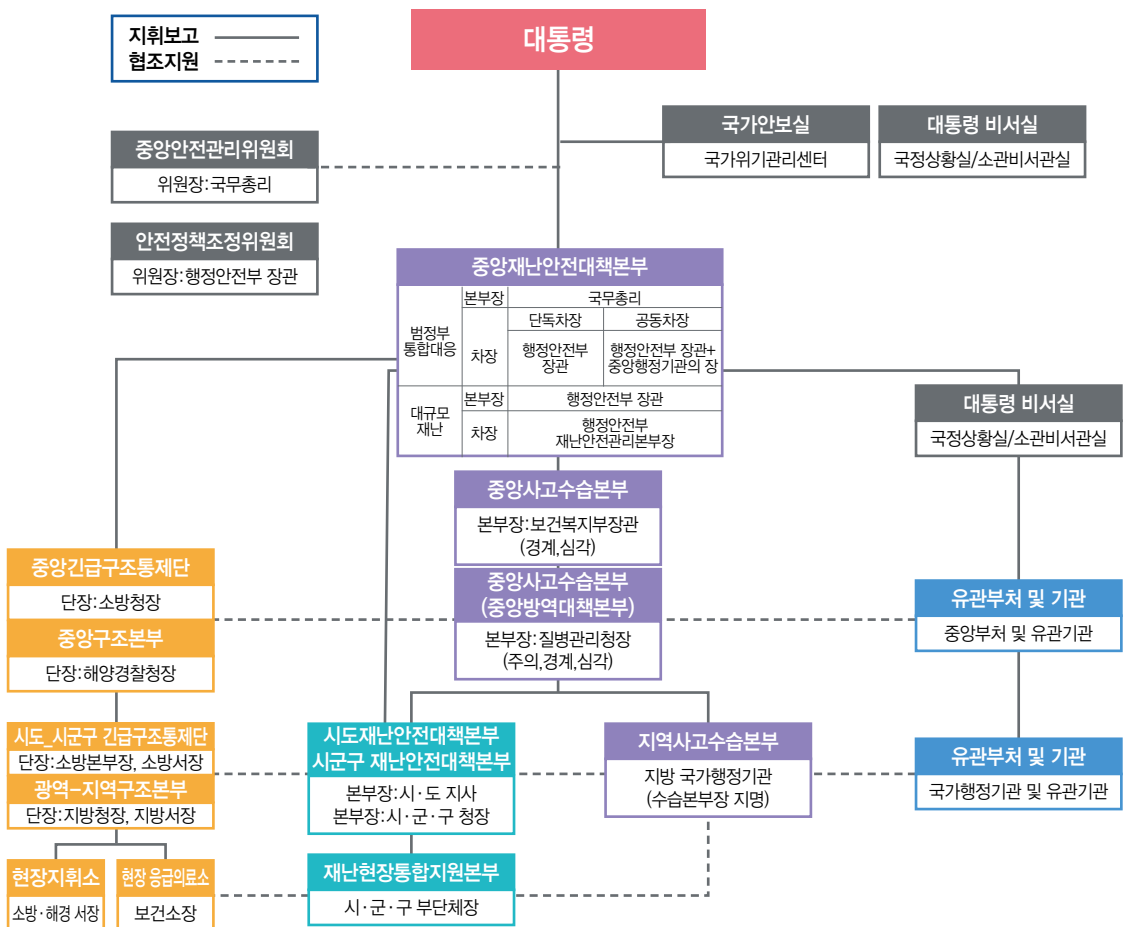
1) 감염병 발생유형에 따른 국가재난상황

감염병 발생유형으로 국가재난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염병 재난안전 대응체계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재난대응을 위한 행정의 중심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다. 대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은 차장을 맡는다.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중대본의 주요 임무는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재난대비계획 수립, 주관기관 요청 시 중대본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으로 다른 재난의 경우와 유사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대규모 재난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방역조치 총괄, 긴급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 자체위기관리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 운영, 대응지침 개발·관리 총괄, 감염병 발생 현장 즉각대응팀 운영,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입국자 관리 및 진단검사체계 총괄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최낙혁, 최슬기(2022) 재인용).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어 지역재난 상황을 총괄하고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감염병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실무기관이다.

▣ < 그림 4> 감염병 재난관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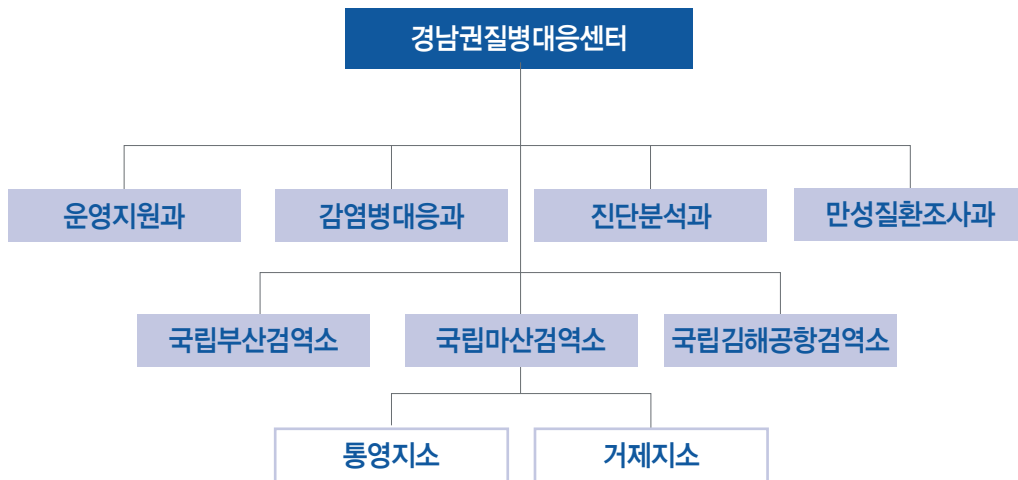
출처 :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3

4.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신설되어 운영 중이나 국외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2023년 8월 현재 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질병대응센터(서울특별시), 충청권질병대응센터(대전광역시), 호남권질병대응센터(광주광역시), 경북권질병대응센터(대구광역시), 경남권질병대응센터(부산광역시) 등 5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다. 질병대응센터는 국외감염병 정보 수집 기능보다는 국내 감염병과 만성질환병 등에 대한 현장대응과 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적 감시와 역학조사와 같은 현장 중심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수도권 4개 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현장 대응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 지역의 센터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적 감시와 역학조사 등의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와 역량을 높이고자 설치되었다. 또한 이 센터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대응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해외감염병 유입 차단과 국내 감염병 감시 등을 위해 검역과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부산, 울산, 경남을 관할하는 권역질병대응센터로 개소하였다. 권역 내 감염병 발생 차단 및 대응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확진자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리고 군중 모임 행사에서의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잠복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 의료 감염 관리체계 구축,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 지도 및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그림 5)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조직도



출처: 국외감염병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편익효과 분석(2023), 질병관리청

3절. 부산의 감염병 관련 역사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전근대 시대인 조선시대 감염병은 전쟁보다 무서운 것으로 인식되었다.¹⁷⁾ <현종실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기아와 여역(전염성 열병), 마마 등 감염병으로 운명을 달리한 백성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특히, 삼남지역에서 감염병이 더욱 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조선 인구 1,200~1,400만 명 중 15~8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화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창과 콜레라 등의 감염병에 대한 근대적 접근이 전국 최초로 시도된 곳이 부산이었다.¹⁸⁾ 아래의 부산 근대보건의료 역사3를 살펴보면, 당시 제생의원 창립 당시부터 감염병과의 ‘일전’을 벌였던 부산의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순채(전염)병원 입원환자 수가 거의 매년 수백명이었던 점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²⁰⁾

17) 평화와 인권, 전염병 극복의 특효약: 조선시대 기록으로 살펴본 팬데믹의 교훈,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84/1318/page/0?

18) ‘마마’와 ‘호열자’로 보는 개항기 보건의료 - 부산지역의 두창 및 콜레라 방역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논총 2019, vol., no.82, pp. 41-77 (37 pages) DOI : 10.16873/ki.2019.82.41

19) 부산부립병원사 편찬자료 제1권, 부산의료원의 뿌리를 찾아서, 부산광역시의료원, 1938년자료

20) ibid

▣ <표 15> 부산 감염병 유행과 근대적 의료체계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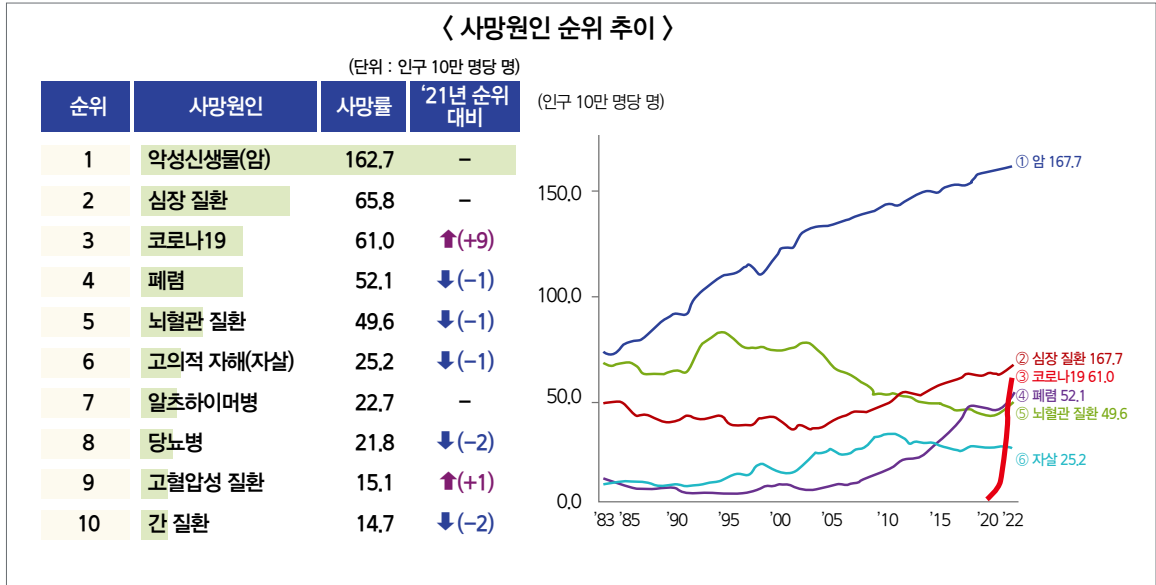
시기	부산 전염병 유행과 근대적 의료체계대응 내용
1876년 2월 26일	부산항개항
1877년 2월11일	관립제생의원 개원:진료+감염병관리:방역, 중두(중두 무료시술: 매월15일), 진료인원:일본인3,913명+조선인2,533명
1877년 4~5월	역병만연 가가호호 감염
1877년 6~7월	이질유행, 한국인 수개월훈련 부산근방 제읍에 중두 시술
1879년	콜레라 유행시 부산영도에 피(감염)병원설치
1890년	콜레라 유행시 상설 피병원 현 서구청근처(대정공원)
1906년~1907년	피병원 대중촉하여 감염병환자를 수용치료함:환자는 자비로 간호인을 고용하고 간호인은 환자1인당 1인으로 함. 입원료는 무료
1907년 2월	피병원을 전염병병원으로 갱정이후 감염병 환자 점점 늘어남
1911년	콜레라 대유행
1912년	적리(이질), 천연두 대유행으로 가병사 3회에 걸쳐 증축
1914년	부립전염병원으로 개칭
1916년	대신동으로 이전신축 공사 시작
1918년	순치병원으로 개칭
1919년	두창 유행으로 증축
1920년	콜레라 유행으로 증축
1929년	장티푸스 유행으로 바락구 증축
1936년	신부립병원 준공 총건평 2,686평 1877년 제생의원창설 60년만에 직원75명 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개설

출처: 부산의료원, 부산 부립병원사편찬자료 제1권

즉, 서울보다 빠른 1877년에 관립 제생의원을 개설 후 천연두 예방을 위한 중두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두 및 근대 의학 교육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지석영이 처음으로 중두법을 전수받은 곳이 바로 부산의 제생의원이었다. 1877년 3월 「중두조례」를 제정하여 조선 정부보다 18년 이상 앞섰고, 1879년 부산지역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에는 전국 최초로 콜레라 전문 격리시설인 ‘절영도 소독소 및 부산 피병원’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7월 25일부터 입항 선박의 검역과 함께 소독법을 실시하여 콜레라 환자가 승선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고 환자는 절영도 피병원으로 보냈다. 전통의학 내지 무속에만 의존하던 당시 우리의 보건의료 현실에서 콜레라 유행에 대한 예방과 퇴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국가의 방역대책이라곤 감염병이 창궐하면 역병 유행지의 환자나 시체를 도성 밖으로 격리하는 일시적인 조치 정도에 그쳤던 것을 고려한다면 개항기 부산에 전염병 치료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의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근대적 위생방역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부산은 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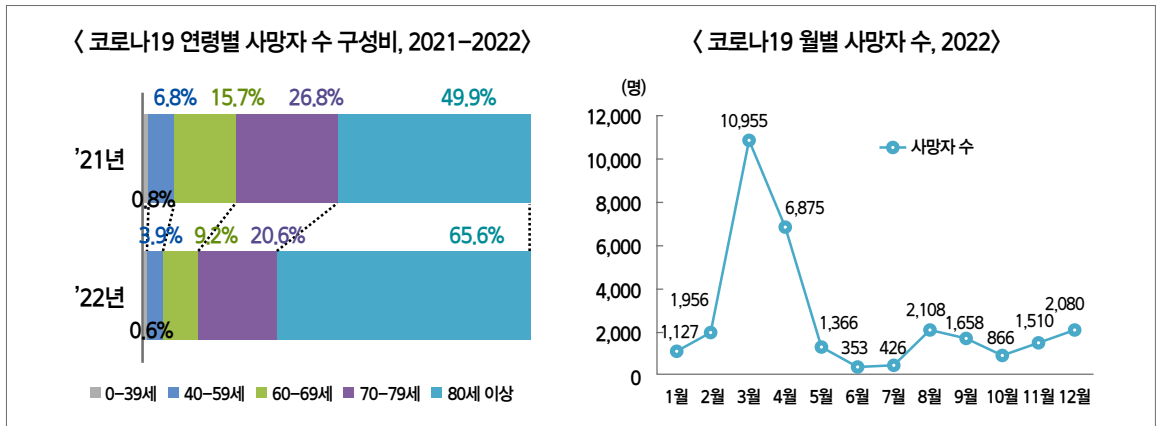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사망자 수는 372,939명으로 전년 대비 55,259명(17.4%) 증가했다.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727.6명으로, 전년 대비 108.7명(17.6%) 증가하였으며 2009년(497.3명)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53.8%를 차지하며, 10년 전보다 17.0%p 증가했다.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327.3명으로 전년 대비 29.0명 증가하였다.

■ < 그림 6 > 대한민국 사망원인 순위 추이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1,280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8.4%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26,250명이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사망률은 61.0명으로 전년 대비 51.2명(522.8%)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률이 946.0명으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구성비는 95.4%로 전년 대비 3.0%p 증가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수 확인되는 3월과 4월에는 사망자가 57.0%를 차지했다.

■ < 그림 7 > 대한민국 코로나19 사망자의 연령별 구성비 및 월별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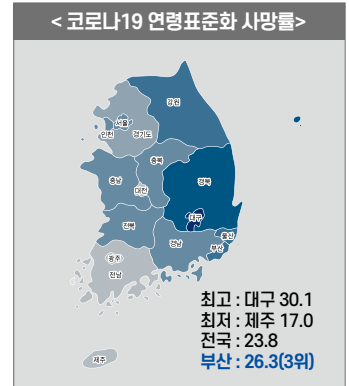


부산시 코로나19 사망률 파악을 위해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2005년 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대구(30.1명), 경북(29.1명), 강원 부산(26.3명)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1,280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8.4%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코로나19 사망자 수(26,250명)가 증가했다. 코로나19 사망률은(인구 10만 명당 명) 61.0명으로 전년보다 51.2명(522.8%) 증가한 상태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률이 946.0명으로 가장 높아서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산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월(10,955명), 4월(6,875명) 순으로 많았다.

▀ < 표 16 > 시·도별 코로나19 연령표준화 사망률(2022년)

(단위 : 표준인구 10만명당 명)

시도	사망률	시도	사망률
전국	23.8	경기	22.9
서울	22.0	강원	26.3
부산	26.3	충북	23.5
대구	30.1	충남	24.4
인천	24.4	전북	23.6
광주	20.8	전남	21.1
대전	20.7	경북	29.1
울산	25.1	경남	23.7
세종	23.3	제주	17.0



▀ < 표 17 > 시도별 사망자 수, 조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21-2022

(단위: 명, 시도인구 10만 명당 명,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지 역	사망자 수			조사망률			연령표준화 사망률		
	2021년	2022년	'21년 대비 증 감	2021년	2022년	'21년 대비 증 감	2021년	2022년	'21년 대비 증 감
전 국	317,680	372,939	55,259	618.9	727.6	108.7	298.3	327.3	29.0
서 울	48,798	55,296	6,498	516.2	589.6	73.4	267.4	285.8	18.4
부 산	23,531	27,713	4,182	703.8	835.6	131.7	321.6	355.1	33.5
대 구	14,560	17,592	3,032	609.9	744.0	134.2	300.2	341.0	40.8
인 천	16,493	18,957	2,464	564.5	644.8	80.3	313.6	338.1	24.5
광 주	7,981	9,350	1,369	554.7	653.3	98.6	302.9	334.9	32.0
대 전	7,889	9,302	1,413	544.2	644.6	100.4	297.4	327.5	30.1
울 산	5,493	6,369	876	488.7	572.4	83.8	314.8	344.7	29.9
세 종	1,354	1,678	324	373.1	445.1	72.0	267.4	307.7	40.3
경 기	67,399	79,010	11,611	503.0	585.1	82.1	287.7	313.7	26.0
강 원	12,749	15,086	2,337	833.0	985.2	152.2	330.1	358.4	28.3
충 북	11,941	14,108	2,167	750.4	886.7	136.3	325.0	358.0	33.0
충 남	16,326	19,719	3,393	774.1	932.8	158.8	311.8	348.7	36.9
전 북	15,049	17,852	2,803	842.5	1,007.4	164.9	308.0	336.9	28.9
전 남	17,568	20,876	3,308	958.4	1,147.0	188.6	322.4	354.3	31.9
경 북	22,928	27,840	4,912	875.2	1,068.8	193.6	321.1	358.4	37.3
경 남	23,392	27,385	3,993	706.4	833.5	127.1	317.1	349.9	32.8
제 주	4,229	4,806	577	630.3	713.4	83.1	304.6	328.1	23.5

한편,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세계 최저수준이나 최근 사망원인 통계에서는 코로나19가 폐렴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변이화에 따른 확산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폭되었으며 이는 '인간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고령인구가 많고 바다로부터 열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으로 높은 코로나19 사망률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해 또다시 창조적 도전을 해야 할 때이다. 19세기 콜레라를 전국 최초로 근대적 보건 위생을 통해 정복하였듯이 이제는 코로나19의 높은 사망률과 다가올 신종감염병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먼저 대비해야 할 때이다.

4절. 부산시 감염병 대응 및 관리체계와 코로나19

1. 부산시 안전관리계획

1) 개요

부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 관리대책 등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표 18> 부산시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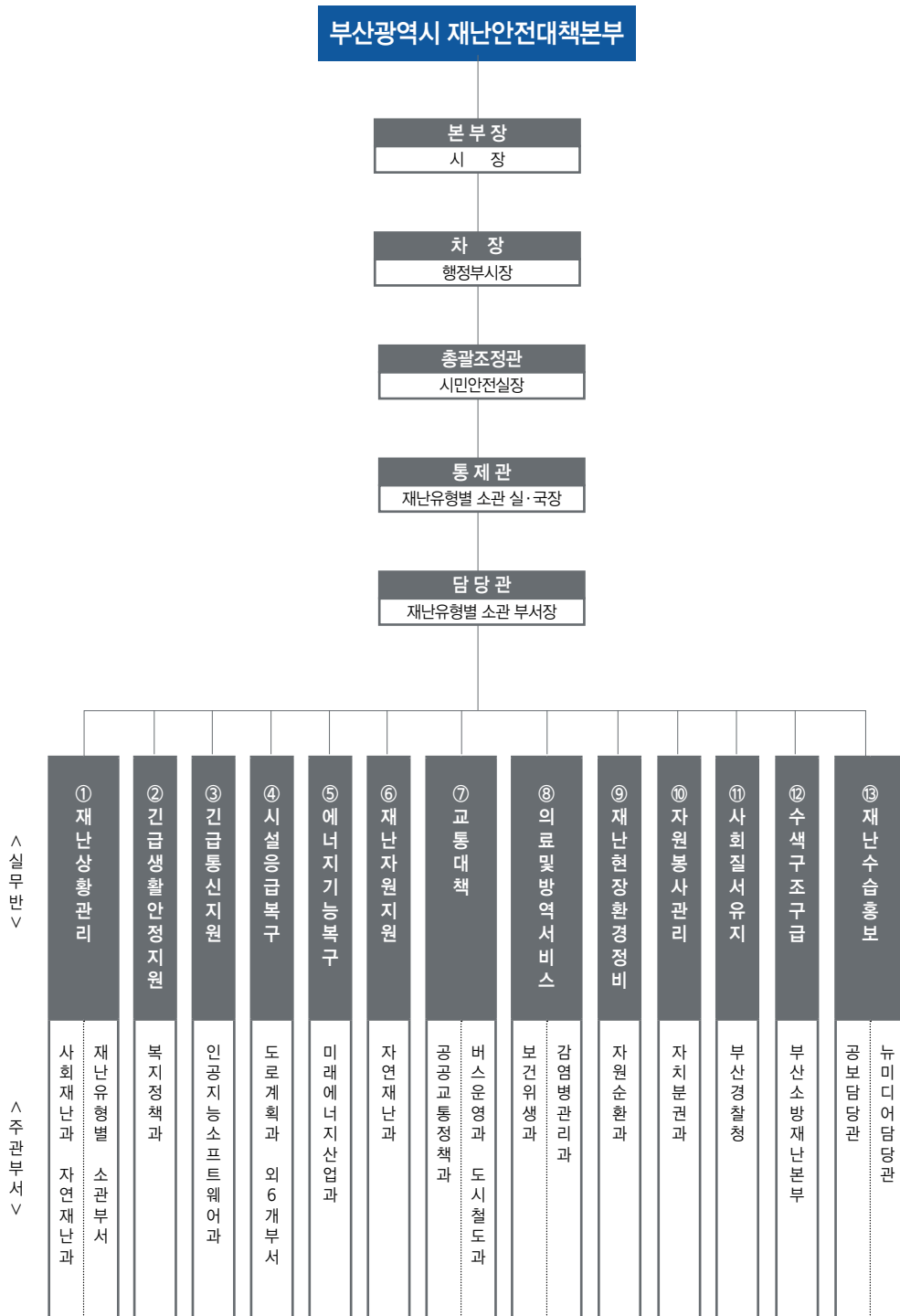
단계	주요 임무와 역할
예방	(정의) 재난예방은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예방(Prevention)활동 + 경감(Mitigation)활동
	○조직구성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교육·훈련·홍보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등
대비	(정의)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교육·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 계획 수립·점검 등
대응	(정의)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전 지원 ○긴급통신 지원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재난관리자원 관리 ○교통대책 운영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 구조구급 ○재난 수습 홍보 등
복구	(정의) 재난복구는 도로, 항만,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복구계획 수립 ○시설복구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자료: 2023년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부산시는 재난안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부장(시장)을 중심으로 13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구성하였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주의보·경보, 호우경보 등 자연재해 시 운영되는 것으로 기반으로 구성되며, 사회재난은 재난유형별 기준에 따라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 그림 8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도



자료: 2023년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부산광역시

▣ <표 19>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별 실무반 기본 임무-총괄 및 의료 부분

실무반	주관부서	주요 임무
재난상황관리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재난유형별 소관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 · 국무총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 비상방역실시 현황 • 부산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자료: 2023년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부산광역시

3) 부산시 감염병 대응 법정계획

부산시 감염병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부산시 안전관리계획,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시행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산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표 20> 부산시 수립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정계획 및 목적

법정계획	목적
안전관리계획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기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일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해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활동 과정을 규정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대규모 사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대응절차와 제반조치사항 등을 규정

자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2020), 부산연구원 재인용

4) 부산시 감염병 재난 대책(2023년 안전관리계획 중심)

(1) 관련계획 및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감염병 재난관리 단계

부산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청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5년:2023~2027)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난관리 4단계 상황에 따른 계획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주요 역할과 사업 등을 명시한다.

▣ <표 21> 부산시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감염병 대책

구분	세부내용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 종합계획 수립 2)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립 •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발생 예방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중 감염병 일일 감시체계 및 입국자 관리 2) 감염병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실시 3) 예방접종을 향상으로 감염 예방 4)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5) 기후변화 대비 및 감염병 동향 예측 조사 6)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지원을 통한 예방 7) 감염병 관리요원 양성 및 역량 강화
대비·대응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비 비축물자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대비 감염병예방물품 비축 관리 2) 재해대비 비상물품 관리 • 감염병 발생대비 인프라 구축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로 감염원 조기 발견, 확산 차단 2) 감염 위험요소 제거로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 발생에 따른 감시활동 강화 및 방역대응태세 확립 2) 역학조사반 현장 출동 등 신속한 초기 대응 조치 3) 지역사회 유행 전파 시 비상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재난 대응 • 주요 감염병 관리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결핵환자관리 및 치료율 제고 2) 에이즈, 한센 환자 등 관리 철저
복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동향 모니터링 유지 및 대응 평가 • 피해보상 등 지원 • 후속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자료: 2023년도 부산시 안전관리계획, 부산광역시

5)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감염병 대응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세부대응절차와 제반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 대해 시(본청) 및 16개 구·군은 연 2회 주요 인물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지침으로 업데이트하여 관리하고 있다.

▶ <표 22>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부산시 대응 계획

위기경보 단계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판단 기준 및 상황	주요 대응 활동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내(타 지자체) 신종 감염병 확진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활동 강화 방역대응태세 및 방역 인프라 점검 (복구) 대응 평가 (복구) 피해보상 및 지원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내 신종감염병 확진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전파 초기대응반 현장 출동 위기 및 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 준비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내 신종감염병 유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협조체계 가동 대응역량 총동원 집단 시설 격리소 확보 모든 협조체계 가동 대응역량 총동원 집단 시설 격리소 확보
심각		

자료: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 (2020) 부산연구원

구·군 단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 (본부장) 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보건소장이 통제관, 보건행정과장 (또는 감염병관리계장) 이 담당관으로 지정된다. 재난상황관리와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의 실무에 대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에서 주관부서로 역할을 수행한다.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조치 권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도 방역관’이 가지므로, 감염병 재난의 경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지 않으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

특히 감염병 재난상황 여부 관계없이 감염병 유행에 대한 현장조치는 ‘방역관’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재난현장통합지원 본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재난이 오지마을, 도서 낙도의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한다. 본부장은 해당 지역의 읍·면·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여 지휘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한다.

5절. 보건소의 기능 및 역할과 코로나19

다음은 방역의료대응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소 등 부산시 기초와 광역 보건분야에 대한 역사성과 법적 현황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의 궁극적인 역할은 건강한 지역사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 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감염병 관리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률 제1조 목적에는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한편, 보건소의 기능에 관해서는 김진순²¹⁾, 김창엽²²⁾, 배상수²³⁾, 문옥륜²⁴⁾, 전윤진과 이재은²⁵⁾ 등에 의한 선행연구가 있다. 홍남수 등(2019)은 보건소 표준 업무 분류체계 개발²⁶⁾을 해왔다. 즉 1950년대 보건소법 제정시 제2조(사업과 직권) 제1호가 “감염병 기타 질병의 예방진료 및 그 만연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7호까지의 내용이 있으며 1960년대 가족계획 등 추가하여 제13호까지 업무를 보건소가 관장하였다. 1991년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이 추가되었고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이 제1호로 업무가 다시 조정되었다. 1996년 현재의 보건소 업무 형태로 명시되면서 보건소법은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보건소 업무 중 감염병 관련한 업무분야와 관련해 나백주²⁷⁾에 따르면, 보건소는 평소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주로 팀 조직 형태로 관장하며 업무 범위가 좁고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가 확보된 전국 237개 보건소 가운데 단 2개 보건소에서만 감염병 관리 혹은 감염병 대응과명을 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력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의 경우 감염병 대응과 전체 직원이 22명인데 그 가운데 6명(27.3%)이 비정규직이다. 감염병 대응 업무는 휴일 및 야간을 가리지 않고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무로 분류되고 대부분 신규 직원이 맡는 경우가 많으며,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 축적이 미흡하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Frontline, FETP-F)이 2002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감염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충원 필요성 및 관련 행정 지원의 충분성 등에 대한 평가와 보강 등 실질적인 역량강화 노력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관련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건소는 보건소 방문하는 환자나 민원인 중심의 진료와 보건사업을 주로 제공하며 특히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더라도 취약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정된 인력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사업도 대부분 서비스를 몇 건 했는가 하는 실적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사업 수행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건소의 주요기능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 등 업무가 포함되면서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은 대부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다. 이 사업의 실질적인 담당은 대부분 비정규직 인력이 맡아서 하며, 전체 보건소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 인력 규모는 46.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점점 확산되는 기후위기와 소득양극화 등과 결부된 건강의 사회적 요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건강도시정책국을 설치하여 각종 도시환경 관련 정부 정책에 건강영향평가와 정책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1) 김진순.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의 재편성 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1994년 19권 2호 p.159 ~ 173

22) 김창엽. 보건소의 개편 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 정책토론회, 1998.8 27 ~ 50 (24page)

23) 문옥륜. (1992). 우리나라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방안의 도색. 보건학논집, 29(1), 37-64.

24) 배상수. (2001). 공중보건의 역할변화와 보건소의 기능. 보건행정학회지, 11(1), 131-152.

25) 전윤진과 이재은. 지역 보건의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 관한 실증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5권 제2호 2013.12 51 ~ 66 (16 pages)

26) 홍남수 등. 보건소 표준 업무 분류체계 개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6권 제4호(2019. 10) pp.23-29

27) 나백주. 코로나19 유행은 향후 한국 보건소 기능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년 5호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의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인프라 확충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 혹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건강증진 역량 강화와 긴밀한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소의 기능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지침서는 주체적으로 업무 표준을 세우도록 하며 동시에 인구 비례 등 업무량과 업무특성에 맞는 인력 기준을 만드는 안이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공병원 활성화 기능 및 공공병원 인력 개발과 통합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보건소장이나 지방의료원장의 역량강화를 필요하고, 광역지자체에서는 공공병원과 보건소 기능 강화 및 구체적인 직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개발 및 인력 강화가 가능하도록 운영비 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보건의료 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가칭)’를 만들어 공공병원 및 보건소 지원과 통합 연계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 투자를 제도화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산시가 이와 관련한 정책적 구상이 필요하다.

1. 보건소 기능에 따른 보건소 업무

보건소 업무는 기능과 사업에 각각 13개와 56개로 분류된다. ‘지역보건법 제 11조(보건소 기능 및 업무) 1항5-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모자보건사업)에 해당한다. 보건소 13개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②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③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④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⑦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⑧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⑨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⑩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⑪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⑫기타 의료비 지원 등, ⑬시설확충 및 운영지원으로 구분이 된다.

▣ <표 23> 보건소 업무조정 안내서

사업번호	기능(13)	사업(56)
1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건강도시
2	2.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3		통합건강증진사업
4		지역사회건강조사
5		국민건강영양조사
6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의약무 관리
7		
8		
9		
10		
11		응급의료 및 의료기관 관리
12		
13		공중 및 식품 위생·안전
14		
15		
16		
17		
18		

사업번호	기능(13)	사업(56)	
19	4.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	
20	5.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지역사회 금연사업	
21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22		신체활동사업	
23		영양관리사업	영양관리사업
24		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25		비만예방관리사업	
26		구강건강증진사업	
27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28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29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30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31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32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33		기타 법정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34		결핵예방관리	
35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36		방역소독	
37	7.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모자보건	임산부·영유아 관리
38		모자보건	영유아 예방적 건강관리
39		모자보건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
40	8.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4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42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43	9.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사업	
44		치매관리사업	
45	10.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진료서비스 및 진료지원	
46		건강검진사업	
47		국가 암 검진사업	
4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49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50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51	1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52	12. 기타 의료비 지원 등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53		기타 의료비 지원사업	
54		장려금 및 기타 지원	
55	13.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6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출처: 2023년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안내서

2. 코로나19 발생으로 보건소 업무 중단

2020년 1월 국내 신종감염병의 발생으로 전국적 대응 체계로 전환되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2020년 2월부터 2022년 중반까지 보건소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전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감염병 대응 업무 담당인력의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 대책으로 한시인력을 지원하였다.

보건소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핵심 기관으로 선별검사소 운영, 역학조사, 격리대상자 관리 등의 방역업무의 전환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자 대상 진료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중단 되었다.²⁸⁾ 따라서 보건의료기관 서비스가 감염병 유행 등으로 중단·축소될 경우라도 만성질환자의 질환 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비대면 진료 등 대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혜기와 양유선(2021)는 코로나19 유행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보건소의 의료제공에 공백이 존재함을 피력하고 보건소의 주요 이용자인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²⁹⁾

3.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질적 1차 대응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상황에서도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건소는 기존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및 인력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더불어 감염병 업무의 범위가 증가하는 만큼 인력의 충원 또한 상응해야 한다. 즉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할 수행에 따른 인력 충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최일선인 보건소 조직 개편 또한 제기가 된다. 감염병 발생은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된 상황에서는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보건소 내부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3장 연구목적

코로나19의 전 과정에 걸쳐 주요 행위자로 활동한 보건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과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부산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및 의료대응을 한 전문가를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보건소 직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 및 방역 의료 대응 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신종감염병 대응 개선방안 및 정책적 과제 제시가 목적이다. 즉 다음 파트는 부산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미흡한 사례 등의 발굴을 통해 향후 보건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장 연구방법

1. 감염병 전담조직 및 보건소 인력현황 파악

특·광역시·도를 포함하여 전국 보건조직과 인력현황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직과 인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국 감염병 전담조직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구·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부산시와 타 시·도 감염병 전담조직과 인력을 비교 분석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필수인력 현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28) 박은자, 송은솔, 윤강재. 코로나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소 서비스 중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 pp.26-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 박혜기, 양유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량 변화분석, 대한보건연구 2021년 47권 3호 p.33 ~ 44

필수인력 현황을 파악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광역시도와 구·군 보건소 각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재 조직도와 감염병 전담부서와 인력 현황을 조사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별광역시도와 구·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된 현황은 빈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별 인구수 대비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감염병 담당 평균 인원 등도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전문가 자문위원 설문조사

부산형 방역·의료체계 정책제언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은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 부산시 공무원, 보건소, 소방재난본부, 병원, 대학, 약사회, 간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천을 통해 사전 동의를 취득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대응체계 항목은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한 점, 문제점, 시사점, 총평에 대해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Key Word 분석을 하였다.

3.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 직원 중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윤리 등을 고려하여 익명성 보장과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가 되었으며, 참여 중지 시 불이익이 없음 또한 고지함과 동시에 이 자료는 연구를 위한 목적임을 명시 및 안내했다. 보건소 직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와 관련된 정도에 대해서는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연구결과

1장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문제점 분석

1절 특광역시·도 감염병전담조직 및 인력

1. 서울특별시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서울특별시 감염병 전담 조직으로는 시민건강국 소속으로 감염병관리과와 감염병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감염병관리과에는 감염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방역관리팀, 환경보건팀, 역학조사실로 5팀과 1실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보건팀을 두어 환경보건계획 수립 등 공중보건위생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 〈그림 9〉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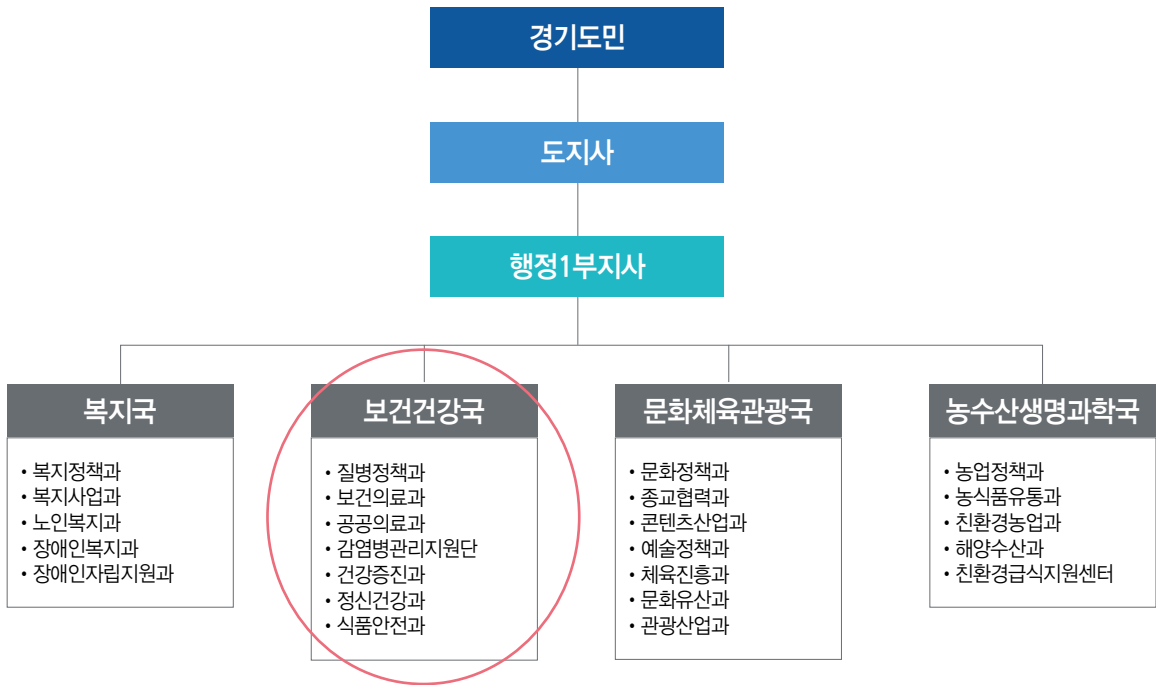
2. 경기도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경기도 감염병 전담 조직으로는 보건건강국 소속으로 질병정책과,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정책과에는 질병정책팀, 감염병지원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으로 4팀 34명, 감염병관리지원단에는 4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인원은 휴직자 등 포함임

경기도의 경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정규 조직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8명의 역학조사관을 두어 타 시·도에 비해 전문인력을 다수 확보하여 구성하고 있다.

■ < 그림 10 > 경기도 보건건강국 조직도



3. 부산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산광역시에는 감염병 전담 조직으로 시민건강국에 감염병관리과를 두고 있다. 감염병관리과에는 감염병총괄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예방접종관리팀으로 전체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4.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은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감염병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병관리과에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대전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은 시민체육건강국 소속으로 감염병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병관리과에는 감염병정책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의료지원팀으로 4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6. 대구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대구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은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과에 2팀(감염예방팀, 감염대응팀) 17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7. 광주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광주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은 복지건강국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과에 2팀(감염병관리팀, 역학조사팀) 13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감염병 전담 조직은 시민건강국 소속으로 감염병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감염병관리과에는 감염병정책팀,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으로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

graph TD
    A[울산시민] --> B[시장]
    B --> C[홍보실]
    B --> D[정무수석]
    B --> E[노동특보]
    B --> F[행정부시장]
    B --> G[경제부시장]
    F --> H[감사관]
    F --> I[권익인권담당관]
    J[도시국] --> J1[도시계획과]
    J --> J2[도시균형개발과]
    J --> J3[일반산단과]
    J --> J4[국가산단과]
    K[복지보훈여성국] --> K1[복지정책과]
    K --> K2[보훈노인과]
    K --> K3[장애인복지과]
    K --> K4[여성가족청소년과]
    L[환경국] --> L1[환경정책과]
    L --> L2[환경대기과]
    L --> L3[하수관리과]
    L --> L4[자원순환과]
    L --> L5[맑은물정책과]
    M[시민건강국] --> M1[시민건강과]
    M --> M2[감염병관리과]
    M --> M3[식의약안전과]
    N[건설주택국] --> N1[건설도로과]
    N --> N2[건축정책과]
    N --> N3[주택허가과]
    N --> N4[도시재생과]
    N --> N5[토지정보과]
    N --> N6[스마트도시과]
  
```

The organizational chart of Ulsan City Government is structured as follows:

- 울산시민** (Ulsan Citizens)
 - 시장** (Mayor)
 - 홍보실** (Public Relations Office)
 - 정무수석** (Deputy Mayor)
 - 노동특보** (Labor Special Representative)
 - 행정부시장** (Deputy Mayor for Administration)
 - 감사관** (Inspector General)
 - 권익인권담당관** (Director of Rights and Human Rights)
 - 경제부시장** (Deputy Mayor for Economy)

The chart also lists the departments under each major office:

- 도시국** (City Planning Bureau)
 - 도시계획과 (City Planning Division)
 - 도시균형개발과 (City Balanced Development Division)
 - 일반산단과 (General Industrial Complex Division)
 - 국가산단과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ivision)
- 복지보훈여성국** (Welfare, Veterans Affairs, and Women's Affairs Bureau)
 - 복지정책과 (Welfare Policy Division)
 - 보훈노인과 (Veterans and Elderly Division)
 - 장애인복지과 (Disability Welfare Division)
 - 여성가족청소년과 (Women, Youth, and Children Division)
- 환경국** (Environment Bureau)
 - 환경정책과 (Environment Policy Division)
 - 환경대기과 (Environment Air Division)
 - 하수관리과 (Wastewater Management Division)
 - 자원순환과 (Resource Circulation Division)
 - 맑은물정책과 (Clean Water Policy Division)
- 시민건강국** (Public Health and Safety Bureau)
 - 시민건강과 (Public Health Division)
 - 감염병관리과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Division)
 - 식의약안전과 (Food and Drug Safety Division)
- 건설주택국** (Construction and Housing Bureau)
 - 건설도로과 (Construction Road Division)
 - 건축정책과 (Construction Policy Division)
 - 주택허가과 (Housing Permit Division)
 - 도시재생과 (Urban Regeneration Division)
 - 토지정보과 (Land Information Division)
 - 스마트도시과 (Smart City Division)

서울특별시 조직은 시민건강국 소속으로 감염병관리과를 두고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환경보건팀이 포함되어 있으며 5팀 1실(역학조사실) 및 감염병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질병정책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정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위탁 운영하는 타 시도와 달리 정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외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광역시·도에는 감염병관리과 등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수의 광역지자체에는 감염관리과와 같은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감염병연구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정규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기도 등이 감염병 대응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과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의 경우 4개팀과 위탁으로 운영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권인 경우와 같이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비·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취약시설지원팀의 신설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정규조직화가 필요하다.

2절 기초지자체 감염병 전담 조직 및 인력

1. 부산광역시 감염병 관련 보건소 조직 및 인력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 조직은 2015년 보건소 조직진단 이후 대부분 2과 체제(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로 개편이 되었다. 감염병 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감염병관리팀과 감염병예방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산시에는 감염병관리과를 두고 있다.

▶ 〈표 24〉 부산시 보건소 인력과 조직 현황(2과 체제)

보건소명	일반직전체 공무원수	인구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비고
중구	43	3.9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감염병전담과 전무 보건행정과 팀으로 구성
서구	44	10.4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동구	47	8.8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영도구	39	10.7만명	×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부산진구	67	35.7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동래구	55	27.2만명	○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남구	57	25.5만명	○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북구	63	27.6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해운대구	83	38.2만명	○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사하구	56	30만명	○	감염병대응, 감염병예방	
금정구	47	21.8만명	○	감염병관리	
강서구	61	14.3만명	○	감염병관리	
연제구	53	20.3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수영구	47	17.5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사상구	55	20.4만명	○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기장군	65	17.9만명	○	감염병대응, 감염병예방 감염병관리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상황에 따라 2021년 1월 기준 감염병 대응 부서에 대한 개편이 실시되었다. 5개 보건소에서 감염병 담당부서를 2개팀으로 확대하고, 보건소별로 해당 팀에 약 5~10명씩 증원되었다. 그러나, 증원된 인력은 보건소 정원 확대가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 또는 기간제 인력 채용으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감염병 전담부서의 편성은 없었고 보건행정과의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어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의료대응의 리더와 감염병전담 인력이 부족하였다.

2. 전국 보건소 조직 인력 현황

전국 주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수도권 및 비수도권 광역시) 117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부산시와 타시도 보건소의 감염병 조직 및 인원을 비교 분석했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포함이 되며, 비수도권은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대전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조사방법은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조사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다.

1)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현황

조사결과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29곳(24.8%)이다. 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88곳(75.2%)으로 대부분 감염병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5> 전국 감염병 전담 부서 현황

구분		N	%
전담부서 유무	있다	29	24.8
	없다	88	75.2
합계		117	100.0

전담부서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는 7곳, 인천광역시 3곳, 경기도는 13곳, 광주광역시 4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와 구로구보건소는 5과 16팀과 5과 20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감염병 담당부서는 질병관리과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는 감염병관리센터를 두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는 5과 14팀으로 감염병 담당인원은 30명 배치되었다. 대전시 동구 보건소도 2과 9팀으로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질병관리과를 중심으로 감염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6> 전국 보건소 감염병 관리 전담 부서 세부 현황

(2022.12.31. 기준)

광역 자치명	보건소명	조직	감염병 담당인원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	감염병 담당부서
서울시	중구보건소	4과20팀	29	유	감염병관리과
	강남구보건소	5과16팀	49	유	질병관리과
	구로구보건소	5과20팀	26	유	질병관리과
	동작구보건소	4과17팀	29	유	감염병관리과
	성동구보건소	4과14팀	46	유	질병예방과
	영등포구보건소	4과16팀	40	유	감염병관리과
	은평구보건소	4과15팀	45	유	질병관리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	3과17팀	27	유	질병관리과
	계양구보건소	4과15팀	23	유	감염병관리과
	서구보건소	4과15팀	49	유	질병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3과11팀	20	유	감염병관리과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3과12팀	28	유	감염병관리센터
	부천시보건소	4과16팀	58	유	감염병관리과
	광명시보건소	3과12팀	-	유	감염병관리과
	과천시보건소	2과7팀	39	유	질병관리과
	시흥시보건소	5과17팀	24	유	감염병관리과
	파주시보건소	3과14팀	29	유	질병관리과
	이천시보건소	3과16팀	19	유	감염병관리과
	김포시보건소	4과16팀	30	유	감염병관리과
	화성시서부보건소	3과11팀	18	유	감염병관리과
	광주시보건소	3과13팀	26	유	감염병관리과
	양주시보건소	4과18팀	24	유	감염병관리과
	포천시보건소	2과4팀	28	유	감염병관리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5과14팀	30	유	감염병관리과

광역 자치명	보건소명	조직	감염병 담당인원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	감염병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2과9팀	30	유	질병관리과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6과20팀	23	유	감염병관리과
	남구보건소	5과17팀	21	유	감염병관리과
	북구보건소	6과20팀	23	유	감염병관리과
	광산구보건소	5과16팀	23	유	감염병관리과

3. 경기도 수원특례시 보건소와 부산광역시 보건소 감염병 전담 관리부서 비교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시 4곳(수원, 고양,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정되었다. 이 중 경기도 수원특례시의 경우 장안구보건소 등 4개소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전체 인구수 1,195,718명으로 그 중 장안구보건소 관할 인구수는 268,202명이며 4개 보건소 중 장안구보건소에만 감염병 관리 전담부서를 두어 수원특례시 전체 감염병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특례시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부산시 기초지자체 인구수 편차를 반영하여 5대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총괄하고 선도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감염병 전담부서를 두는 안을 제안한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부산시 보건소 조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와 인구수가 유사한 부산광역시 5대 권역(안)을 인구수 및 접근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을 대표하는 자치구를 선정하여 비교해 보았다.

▣ <표 27> 수원특례시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 보건소 감염병전담 관리부서 비교(인구수 등)

광역자치명	기초자치단체명 (보건소명)	인구	조직 (보건지소제외)	감염병담당 인원(현원) 2023.11기준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경기도	수원시장안구보건소	268,202	3과11팀	20	유
	수원시권선구보건소	367,359	2과7팀	14	무
	수원시팔달구보건소	197,197	2과7팀	15	무
	수원시영통구보건소	362,960	2과7팀	15	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건소	358,316	2과9팀	17	무
	동래구보건소	271,877	2과7팀	16	무
	북구보건소	274,961	2과7팀	17	무
	해운대구보건소	382,115	2과10팀	18	무
	사하구보건소	299,416	2과8팀	16	무

4. 기초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감염병 전담인력 현황

전국 기초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감염병 전담인력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28>와 같다. 기초 지자체 인구수별 전국 기초지자체의 전담인력 현황에 감염병 담당 평균 인력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인구20만명~30만명 미만인 30만명~40만명 미만의 지자체는 평균 감염병 담당자 수는 20명이나 부산시는 담당자 인력이 부족하고 전담부서 편성이 0%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표 28> 전국 지자체별 인구수 대비 감염병 전담 인력 현황

기초 지자체 인구수	감염병 평균담당자수	지자체수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편성비율	부산지자체
10만명 미만	14	7	1	14.29 %	
10만명-20만명미만	16	14	2	14.29 %	
20만명-30만명미만	20	28	9	32.14 %	동래구,북구, 사하구,남구
30만명-40만명미만	20	23	7	30.43 %	해운대구,부산진구
40만명-50만명미만	22	21	6	28.57 %	
50만명-60만명미만	24	5	2	40.00 %	
60만명-70만명미만	29	2	1	50.00 %	
70만명 이상	58	1	1	100.00 %	

3절 결론 및 제언

부산광역시시는 시민건강국에 감염병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로서 감염병총괄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예방접종관리팀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과를 두고 있다. 부산시 16개 구·군 보건소 조직과 인력을 살펴본 결과 감염병전담부서 없이 보건행정과에서 감염병관리와 감염병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 보건소 일반직 공무원 최저인원은 영도구 보건소는 39명, 최고 인원은 해운대구보건소가 83명으로 부산시 전체 평균인원은 55명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장기화 상황에 따라 2021년 1월에 감염병 대응부서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져, 14개 보건소에서 감염병 담당부서를 2개팀으로 확대하고, 보건소별로 해당 팀에 약 5~10명씩 증원되었다. 그러나, 증원된 인력은 보건소 정원 확대가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 또는 기간제 인력 채용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건소는 감염병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부서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7개), 인천광역시(3개), 경기도(13개), 광주광역시(4개)로 나타났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에 감염병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지역구의 평균인구수는 365,356명, 대전광역시는 일개 구(인구수는 218,687명)에 감염병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부산광역시 인구수와 유사한 감염병관리에 대한 조직과 인력을 살펴 본 결과 부산시 보건소에는 감염병관리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 지역의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역은 해운대구 (382,115명)이다. 이 인구수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평균인구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염병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자체에서는 16개 구·군 모두 감염병관리 전담부서가 없으며 보건행정과 소속의 팀단위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건행정과의 특성상 부서장이 감염병 전문인력이 아닌 상황에서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새로운 신종 감염병 대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염병관리 전담부서 조직을 편성하고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대 구성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수도권과 인구수 등 여건이 비슷한 도시구조의 자치 구·군을 벤치마킹(수원시)하여 부산시 보건소 중에 감염병 선도 자치구·군을 지정하여 감염병총괄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등 최소 3개 이상의 팀으로 구성된 감염병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장 부산광역시 감염병 자문위원 설문조사 결과

1절 설문조사 배경

경기도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 설문조사 중 가장 많았던 의견³⁰⁾은 코로나19 병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다. 자문단은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예방의학과와 「경기도 코로나19 자문단」 22명, 시·군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신 보건소장 8명과 역학조사관 7명 총 37명에게 8개 분야로 구분하여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객관식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 사용하여 변환하고 그룹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방법을 벤치마킹하였다. 인천³¹⁾과 서울³²⁾ 등 타시도에서도 코로나19 대응기록물을 작성하였으나 전문가 자문의견은 받은 기록은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대응 백서³³⁾에서는 제주도 코로나19 방역 대책 평가를 위해 유관기관 실무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있어서 잘한점과 어려웠던 점(혹은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로 준비할 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광역시 의사회 차원의 백서³⁴⁾를 ‘상시 관제탑 역할, 원활한 소통, 민간의료기관 참여와 지원 등을 지적하며 또 다른 감염병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의 모든 행정 및 의료기관을 통째로 관제탑 상시 설치, 지자체 관제탑과 중앙정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체계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의료재난사태 이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자원봉사 의료진에 대한 보상 등을 제안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잘 집약된 백서로 보여 부산광역시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집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구시의사회 공보팀, 대구시청 대변인실, 각 대학병원 홍보실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오보나 가짜 뉴스를 적절히 여과할 수 있었지만 초창기부터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청과 보건소, 병원, 대구시의사회의 언론 대응 기능을 통합한 공보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인 언론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사회는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해 의료재난사태 이후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자원봉사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며 “의료진의 자발적 봉사는 방역의 핵심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보상은 큰 작든 본인이나 원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수당, 세제 감면 등의 재정 지원 외에도 각종 보건행정 지원과 표창 등의 명예직장 방식 등의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정의로운 선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새로운 선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발간한 코로나19백서³⁵⁾ 2020년 2월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 병원 2곳(대구, 경주)을 비워서 2021년 2월 21일부터 8월4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한 기록을 통해 병원 각 부서가 담당했던 업무를 매뉴얼 형태로 정리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³⁶⁾ 산재환자들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으로 운영하다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 23일부터 기존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긴급히 전환한 시작과정에서부터 358명의 입원환자가 무사히 퇴원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고 특히 외래진료 중단, 자원 환자 퇴원 및 전원 조치, 병원건물 외부 진료를 위한 66개 컨테이너 시설·장비 구축 등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부산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더욱 오래 헌신적으로 수행한 부산의료원 등의 전문가 경험과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코로나19백서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상황별·부서별 업무프로세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종료 이후 병원 정상운영을 위한 활동 등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한편 대구시설공단의 2020 코로나19 백서³⁷⁾에서는 2020년 1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이후 5월까지 공단에서 추진한 비상시 시설운영 매뉴얼, 방역활동, 지역 사회 지원 등 관련 대응 과정이 종합적으로 기록되고 또 다중이용시설의 효과적 방역, 밀폐 공간

30) 경기도 보건의료부문 코로나19 대응기록, 경기도청, 2023

31) 인천광역시 코로나19백서, 인천광역시, 2023

32) 서울특별시 코로나19백서, 서울특별시, 2023

33)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백서, 제주특별자치도, 2023

34) <http://www.newsm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109>

35) 계명대동산의료원 코로나19 백서, 2021

36)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코로나19백서, 2020

37) DICO대구시설공단, 2020 코로나19 백서, 2020

환경개선,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매뉴얼, 민원인 응대 매뉴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임차인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등 내용을 담았고 코로나19 2020 대구교육백서³⁸⁾에도 2020년 2월 18일 이후 5차례의 등교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실시, 5월 학교급에 따른 순차적 등교개학, 8월 광복절 연휴 즈음에 발생한 2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전면 등교 연기, 한 달여간 연기된 수능시험과 함께 다시 시작된 3차 대유행 등으로 위기와 혼란의 순간이 연속을 잘 기록하여 부산에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시 감염병 자문단 의견 조사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2. 조사 방법

부산형 방역·의료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자문위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코로나19 대응백서와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부산시 감염병 자문위원 조사의 대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의 추천으로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었으며 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산시 전(前) 시민건강국장, 보건소장협의회, 소방재난본부, 부산시병원회, 부산시 약사회, 병원 감염관리실 팀장 등으로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총 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는 21명이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91.3%로 나타났다. 21명이 응답을 하여 응답률은 91.3%로 나타났다.

1) 설문조사 목적

부산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대응 정책 평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 우수 대응 정책 발굴을 통한 확대 및 제도화 ② 미흡했던 대응 분야를 확인함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산형 방역·의료의 체계화가 목적이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부산시 방역형 의료·방역대응을 위한 정책제언의 설문조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었다. 1부는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한 정책평가」로 ‘감염병 위기 대응’ 등 모두 38개의 항목이며, Likert 5점 척도(5점 아주 잘됨, 4점 잘됨, 3점 보통, 2점 부족함, 1점 많이 부족함)로 실시했다. 2부는 「부산시 코로나 19 대응체계에 대해 1) 잘한 점 2) 문제점 3) 시사점 4)총평」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견 등을 서술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인 특성 문항은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조사 대상

본 설문에 참여한 자문위원은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문위원의 구성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4), 보건소(5), 소방재난본부(1), 공공의료지원단(1), 병원(6), 대학(2), 약사회(1), 간호사회(1)이며, 사전 동의를 취득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설문지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는 윤리적 고려를 위해 참여 중지 시 불이익이 없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 및 비밀보장이 유지되며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사전에 안내했다. 설문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3. 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일반적 특성은 [그림 7]과 같다. 성별은 여성은 14명(66.7%), 남성은 7명(33.3%)이다.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1명(5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렬별 분포는 의무직 10명(47.6%), 간호직 9명(38.1%), 기타(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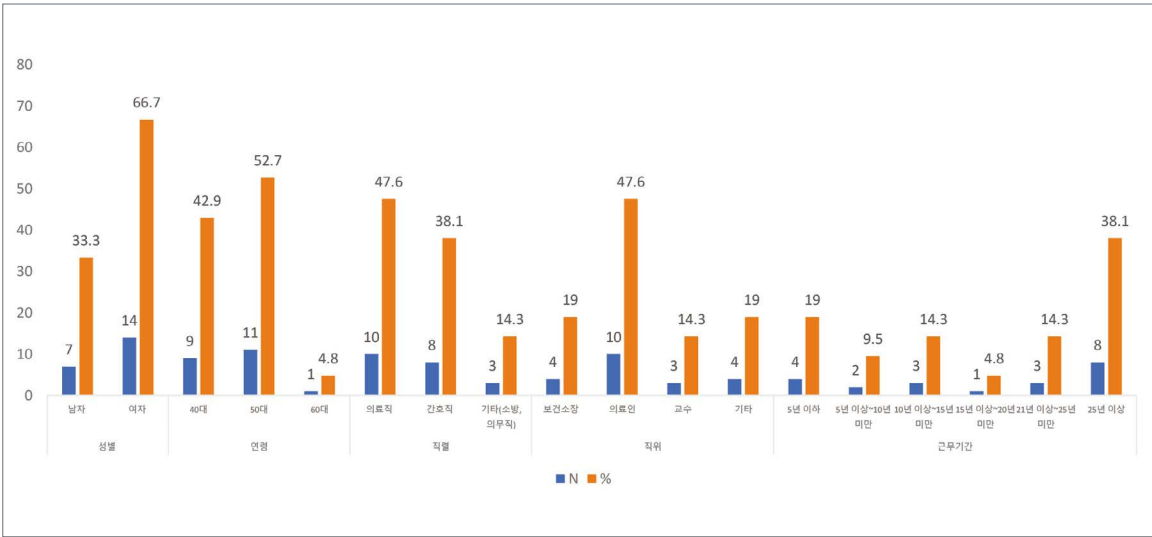
38) [출처] 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2020 대구교육백서 발간작성진 진실샘

의무직)직 3명(14.3%)이다. 직위로는 의료인이 10명(47.6%), 보건소장은 4명(19.0%)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25년 이상이 8명(38.1%), 5년 이하는 4명(19.0%)이다.

▶ <표 29> 자문위원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7	33.3
	여자	14	66.7
연령	40대	9	42.9
	50대	11	52.7
	60대	1	4.8
직렬	의무직	10	47.6
	간호직	8	38.1
	기타(소방, 의무직)	3	14.3
직위	보건소장	4	19.0
	의료인	10	47.6
	교수	3	14.3
	기타	4	19.0
근무기간	5년 이하	4	19.0
	5년 이상~10년 미만	2	9.5
	10년 이상~15년 미만	3	14.3
	15년 이상~20년 미만	1	4.8
	21년 이상~25년 미만	3	14.3
	25년 이상	8	38.1
전체		21	100.0

▶ <그림 12> 전문가 자문위원 일반적 특성



2.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한 정책평가 의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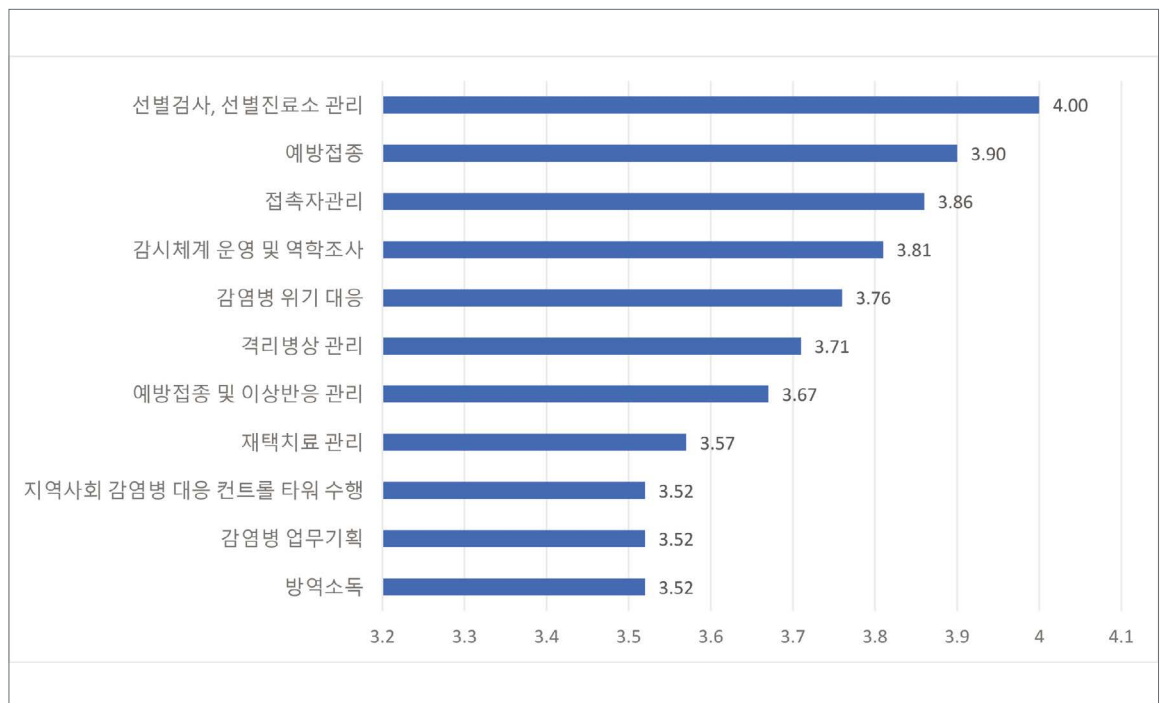
(1)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분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해 우수 항목은 다음 <표 30> 와 같다.

▣ <표 30>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항목	Mean±S.D.
① 선별검사와 선별진료소 관리	4.00±0.632
② 예방접종 관리	3.90±0.625
③ 접촉자 관리	3.86±0.727
④ 감시체계 운영 및 역학조사	3.81±0.814
⑤ 감염병 위기대응	3.76±0.625
⑥ 격리병상 관리	3.71±0.717
⑦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	3.67±0.577
⑧ 재택치료 관리	3.57±0.676
⑨ 방역소독	3.52±0.680
⑩ 감염병 업무기획	3.52±0.680
⑪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수행	3.52±0.928

▣ <그림 13>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우수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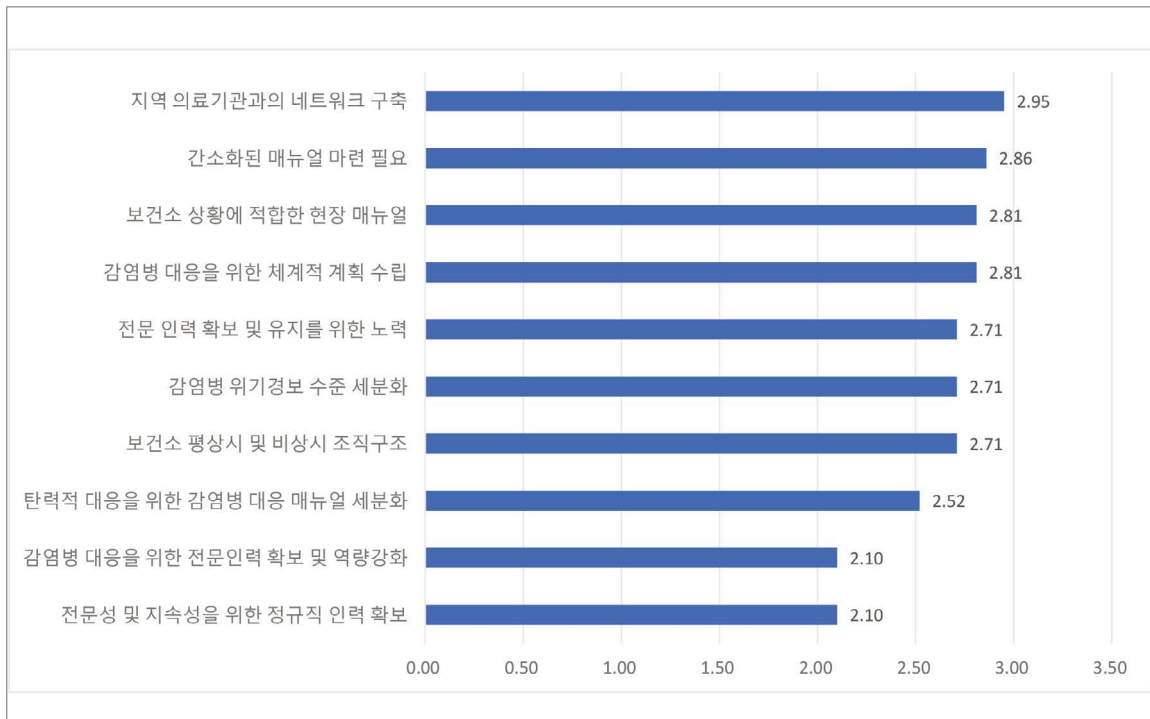
(2)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미흡한 항목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미흡한 항목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31>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미흡한 항목

항목	Mean±S.D.
① 감염병 대응에 대한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2.95±0.921
② 현장 대응을 위한 간소화된 매뉴얼 마련 필요	2.86±1.014
③ 보건소 상황에 적합한 현장 매뉴얼	2.81±0.750
④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2.81±0.814
⑤ 보건소 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76±0.700
⑥ 보건소 평상시 및 비상시 조직구조	2.71±0.717
⑦ 시도 및 시군구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세분화	2.71±0.845
⑧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	2.71±0.956
⑨ 감염병 대응 인력의 전문성	2.62±0.740
⑩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2.52±0.680
⑪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세분화	2.52±0.750
⑫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위한 정규직 인력 확보	2.10±0.831
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역학조사관 등) 확보 및 역량강화	2.10±0.995

▣ <그림 14> 부산광역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미흡한 부분



3. 전문가 자문위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문 결과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결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산시에서 방역 및 의료 대응을 잘한 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우수 분야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관련한 서술형 질문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답변(“우수”분야)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①의사소통 ②선제적 및 탄력적 업무수행 ③병상관리와 이송 ④종합적 대응능력이다.

첫째, 부산시와 각 구군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 체계의 구축이다. 코로나 19의 감염병 확산의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들 주요 행위자 간의 카톡 등을 통한 효율적 방역소통과 의료 대응 그리고 특히 콜센터(1339)를 통한 24시간 민원대응 체계 등이 코로나 19대응의 우수 사례이다. 두 번째, 부산시의 거버넌스 역량에 기반 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특히 부산시가 감염병 대응 관제탑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며, 중앙정부와 16개 구·군보건소 등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에 ‘브릿지’ 역할도 동시에 잘 감당했다. 세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대응 능력이다. 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급증에 따른 격리병상 관리와 신속한 이송을 실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종합적 대응능력이다. 코로나19의 변이에 따른 유행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PCR 검사부터 백신도입과 생활치료센터 및 재택치료관리팀 신설 등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선제적이고 탄력적 대응 등이 코로나19 대응의 탁월한 사례로 제시되었다.

▣ <표 32>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및 내용

연번	우수 분야	세부 내용
1	원활한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보건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 구축 - 정례 브리핑 (일일 상황보고) 소통을 통한 시민들에 알권리 확보 및 불안감 해소 - 부산시가 감염병 대응 콘트롤 타워로의 원활한 역할 수행 - 부산시와 의료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팀과의 원활한 소통 - SNS(카톡 등)를 활용한 방역 및 의료 상황 적극적 공개 및 소통 - 24시간 콜센터(1339) 운영으로 전일 코로나19 민원 대응
2	선제적 및 탄력적 업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황에 맞춘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원활한 운영 - 코로나19 발생초기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환자 이송 - 보건소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및 자가 격리 관리 - 보건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 재택치료자에게 필요 물품 및 건강모니터링 제공
3	병상관리와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병상 지속적 확대 - 전담병원으로 빠른 이송
4	종합적 (총체적) 대응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센터 및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 도입 -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백신 및 약물 공급 관리 - PCR 검사 도입으로 대량의 검사 가능 - 보호구, 의료장비 등이 적절하게 지원되어 원활한 환자 진료 -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 운영 -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격리시설 신속 확대·운영 - 군인, 경찰, 수습 공무원 등 인력의 신속 지원 - 집단 발생 등 현장 역학조사와 교육 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현장 출동과 적극 지원 - 선원 문제는 해수부·질병청·부산시 협력 방역체계 내 해결 - 부산시 재택팀 신설로 재택치료를 대해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 - 특수 환자에 대한 시 직접 지원(출산, 소아, 투석) - 부산시 구·군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구성

▶ **〈그림 15〉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우수 항목 및 내용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230 | 부산시 코로나19 백서

(2)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미흡한 부분으로 제시된 것 등에 대해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오미크론 유행시 환자 관리 미흡 ② 코로나19 지정 격리병상 운영 시 중환자실 병상 수 확보에만 집중 ③ 감염병 담당 업무의 비효율성 (보건소 감염병 전담조직 부족과 감염병 담당팀 내의 잦은 업무 변경 및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훈련이 부재) ④감염병 담당 전담 인력부족 ⑤ 환자 개인정보노출 위험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관리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 <표 33>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제점

연번	문제점	세부 내용
1	오미크론 유행 시 환자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환자 병원 이송 차질 발생 -격리병상 및 전담병원 부족 -특수병상(투석, 분만, 정신 등)부족으로 인한 환자관리 곤란 -고령환자, DNR 환자 병원 수용이 되지 않아 환자이송 중 사망사례 발생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양성환자, 타 병원 이송이 힘들 -외국인환자 의사소통 어려움 -감염취약시설 환자관리 미흡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관리팀의 병상 배정 역할 미흡
2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시스템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환자실 입실 시 우선순위 적용 시행하지 않아 중환자실 입실 후 연명 의료중단을 결정한 후 퇴실하게 되어 다른 환자의 치료기회 박탈, 의료진 소진을 초래함 -일상생활 기능저하, 고령, 회복 불능한 기저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조기 논의 필요함 -중환자실 병상 수 확보에만 집중
3	업무 비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감염병 전담 조직 부족 -감염병 담당팀 잦은 변경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짐 -환자 배정시 정확한 환자정보 필요함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완전 중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행정, 기술 등 통합 훈련 부재 -고위험시설 운영자와 부산시 관리부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부재 -코로나19 대응 활동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유선 전화 연락에 의존한 의사소통의 한계
4	인력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감염병 담당하는 인력 부족으로 업무 미숙 -예방접종지침 빈번한 변경과 예방접종센터 운영시 인력 부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부족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사, 감염전문간호사등 전문인력 부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소 내 정규인력 편성 근거 부족 -역학조사관 인력 부족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적 역량강화 교육 필요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5	개인정보 보안관리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 -초기 코로나19 대응시 환자 동선을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개 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음 -카카오톡을 통해 환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되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상기 확인된 내용을 자료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워드클라우드 방법을 통해서도 키워드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16>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 관련 문제점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3)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책 시사점

부산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병원 이외의 민간병원에서도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팬데믹 대비 의료 대응 시스템 구축 ② 보건소 기존 의료 업무 역할을 준행하면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 운영의 규정 등의 제도화 ③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④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을 대비해 조직의 편성 및 인력 확충의 유연성 ⑤ 의사소통의 체계화 및 개인정보 보안 관리

▣ <표 34> 코로나19 대응 방안 주요 시사점

연번	시사점	세부 내용
1	팬데믹 의료대응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감염병 환자 업무 분장 명확화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공공병원 이외 민간병원에서도 초기부터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부산시 이송지침 확립 필요 -감염병 환자 이송에 대한 협의체 구성 필요 -신종감염병에 대응 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현실화 필요 -전염병 환자 진료체계마련 필요 -감염취약시설 대응관리 체계 필요
2	감염병 유행시 보건소 기존 업무 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 계획 수립, 행정 등을 포함한 통합 훈련 필요함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 등 재정비가 필요하고 보건소 인력의 기본 훈련 실시 필요함
3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중환자실 입실 환자의 조건에 대한 사전 논의 필요함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 대비한 가이드라인 필요함 -병원·의원·보건소 수준의 개별적 매뉴얼 만들 필요 있음.
4	팬데믹 대비 조직과 인력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서 별 역할 정립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필요함 -향후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과 단위의 조직 및 직제 신설 필요함 -감염간호사나 의무직 역학조사관등의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 필요함 -훈련된 직원의 업무를 대행, 분산 할 수 있는 단계별 인원 총원 필요함 -감염병을 관리와 대응 인력의 확충과 훈련이 필요함 -감염취약시설 전담조직 신설 필요함
5	소통과 보안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유관기관의 연대와 적극적 협력이 필요 -향후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하여 환자 관련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도구개발의 필요 -코로나19 유행시에는 환자병상 배정 시 정보를 유선이나 카톡으로 소통하는 만큼 개인정보보안 관리 필요 -환자 현황 보고체계의 일원화 및 전산화

상기 확인된 내용을 자료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워드클라우드 방법을 통해서도 키워드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그림 17>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전문가 집단 정책적 의견 제시 등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4)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평과 제언

설문에 응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평과 제언〉 항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① 팬데믹 상황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제 ② 인력 및 예산 ③ 위기 대응 소통 체계화 및 훈련(교육)의 정례화

▣ 〈표 35〉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평과 제언

연번	주요 분야	세부 내용	
1	위기 대응 거버넌스 체제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큰 사건·사고 없이 대응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관리, 병상확보, 확진자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함.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부산시 차원의 기본 가이드라인 필요 - 재난 대비 효율적 대응을 위한 탄력적 조직운영이 필요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매트릭스 구축 - 예방 접종의 동시 접종을 위한 접종 일자의 통일성
2	인력 및 예산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인력 및 의료진의 지속적 희생이 강요됨. - 인력이 있어도 비전문 의료인으로 환자 대응의 제약이 있음.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및 의료진들의 인력 풀(pool) 등의 리스트 확보 - 긴급 파견을 위한 상시 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제도 -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전문관 확대 충원 - 병상과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대응계획이 필요함
3	소통과 교육(훈련)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 및 의료 기관 간의 소통의 미흡 - 감염병 대응팀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함 - 감염취약시설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매뉴얼 부재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파견 시 즉각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온라인 직무교육 개발 및 강화 - 감염병 대응 대비 훈련 및 감염병 예방 교육 필요. - 일반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등에도 감염병 대비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그림 18>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평과 발전적 제언 등 워드클라우드 분석결과

문제점의 키워드로 도출되었는데 오미크론 유행시는 환자폭증 때문에 지정격리병상 운영은 의료기관 협조 등의 문제로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부족과 업무효율성 문제는 예비조직 동원체계 등으로 일정부분 해결이 될 것이며 보안관리의 문제점도 임기응변의 총력대응 체제 하에서의 문제로 향후 해결이 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 자문의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우수하다고 나온 부분은 선별검사와 선별진료소 관리가 4.00 ± 0.632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은 경기도 전문가의견에서도 진단검사와 관련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78%로 나타나 본 조사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시와 경기도 모두 시군구 특성을 반영한 빠른 개소와 선별진료소 확대 또는 단계적 축소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적극적 진단검사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우수한 정책 분야로 언급하였으나 검사와 관련된 인력 확충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신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부산시 전문가 자문위원 평가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나 경기도 전문위원들의 정책 평가는 100점 점수화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감염병 업무 기획은 3.52 ± 0.680 점,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 수행은 3.52 ± 0.928 점으로 부산시 전문가의견의 평가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 자문단에서는 조직인력 및 거버넌스는 75%로 나타나 부산시 전문가 정책평가 의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제주도 전문가 이견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가 73%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으로 4.69 ± 0.62 점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접촉자 관리에 대한 부산시 전문가들의 평가는 3.86 ± 0.727 점, 역학조사에 대한 평가는 3.81 ± 0.814 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자문위원단 평가에서도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는 72%로 나타나 부산시와 경기도 모두 접촉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였으나 역학조사관의 잦은 이직으로 역학조사관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으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역학조사관 등) 확보 및 역량강화에 대한 부산시 전문가 위원들의 평가에서는 2.10 ± 0.995 점으로 나타나 경기도 자문단 평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격리병상 및 병상관리에 대한 부산시의 전문가 평가는 3.71 ± 0.717 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기도 자문위원단의 평가는 50%로 나타나 부산시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였다. 이는 경기도는 수도권 코로나19 공동대응으로 중증병상 확보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방역소독에 대한 부산시 전문가 평가는 3.52 ± 0.680 점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도 전문가 의견에서도 발생장소 폐쇄 및 방역소독이 필요하다는 16.8%로 나타나 향후 코로나19 이후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재택치료 관리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3.57 ± 0.676 점 경기도 자문단의 평가는 63%로 나타나 재택치료 관리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도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재택치료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평가는 3.90 ± 0.625 점이었으며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관리에 대한 평가는 3.67 ± 0.577 점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문위원에서도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관리는 68%로 나타나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 특히 예방접종과 관련 하여서는 중앙의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의 조기설치와 찾아가는 접종, 취약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높은 접종률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나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중앙부처의 후속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향후 개선해 가야 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부산형 코로나19 대응에서 미흡한 부분 중 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 결과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위한 정규직 인력 확보는 2.10 ± 0.831 점, 보건소 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는 2.76 ± 0.700 점,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2.71 ± 0.956 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은 2.52 ± 0.680 점으로 5점 만점에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코로나19 대응백서에서도 업무추진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71.6%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 4.64 ± 0.67 점으로 나타나 부산시 전문가 의견과 일치하게 나타났다. 또한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응인력 대상 위기 대응 훈련 체계화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58.9%, 4.47 ± 0.73 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부산형 방역·의료 대응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을 전담으로 담당하는 인력확보와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 유지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관련한 평가에서 부산시 전문가 위원들은 현장 대응을 위한 간소화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2.86±1.014점, 보건소 상황에 적합한 현장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2.81±0.750점,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2.52±0.75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매우 필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자문위원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훈련 체계화 필요 정도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58.9%, 5점 만점에 4.47±0.7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 전문가 의견을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향후 팬데믹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으로는 팬데믹 의료대응 대비, 감염병유행시 보건소 기존 업무 단절방지,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 팬데믹 대비 조직과 인력정비, 그리고 소통과 보안 체계 등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총평에서 언급된 팬데믹 거버넌스 보존개선, 인력 및 예산 확보 개선, 소통과 훈련 개선 등도 초유의 대규모 팬데믹 경험을 기초로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는 점으로 사료된다. 감염병 전문가 자문위원들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감염취약시설 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전담 조직확대, 전문적이고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정규직 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감염병 대응 교육 강화 및 훈련 강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장 부산광역시 보건소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조사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장기화와 감염 확진자 수의 폭증에 대한 응대에 따른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실태 등과 관련된 일련의 선행 연구가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경험 및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³⁹⁾에 의하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건소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을 사용하여 대면 인터뷰를 시행했다. 이 연구방법의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 공무원들은 업무량 증가, 인력 부족, 불균형적 업무 분장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병 대유행의 대응 주체로 휴일 없이 지속되는 업무에 수면부족, 피로 등 신체 건강 관련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무력감, 사회생활 위축 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업무 보람, 직원 간 유대 형성 및 인적 인프라 증가의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였다. 개선점으로는 보건소가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보건소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진 고위험군 직원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고,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서민지와 조상욱⁴⁰⁾도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과 지역주민의 코로나 블루 및 레드의 유병 수준, 관련 요인을 평가하여 코로나 유행 장기화에 효율적인 대처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 B구 보건소 직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표준화 설문지로 직접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지의 표준 기준에 따라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로 분류하고 대상집단 및 대상자 특성별 유병률을 259명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직접대응 보건요원에서 코로나 블루 45.1%, 코로나 레드(2개 이상) 80.4%, 코로나 레드(3개 이상) 74.5%로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대상자 특성별 코로나 블루와 레드(3개 이상) 유병률은 일상생활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경우(RR=3.12 & 2.28), 경제적 피해를 더 많이 염려하는 경우(RR=1.55 & 2.14) 유의하게 높았고 코로나 블루 및 레드의 유병률은 코로나 대응 최일선을 담당하는 직접대응 보건요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들에 대한 정신적 건강 지지 강화 및 맞춤형 관리 전략 개발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39)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경험 및 스트레스: 질적 연구 Experience and stress of public health center officials coping with the COVID-19 epidemic: Qualitative research 사회정신의학 2023년 28권 2호 p.41 ~ 49 강지선, 박혜윤, 이소희, 이지연, 이주연, 김연재, 권기태

40) 민지, 조상욱, (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과 지역주민의 코로나 블루 및 레드 유병 수준과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9), 313-320, 10.5762/KAIS.2023.24.9.313

유정옥 등⁴¹⁾은 보건소 간호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단계의 실무경험 간호역량 탐색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기본역량확충이 대학과정에서부터 필요하고 공중보건상황에서 특별히 필요한 역량에 대한 지원체제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총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⁴²⁾에 의하면 간호직 공무원의 업무부하를 감당한 스트레스와 총동 조절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실제적 휴가가 가능하거나 감염전문성 높이기, 직무환경개선,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초의수, 고광욱 등이 연구한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정책방안⁴³⁾ 연구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 업무과중, 정원보다 현원의 수가 적음, 대면노동으로 인한 감정노동, 높은 직무스트레스가 지적되었고 보건간호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가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력증원과 관리유지, 업무량과 책임성에 비례하는 수당개선,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 시설지원 및 확대, 교육과 훈련강화, 검체채취시 안전강화,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산시 시민건강국, 보건소, 검역소 직원 31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증가하고 부정적 정서와 감염불안 등이 높았다.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 경험율도 96.14%였지만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에 따른 인지정도는 5점만점에 3.24점 이었고 필요한 지원정책은 인력충원과 보상증가 및 매뉴얼 마련의 순서였다.

□ 조사방법 : 모집단과 샘플링

설문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설문지 구성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사용 중인 도구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연구진들의 논의를 거친 후 부산시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비 테스트를 실시 후 설문지를 구성하게 되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 스트레스 부산시 16개군 보건소 직원 1,167명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활용하여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간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 응답률은 587명이 응답을 하여 50.3%로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 구성은 부산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시 문제의 정도 11문항,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문제의 정도 12문항,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 13문항, 직무공정성 4문항, 스트레스 인지 1문항, 우울감 경험을 2문항, 우울관련 증상 8문항, 일반적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신뢰도 검사에서 부산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시 문제의 정도에 대한 신뢰계수(Cronbach's α)는 9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문제 정도에 대한 신뢰계수(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신뢰계수(Cronbach's α)는 94%, 직무공정성에 대한 신뢰계수(Cronbach's α)는 70%, 우울관련 증상에 대한 신뢰계수(Cronbach's α)는 86%로 나타나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과 업무 스트레스 정도와 우울 관련 t-test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보건소 직원 5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성별에서 남자는 93명(15.8%), 여자는 494명(84.2%)로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 분포에서는 30-39세는 251명(42.8%), 40-49세는 141명(24.0%), 20-29세 118명(20.1%), 50세 이상은 77명(13.1%)으로 나타났다. 현재 혼인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으며 함께 살고 있다가 281명(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족유형에서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다가 262명(48.0%)으로 나타났다. 직책으로는 8급이 276명(47.0%), 7급이 138명(23.5%)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기간이 172명(29.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1) 유정옥, 전경자, 송연이, 최선임, 김혜진. (2023). 보건소 간호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단계의 실무경험: 간호역량 탐색.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7(2), 247-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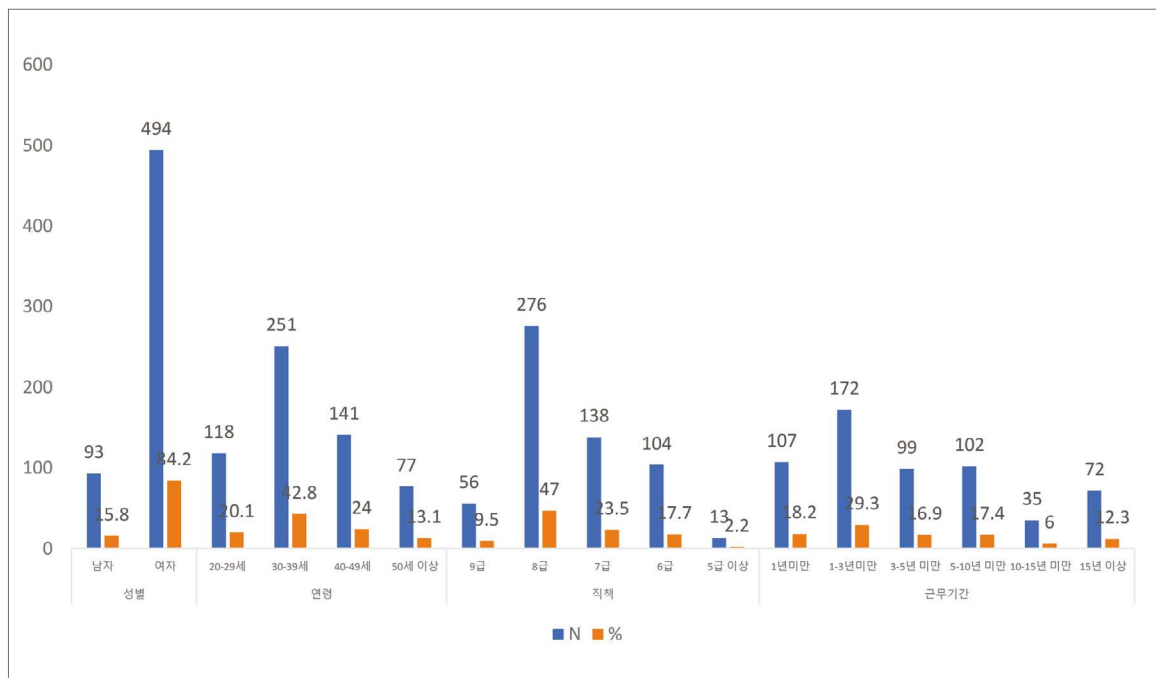
42) 이안나, 박완주. (2022).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총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6(3), 323-333.

43) 초의수, 고광욱, 황성원, 김희경, 백두주, 전필녀, 이유정, 이해정, 박진현.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정책방안.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22-6-2

▶ <표 36>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93	15.8
	여	494	84.2
연령	20-29세	118	20.1
	30-39세	251	42.8
	40-49세	141	24.0
	50세 이상	77	13.1
직책	9급	56	9.5
	8급	276	47.0
	7급	138	23.5
	6급	104	17.7
	5급 이상	13	2.2
근무기간	1년미만	107	18.2
	1-3년미만	172	29.3
	3-5년 미만	99	16.9
	5-10년 미만	102	17.4
	10-15년 미만	35	6.0
	15년 이상	72	12.3
전체		587	100.0

▶ <그림 19> 보건소 직원의 일반적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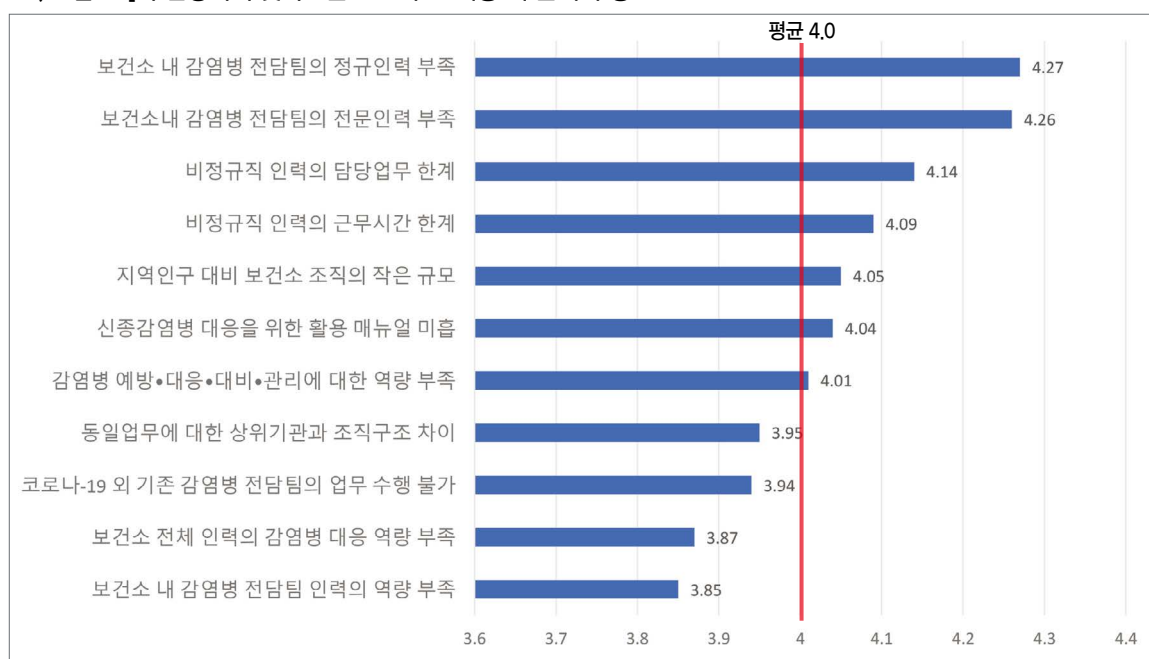
2.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시 문제의 정도

코로나19 대응시 문제의 정도를 보면 전체 평균은 4.0점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 문제의 정도를 살펴보면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팀의 정규인력 부족이 4.27점으로 가장 높은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내 감염병 전담팀의 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4.26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인력의 담당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4.14점, 비정규직 인력의 근무시간 한계(초과근무, 주말근무 등)에 대해서는 4.09점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광역시 지역인구 대비 보건소 조직 및 정원의 작은 규모는 4.05점,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미흡에 대해서는 4.04점,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부서(과)의 부재로 인한 감염병 예방·대응·대비·관리에 대한 역량 부족은 4.01점, 동일업무에 대한 상위기관과 조직구조 차이에 대해서는 3.95점, 코로나19 외 기존 감염병 전담팀의 업무 수행 불가(법정감염병,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등)는 3.94점, 보건소 전체 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부족은 3.87점,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팀 인력의 역량 부족은 3.85점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7>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시 문제의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지역인구 대비 보건소 조직의 작은 규모	4.05	0.900
2.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부서(과)의 부재로 인한 감염병 예방·대응·대비·관리에 대한 역량 부족	4.01	0.895
3. 동일업무에 대한 상위기관과 조직구조 차이	3.95	0.842
4. 비정규직 인력의 근무시간 한계 (초과근무, 주말근무 등)	4.09	0.907
5. 비정규직 인력의 담당업무 한계 (평상시 업무 외 의 업무 배치 등)	4.14	0.841
6.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팀의 정규인력 부족	4.27	0.793
7. 보건소내 감염병 전담팀의 전문인력(역학조사관 등) 부족	4.26	0.804
8.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팀 인력의 역량 부족	3.85	0.927
9. 보건소 전체 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부족	3.87	0.918
10. 코로나19 외 기존 감염병 전담팀의 업무 수행 불가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등)	3.94	0.908
11.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활용 매뉴얼 미흡	4.04	0.849

▣ <그림 20>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시 문제의 정도



* 1점: 전혀 문제가 아니다/2점: 문제가 아니다/3점: 보통이다/4점: 문제이다/5점: 매우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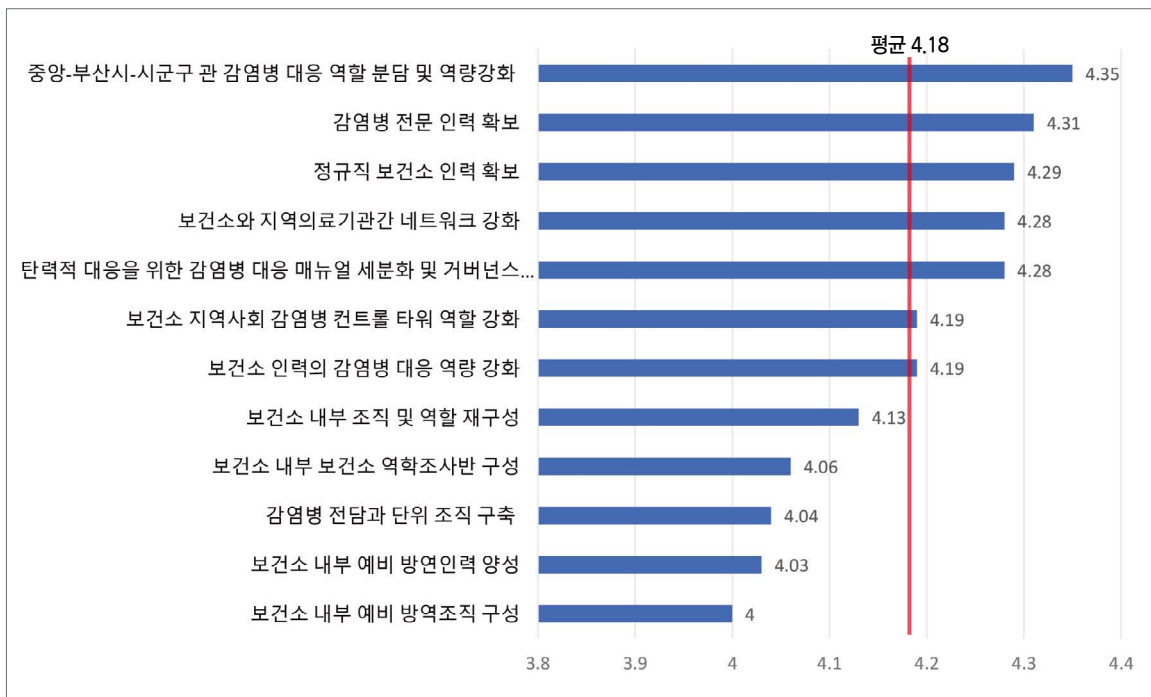
3.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체계 필요의 정도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한 필요 정도의 전체 평균은 4.18점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산시-시군구 관 감염병 대응 역할 분담 및 역량강화에 대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가 4.31점, 정규직 보건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4.29점,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강화와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세분화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동일하게 4.28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지역사회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보건소 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동일하게 4.1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내부 조직 및 역할 재구성은 4.13점, 보건소 내부 보건소 역학조사반 구성은 4.06점, 감염병 전담과 단위 조직 구축은 4.04점, 보건소 내부 예비 방역인력 양성은 4.03점, 보건소 내부 예비 방역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4.00점으로 나타났다.

▣ <표 38>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 체계 필요의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보건소 내부 조직 및 역할 재구성	4.13	0.698
2. 보건소 내부 예비 방역조직 구성	4.00	0.779
3. 보건소 내부 예비 방역인력 양성	4.03	0.760
4. 보건소 내부 보건소 역학조사반 구성	4.06	0.782
5. 보건소 인력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4.19	0.718
6. 정규직 보건소 인력 확보	4.29	0.824
7. 감염병 전문 인력 확보	4.31	0.717
8.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세분화 및 거버넌스 구축	4.28	0.710
9. 보건소 지역사회 감염병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4.19	0.759
10. 감염병 전담과 단위 조직 구축	4.04	0.938
11.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강화	4.28	0.698
12. 중앙-부산시-시군구 간 감염병 대응 역할 분담 및 역량강화	4.35	0.672

▣ <그림 21>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위한 필요 정도



* 1점:전혀 필요없다/2점:필요없다/3점:보통이다/4점:필요하다/5점:매우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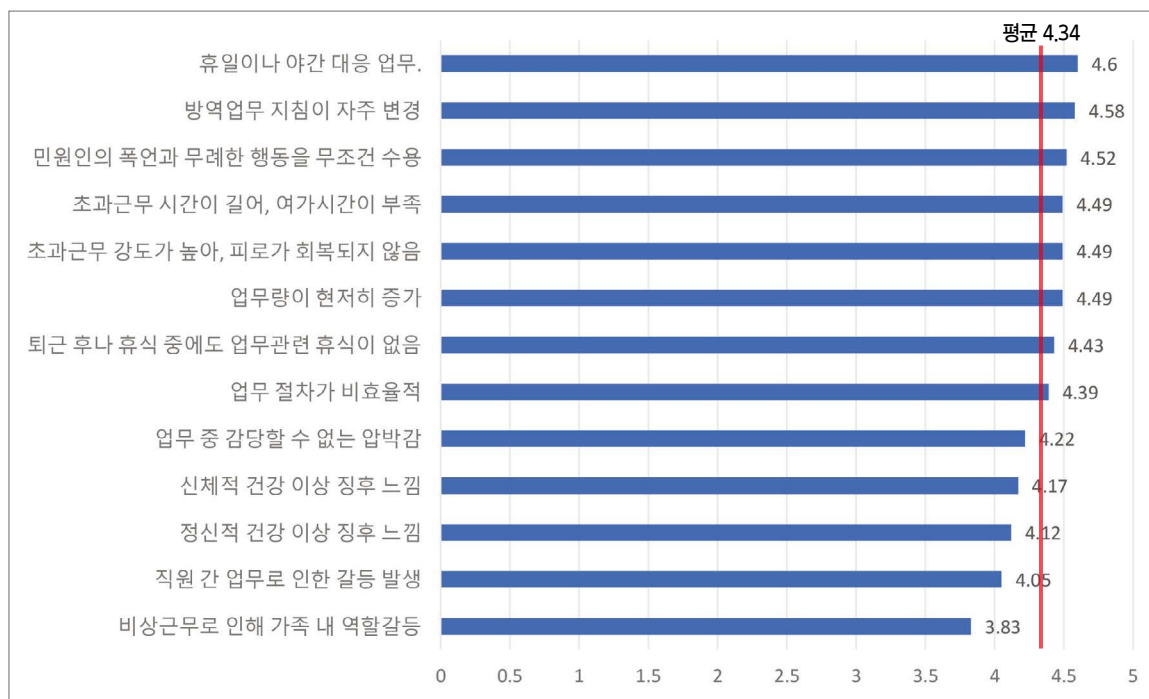
4.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

코로나19 대응 업무 관련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전체 평균은 4.34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업무 관련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휴일이나 야간에 대응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4.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방역업무 지침이 자주 변경된 것은 4.58점, 민원인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업무 스트레스는 4.5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과 초과근무 강도가 높아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것과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는 4.49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표 39>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

문제점	평균	표준편차
1. 초과근무 시간이 길어, 여가시간이 부족했다.	4.49	0.762
2. 초과근무 강도가 높아, 피로가 회복되지 않았다.	4.49	0.769
3. 휴일이나 야간에 대응 업무를 해야 했다.	4.60	0.712
4. 퇴근 후나 휴식 중에도 업무관련 전화, 단체 채팅방 알람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4.43	0.835
5. 민원인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을 무조건 수용해야 했다.	4.52	0.753
6. 방역업무 지침이 자주 변경되었다.	4.58	0.630
7. 업무 절차가 비효율적이었다.	4.39	0.773
8. 직원 간 업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	4.05	0.974
9. 신체적 건강 이상 징후를 느꼈다.	4.17	0.991
10. 정신적 건강 이상 징후를 느꼈다.	4.12	1.029
11. 비상근무로 인해 가족 내 역할갈등을 겪거나 죄책감을 가진 적이 있다.	3.83	1.157
12. 업무 중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4.22	0.927
13.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4.49	0.740

▶ <그림 22> 보건소 직원 코로나19 관련 업무 스트레스



* 1점:전혀 그렇지 않다/2점:그렇지 않다/3점:보통이다/4점:그렇다/5점:매우그렇다

5. 코로나19 관련 직무 공정성

부산광역시 및 구·군 코로나19 대응업무 투입 시 어떤 업무의 상황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0>과 같다. 직종간 업무량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과근무 수당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4.08점, 직급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3.79점,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지 못한 것은 3.3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0> 업무 관련 스트레스 현황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지 못했다.	3.39	1.227
2. 초과근무 수당(금액)이 적절하지 못했다.	4.08	1.033
3. 직종(공무원, 공무원직, 기간제 등) 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었다.	4.41	0.799
4. 직급 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었다.	3.79	1.037

6. 스트레스 인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대한 결과는 <표 41>와 같다.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는 75명(12.8%), 많이 느끼는 편이라는 153명(26.1%), 조금 느끼는 편이라는 316명(53.8%)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43명(7.3%)로 나타났다.

▶ <표 41>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 정도

스트레스 인지 정도	평균	표준편차
1. 대단히 많이 느낀다.	75	12.8
2. 많이 느끼는 편이다.	153	26.1
3. 조금 느끼는 편이다.	316	53.8
4. 거의 느끼지 않는다.	43	7.3
전체	587	100.0

7.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결과는 <표 42>과 같다.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는 느낀다는 220명(37.5%), 느끼지 않는다는 367명(62.5%)로 느끼지 않는다가 높게 나타났다.

▶ <표 42> 우울감 경험률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N	%
1. 예	220	37.5
2. 아니오	367	62.5
전체	587	100.0

우울감 경험율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상담(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보건소 등)을 받아 본 경험에 대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전문가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8명(49.1%), 상담을 받지 않았다는 112명(50.9%)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속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경우는 220명(37.5%)로 나타났지만 전문가 상담 경험은 108명(49.1%)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 전문가 상담 경험 여부

구분	N	%
1. 예	108	49.1
2. 아니오	112	50.9
전체	220	100.0

8.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

최근 2주 동안 우울감과 관련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얼마나 자주 시달렸는지에 대한 결과는 [그림 4-8]과 같다. 문항의 척도는 전혀 아니다는 4점, 여러 날 동안은 3점, 일주일 이상은 2점, 거의 매일은 1점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다는 3.02점,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증상은 3.48점,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잔다는 3.34점, 피곤함과 기력이 저하된 경우는 2.75점, 식욕 저하 혹은 과식에 대한 증상은 3.28점,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것은 3.74점, 신문을 읽거나 TV 볼 때 집중하기 어려운 증상에 대해서는 3.56점,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리거나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해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닌다는 3.82점,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에 대한 증상은 3.86점으로 나타났다.

▣ <표 44>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

항 목	평균	표준편차
1.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거의 없음	3.02	0.920
2. 가라앉은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3.48	0.639
3.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어남, 혹은 너무 많이 잠	3.34	0.744
4. 피곤함, 기력이 저하됨	2.75	0.901
5. 식욕 저하 혹은 과식	3.28	0.813
6.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느낌 혹은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끼거나, 나 때문에 나 자신이란 내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느낌	3.74	0.565
7.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하기 어려움	3.56	0.702
8. 남들이 알아챌 정도로 거동이나 말이 느림 또는 반대로 너무 초조하고 안절부절 하지 못해서 평소보다 많이 돌아다니고 서성거림	3.82	0.472
9.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등의 생각 혹은 어떤 면에서건 당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들	3.86	0.407

▣ <그림 23> 우울감과 관련된 증상



□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고찰 및 결론

부산시 보건분야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코로나19대응의 문제점은 예상가능한 문제이지만 지역 인구대비 보건소 조직의 작은 규모는 오랜기간 지적 되어 온 것이다. 대응체계의 필요에서 정규직 인력의 확보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업무 스트레스도 휴일이나 야간대응, 지침의 잦은변경, 폭언등 다른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이며 직무공정성,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 등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등에 비해 월등이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광범위하게 지적된 바 있다.

▣ <표 45> 필수종사자를 위한 정책적 함의

영역	실태 및 주요 문제	정책적 함의
건강·안전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확보의 어려움	보건소에 직원들의 실질적인 휴게시설 마련하고 휴게시간을 확보
	민원인의 욕설 등 감정노동자 보호문제	감정노동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실행
	방문 검체시 주취자 등에 대한안전 확보문제	방문시에는 2명1조
	소진과 번아웃	인력보충과 정신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처우	인력부족	부산인구에 비해 부족한 인력보충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다른 권한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비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는 정규직의 처우	재난시기 정규직이 처우가 비정규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인센티브 필요
	비슷한 일을 하지만 다른 수당 받음	재난에 따른 업무과중시기 수당의 동일화
사회안전망	공무원특성상 사회안전망은 잘 갖추어져 있음	
서비스욕구	적시의 구체적인 소통을 원하는 서비스욕구	일상에서 소통역량 강화
	노동집약적 비영리서비스로 개인적 기여와 헌신이 필요한 특성을 가짐	보건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등 대국민 캠페인
	공무원의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큼	과도한 요구등에 대한 대응 매뉴얼 필요

영역	실태 및 주요 문제	정책적 함의
정책제도	적극적 예방과 상시적 대비	구·군 보건소 단위의 조직체계 정비
	감염병관련 업무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특히 하급자 위주의 업무 배치 문제	순환근무의 제도화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부족, 특히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권한 문제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탁이 아닌 공무원화
기반여건	긴급, 단호, 용기있는 리더십	부산시 리더십은 메르스 대응 경험이 있는 국장발탁 및 적시교체등 기민함
	급박한 재난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음	재유행등 상시적 대비를 위한 지원 조직체계-회복적 보건체계와 인간안보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협력 기반마련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음	중장기 대비등 방역 대응체계 강화
	재난시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함	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필요

출처: 초의수, 고광욱, 황성원, 김희경, 백두주, 전필녀, 이유정, 이해정, 박진현.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정책방안.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22-6-2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한 실측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부산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인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였고 코로나19 감염 우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 염려 및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염려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⁴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⁴⁵⁾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방역일선에 종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실측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방역의료정책에 반영할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시 문제에 대해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팀의 정규인력 부족과 역학조사관 중 전문인력이 부족했다가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정옥 외 (2023)⁴⁶⁾의 연구에서도 준비된 역량보다 광범위한 업무와 시간에 쫓기며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당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보건소 내 감염병 전담팀의 전문인력 중 역학조사관 등이 부족하다는 4.26±0.804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 임상적 지식과 경험, 통계 능력, 역학적 분석력, 의사소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역학조사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윤정옥 외(202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보건소 내부 조직과 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 4점이상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보건소 내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구성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옥 외(2023)의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역할의 구성이 원활하지 않아 행정 업무를 맡은 참여자들이 감염병관리 실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역학조사, 자가격리, 선별진료소 전체를 총괄, 감염 관련 통계와 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의 네트워크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 관련은 4점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 유정옥 외(2023)의 연구에서도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대한 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난 부분과 국가중앙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원화로 어려움이 있었다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건소 내부 조직과 인력에 대한 재구성성과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유정옥 외(2023)의 연구에서도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전체 사회와 조직이 함께 위기상황을 잘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십의 중요성과 신속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한 감염병 관제탑(Control Tower) 역할이 강화(4.19±0.759점)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안나·박완주(2022)⁴⁷⁾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4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31107>

45) 김기욱, 황영순, 허중배, 박봉철, 구윤모, 박충훈, 강지운. (2021).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 부산발전포럼., 86-89.

46) 유정옥, 전경자, 송연이·최선임·김혜진(2023). 보건소 간호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단계의 실무경험: 간호역량 탐색,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7(2), 247 - 260

47) 이안나, 박완주(2022).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총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36(3) 323 - 333, 한국보건간호학회지

4.38±0.61점으로 나타나 직원 간 업무로 인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4.05±0.974점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5점 만점에 평균 4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평균은 3.80±0.47점으로 나타났으나(이안나·박완주, 2022) 본 연구에서는 4.34±0.152점으로 나타나 보건소 직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업무 지침이 자주 변경되었다. 4.58±0.630점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이안나·박완주(2022)⁴⁸⁾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3.98±0.68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과 가족 내 역할 갈등에 대해서도 3.83±1.157점으로 이안나·박완주(2022)의 연구에서도 3.79±0.70점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과의 스트레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직무 공정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직급 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3.79±1.037점과 직종간 업무량에 차이가 있었다 4.41±0.799점으로는 강지선 외(2023)⁴⁹⁾ 질적연구에서도 업무관련 어려움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는 감염병 전담팀에게 업무가 모호하게 넘겨 오면서 불균형적인 업무 분장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지 못했다는 3.39±1.227점으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교대 업무가 가능한 병원 의료인과 달라 개인의 업무를 대신할 존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근로시간과 퇴근 이후 시간의 경계 없이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강지선 외(202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공무원은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상한이 월 57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초과 시간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관련 증상 중 자살 충동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3.86±0.407점으로 나타났으나 이안나·박완주(2022)⁵⁰⁾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평균은 1.56±.71점으로 죽고 싶은 이유 1.67±0.78점, 죽음에 대한 관심 1.54±0.74점, 죽고 싶은 생각 1.47±0.73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훈련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부분과 사회적인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48) 이안나, 박완주(2022),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총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36(3) 323 - 333, 한국보건간호학회지

49) 강지선, 박혜윤, 이소희, 이지연, 이주연, 김연재, 권기태(2023),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경험 및 스트레스: 질적 연구, 사회정신의학, 28권 2호 p.41 ~ 49

50) 이안나, 박완주(2022),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총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36(3) 323 - 333, 한국보건간호학회지

Ⅲ.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 제언

□ 부산형 방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 고찰과 제언

지질학과 분자생물학적 근거에 의하면 인류는 기아와 기후변동과 같은 수많은 재난과 멸절의 인간 안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답을 찾아 생존해왔고⁵¹⁾ 농경과 목축시대 이후에는 중세의 흑사병, 대항해시대의 천연두와 같은 다수 인구의 사망을 경험하였다. 한국 근대방역의 시발지인 부산의 근현대에도 끊임없는 콜레라, 이질, 천연두, 장티푸스 유행의 기록이 부산 순치(전염)병원 기록에 남아있고 해방 이후에도 1960년대 말까지도 급성감염병 발생률은 상당하여 보건 조직의 주된 업무가 방역과 위생이었다가 1970년대 이후에야 감염병이 감소하는 역학적 변천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난개발, 공장식 축산 등 여러 요인으로 최근 들어 다시 찾아지는 신종플루와 사스 등 팬데믹과 메르스 등 여러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청 등 중앙정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가 강화되어 옴에 따라 부산광역시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감염취약시설과 해양으로부터의 감염 등 약점과 보완하여야 할 점을 발견하고 국내외 감염관리체계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조사 및 직원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맥킨지('21.5월)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미래 팬데믹 초기 투자 소요는 최대 1,300억달러, 코로나19 피해는 16조 달러로, 팬데믹 예방에 대한 투자는 약 120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염병 관련 조직과 예산, 정책 수립 등에 중앙부처와 시 관계부서 및 구·군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가는 지금부터 향후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바, 이에 아래와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1.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재정비 및 의료대응 인프라 확충

첫째, 감염병 관련 지역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업무기획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2020년 9월 신설된 시민방역추진단과 2021년 1월 신설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을 통합하여 감염병관리과로 개편 후 현재까지 감염병 대응을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중대본-중수본-방대본 체제의 중앙집중적 대응체계 운영에 따라 일선 구·군에 대한 전달과 취합, 지원 역할에 치중되고 병상자원 관리, 이송체계 등 분야에서 시의 역할이 약화되었던 바, 독자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감염병 대응 업무 기획에 미흡한 역량을 보였다.

지역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 감염병관리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성감염병의 안정적 관리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세부적 팀 조정 및 감염취약시설 관리 등 취약분야 대응을 위한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상상황 시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대응시설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총괄과 같이 직접 수행이 필요한 방역·의료 대응 분야는 감염병관리과 내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국·과장 지휘·감독하에 두어야 하며, 코로나19 기간 안전 부서에서 관할했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감염병 비상상황에 한해 감염병관리과가 총괄한다면 시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울러, 감염병 관련 업무기획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속기구로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51) 재난인류-위기의 순간마다 답을 찾았던 인간의 생존 연대기 송병권(지은이) 위즈덤하우스2022-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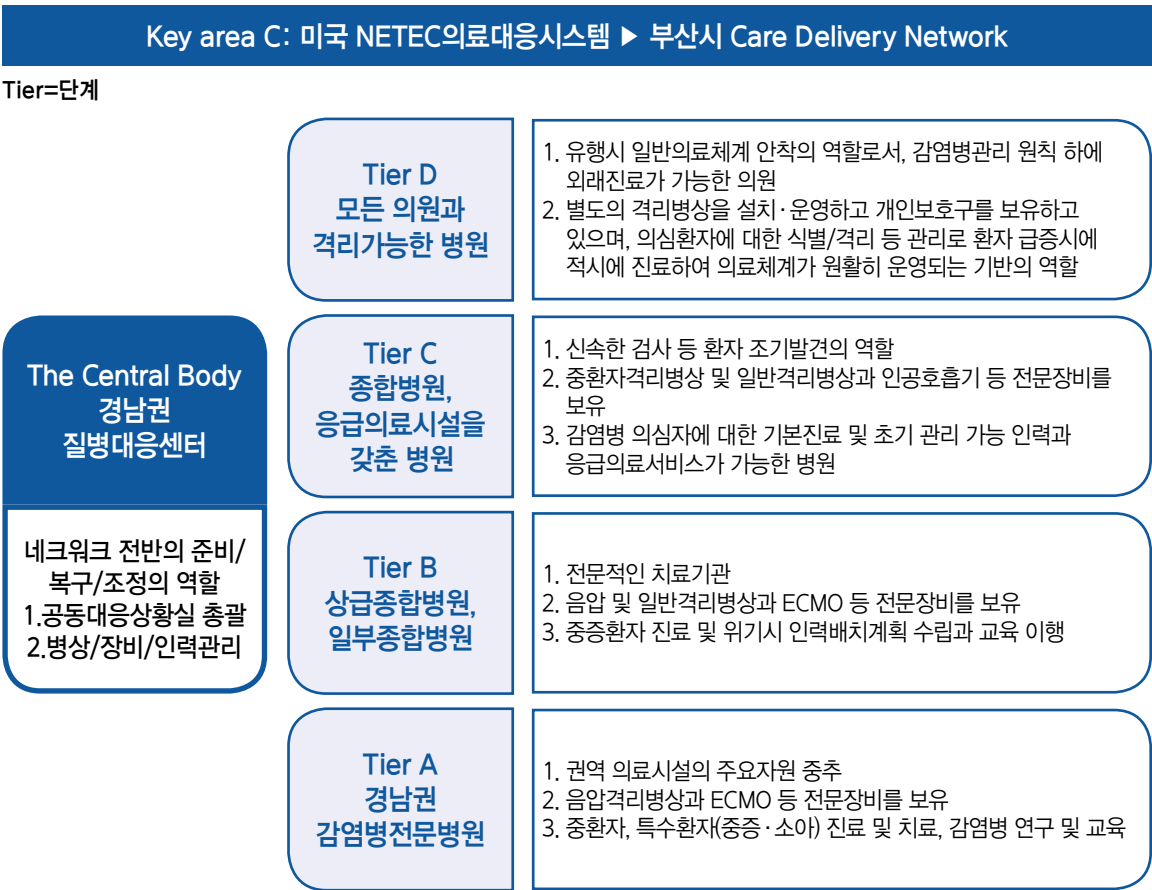
현재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설되어 ○○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중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 왔다. 향후에는 시민건강국 내 별도의 조직으로 흡수·신설하여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평소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감염병 정책연구 및 과제 개발, 직원 및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의 역할과 함께 비상시 감염병 대응 및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팬데믹 대비 의료대응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공공의료의 전반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집중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 기간 공공의료의 핵심축이었던 부산의료원의 경우 환자 감소, 지원금 축소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적자에 따라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어 공공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평소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비상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부산의료원 내 호흡기감염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함께 서부산의료원 설립과 침례병원 공공화 추진 시 감염병 대응 관련 역할을 분산·강화할 필요가 대두된다.

또한, 감염병 대유행 시에는 공공병원 이외 민간병·의원에서도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 및 검사부터 치료와 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감염병 위기단계 및 중증도별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평상시 유지되는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 위기대응훈련과 자체교육 시행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비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사시 즉시 동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표 46> 부산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 체계(안)



2.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 및 역량교육·보상 강화

먼저,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과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부산시는 기존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인력을 감염병관리과 정원 26명으로 확대하였고,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배치하여 과원 체제로 운영하여 왔다.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 부족한 인력은 실무수습공무원 배치, 타 부서 직원 지원 근무, 경찰 및 군의 인력 파견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였으나, 미래 감염병 대응과 상시적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원 추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염병 관리의 최일선인 구·군 보건소의 경우 정원 소폭 확대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 인력을 채용하여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업무 과다로 정규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휴직직원 증가 등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감염병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정규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3~4개 과로 구성된 타 시·도 보건소에 비해 부산의 구·군 보건소는 대부분 1~2개 과의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고 감염병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는 실정으로, 감염병총괄(기획)–감염병예방–감염병대응 등 3개 팀 이상으로 구성된 감염병 부서 또는 별도의 감염병관리센터를 신설하여 호흡기클리닉 및 진단검사소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평소 관리 및 비상 대비·대응 기능 강화를 요구된다.

이외로,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역학조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1명의 전문관을 임명하여 운영하였으나, 숙련기간과 인사이동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역학조사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보건 관련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수습)역학조사관 교육에 최대한 많은 직원을 참여시킴으로써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1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중·동구를 포함한 모든 구·군에서 역학조사관을 지정하고, 최소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양성해야 한다. 그 외 예비방역인력 교육, 지자체 감염병대응실무자교육(FETP-F) 등 방역·의료 교육 횟수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어, 4년에 가까운 시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한 감염병 담당자들은 현재까지도 일종의 번아웃증후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 감염병 비상사태시 업무거부 없이 재투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결과 휴일과 야간 상시 대응에 따른 고강도 업무환경, 지침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등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및 우울감 완화를 위하여 상급에서 기술한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 정책방안’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장기특별휴가 등 재충전 기회 제공, 심리지원 강화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검역-검사 능력 정비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립, 부산신항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로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출입국 관리기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국립부산검역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일차적인 추적 및 조사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검역 과정에서 미처 걸러지지 않은 질병의 유입 방지 및 지역사회 감염원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시기 운영한 해외입국자 대응 선별진료소, 시 직영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 등 감시체계를 더 견고히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사례로 2020년 7월 러시아 선박發 감염 확산, 2021년 1월 부산 항운노조 집단감염 관련 1만여명 전수조사,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發 수산업 근로자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항만과 수산업(냉장·냉동공장, 위판장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연계된 여러 시설(숙박 및 유흥시설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방안 수립, 시설·단체·사업장별 방역관리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구축, 항만 관련 부서·기관·시설과의 협의체 구성, 검역소-시-

구·군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검역체계 정비 등 항만 외국인 노동자 발 해외 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 7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제선 직항기 중 493편을 선정해 기내 가검물 채취 후 콜레라 및 장내세균 10종 검사를 한 결과 58편(11.8%)에서 병원균이 검출된 바 있으며, 선박의 경우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운송수단 및 화물을 통한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항공기와 선박의 위생상태에 대한 합동 점검, 전수 조사 등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정비·강화하고 항만이 많은 부산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 보건위생상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초고령 도시 진입을 대비한 취약시설 관리 강화

2023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일반 가구 144만 8000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는 16만 1000가구로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11.1%를 나타냈으며 이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계간지 2023년 겨울호 '지역 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최근 7년(2015년~2022년)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연평균 0.677%포인트씩 높아진 가운데 부산은 0.968%포인트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산은 타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감염관리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교육과 추가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대면교육 참여율도 높여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집단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시설 상황에 맞춘 감염병환자 발생 대처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행태 점검, 실내환기상황 평가 및 감염관리 실태 점검 등 조사 실시, 환자 집단발생 시 시설 대응체계 점검 등 지속적 현장점검으로 시설 내 취약점을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 시에 감염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구·군 및 감염병관리지원단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한 시정 조치, 예산 및 물품 지원을 통한 취약시설 개선 등을 도모해야 한다.

5. 감염병 관련 지역-중앙-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첫째, 현재의 지역의료협의체를 '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규정된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

2022년 8월 부산시는 감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지역의료협의체를 신설하고 부산시의사회·병원회·간호사회·약사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협업체계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된 2024년부터는 신종·재출현·상시 감염병 발생 위기 대비·대응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검역소 등 의료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유관기관·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무자로 구성된 감염병대응 실무협의체를 시 주관으로 운영하여 실질적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향후 현재의 지역의료협의체에 더해 시의회 및 각급 의료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까지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확대 재편하여 협업 및 소통을 강화하고, 모든 구·군에서도 의료협의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부산에 특화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해야 하겠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광역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법령 개정, 정책 수립, 예산 확보 등 유기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광역지자체 감염병관리부서와의 직원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와 함께 의료자원 공동 활용, 감염병 환자 의뢰 및 이송, 표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권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근 광역시·도와의 권역안결형 감염병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에서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상 ‘부울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서의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셋째, 글로벌 협력을 통해 감염병대응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글로벌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감염병 분야에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도시보건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최근 WHO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도시 지방정부의 역할 인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의안의 이행 방안으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비 기반 마련에 동참할 시범도시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시범도시는 국제거점 도시, 정치와 경제의 중심도시, 국경 인근의 거점도시를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부산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국내 도시로서 WHO를 포함한 주요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감염병 예방·대응 선도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현장에 세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염병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정비, 실제 활용 가능한 감염병관리 및 통계 시스템 개발, 방역·의료 인력풀 구축 및 의료인력 양성 등 비상대응인력 확보, 가짜뉴스 근절 및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시스템 마련, 외국인 및 특수병상 등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환류로 부산형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하겠다.

□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정책의 필요성이므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의 성과가 발생률, 사망률 등으로 축소될 필요는 없고 팬데믹 상황에서 주민의 온존(well-being)과 복리(welfare) 자체가 더 큰 성과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삶의 조건에 따라 감염의 위험뿐 아니라 감염 이후의 중증도, 처치 결과, 회복 경과 등 모든 건강 과정이 다르므로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미충족의 차원(소득, 일자리, 거주지의 의료 자원, 돌봄 등)을 파악하는 한편, 해당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건강재난에 이르는 취약성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구조, 기후변화와 연관된 위험까지 종합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2023년말 발표된 건강도시 제6조의 5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에서 도시건강프로파일링을 통해 주거환경, 사회경제적 상태 및 형평성 등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도 선도적 방안일 것이다.

▶ <그림 1> 팬데믹 방지를 위한 도시의 건강계획 수립과정

1. 계획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토대 마련(협의체 등)
2. 비전의 수립(인식-제기 및 전념 획득)
3. 프로젝트 관리(협의체, 포럼 등)
4. 자료 수집
5. 우선순위 이슈 개발
6. 전략 개발
7. 도시 건강 계획 작성
8.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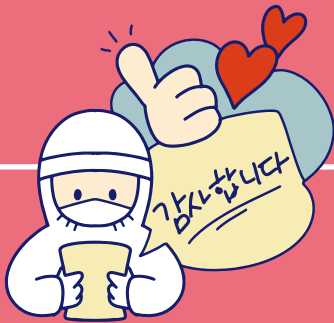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도시지표활용 가이드라인, 2024

IV. 참고문헌

1. 부산시 코로나19 대응기록물(2023. 8. 31.)
2. 부산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2. 5.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3.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2)
4.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백서(2023)
5. 화성시 코로나19 대응 백서(2023)
6.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백서(2023)
7. 2023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업무조정 안내서(2023),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 국외감염병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편익효과분석(2023), 질병관리청
9. 2015 메르스 대응 백서 (2015)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10. 2015 메르스 백서 (2016)보건복지부
11. 2020년도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 , 부산광역시
12. 2022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안내 재구성 자료:질병관리청
13. 감염병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 (2021) 식품의약품안전처
14.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3
15.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부산광역시 B구
16. 감염병위기시 보건소업무조정안내서_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3)
17. 국외감염병정보센터 구축에 따른 편익효과 분석(2023), 질병관리청
18. 김진순. 보건소의 기능 및 조직의 재편성 방안. 한국농촌의학회지 1994년 19권 2호 p.159 ~173.
19. 김창보 인간안보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특징과 건강정책의 방향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 Vol. 5 Special Article.
20. 김창엽. 보건소의 개편 방향. 한국보건행정학회 정책토론회, 1998.8 27 - 50 (24page)
21. 나백주(2021). 코로나19 유행은 향후 한국 보건소 기능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한공공의학회지, 2021년 5호
22. 로버트 H. 올켄, E. 풀러 토리 (지은이), 박종윤 (옮긴이) 이름, 2010-07-19
23. 문옥륜(1992). 우리나라 보건소 기능 활성화 방안의 도색. 보건학논집, 29(1), 37-64.
24. 박은자, 송은솔, 윤강재. 코로나19 유행기간 보건소 진료서비스 이용자의 보건소 서비스 중 단·축소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 pp.26-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박혜기(2021), 양유선,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량 변화분석. 대한보건연구, 47권 3호 p.33~44.
26. 배상수(2001). 공중보건의 역할변화와 보건소의 기능. 보건행정학회지, 11(1), 131-152.
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11.23.), ; 서울신문(2022.7.13.)
28.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depart/ahpolicy>)
29. 부산의료원. 부산부립 병원사 편찬자료 제1권
30.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더 란셋 지방 보건지(2022.11.17.)
31. 사물관리지침-행정기관용 (2003) , 국립보건원
32. 서민지, 조상옥(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과 지역주민의 코로나 블루 및 레드 유병 수준과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9), 313-320, 10.5762/KAIS.2023.24.9.313
33.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 5. 11), 관계부처 합동
34. 신종인플루엔자 A(H1N1)발생 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백서(2010), 행정 안전부 재난대책과

35.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예방 및 관리지침 (개정6판) 보건복지가족부
36. 우리는 모두 짐승이다 - 동물, 인간, 질병
37. 유정옥, 전경자, 송연이, 최선임, 김혜진. (2023). 보건소 간호사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단계의 실무경험: 간호역량 탐색.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7(2), 247-260.
38. 이수훈.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인간안보 개념의 변화와 국제기구의 역할 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안보정책분석. 2020년 4월 28일 file:///C:/Users/ghost/OneDrive/%EB%AC%B8%EC%84%9C/%EA%B1%B4%EA%B0%95%ED%95%9C%EB%B6%80%EC%82%B023/NASA_%EA%B5%AD%EC%A0%9C(%EC%9D%B4%EC%88%98%ED%9B%88).pdf
39. 이안나, 박완주(2022). 간호직 공무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충동성, 가족건강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6(3), 323-333.
40. 이해정, 박지범(2013). 인간안보:국제규범의 창안, 변형과 확산 국제·지역연구 22권 1호 2013 봄 pp. 1-37.
41.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2022) , 보건복지부
42. 전윤진과 이재은. 지역 보건의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기능 재정립에 관한 실증 연구. 국가위기관리학회보 제5권 제2호 2013.12 51 - 66 (16 pages)
43. 정은경, 부산광역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무자 협의체. 2023년 부산광역시 감염병 전문가 특강자료. 2023.11.6.
44.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 중앙안전관리위원회(2019)
45. 중앙재난대책본부 감염병 위기소통의 이해발체
46.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및 실행방안 개발(2008), 한국산업진흥원
47. 질병관리청 위기분석담당관, 공무원외출장결과보고서, 2023.3
48. 초의수, 고광옥, 황성원, 김희경, 백두주, 전필녀, 이우정, 이해정, 박진현. 재난에 따른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정책방안. 부산노동권익센터. 연구보고서 2-22-6-2
49. 강지선, 박혜윤, 이소희, 이지연, 이주연, 김연재, 권기태(2023),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처하는 보건소 공무원의 경험 및 스트레스: 질적 연구, 사회정신의학, 28권 2호 p.41~49.
50.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시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2020) , 부산연구원
51. 코로나19 이후 보건소 기능조직 및 인력 수요조사 , 보건복지부 (2021) 부산시 보건소 대상 자체분석
52. 홍남수 등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6권 제4호(2019. 10) pp.23-29 Korean J Health Educ Promot, Vol.36, No.4 (2019)
53.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3161053356580497
54. covid19.who.int/table
55. <https://training.fema.gov/emiweb/earthquake/nen0101220.htm>
56.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retrieved on 2017/3/8 from
57. 식품의약품안전처(2021),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식품의약품안전처.
58. 정은경(2017), 국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와 대응체계, 대한의사협회지, 60(4), p.296-299,
59. 변성수, 신우리, 조성(2018),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대응체계 구축, 한국콘텐츠학회, 18(7), p484-494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484> (표 41)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 정도





IV

부록

1. 코로나19 대응수기
2. 부산시 코로나19 보도현황과 키워드 분석
3. 부산시 코로나19 보도자료
4. 직원들의 한마디(Rolling Paper)

1. 코로나19 대응수기

부산광역시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체험수기 공모전을 2023년 10월 6일부터 10월 31일 18시까지 모집하였다. 공모 대상은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에 종사한 공무원 및 의료기관으로 공모전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와 불안 속에 피어나는 미담 사례, 코로나19 위기 대응 갈등과 극복 모범사례 등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현장 이야기를 담은 수기와 수필(부제)을 공모 주제로 하였다.

출품작은 표절, 모작, 대필작이 아닌 순수 창작품만 인정하며, 출품작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되어 홈페이지, SNS, 화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출품작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시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다.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품작을 백서에 게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품자의 추가 동의 없이 출품작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공모작은 총 28부가 모집되었으며 심사는 교수님 3명과 시청 직원 2명이 진행하였다. 당선작은 최우수상 5명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우수상 7명에게 5만원 상품권을,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1만원의 상품권을 시상하였다.



저놈의 전화기 확 던져 버릴까? 우짜겠노 내가 다녀오지 뭐~~

소속: 수영구보건소
성명: 의료기술6급 이명성

2021년 6월 17일 오전 ~

코로나19로 실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이젠 듣기도 싫다. 저놈의 전화기 확 던져버릴까? 요즘 전화기는 고장도 안 나는군~ 여기서 저기도 난리다 다들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분명 전화 받으면 욱부터 한 바가지 들을 게 뻔하다.

뭐 전화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욱으로 배부른 나도 불쌍하고, 동료 직원들도 불쌍하다. 하루 종일 전화와의 싸움이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울리는 저 전화벨 소리는? 아~ 역학조사 나간 직원 전화였구나..... 저 전화 당겨 받으면 또 늦게 받는다고 욱부터 한 바가지 듣겠지. 아~ 당겨 받아? 말어? 현타 온다.

그래도 다들 대단하다. 코로나-19와의 전쟁통에서도 진심이든 가식(?)이든 전화 받자마자 욱부터 들어도 친절함 목소리로 응대하려고 애쓰는 동료들이 다들 대단하다. 멋지다!!

“계장님~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변사자 발생 건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망한 날짜가 오래됐나 봅니다.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접수되어 사체가 발견된 사항이라고, 경찰측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관련 메모 자료 여기 있습니다.”

보자~ 경찰의 협조 요청 내용을 보면, 검안의가 사체검안은 조금 전에 실시했었고, 변사자 사망 일자가 한 달 이상 지난 건으로 추측되어, 코로나-19 검체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 이번 건은 다행스럽게 처리가 복잡하지 않은 것 같네~

“자 그럼 보건소에서는 청소업체와 주민들의 흡시 모를 감염과 악취 해소를 위해서 즉시 방역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방역팀에게 변사자 집에 방문해서 살균 소독과 부패에 따른 파리가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 살충 소독을 동시에 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아침 장비는 ULV로 준비해 주세요. 장비 충전 여부 꼭 확인해달라고 해주시고, 흡시 충전된 장비가 없으면, 유선 장비도 가능하니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기 계장님~

방역팀에서 다른 사망자 집에는 몇 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가보았지만, 오늘처럼 오래 방치되어 부패한 변사자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 방역을 꺼리고 있습니다. 방역업체에도 문의해 보니 변사체가 많이 부패한 곳에 대한 소독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지요?”

“우와~ 바빠죽겠는데 갑갑한 사항이네.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우짜겠노 내가 갔다 올 테니, 경찰서에 연락해서 police line 제거요청 좀 해주고, 현장 담당 경찰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연락처 좀 메모 부탁드립니다. 방역 장비는 차량 앞에 준비해 주세요.”

“보호 용구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 내가 챙기면 되고, 차량 배차요청 하고 운전도 내가 하면 되겠고, 현장이 넓지 않으니 혼자

다녀올게요. 다른 직원들은 오늘 확진자 역학조사 마무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고, 오늘도 퇴근 시간은 밤11시로 변함이 없겠군.

“네? 계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시게요?”

“할 수 없지. 이럴 때 써먹으라고 계장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다녀오지 뭐...

사실 변사체 있던 곳에 가보면 정말 그 분위기, 악취는 평생 못 잊을 거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 나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현장에 소독을 한 경험이 있어 한 번 더 간다고 나쁜 기억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니, 차라리 내가 갔다 오는 것이 좋은 방법 같아. 전임 방역담당자로 방역 장비를 다룰 줄 아는 것이 이럴 땐 도움이 되는군.”

“아, 예~ 계장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 다행스럽게 변사체는 119에서 이송한 후였지만, 이리저리 뒹구는 가재도구, 신발 바닥으로 전해지는 부패물의 찌득한 액체의 끈적임과, 멈춰버린 벽시계, 철새처럼 내가 움직일 때마다 군무를 이루어 활공하는 파리떼, 사체 부패한 냄새.....,

참담한 현장 모습은 짧은 방역시간과 반대로 오랫동안 내 기억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장 방문 시 police line 해제와 주민통제를 도와주신 경찰관, 끊어진 전기를 연결해 주신 아파트 관리실 직원과 통장님, 야구르트 한 병을 주머니에 넣어주시며 수고했다며 따스한 말씀으로 방역을 완료하게 도와주신 이웃분들께서 또 나를 감동시킨다.

그 순간 우습게도 이 한마디가 생각났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맛 나는 곳이야!!”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 일처럼 도와주시는 이웃들이 있어 힘든 기억은 한입 솜사탕처럼 녹아 사라지고..., 방역 후 주의 사항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항을 잘 마무리하고 복귀하였다.

벌써 3년 8개월... 코로나19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그 가족들의 아픔과 불만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였지만, 내 일처럼 해결에 매달려 준 동료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작은 노력을 몰라줄지언정 저는 알고 기억하겠습니다. 끼이끼이 가슴으로 울면서도 씬 없이 달려와 준 동료직원 여러분들의 아픔과 희생을.....당신들은 나의 영웅입니다.



police line이 설치된 사건 장소 입구



해당 장소 방역 중

약속

(부제: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 소속: 동구보건소
○ 성명: 정신건강계장 김지영

2020년 1월 신종바이러스감염병에 대한 공문이 많아지면서 감염병담당자 2명이 보건소 1층 야외에 천막을 차리고 몇몇 민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모습이 그 시작이었다.

그 후 2월 본격적으로 모든 직원이 투입되어 간호직원들은 검체채취하는 방법을 배우고, LEVEL D 방호복을 입는 방법을 배우며 뭔가 모를 긴장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단단히 무장됨을 느꼈다. 초창기 우리 지역사회에 확진자가 생겨 접촉자들이 검사받으러 올 때 특히 내가 근무하는 사하구보건소는 관내에 신** 야고보지파대성전이 있는 곳이라 초반에 신** 교인들이 확진자와 접촉을 하고 검사받으러 와서 입구에서 “신** 교인 들어갑니다”하고 외치실 때 검체채취를 하는 나로서는 정말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았다. 우리 집 가족들, 연로한 부모님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까봐. 아마 뇌파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주~욱 인생이 지나가듯 그런 뇌파가 측정되었으리라. 4시간동안 방호복을 입고 화장실도 못가고 긴장 속에서 처음 검체채취를 한 날 머리가 온통 땀에 젖어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급하게 돌아와 밀린 업무를 하고 집에 오니 온몸이 으슬으슬 독감증상 같았지만 다음 날 쉬지도 못하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다시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는 아파서 3일 쉬는 지침 등 모든 것이 아직 사회분위기로 정착되기 전이었던 거 같다.

2020년 2월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꾸려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전문팀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건소 나름대로 차려진 선별진료소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주시고 호흡기 감염인 만큼 오염된 공기의 흐름을 최소화하고 교차감염을 막고 구민, 보건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선을 조정해주시고 시설, 장비를 보완 컨설팅을 해주셨다.

대구, 부산, 여의도 등 대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코호트 격리’라는 전문용어가 전 국민이 익숙해지는 세상이 되어갔다. 부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서울‘사랑**교회’에 다녀와서 검사를 받으러 왔을 때는.. ‘이렇게 멀리 있는 곳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 신념의 힘이란 무엇일까?’싶은 생각도 들었다. 서울 노량진 고시원에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도 부산 관내 우리 구에도 접촉자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수 있어, 세계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전국이 엄청 활발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 본연의 업무는 업무대로 다 하면서 주2~3회 평일에 들어있는 하루 4시간의 나의 순번에 검체채취를 하고 땀이 범벅이 되어 돌아와 다시 밀린 일을 하다보면.. 21시에 퇴근하기 일쑤였다. 주말에도 토, 일 중 하루를 꼭 나가야 하는 코로나 업무와 순번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런 검체채취 대상이 많아지면 갑자기 불러가기도 했다. 몸은 지치고 힘들어 약간의 우울감이 기저에 깔린 느낌으로, 평소에 웃음이 많은 편인 나도 웃음이 잘 안지어지는 경험을 했다. ‘몸과 마음은 역시 연결된 메커니즘이 있구나’를 체감하는 시간이었다. 마음은 뭔가 모르게 차분해지고 몸은 힘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국민들이 응원해주는 의료인이라는 자긍심이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하게 하는 힘이었던 거 같다.

젊은 20~30대 직원들과 검체채취하러 관내 요양병원을 직원 전수검사를 오전에 몇군데의 요양병원을 돌때는 우리 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요양병원 수를 가졌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젊은 직원들보다 느리게 하고 싶지 않아 무리해서 열심히 검체채취 하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머리가 핑~도는 ^^ 경험도 했던 기억이 난다.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위치에 면봉이 도달하여 검체를 충분히 채취해야 정확한 검사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 내가 정해진 깊이까지 유연한 채취봉을 넣다보면 민원분들이 “내가 여러번 해봤는데, 이렇게 깊이 안 넣던데 왜 이렇게 깊이 하냐!”면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면 “아, 네^^”하면 죄송해하고 말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된 취약시설 종사자 검사로 많이 피로도가 높아지셔서 예민해서 나에게 짜증을 내시나 보다’ 하고 이해하니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초반에는 보건소 모든 직원 1명이 코로나 확진자 한명을 하루종일 역학조사를 하면서 전염성 가능기간 동안의 동선, 접촉자를 알아내고 검사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사연들도 많았던 거 같다. 확진자의 배우자는 오히려 음성이고 확진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확진될 때 가정에서 부부의 화목함(서로 대화없음)이 감염에 오히려 안전함을 주었다 싶어 아이러니한 현실에 씁쓸하기도 했다.

역학조사를 하다보면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는 젊은 남성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했다.

그러다 확진자가 너무 많아져 1명의 직원이 15~30명가량의 역학조사를 맡다보니 가족, 동선, 접촉자 검사 안내, 접촉자 명단 완성하는데도 19시가 다 되어도 다 못해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 퇴근할 수 있게 다른 직원이 2명 정도 더 맡아주는 등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배려해준 기억이 난다. 그렇게 역학조사를 19시까지 하고 김밥을 먹으면서..21시까지지는 다시 본연의 업무 밀린 것을 하다 겨우 별보고 퇴근하는 생활을 연일 하게 되는 나날들이 있었다.

그 때 김밥을 매일 먹어서인지 당분간은 김밥을 보기도 싫다는 직원이 있어 웃음이 났다.

주말에 2일(토, 일) 다 쉬는 것이 정말 부럽고 가슴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밖으로는 눈물샘이 말랐는지 눈물조차 안 나오던 차에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중한 생명들이 건디다 못한 소식이 들려올 때면 더 마음이 아프던 시간들이었다. 끝이 날거 같지 않던 시간속에서 백신개발소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당시 화상영어 수업을 해주시던 영국에 사는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확진자가 적은 수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에 놀라셨고, 나도 영국 확진자 수나.. 당시 옆집도 못 가게 한 정책을 들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코로나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느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의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력은 강하나 상대적으로 치명률은 낮아 비교적 증상이 적게 지나가게 하는 오미크론이 유행하여 내심 다행이었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을 잘 지키고, 다양한 앱(마스크 잔여약국 현황 등)이 개발되고,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익숙해지고, 종교단체들은 만나지 못해 영상으로 미사, 예배를 드리고, 취약계층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주기적인 검사와 헌신, 진료의사 부족으로 공중보건의를 보건소당 2명씩 보내주신 일, 해외에 있던 국민들이 방역강국 대한민국으로 대거 귀국하던 모습, 대구에 확진자가 많아질 때는 전국의 의료진들이 대구로 향하고, 코로나 확진자 관리, 재택치료관리가 폭증하자 국가직 공무원(부산은 주로 부산세관 직원^^)이 한 보건소당 15명 정도 와서 근무한 일, 해외 입국자 호텔에 주말에 근무하러 갔다가 혼자 160명되는

환자(호텔객실) 체온 확인을 2회하고 건강이상자 병원이송 또는 코로나 재검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어까지 급하게 “체온이 몇도입니까?” 등 10가지 정도의 말을 인도네시아어로 적어 객실마다 전화를 하고 다음 근무번이신 직원에게 환자 인수인계 주던 일은 임상을 떠난 지 15년이 넘는 나에게 임상간호사가 다시 되는 기분을 느끼게도 해준 일 등 평소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지금도 먼 아름다운 기억처럼 지나간다.

고진감래.. 정말 힘든 고된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가고 싶은 해외도 여행하고 즐겁게 학생들은 학교생활도 하고, 일상 업무추진의 소중함도 알게 된, 일상의 달달함을 알게 해 준 코로나19.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는 확진자를 한명씩 말아서 건강은 어떠신지, 집밖에 못 나가시게 관리하던 시절의 일이다. 어느 80대 홀로 어르신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를 맡은 직원이 전화를 잘 못 받을 수도 있는 할머니를 위해 격리물품 전달부터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던 중 이제 격리기간이 끝나서 오늘 오는 게 마지막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다는 그 직원의 말을 외부검체채취(가족의 절반이 확진이 되어 격리 중으로 가족접촉자 검사가 시급한 가정에 직접 가서 검체를 채취)하러 가는 그 차량 안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마구 흘렀다.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격리 관리하는 직원이 이제 마지막이고 안온다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파서 그리 우셨을까.. 싶어 나도 눈물이 났다. 어르신들을.. 가깝게는 우리 부모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말아야겠다 느꼈다. 세상에 홀로 집안에서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은 행복복지센터 취미수업, 복지관 수업, 경로당 프로그램 등 그런 활동들이 코로나 때 일체 중단되면서 많은 분들이 인지저하, 우울감 등을 경험하신 사례들을 주위에서 종종 목격할 때마다 코로나가 남긴 영향은 너무나 다방면으로 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싶어 다시는 그런 신종감염병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힘들었던 순간을 겪고 이겨낸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위해 만나지 않는 선택을 했던 그 시절, 확진이 된 아빠가 가족(부인과 어린 자녀)를 위해 회사 쪽방(창고)에서 숙식기거를 선택하는 모습 등을 업무상 많이 목격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희생과 헌신, 본인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간병이 필요한 환자임에도 회사 구석 창고같은 곳에서 숙식을 선택하는 모습 등에서 코로나19가 준 고된 시간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적으로 불안할 때 우리는 더 우울하고, 불안할 때 더 아픔을 느끼고, 불안할 때 더 슬픔을 느낀다고 한다. 항상 언제 어떤 양상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각종 감염병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은근한 불안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정체 모를 호흡기 감염병이 우리를 끝이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서로 격려하면서 긴 터널을 빠져나온 거 같다. 이 경험을 다시 올지 모르는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공의료에 대해 생각하게 했던 코로나...

○ 소속: 해운대구보건소

○ 성명: 간호6급 이주정

2020년 1월, 아이들의 방학에 맞춘 블라디보스톡 가족여행이 계획되어 있었다. “코로나”라는 생소한 감염병이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소식 속에, ‘내가 감염병의 숙주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가족여행을 강행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던 때다.

아이들의 실망스런 한숨을 뒤로 하고, 점점 더 바빠져가는 보건소 코로나 대응업무에 전념해갔다.

수그러들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는 점점 공포와 함께 심각해져 갔고, 감염병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은 지쳐갔다. 건강증진 및 민원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에 집중했고, 구청 직원들까지 지원근무를 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덜 발생하는 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발생지역은 오염지역으로 인식되던 때, 대구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주위 지역으로 옮겨올까봐 경계를 하던 때다.

당시, 전국보건소장 회장을 맡고 계셨던 허목 소장은(현, 경남 김해시 보건소장) 심각한 대구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파견근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팀을 꾸렸다.

물론 온전한 자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소장의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 파견근무라는 대처에 충분히 공감했고, 힘을 싣고 싶었다. 리더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염병은 우리 지역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고, 함께 이겨내야만 했던 것이다.

걱정과 우려 속에 배웅을 받고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에 도착했다.

직원들은 당시 불구덩이 속 대구에 달려와 준 우리들을 감격으로 맞아주었고, 1인1실 숙소와 식사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 집중하여 일할 수 있었다. 입원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같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고, 한꺼번에 걸리지 않는 탓에 한달 넘도록 격리를 하는 가족도 있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곤란을 겪었고, 임산부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고함과 애원, 울음과 분노를 매일 받아내며 조금씩 쌓인 일들을 줄여갔다.

허 목 소장은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받아내야 했고, 혹시나 누구 하나 코로나에 걸려 올까 걱정을 안고 지내셨을 것이다.

“파견 간 직원들이 코로나 묻혀오면 어쩔 생각이요!!”

“제 정신이요? 우리 지역 감당할 인력도 모자란 판에 파견근무라니요!!”

분명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옳았다. 아니, 누군가 코로나에 걸리는 옳지 않은 상황이 되었더라도 그건 옳은 방향이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도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그리 깊게 하지는 않았다. 코로나 대응을 하며, 보건소의 역할, 지역보건과 간호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공공의료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본 시간들이었다.

공공의료의 방향을 올곧게 갈 때, 지역주민들은 감동하고 함께 참여를 하게 됨을 목도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아주 따뜻하고 고마웠던 시간이었다.



해당 장소 방역 중



얼음조끼 두 번 교체하고도 땀에 젖어 일하던 2020년 8월.



지역업체와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손길



존경하는 허목소장님과 용감한 대구지원 파견 팀원 (막내 전출로 소고기 사주신던 날^^)



코로나19 대응!!! 그 냉정과 열정 사이에 우리는, 두려웠으나 침착했고 어려웠으나, 치열했으며, 그리고 그 뜨거운 현장을 조금씩,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헤쳐나오고 있었다.

○ 소속: 해운대구보건소
○ 성명: 의료기술6급 허만혜

공무원 생활 10년을 보건소 재활사업에만 몰두하던 내가 2021년 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가 한참 위세를 떨칠 때 해운대구 감염병관리팀 주무로 발령을 받았다. 두려운 마음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휘몰아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나는 그동안 물리치료사로 재활사업만 해왔기 때문에 감염 업무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 모든 업무가 처음이었고, 어려웠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능력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병 주무 자리를 맡겨주신 만큼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인구 규모로는 제일 큰 구임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단 4명뿐이었고, 기존 직원들도 장기화되는 코로나 업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소 및 증진과 직원,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보건정책과로 동원·발령되는 등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 상황이었고, 인력이 부족한 다른 구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형편이라고 나 자신을 위로했다.

새벽부터 알지도 못하는 기관 전화, 각종 민원 전화, 각 부서에서의 전화·메신저대화·쪽지 등등 쉴새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연락들은 나를 코로나 폭풍 속에 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나게 해주었고,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식은땀이 절로 나는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어설픈 대처는 나와 함께 죽을힘을 다해 일하는 직원과 보건소를 욕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침착하고 의연하게 수행하려 얼마나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독이며 일했는지.....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모든 코로나 상황들이 나를 지치게 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나와 함께 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21년은 확진자의 접촉자도 PCR검사를 받고 격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 생계가 걸린 분, 접촉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분, 의료기관에 입원해야 하는 분 등등, 개개인의 수많은 격리하지 못할 사정을 가진 분들과의 전쟁의 연속이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막무가내로 검사하러 오지 않겠다는 외국인도 되지도 않는 영어로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내 인생에 다시없을 코미디의 한 장면으로 나중에 집까지 찾아갔었다.

해운대보건소로 발령받고 처음에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직원들의 지침과 피로감이었다.

팀장님과 나는 보건소 업무를 도와줄 전문인력으로 최대 26명을 채용하여 선별진료소 주증, 주말, 전산 및 행정인력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1인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그동안 여러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던 것을 정비했다. 추가 인력 채용 및 업무 세분화를 하고 나니, 선별진료소 운영이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서 전산입력 하는 등, 직원들이 밤 11시, 12시까지 근무하던 횟수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 조직에서의 적절한 업무 분장과 적절한 업무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사례로, 지금 생각해도 그나마 직원들의 업무 피로감을 다소 해소시킨 뿌듯한 일이다.

선별진료소 시설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임시 천막으로 만든 시설을 비와 태풍 바람에도 견딜 수 있게 컨테이너 시설로 다 바꿔야 했고, 근무자들의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에어컨이 전력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전기배선 추가 공사까지 실시했다. 예산이 부족하였으나 전기배선 설치 업체 사장님의 배려로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먼저 공사하고 예산 확보 후 공사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뜨거웠던 여름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업체 사장님이 관공서의 일이고 본인 딸도 공무원이라고 하시면서 흔쾌히 도와주신 걸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또, 잊을 수 없는 일은 관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등을 한 일이다.

이틀에 한번씩 주기적 검사를 위해 직원들이 동원됐고, 의료기관 의료진 및 행정부 직원들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는데, 그 힘든 시기,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의료기관, 시설 관리자 분들의 노고를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부산 노인 제3병원’이다. 여러 차례 코호트 상황으로 인해 병원 직원들도 지치고, 환자 관리도 힘들었을 텐데, 이러한 모든 상황이 끝난 후 보건소가 너무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마웠다고 오히려 말씀해주시고 집요했던 나의 요구를 정말 잘 들어주신 원장님, 보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한층 더해졌다.

두서없이 수기를 쓰다 보니, 새삼 다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난다.

열심히 일하던 중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다른 구의 동료들을 보며, 나 또한 이 일을 무사히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나날이었다. 하지만 어찌 나만 무섭고 힘들었을까, 감염병 업무를 처음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그럼에도 믿어주고 힘이 되어준 우리 해운대 보건소 직원 분들. 특히, 공무원으로 임용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몰아치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야 했던 신규직원, 우리 막내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다. 그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건 비단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나는 2년 5개월의 감염병 관리 및 재택치료 업무를 벗어나 물리치료실 업무를 위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있다. 아마 내 인생에서 그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일 것이다. 그 시간 덕분에 나도 모르게 어느덧 성장한 나를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씩 코로나를 겪지 않았다면, 또 그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몰랐을 공무원으로서, 담당자로서 나에게 부족한 면이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내가 낯설기도 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내가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느낀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견디고 버틴 나 자신이 대견하다.

핸드폰을 뒤지다 보니 내가 2021년 1월 26일 해운대구 감염병관리팀 주무로 발령받았을 때 혼자 끄적였던 일기가 있어, 그 당시 내 마음을 헤아리며 첨부해 본다.

‘2021. 1. 26.

2014년에 금정에 와서 2021년 1월27일 7년의 시간을 보낸 뒤

해운대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주무로 발령을 받았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지 싶다....

주님! 저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을 등에 업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제 뒤에 꼭 계셔주소서 ~~~’

끝으로 코로나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정연희, 조봉수 소장님, 그리고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 소속: 사상구보건소

○ 성명: 의료기술7급 천동훈

2019년 말,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처음 접하였다. 이듬해 1월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강간에 떠돌고 있을 때쯤, 나는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동에 따라 1월 사상구보건소로 발령 받아 물리치료 및 장애인 재활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전 근무지에서 감염병 관리계에 소속되어 방역소독 업무를 맡고 있었던 터라 신종감염병 유행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관련 업무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새로운 근무지에서 차츰 적응해 갈 무렵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보건소는 일반 업무를 중단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나에게는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를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임무가 주어졌고, 몇 개월 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가 이루어진 의심환자 자료를 감염병 웹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예전에 신종플루, 메르스 유행 기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금방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차츰 확진자가 증가하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목도하면서 이런 기대가 얼마나 설불렸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야간 및 휴일 비상근무에 조금씩 지쳐가기도 하였으나, 직접 코로나19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당자 아님”이라는 위치가 주는 상대적 안도감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연말이 오고 있었고, 소위 ‘시련’이라는 것이 내게도 찾아오야 말았다. 보건소 내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보건소장을 포함한 보건행정과 대부분의 직원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서 14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나는 왜 그동안 혼자 식사를 하고 동료들과 교류도 하지 않아서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지 못했는가?”하는 신세 한탄을 뒤로 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으로 나서게 되었다. 불행히도 그 시점에 관내 ○○교회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였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역학조사를 하는지, 어떻게 접촉자를 분류하는지, 검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디로 검체를 의뢰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업무 진행의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자의 자리에 있으니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남아있는 직원과 파견되어온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검사결과나 격리통보를 받지 못한 수많은 주민들이 걸어오는 전화 벨소리와 함께 심리상태도 붕괴되어 나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수습할 힘이 내게는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빨리 2주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 뿐이었다. 평일 휴일 없이 출근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자리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일이 진행될 리 없었다. 보건소와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수많은 항의전화가 구청으로 빗발쳤고, 타 지역에서 의뢰되어 오는 역학조사 협조 요청에도 응답을 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 보건소 사정을 알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1년처럼 느껴졌었던 2주가 마침내 흘러갔고, 반가운 얼굴들이 업무현장으로 복귀하였다. 그 막중한 책임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에 우선은 기뻐했으나, 뒤이어 찾아온 감정은 ‘미안함’이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동료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면서 그들에게 도움 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때의 다짐을 이어가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였고, 시간이 흘러 현재는 코로나19 업무 담당자가 되어있다.

길었던 4년에 가까운 코로나19 위기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했던 것 같다. 특히 우리 보건소의 젊은 후배 직원들이 선배들이 말지 않으려 하는 어려운 업무를 맡아 고생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다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2021년 겨울, 컨테이너박스에 사는 남자

○ 소속: 부산의료원
○ 성명: 의료사회복지사 박설영

이른 아침 조용한 사무실에 정적을 깨는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우리 대상자가 지금 병원으로 갈 건데, 좀 살펴봐 주세요. 경주의 어느 컨테이너박스에서 발견됐는데, 발에 괴사가 있고 컨디션도 안 좋아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뚝)”

익숙한 전화번호와 목소리. 늘 여유있던 그이지만 다급함이 느껴진다. 노숙인 지원 기관의 담당자다. 코로나19로 몇 달째 온라인 수업으로 집콕 중인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오후를 보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반차는 취소해야 할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가 협진의뢰 되었다. 진단명은 족부궤양.

“안녕하세요. 사회사업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어떤가요? 당뇨발인가요?”

“이분 동상이예요. 괴사가 심해 두발 다 절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꽤 오래 굶으신 것 같습니다.”

2020년 겨울,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는 하루 1,000명에 육박했고, 35년만의 기록적인 한파로 최저 기온을 연일 갱신했다. 모든 사회시스템과 외부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유난히 매서운 겨울, 파고드는 추위를 막아내기에 컨테이너박스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동상이라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그는 20년 가까이 천막을 제작해 온 재단사였다. 천막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직장의 폐업과 함께 실직하게 되어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직업을 바꾸었지만 코로나19로 일할 곳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했다. 두 발의 절단 수술을 앞두고서야 따뜻한 이불과 식사를 마주하게 된 그가 오늘날만큼 고단한 몸을 누여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서 치료받기를 바랐다.

수술이 시행되었다. 다행히 환신통 같은 이상감각은 없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절단 부위의 염증이나 감염 없이 상처치유가 우선되어야 했고, 후에는 그의 발을 대신할 보조기를 제작하여 적응해야 하는데,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회복과 치유에 최선을 다하는 사이 나는 긴급복지의료비 지원과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을 준비했다. 퇴원 후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을 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 지자체에서 요청받은 여러 장의 서류에 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전달하며 빠른 심의와 결정을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나날이 호전되었고 곧 퇴원이 결정되었다. 치료와 안정이 조금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 남은 치료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절단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도 지원받도록 계획을 세웠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모두가 힘든 요즘이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유난히 고되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다. 감염병은 일상의 제약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누구에게나 건강할 권리가 있으며 아플 때에는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었으면 한다. 우리는 언제나 그의 편에서 힘이 될 것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나의 센터일지

○ 소속: 영도구보건소
○ 성명: 기획감사실 조경주

2020년 1월 코로나가 발생하였다. 당시 나는 1월에 구청 문화관광과에 발령을 받고 축제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제며 행사며 모두 취소되었고, 그 자리를 메꾸기라도 하듯 새로 생긴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리고 2021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수그러지기는커녕 맹렬히 사람들을 위협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백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다. 백신 접종이라는 업무가 새로 생기고 각 지자체별로 TF팀이 꾸려졌다. 우리 구도 예외없이 TF팀이 생겼고, 얼마 뒤 동원근무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을 한번 맞는지 두 번 맞는지,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부끄럽게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발령 나자마자 임시로 설치된 보건소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날 나는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필수 대상자가 되어있었다. 접종 다음 날부터 버락치기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지침보다 항상 한발 앞서 보도되는 뉴스 기사를 보며 점점 긴장상태가 되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빈 건물 1층 내부를 예방접종이 가능하면서 안전하게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인원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해야 했다. 3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먼저 설치를 진행한 곳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고 다녀온 날부터 업체에 연락을 돌려 읍소를 하기 시작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센터에 간판을 달고 군인의 호위를 받은 소중한 백신을 배송받고 센터가 개소되었다. 센터는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았다. 특히 초반에는 어르신들이 우선 접종대상자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밤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다. 당시 작성한 예진표를 스캔해서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했어야 했는데 많이 방문한 날은 그만큼 스캔 작업도 더뒀다. 예진표에는 평소 앓고 있는 지병 등 의사가 예진한 사항을 적게 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접종 후 예후가 안 좋은 어르신들이 병원에 이송되면, 스캔된 예진표는 담당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항상 긴장상태로 근무했지만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수용인원의 몇배가 넘는 인원의 대기행렬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서 고성이나 난무했다. 하지만 동료직원들의 도움으로 간이의자 수백개와 천막 등이 순식간에 설치되어 금방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졌다.

예방접종센터는 구청에서 운영했지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관과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했다. 센터의 경계업무를 맡아준 경찰관, 백신의 호송 및 안전관리를 책임져준 군인, 백신의 접종과 예후를 관찰하는 의사와 간호사,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소방관, 촉박한 시간 속에 주말도 없이 신속히 설치해준 업체들,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수많은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 마음을 가지고 센터로 모였다.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을 위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버텨온 것 같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러한 위기가 또 닥쳐와도 혼자만의 힘이 아닌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나의 센터일지는 끝났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 오늘도 난 살아간다.

우리는, 단절되지 않았다

○ 소속: 북구보건소
○ 성명: 간호8급 이진희

2020년 3월 초, 나는 간호직으로 보건소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선별진료소는 밤까지 운영했기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다가도 교대 순서가 되면 밖으로 나가 방역복을 입어야 했다. 아직 추운 겨울의 쌀쌀한 느낌이 있는 그곳에서, 이름 모를 디제이와 게스트의 대화가 나오는 라디오를 흘려들으며 사람들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날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비례해 검사자도 폭증했고, 길게 늘어진 대기줄을 줄이기 위해 분주히 검체채취를 해야 했다. 출장 검체를 나갈 때면 검사 대상자의 집 계단이나 복도에 숨어서 방역복을 입었다. 어느 집으로 가는지 모르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역복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마스크와 고글을 쓴 얼굴은 답답했다. 흐르는 땀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출근 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그날의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배정받은 환자에게 전화하여 동선을 묻고, 현장 조사를 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사람들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멀어졌고, 만남과 소통은 제한되었다. 각자가 마스크에 가려졌고, 개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우리는, 단절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웠다.

밤늦게라도 올 한명의 검사자를 기다리며 히터에 녹였던 손, 길게 늘어진 줄을 보다가도 긴장한 검사자를 위해 무언의 격려를 전했던 눈,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이를 위해 조용히 내딛던 발, 밀려있는 일들을 뒤로하고 확진자의 힘든 상황을 들어주던 귀,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넸던 입. 힘든 상황에도 직원들의 모든 것이 시민들을 향해 있었고, 시민들은 서로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켰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오더니 내게 굴 두개를 주고 감사인사를 하고 갔다. 한 손에 다 쥐어질 만큼 작은 굴이었는데 내 마음을 너무나 크게 울렸다. 그때 내가 얼마나 환하게 웃었는지 그 가족은 모를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에 가려진 상대의 표정을 읽을 순 없지만, 그 속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역물품을 배분할 때도,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라는 이유로 장사가 힘들어진 곳에 방문하여 도움을 줄 때도 모두가 함께했다. 또한 보건소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과 연결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건강을 돌보고 지원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이다. 고립감을 느끼며 외로워할 이들을 위해 스트레칭 밴드, 컬러링북 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집으로 배송하고, 온라인 줌을 통한 비대면 건강강좌를 열기도 했다. 거리 캠페인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신적, 신체적 지지를 보냈다.

코로나19와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지원근무를 나가기도 했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여 하루에 많은 역학조사 대상자가 몇십명일 때도 있었다. 끝을 모르는 달리기를 하는 기분에 힘들다가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며 조금만 더 해보자고 스스로를 토닥였다.

2023년 10월 현재, 더 이상 역학조사도 하지 않고 격리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서로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를 알고 있다.

잠깐동안의 멈춤이 영원한 단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소속: 중구보건소
○ 성명: 간호7급 유나영

20년 12월 겨울. 나는 서부 터미널 인근의 사상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였다. 당시는 확진자가 급증하여 익명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급하게 투입된 의대생, 간호사, 행정요원들과 근무하면서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초반 세팅에서 마무리까지 좁고 고되었던 그곳에서의 5주가 5개월처럼 길게 느껴졌다.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확진자 역학조사를 하다가, 21년 8월 중구로 발령 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이동으로 와보니 신기하게도 난 또다시 선별진료소 담당이었다. 그 분야에서 종사해서였을까? 내 눈에는 시설, 체계 등 손봐야 할 부분이 더러 보여서, 현수막, 안내문, 배너 등을 포함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름 리모델링하고,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순환근무 하는 대신 전문인력으로 근무표를 편성하여 역학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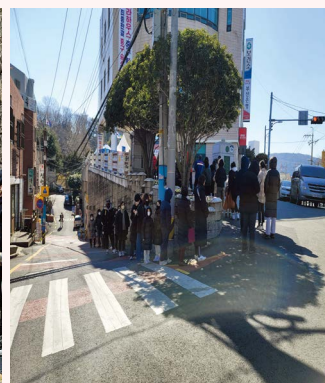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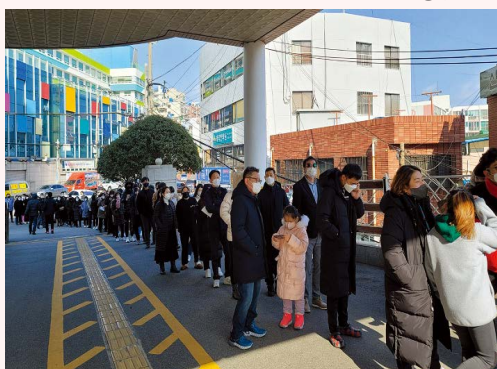
21년 겨울도 추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22년 새로운 멤버를 모집할 준비를 12월부터 돌입하였다.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사전 오리엔테이션, 인수인계, 방역 교육, 표준근로계약서, 보안서약서 등등 필요한 서류 작성까지 미리 마친 뒤, 1월 1일부터 바로 투입되도록 환경을 만들었다. 지금과 달리 당시 선별진료소는 대기 줄이 끝이 보이지 않고 공장처럼 돌아갔다. 하루 검체량이 수백 수천 건이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기에 미리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22년 2월경. 갑자기 신속항원검사 부스까지 추가 운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 시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다. 안 그래도 너무 전쟁터 같은데.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날씨가 다가오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다. 급하게 컨테이너, 천막, 컴퓨터, 검체 프린터기 등을 추가 대여·배치하고, 인력도 추가 채용하는 등등 세팅하느라 정신이 없는 나날이었다. 겉으로는 선별진료소가 그냥 굴러가는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22년의 경우 30명에 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복무관리, 인건비 지급, 4대 보험 신고·해지, 연말·퇴직 정산에 예산은 또 어찌나 많은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예산편성, 이호조 작업, 각종 서류 제출이 너무 많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임했다.

사실 이전 보건소에서 마을간호사를 대거 채용해본 경험과 인력지원 이전에 직원이 직접 검체 했고,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트레이닝(?) 을 거쳤기에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선별진료소!! 우리는 마치 모두 현대판 전쟁 같은 상황에서 최전방을 지켜내는 이등병의 심경이었다. 벌써 23년이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변한다고 했던가? 당시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내가 당시에 그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한다. 운명인지 본의 아니게 선별진료소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내가 하게 될 것 같다. 치열했기에 더욱 아름다운 추억으로 수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중구 선별진료소 전경



길게 늘어선 대기줄

힘들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

○ 소속: 남구보건소
○ 성명: 역학조사인력 권정아

‘팬데믹’ 즉 세계적인 유행병,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코로나’라 불리는 팬데믹의 공포 속에 많은 생활의 변화를 겪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막막함을 안고 지내왔다. 우리는 역학조사를 위해 여러 확진자들과 연락하며 입에는 단물이 나올 것 같은 경험도 했다. 따뜻한 물을 하루에 몇십 잔이나 마셔가며 목을 진정시켜야 했고 일부 확진자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우리를 난감하게 했으며, 때로는 막무가내의 욕설을 듣기도 했다. 청력이 안 좋은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는 사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큰소리를 질러야만 겨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기에 사무실은 마치 시장처럼 항상 시끌벅적했다.

현재 확진자가 감소하여 조용해진 사무실은 어색할 만도 하지만, 예전엔 그랬었지 하고 웃으며 말할 수 있는 동료들을 보며 그건 정말 먼 옛날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뭇 새삼스럽다.

많은 확진자분들과 역학조사를 위해 통화하다 보니, 수화기 너머로 그분들의 삶이 느껴졌다.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신 어느 어머니와 그분의 아들은 지체장애가 있었고 아들 역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이가 많은 어머니 본인도 건강이 안 좋는데 아픈 아들까지 보살펴야 했고, 대신 약을 타러 가줄 가족조차 없었다. 이런 힘든 상황을 나에게 하소연하며 수화기를 붙잡고 울먹이신다. 그 분께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 상황이 안타까웠다. 역학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겨우 “어머니, 그래도 힘내셔야 해요.” 하고 용기 내어 건넨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셨는지 연신 고맙단 말을 되새기셨다. 먹먹한 마음에 한동안 다음 역학조사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독거노인분들이 확진이 되어 통화를 하게 되면 마음이 더욱 찼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 오는 사람도 없다며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으시곤, 처음 통화한 나에게 자주 전화를 달라고 하신다. 역학조사와 상관없는 당신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 전화가 끊어지기 않게 애쓰신다. 나도 그 전화를 매정하게 끊지 못하고 잠시 키보드 자판기에 손을 떼고 가만히 듣곤 했다.

물론 기쁜 일도 있었다. 내가 건 코로나 양성 안내전화를 듣자마자 서러움에 복받쳐 우는 분이 계셨다. 그분은 암환자셨다. 암이 전이되어 몇 달 전에 신청한 예약이 이제야 겨우겨우 차례가 되어 서울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내 전화를 받은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서러우셨는지 전화 너머로 그분의 우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안타까운 사정에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무거워진 마음으로 ‘진정하시고, 힘내시라고’ 말을 건넸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담당주사님께 그 상황을 보고드리니,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격리조치를 면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반가운 마음으로 그 내용을 그분께 전달 드렸다.

많은 확진자분들의 감사하다는 말은 아직도 나에게 이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얼굴도 모르고 나와 대화했던 수많은 확진자분들의 안녕과 무사 건강을 빌고 싶다.

보건소에 밀려든 온정은 지친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 소속: 부산진구보건소
○ 성명: 보건소장 정규석

1.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저 같은 경우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가격리 여부나 주기적 검사 등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는데, 초기에는 특히 생계 문제로 이런 결과와 통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기준 안에서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니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 때문에 힘도 들었지만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제 마음도 좋지는 않았죠. 또 검체 후에 괜히 검사자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가격리자 분들의 상담 전화량도 상당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지 못하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2. 현장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요?

아버지와 아들 두 명이 함께 확진 판정을 받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는데,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데다 아들들도 확진자라 자가격리 중이다 보니 장례 참석도, 절차도 간소화해야 했어요.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는 직접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 보니, 어디가서 술이라도 한 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보건소라는 곳이 1차 대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은 지도 오래됐을 정도로 조심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부산진구는 확진자가 적더라도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긴장의 끈을 늦추거나 잠이라도 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이어지다 보니, 감염계 직원들은 한두 달 지나면 정신 상담을 받는 경우가 생길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육체노동이 아니라 정신노동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죠. 사회 전반적으로 더 안정되면 보건소 등 현장 직원들에 대한 관련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3.보람된 순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응원물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샌드위치 같은 것을 싸서 음료와 보내주시는 일도 있고, 여러 곳에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민 중 한 분이 전달해 주신 김밥이에요. 밤새 김밥 50줄을 싸서 가져다주셨는데 아직도 생각날 정도거든요.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부터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들어서 저희 먹으라고 주셨는데,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절대 어디에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4. 타 지자체와 다른 부산진구만의 대응방식이 있었다면요?

부산진구가 아무래도 대응 사례들을 워낙 많이 경험하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 처리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요. 또 부산진구만의 장점 중 하나가 구청에서의 업무 분담과 협조가 탁월합니다. 구청에서 직원을 파견해주시고 업무 분담까지 세세하게 진행해주시는 등 행정적인 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백신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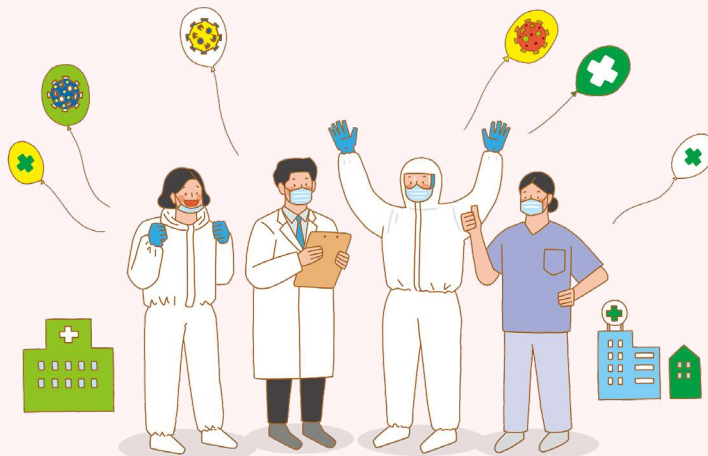
업무도 구청에서 분담해주신 덕분에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거든요. 부산진구의 경우 확진자가 부산 내 1위에 집단감염도 많아서 보건소가 다른 관련 업무까지 진행하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 점을 인지한 구청에서 업무를 분담해주셨고, 초기부터 저희가 현장역학조사에 주력해 온 것이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5. 백신접종 이후로 부산진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많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산진구가 부산 내 확진자 발생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건 변하진 않았어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특히 클럽, 주점 등 유흥업소 출입이 늘어나면서 확진자 발생이 늘어났어요. 또 델타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나서는 20~30대 중에도 위중 환자가 발생하고 확산세도 늘었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향후는 어찌 될 지 모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요즘 이야기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부산진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업소도 부산에서 제일 많은 곳이라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6.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부산진구에서 첫 번째 환자가 나왔을 때 가족과 여행 중이었는데 상황 발생 연락을 받고 택시 타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한동안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아이들과 해외여행을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에 충격을 기울이고 있어서 전혀 여유가 없지만, 원래 제가 보건소로 발령받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픈데 행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머지않아 제 바람이 꼭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감사 이야기

○ 소속: 서구보건소
○ 성명: 의료기술6급 허상미

2023년 3월 24일 비오는 금요일!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퇴근길을 막았다.

‘한국 여행을 오자마자 일본 여학생 가이(가명)는 코로나-19 확진이 되었고, 현재 묵고 있는 숙소 사장님으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기다림과 설렘으로 가득 찬 주말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 익숙해져 있다. 수년간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자연스레 말이다.

비오는 밤 늦은 시각에 그것도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재택) 장소를 물색하기란 정말 입이 바짝 마르게 하는 과정이었으며, 코로나 확진자의 이송은 늘 긴장감을 불러 왔다. 보호복을 착용하고, 쏟아지는 봄비를 뚫고 찾아간 곳에서 가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숙소에서 쫓겨났는지 가방과 함께 컴컴한 계단에 웅크리고 있다가 처음 본 나를 보며 살며시 안도의 미소를 짓는 것을 보니 갑자기 딸아이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처음 보는 나를 경계하지 않고 의지하는 그 눈빛을 보니 나의 마음이 흔들렸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격리, 그리고 불안함으로 가득 찬 가이의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였고, 격리기간 동안 한국의 음식과 정을 나누어 주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강타하였고,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나의 직업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3년 넘게 자리를 지킨 보건소 감염병대응계장이다. 불규칙한 출·퇴근과 자다가도 호출되어 출동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가족을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가이를 만나게 된 그즈음, 정신없이 코로나 시국을 달려오다 어느 날 문득!! 나의 아들이 나의 키를 훌쩍 뛰어넘어 많이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의 성장과 변화를 더 가깝게 지켜보질 못한 미안한 감정과 충격을 숨길 수가 없었다. 타인은 돌보면서 정작 나의 가족은 돌아보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 나의 마음을 힘겹게 하였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손편지를 받게 되었다.

“코로나 대응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엄마는 우리 가족의 자랑입니다. 헌신적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고 있는 엄마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응원합니다.”는 내용에 감사의 눈물과 함께 깊은 죄책감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다.

가족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어떤 어려움이든 가족은 나의 영원한 버팀목이며 나에게 큰 힘을 주는 위로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무사히 코로나19 격리를 마친 가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꼭!! 한국을 방문하겠습니다”는 그림을 그리다시피 한 편지를 쥐여 주며, 가족이 손꼽아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아갔다.

2023년도 8월, 격리할 당시 마음과 감정에 젖은 인사치레인 줄 알았던 가이의 약속은 엄마와 함께 한국을 재방문함으로 진실됨을 알려주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인연과 소중함의 감사를 위해 찾아온 그 정성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었다.

한평생 한 번도 와 보지 못한 한국 땅에 딸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은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는가... 멀리 떨어져 있어 발만 동동거렸을 가이의 엄마는 낯선 한국 여인이 아무 대가없이 딸의 안전을 위해 보살펴 주었다는 사실에 나를 만나자마자 두 손을 부여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마음과 언어는 서로의 눈물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다. 감사는 힘이 있었다. 그 감사를 표현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가이의 가족을 보면서 우리의 세계가 더 밝아지고, 더 큰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행복해진다. 나의 가족의 감사가 나의 마음을 치유했고, 가이 가족의 감사가 기나긴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하고 지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보람과 긍지라는 선물을 안겨 주었다.

감사의 순환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의 세계를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감사 이야기」는 끝이 아니며 선물과 같은 감사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가이(가명)의 가족」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 소속: 부산 강서구보건소

○ 성명: 간호7급 천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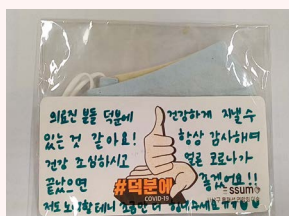
전 국민이 염원하였던 코로나19 감염증 종식이 코로나19 감염증 4급 하향으로 전환되면서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아직 하향되지는 않았지만, 자가격리·역학조사 미실시로 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뉴스를 보면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이전 감염병처럼 일부 국가나, 일부 사람들만 감염되고 지나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오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 3년간 그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종사자로 불리면서 일할지 생각도 못했고, 크게는 세계적인 재난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되돌아보니, 그 힘든 3년을 다 극복해낸 전 국민이 영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종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미담이나 체험수기를 작성하게 될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정신적, 체력적 한계에 다다랐지만, 시민들의 응원과 위로가 큰 힘이 되어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아이들이 손수 만들어준 쿠키, 더운 여름날 레벨D 착용으로 더위 먹지 말라고 후원해 주신 얼음조끼, 약사회회에서 보내주신 경육고 등 열손가락이 모자라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응원물품이 있었지만 ○○중학교 학생들이 손수 만들어준 천마스크가 가장 기억에 남고, 너무 소중한데 쓰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KF 마스크를 약국에서 줄서서 소량만 구입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KF 마스크의 대안으로 천마스크에 필터를 갈아 끼우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바느질 한땀한땀으로 손수 천마스크를 만들어서 응원 편지와 함께 보건소로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의료진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건강 조심하시고 얼른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라는 편지를 이쁜 그림과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몇 년 전 유명 모 드라마에 나온 장인의 한땀한땀보다 더 소중한 바느질이라 생각했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받은 포장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옷 단추가 떨어져서 바느질을 하다가 애를 먹었는데 성인인 나도 하기 힘든 바느질인데, 그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뭉클하였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19 그 힘든 시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서 가느라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공포스럽고,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많이 배우고 어려모로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 소속: 기장 현대요양병원
- 성명: 행정부장 구영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다 보니 코로나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슬픔이라 하겠다.

자식을 면회와 외출, 외박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어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외부와 단절되는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

비대면 면회로 간간이 볼 참이면 손 한번 잡는 것이 소원이 되어버린 부모와 자식 비대면 면회를 하면서 묻는 말이 우습기도 슬프기도 하다.

마스크를 내리며 “엄마 내 누고 내 모르겠나”만 10분간 외치다 눈물 머금고 돌아서는 자식들 하며 아들, 딸을 보고도 “누구요 누구요”만 묻는 치매 어르신 치매 없는 분은 “내 언제 집에 가노” 말만 반복하니 코로나가 만들어 낸 슬픈 풍경이다.

그나마 이분들은 행복 한 편이다.

코로나로 위급해져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신 분들의 비보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틀 전만 해도 우리와 웃으며 얘기를 나누신 분들인데 코로나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을 때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하다. 직원들 스스로 결혼식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고 부모님 장례에 참석 후 격리하고 출근하기를 반복하는 일상이 이어졌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꾸었고 지금도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가 일상적 감기로 변해 가는 듯하지만, 기저질환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걸 요양병원 직원들은 알고 있으니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진행 중이다.

코로나로 입원환자가 대폭 줄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아팠던 일이며, 코호트 격리로 무더운 여름날에 방호복을 입고 지쳐서 일하던 의료진과 직원들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현실이 불행하지만, 한편으론 지구촌이란 말이 코로나 시국처럼 와 닿은 적도 없다.

자연계 일부가 인간이고 그래서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모든 생명체가 공존해야 하는구나 라는 반성과 깨달음의 계기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나 혼자 잘살면 된다는 이기심도 바이러스 앞에서 무너지고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바이러스에 감사(?)해야 할까

코로나의 정의는 슬픔이지만 코로나의 결론은 사랑이라 생각한다.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고 지낸다는 글귀가 떠오른다.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의료진과 종사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구보건소입니다."

- 소속: 남구보건소
- 성명: 실무수습 나다송

2021년 12월 20일 부산시 세무직 공무원으로의 첫 수습 자리는 남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코로나19는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졌었고, 내가 직접 대면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기에 보건소의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행여나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세무직렬이 보건소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른 직원들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다르게 위험하다고만 생각했던 보건소는 다른 곳에 비해 안전했고, 보건소의 모든 직원들은 국가위기 속에서 보건소 업무를 도와줘서 고맙다며 따스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질병관리청시스템, 예방접종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 업무 전반을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의 친절함 덕분에 업무를 반복해가며 천천히 익힐 수 있었고, 비로소 팀의 일원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의무인 공휴일 출근, 설 새 없이 해내야 하는 역학조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전화. 너무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남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은 있었지만, 양성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눈물을 보이는 직원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약을 먹어가며 업무를 해내는 팀원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휴일을 반납하고 팀원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팀장님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으며 '실무수습'이라는 딱지를 떼고 감염병대응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해내고 싶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며 힘든 일은 서로 하겠다고, 많은 일은 나눠서 하자고 했습니다. 저에게 도저히 일을 나눠줄 수 없다며 미안해하는 직원들에게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 말해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만의 일이라면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고, 우리는 한팀이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하에 남구보건소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료업계 종사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추웠던 작년 겨울로 돌아가 다시 남구보건소 실무수습으로 근무하겠냐고 물어보신다면 "네!"라고 고민 없이 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실무수습의 신분이 아닌, 영도구로 정식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건소에서의 경험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구보건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공감과 이해로 코로나를 극복하다

- 소속: 영도구보건소
- 성명: 간호8급(실무수습) 배숙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며 재택 치료를 하던 시기에 보건소로 민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문자가 왔는데, 뭘 신청하러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픈데 이런 거까지 알아서 하라는 거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은 짜증이 섞인 말투에 처음엔 저도 당황하였지만, 천천히 민원인분의 사연과 짜증이 난 이유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저도 재작년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2주간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밖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 등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하고 힘들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원인 분의 답답한 심정을 공감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 목록과 약 처방이 가능한 병원, 집안 소독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저 공감하고 간단한 정보만 제공했을 뿐인데 짜증 섞인 민원인 분의 말투가 바뀌더니 먼저 사과를 하시면서, “내가 아까 너무 답답하고 신청하는 게 어려워서 화를 낸 것 같다. 공무원분들도 고생이 많은데 미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힘들었던 민원인분들에 대한 마음이 사르르 녹듯이 풀리면서 나부터 조금 더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핸드폰 사용이 아직 서투신 어르신들께서는 간단한 것들도 어렵게 다가올 수 있고, 편리하고자 만든 URL 자기기입 같은 것들도 누군가에게겐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분과 통화 후 시에서 제공하는 물품이나 구에서 주는 식료품 등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은 어르신들께는 역학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물품 신청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몇 달 뒤 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친절공무원으로 추천을 받게 되었고, 확인해 보니 그때 그 민원인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 많은 도움을 줘서 편하게 재택 치료를 마치셨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엄청난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제 경험을 빚대어 공감하고, 격리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챙겼을 뿐인데 이렇게나 감사해 주셔서 뿌듯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구호물품 지원뿐 아니라 응급상황 시 의료기관 안내,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등 먼저 민원인 분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안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서로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에 드디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이런 팬데믹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속한 대응체계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라는 면역을 갖췄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공감과 이해, 협력을 통해 어떤 시련이 와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련을 이겨낸 우리 모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한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길 간절히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전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들도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거동불편자, 인지저하자, 미취학아동 등 스스로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확진자 가족의 검사 안내를 위해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냈지만, 확진자는 연락두절이었습니다. 혹시 확진자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보건소 급급차를 타고 확진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확진자 가족에게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고 안내만 하고 나오려고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뿐인 확진자의 가족은 인지저하자인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남성이었습니다.

결국 AP가운, 페이스실드, 마스크, 폴리글러브만 착용하고, 버둥대는 그분을 붙잡고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AP가운도 찢어질 뻔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원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니 뽀듯했습니다.

부산시 코로나19 백서 | 283

작은 배려

- 소속: 영도구보건소
- 성명: 의료기술9급 하원정

“따르릉~따르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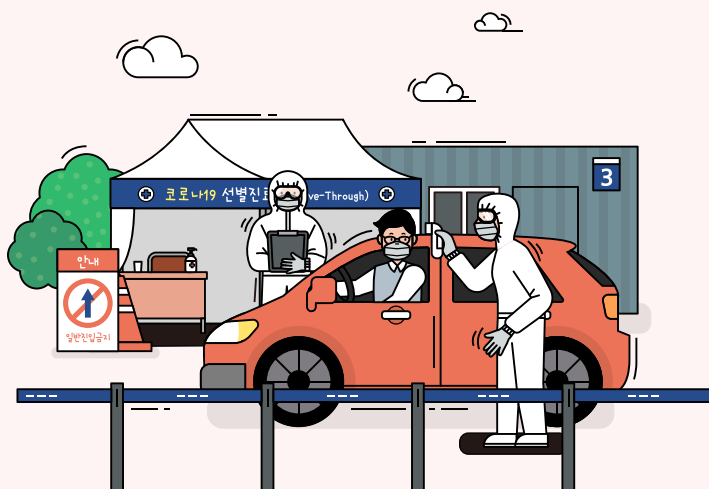
보건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확진자였습니다.

“확진자 가족도 검사를 지금 받으라는데, 부모 둘 다 확진이고, 자녀는 이제 5살인데, 대체 어떻게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다 확진이 된 상태라 5살 된 아들이 걱정되었는지 걱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자차가 있으시면, 부모님 중 한 분이 아드님 태우시고 보건소 주차장까지만 와주시겠어요? 차에서 내리지 마시구요. 그러면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타계신 상태에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둘 다 확진이 된 것도 걱정인데, 아들까지 어려서...”

주차장에서 아이의 검사를 마치고, 엄마는 연신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럽고, 막막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코로나 대응 근무를 하면서 감염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던 때였지만, 저의 작은 배려와 도움에 힘을 얻었다는 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협동심으로 이겨낸 코로나19

- 소속: 동래구보건소
- 성명: 보건행정과 권우성

“내 일하기에도 벅차요...”

나는 워크홀릭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자부하는 나지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게 좋았고 다른 직원의 일을 도와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다.
나의 일이 아닌 것에 책임지게 되는 것이 싫었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생각은 코로나19라는 괴물을 만나기 전까지였다.

“제가 이 일은 잘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코로나19가 발발한 초기에는 제도도 인력도 방법도 모르는 암흑지옥이었다.
담당자는 매일 야근에, 민원인들의 불안감을 홀로 뒤집어쓰고 길도 없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다.
대면업무를 주로 하던 내 업무가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고
매일같이 울면서 지쳐가는 담당자를 보니, 저절로 이 말이 나왔다.
당연했고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나는 뭘 하면 될까요?”

보조역할임에도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의 일이었다.
내 옆의 동료가 흔쾌히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다음 동료가 그리고 그 옆에 동료가, 같은 말로 여기저기에서 손을 내밀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무서워졌다. 동시에 우리 동료애도 더 뜨거워졌다.
밤을 새우는 날에도, 민원인들의 감정을 뒤집어쓰는 날에도, 목소리가 잠겨서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도
함께여서 버티고 버틸 수 있었다.

“우리 그때 그랬었죠, 대단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 어느새 잠잠해졌다.
한 명으로 시작된 담당자는 어느새 우리로 변해 있었고 모두가 주인공이자 승리자였다.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같은 마음으로 모두 같이 이겨낸 대단한 경험이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았지만 모두들 하나씩의 영웅담과 자부심이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뜨거웠던 그 코로나19의 시간을, 한편으로는 감사하며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만남

- 소속: 해운대구보건소
- 성명: 엄수정 외 3인

#1. 엔데믹 상황에서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방문검체’

고위험환자 및 거동 불가능한 분이라 코로나 PCR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검체팀 직원이 직접 환자택으로 방문하여 검사 진행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선별진료소 근무를 하는 중에 방문검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서 도착 예상 시간을 말씀드리고 방문검체를 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방문검체 의뢰인 집 앞에 도착해서 방호복, 페이스세드,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여 준비를 다 마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문을 열려고 다급하게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분 정도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던 상황에 보호자가 불일을 보고 다급하게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보호자가 문을 열었는데 알고 보니 환자분은 걸을 수 없는 반신마비 상태이면서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현관문까지 기어 오셔서 문을 열려고 20분간 혼자서 애쓰신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현관문 앞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계셨는데 저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20분 동안 저희도 땀이 범벅이 되었지만 그 미소를 보고 지치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검사를 다 마친 후 환자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하자 환자분께서 웃으면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작은 몸짓에서 고마움과 수고 많았다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2 해운대구보건소만의 포토존

“두 분이 손 꼭 잡고 내려오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는데...”
 “어, 사진이 너무 좋네요. 안 그래도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PCR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향해 두 손을 꼬옥 붙잡고 부축하며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멀리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어 훗 결례인 듯 조심스레 보호자에게 사진을 건네면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두 분의 관계는 모자 관계였으며 보호자인 아드님께서는 우려와 달리 두 분만의 사진이 없었는데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라며 좋아하셨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가는 내내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두 손 꼬옥 잡고 내려오던 그 모습이 계속 아른거립니다. ‘두 분이 함께 해운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도, 우리가 해운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팀의 일원으로 함께한 것도! 이 모든 만남 또한 귀한 인연이 아닐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금의 여운은 계속 남아있을 듯합니다.



해운대보건소 선별진료소 종사자



두 손 꼭 붙잡고 내려오는
다정한 모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큰 보람을 느끼다!

- 소속: 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 병원
- 성명: 간호사 장희원

코로나19 팬데믹, 바로 폭풍 속에 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약 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병동 내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환자들과 재택 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동시에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업무도 혼선이었고 저 자신도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침상이 부족해 매일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또한, 재택 치료를 받는 코로나 환자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환자들의 상태와 치료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감염병 팬데믹과 이에 따라 쏟아지는 환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여러 지침들로 인해 업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할 때는 먼저 환자들의 체온, 호흡 상태, 증상, 정신 상태를 24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환자분들이 스스로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이송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재택 치료 근무 당시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가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집에만 있으면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래 듣기, 그림 그리기, 최신 드라마 시청 등을 권유하며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하는 등, 환자가 유선 상으로라도 위로를 받길 바라며 진심을 다해 환자분을 대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지루했던 격리 기간에 많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주셨을 때, 이러한 작은 노력이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어드린 것 같아 무척 기뻐한 경험이 있습니다.

병동 내에 있는 직원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자가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침 근무와 저녁 근무를 연속해서 일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 내내 근무하며 휴일을 반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한 명, 한 명 세심하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의 회복까지 책임졌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환자와 직원 모두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저 자신도 감동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했지만 지나고 나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한국의 간호사로서 정말 보람찬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서로 협력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앤데믹을 맞을 수 있었고, 한국의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습에서 세계가 감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의 편지

○ 소속: 해운대구보건소
○ 성명: 운전8급 황문성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해운대구보건소에 감사 편지가 도착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2020년 3월 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28일 해운대구 보건소 민원실에 배달된 작은 택배 상자에는 체온계와 정성들여 쓴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진주에 사는 대학생이 보낸 편지에는 “진주 집까지 데려다주셔서 감사하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몇 달째 비상근무를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해운대구 보건소 직원들은 택배를 열어 본 후 눈물이 핑 돌았다.

한 직원은 주말, 공휴일도 없이 매일 오후 9시, 10시를 훌쩍 넘겨 퇴근하는 비상근무도 힘들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항의 전화에 시달리다 울음을 터뜨리는 직원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확진자의 집 주소를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공개하라",

"왜 내가 자가 격리를 당해야 하나"는 등 항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데다 평균한 통화당 20분이 넘게 이어지다 보니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편지를 보낸 학생은 부산의 모 대학 재학생으로, 지난 18일 해운대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발열증세가 있어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했다.

검사 후 학교 기숙사에는 다른 학생들이 있어 가지 못하고 진주 자택으로 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운대구 보건소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학생은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해운대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직원들은 "학생의 편지가 큰 위로가 됐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힘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헤쳐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안녕하세요!
저 저번주에 해운대구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받은 진주에 사는 학생입니다. 신
검사 받고 음성으로 결과 나오고 나서
직접 찾아뵙고 감사인사 드리면서 체온계 반납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나마 감사
인사 전하네요 ㅎㅎ 그대 직원분들 정신없이고
바쁘셨을텐데 저 진주까지 이동할 방법 찾아주시고
집까지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도 확진자 나오고 선별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체온계 등께 반납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고생하셔서 더 힘내세요!! ♡

편지 내용

우리들의 코로나 대응기

- 소속: 영도구보건소
- 성명: 보건소장 박성률

길고 긴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제 endemic화 되어 가는 것이 보이니 각종 매체는 앞으로 기후변화, 개발, 인류의 이동 등에 따라 감염병은 계속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온다고 경고합니다.

2020년 겨울, 우리 영도구에 주민자치형 공공 보건사업 관련 간호사 8명이 신규 발령받아 왔습니다. 코로나로 바짝 긴장하고 있던 터라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타구에서도 신규 간호사 전원이 코로나 대응 인력으로 투입된 사례가 있어서 전원 보건소에 투입되게 구청에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하루 종일 하얀 전신 보호복을 입고 검체 채취 등 코로나 대응에 몰입하게 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게다가 부산 모처의 시설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 각 구 보건소에서 몇 명씩 차출되어 가서 3교대로 일하며 대응하고 본 소로 돌아오기 전까지 감염 우려로 검사 및 일정 기간 격리 후 돌아오곤 했습니다.

관내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 보건소 및 구청 직원이 조를 짜서 같이 대응, 와중에 감염된 직원이 속출하고, 연이어 또 직원들의 가족들이 감염되고.. 그 중 기저질환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한 달 넘게 입원하기도 하고.. 가족 간 감염 우려로 아예 혼자 나와 따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하는 직원이 속출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지나면서 사회 전반의 과도한 불안 심리로 인한 온갖 거친 민원 전화, 터무니없는 과도한 요구 사항 속에 우리 공무원들은 점점 지쳐갔지만 혼자가 아닌 것을 감사히 여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검체채취, 역학조사 등 대응과 예방접종, 마스크 분배, 격리비 지원,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그 와중에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전국 각처에서 들려왔고... 저도 끝없는 검체 채취 대기줄, 온갖 민원 들을 대하며 너무 피곤할 때는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길 바라며 잠자리에 든 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조직이니 당연히 최일선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이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보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매체들은 공무원들의 안일함, 기타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대응에 나선 우리 보건소와 구청 공무원을 보면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독이며 버티어 온 것 같아 고개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3년 이상의 코로나19 대응, 우리를 지탱시켜 준 것은 ‘소명감’ 이었다

○ 소속: 기장군
○ 성명: 지방행정주사보 이동근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세계를 강타하고,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가족·친구·지인들과의 모임 자리, 늦은 저녁 야외에서 즐기는 야식, 심지어 마스크 없는 생활 등 이런 특별한 것 없는 소소한 일상들이 그렇게 값진 것이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코로나19 비상이 유지되었던 기간동안 국내 공무원들의 일상은 특히 제한적이었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확진자가 근무하는 기관이 일정 기간 폐쇄되는 등 강력한 방역이 이루어지던 초반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혹여나 나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노심초사하고 국가 방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20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내 전 세대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무상배부를 시작하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누구보다도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한다. 당시 나는 기장군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업무시간 외에 주말과 밤낮 가리지 않고 동료 공무원들 그리고 마을 이장, 통장, 반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 내 각급 단체 회원분들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소분·포장하여 가가호호 배달하며 “24시간이 모자라다”라는 말을 실감하며 매일같이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나는 2020년 9월 1일에 기장군청 재난 담당 부서에 발령받아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2022년 10월 10일까지 코로나19 업무 담당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은 확진자를 비롯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업무였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최초 발생한 이후 2020년 9월 1일까지 약 9개월간 누적으로 관리한 자가격리자의 수가 1천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면서 관리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수가 때로는 하루에만 수백명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도 했고, 2022년 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부터는 관내 확진자만 하루에 수천명이 발생하여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많은 시련과 고충을 감내해야 했다.

돌이켜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매분 매초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를 포함한 기장군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업무에 최선의 헌신을 다해왔다고 한치의 부끄럼 없이 자부한다.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각종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의 희생과 노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겪었던 것들 이상으로 크고 값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의료기관 종사자분들과 공무원분들의 ‘소명감’이 위기 상황 속에서 발현되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 소중한 헌신의 경험들이 자산이 되어 미래의 우리 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는다.

코로나19 업무 수기

- 소속: 연제구보건소
- 성명: 차현준

2022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다. 당시 코로나19의 여파로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강도는 절정에 달했다고 한다. 내가 거주하던 동래구 관할 보건소 근처를 지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 보았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사실 부끄럽지만 복직할 때, 보건소만은 꼭 피하고 싶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과도한 업무를 맡게 될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이다. 역시 우려하던 현실은 일어나고 말았다. 2023년 1월 복직할 때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발령이 났다.

첫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기우였을까? 감염병대응팀장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별문제 없이 잘 적응했다. 나름대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코로나19 관련 매뉴얼을 출력하여 여러 번 읽었다. 큰 맥락은 알게 되었지만 막상 코로나19 관련 민원 전화를 받으면 당황해서 옆자리 직원분께 전화를 돌리기 일쑤였다.

내 주 업무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관리하는 것과 재택치료 전반 사항이었다. 전임자분이 친절히 인계해주시면서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내가 본 첫인상은 스페셜리스트였다. 코로나19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업무를 하시면서 막힘없이 응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해 보였다. 마치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보건대원들처럼 보건소 직원들이 전원 합심하여 코로나19에 대응했다. 나는 2023년 7월 3일자로 건설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한편으론 코로나19 엔데믹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에게 햇살이 드리웠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 발 코로나19가 창궐하여 2023년 10월 2일 경계가 해제될 때까지 정말 다들 고생하셨다. 전국의 보건소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상생활 방역에 충실하신 모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가올 큰 행사인 2030 월드컵엑스포 개최지가 꼭 부산으로 선정되길 바라며 이만 줄인다.

우리, 다시

○ 소속: 부산의료원
○ 성명: 간호사 김은주

부슬부슬 봄비가 내리고 꽃망울이 터지며 봄 향기가 코끝을 따뜻하게 스친다 싶더니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 병원 전체는 똑딱똑딱 공사 소리로 가득차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처음 듣는 단어 속에서 내가 일하는 부산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환자를 전원하고 코로나19 확진 환자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감염교육에서 보던 Level-D 보호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은 사실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나를 지키는 유일한 보호구였다.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사태를 겪었던 선배들은 금방 지나갈 것이라며 다독이지만 빠르게 퍼지는 전염성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 떠들썩하던 상황들은 무섭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마스크 없이 생활은 아득한 과거 기억 속 세상이었다.

하루는 항상 부모님이 커두시던 KBS에서 익숙한 BGM이 흘러나온다. 아침마당에는 유명인들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의료진을 초청해서 그동안의 일을 듣고 싶어했다. 나보다 의료진을 잘 대변해줄 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선배의 추천으로 나가게 됐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수녀님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음압병동의 격리로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시면서 증상이 다발적으로 생겼다. 작은 증상도 놓칠 수 없기에 더 세심하게 대했다. 오랜 기간 입원하셨기에 간호사를 언니라고 편하게 얘기도 하고 퇴원하는 날에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시던 모습이 기억난다. 아주 해맑은 아이 같았다. 퇴원 후에도 병동으로 고맙다며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해인 수녀님의 시집을 하나하나 친필사인 받아 선물해 주시기도 했다.

다음 질문으로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지 물었다. 그제서야 나의 주변을 돌아보니 2년 동안 나는 어쩌면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업무도 벅차 번 아웃이 오기도 했다. 의료진 외에는 출입이 힘들었던 확산 초기, 환자들 간호부터 식사제공, 폐기물 청소, 택배 전달까지 모두 간호사의 몫이었다. 불안감에 예민한 환자들은 본인의 불편감만 먼저 해결하기 원할 뿐 의료진의 버거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럼에도 나를 버티게 해 준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분명한 건 혼자서 아니었다는 것이다.

같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같이 화를 내주기도 하고 선배, 후배 상관없이 먼저 더 많은 일을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누구 하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동료애로 버텼다.

또다시 병원에는 공사소리가 가득하다. 지정병원이 해제되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시 일반 환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에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건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차도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나오겠다는 후배들이,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며 격려해주고 해결책을 내주던 선배들이 아직 내 옆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늘 바라던 맨얼굴을 보는 시대가 왔으니 코로나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던 우리, 잘하리라 믿는다. 그래,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일하는 이곳은 공공병원이다

- 소속: 부산의료원
- 성명: 의료사회복지사 성화신

“보호자 없는 무연고자인데 거동을 못합니다. 지금 가면 입원이 됩니까?”

전화로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 나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사회복지사다.

짧은 문장에 담긴 여러 사연을 짐작해 본다. 일단 전화를 건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발견한 대상자의 입원을 돕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누군가이고,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며, 간호가 필요해도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제적 부분은 호소하지 않았으나 전화를 건 사람을 추측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지사이고, 그 외에도 갖가지 요구사항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일상적인 전화가 뚝 끊어졌다.

다니는 직장은 2020년 2월 국가지정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었다. 전체 병상 소개조치 명령을 받았다. 정해진 기일까지 병원을 통째로 다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안정을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했다. 예볼라, 메르스 대응 경험이 있었고,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관련 지식에 대한 테스트를 수시로 시행하는 곳이라 이번에도 ‘그러려니..., 곧 지나가려니...’ 했다.

“요는 코로나 소굴이다. 똑바로 체크 잘하쇼.”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한 내원객을 맞이하는 중에 들은 말이다. 병동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방문객의 발열체크를 하기 위해 조를 짜서 출입구에 섰다. 새해 첫날 내원객을 맞이하는 인사나 바자회 등 고객참여 행사를 기획하여 광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때와는 다른 차림새다. KF94마스크, 일회용 에이프런,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알콜솜으로 체온계를 닦아가며 내원객 한분 한분의 발열체크를 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했다. 하던 일을 놓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의아했지만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고, 당장 주어진 일들을 해내야 했다.

기한 내 환자를 퇴원하고 전원시키는 것을 도와달라는 급박한 요청이 이어졌다. 사회사업실에 의뢰된 다양한 사연을 가진 환자를 상담하고 지원했다.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어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현한 수많은 편지와 선물, 간식꾸러미를 전달했던 일로 분주했던 시간도 과거가 되었으나, 코로나19와 함께했던 긴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 뚜렷하게 남아있다.

부산지역 유일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역할을 무사히 수행하였다. 2022년 5월 정상진료를 시작했지만, 병상가동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감염병에 집중했던 3년여 간의 시간은 단골고객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부산의료원은 아직도 감염병환자만 보는 줄로만 아는 사람도 있다.

독감과 코로나 예방접종이 한창으로 고위험군인 영유아와 고령자는 무료진료 대상으로 정해졌다. 새로운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중이다. 우리 기관은 의료-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병원으로서, 그 안의 나는 지역과 의료를 잇는 의료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대상자의 건강안전망을 수호하기 위해 오늘도 분주하다.

한걸음 뒤에서 바라본 코로나19

○ 소속: 부산의료원
○ 성명: 공공의료사업 한지윤

2019년이 끝나가고 2020년이 도래하는 겨울, 코로나19(이하 코로나)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평범한 감기 중 하나일 것이라 가볍게 생각했던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비대면의 일상,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 등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과 함께 의료원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른 부산의료원의 전담병원지정 및 일반병상 소개조치, 전직원 코로나 대응 비상체계가 그것이었다. 시골벽적하던 병원은 긴장감이 흘렀고, 우주복을 입은(Level-D 보호복) 직원들이 원내에서 근무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다. 외래진료는 정상 운영하였지만 코로나 지정병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찾아오는 환자들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예전과 같은 날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는 코로나 최전선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 이어 나갔다.

글쓰이는 간호나 보건직군은 아닌 관계로 코로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유대감을 쌓지는 않았으나 행정지원, 방역지원을 수행하며 조금이나마 고통의 무게를 나누려 노력하였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고생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개인 및 단체에서 생필품 및 의료물품 등을 지원해 주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각 부서에 배분했지만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다. 지원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과 최전선에서 코로나 극복에 노력하는 분들의 힘듦을 이해하기에.

방역업무의 경우 추후에는 방역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지만 초창기는 비의료인력 중 일부를 선별하여 운영하였다. 방역업무의 주요내용은 폐기물통 수거 및 배출, 감염병동 및 영상촬영 장소의 정기적인 소독(방역)이었다. 한번 투입 시 평균 2,3시간 소요되는데 개인적으로 장시간 방역복 착용에 따른 호흡의 불편함, 시야방해(안경 미착용 및 고글에 끼는 서리현상)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졌다. 무거운 폐기물통을 옮기고, 소독통을 메고 병원 전체를 다니며 신체적으로는 힘들었으나 환자와 비접촉 상태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기에 심적인 부담은 적었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외부연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 등 사회적 문제로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요청이 증가하였다. 사회사업실, 3for1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및 자원연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병실 소개조치로 병실이 부족하여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공공의료 협력병원(10개소)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일반병상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을 본원으로 다시 안내할 수 있었다.

코로나를 겪고 정상화가 진행 중인 의료원은‘덕분에 챌린지’로 대표하던 코로나 최전선에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지역거점 공공기관으로서의‘명’과 반대급부로 정상운영 전환 1년 넘게 코로나 이전 진료실적을 회복하지 못하는‘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점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위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 하듯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극복해 나갈 거라 확신하며 이 글을 마친다.

코로나19에 대한 감회

- 소속: (전)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장
- 성명: 신제호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20년 2월 부산의 첫 환자가 생겼을 때를 되돌아보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민간병원과의 협조였습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시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은 운영이 힘들 정도로 재정적·시설적으로 어려워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받기를 꺼렸습니다.

부산시 내 28개 종합병원의 원장들과 함께 대책 회의를 할 때도 쉽게 협조를 얻어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00병원의 협조를 시작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른 병원들도 동참하여 한시를 덜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팬데믹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협조를 이끌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이란 것이 감염병이라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면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부산시는 바다가 인접한 항만이 있는 도시로 국·내외를 오가는 선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언어 및 소통의 문제로 외국인 선원 격리·코로나19 확진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격리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전국 항만 격리시설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여 정도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염병 및 의료부문에겐 문외한이었고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한편, 후임 국장님은 물론 부산시 전 직원, 의료진 모두의 희생과 봉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 부산시 코로나19 보도현황과 키워드 분석

자료 수집은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BIG KINDS(Big Data -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를 활용하였다. 검색방법은 월별 데이터(단순한 월별 뉴스 자료)와 유형 시기별 데이터(질병관리본부에서 구분한 단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검색어는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COVID19 등으로 하였다.

The image shows the BIG KINDS search interface. The top section displays search criteria: STEP 01 - 뉴스 검색, with filters for time (2020-01-20 to 2023-06-31), region (부산광역시), and keywords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COVID19). The bottom section shows search results, including a table of news items with columns for date, title, and source. A red circle highlights the search criteria section, and a red circle highlights the search results table.

STEP 01 - 뉴스 검색
((코로나19) OR (코로나) OR (코로나 바이러스) O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OR (COVID-19) OR (코비드19))

기간: 2020-01-20 ~ 2023-06-31
지역: 부산광역시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19, COVID19

STEP 02 - 검색 결과

STEP 03 - 분석 결과 및 시각화

검색어: 코로나19,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COVID19

분석 결과: 키워드 분석,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

키워드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빈도	비율	연관어	연관어 빈도	연관어 비율
1	부산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2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3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4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5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6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7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8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9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0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1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2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3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4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5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6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7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8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19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20	부산광역시	16229	100%	부산광역시	16229	100%

(자료원)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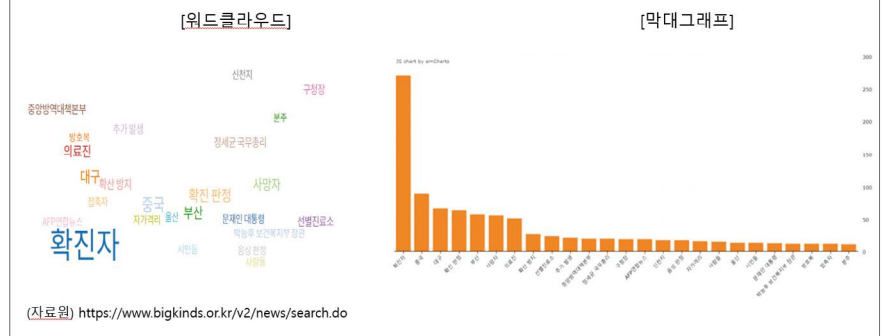
유행시기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분석하였다.

01 1차 유행(비수도권 중심 유행 2020.2 - 2020.5)

코로나 19 1차유행 기간의 보도 건수가 16,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특이한 키워드는 나병치료제 리토 나베르, 에이즈 치료제인 노피나베르 및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핀 등이 주요 검색어로 추출되었다. 1차유행 당시 치료제가 부재하여 이와 같은 약품에 대한 보도가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요 키워드로 확인된 인물명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특정기자의 보도 건수가 많았다. 기관명으로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보건 관련 기관들의 명칭이 확인된다. 장소는 중국, 우한, 후베이성 등의 명칭이 보이고 부산지역 언론의 특성을 반영한 부산도 주요 검색어로 추출된다. 선별진료소 등 역시 보도가 많았다. 관계도 분석의 결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유래한 코로나19가 부산으로 유입되는데 질병관리본부가 많은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The diagram illustrates the flow of information and data from various sources to a central point. The left section, titled '2019년도 학업수여서', lists sources such as 한신대학교 사서 AI80, APU, 경북대학교, AFPC한국, 한국과학기술원, 대우, 이화여자대학교, UCLA, AWS, 메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n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The right section, titled '2020년도 학업수여서', lists sources such as 한신대학교 사서 AI80, APU, 경북대학교, AFPC한국, 한국과학기술원, 대우, 이화여자대학교, UCLA, AWS, 메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n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The central point is a large red circle labeled '코로나' (COVID-19). A large green arrow points from the left section to the right section, and another large green arrow points from the right section to the central point. The diagram also includes a large red circle labeled '코로나'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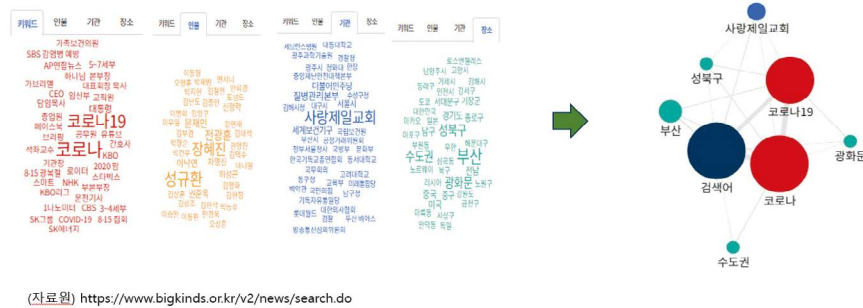
✓1차 유행(2020.2 - 2020.5):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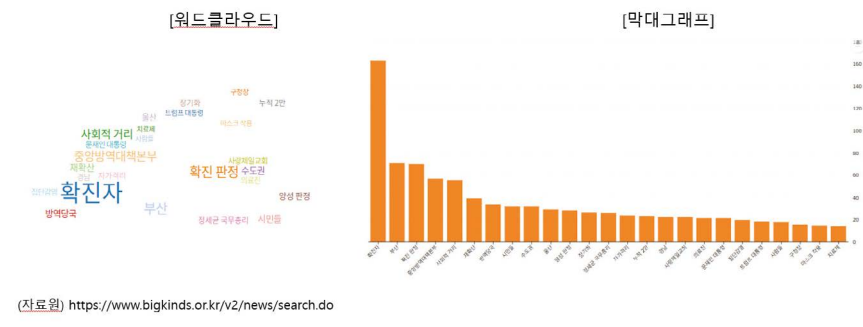
2차 유행(수도권
중심 유행 2020.8 -
2020.10)

연관어 분석에 따른 빈도별 분석에서는 확진자, 확진판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 재확산, 방역당국, 양성판정, 장기화, 집단감염, 마스크 착용, 치료제와 같은 검색어가 주요하게 등장함으로 당시 시민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국무총리,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과 구청장과 같은 범행정적 및 범사회적 대응을 주도하던 이들의 인명도 검색된다.

✓2차 유행(2020.8 - 2020.10): 관계도 분석(키워드+인물+기관+장소)



✓2차 유행(2020.8 - 2020.10):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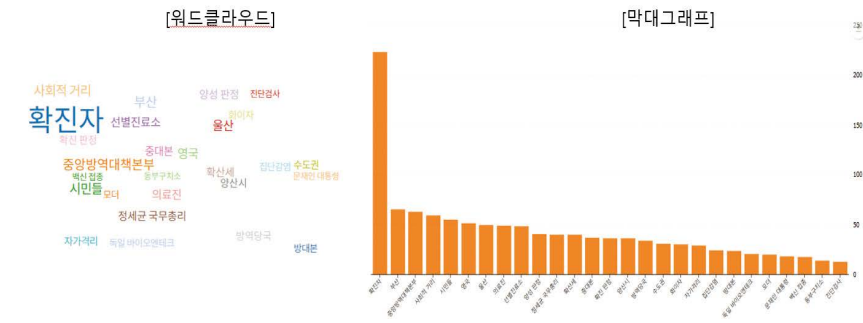


03

3차 유행(집단시설 중심, 2020.11 - 2021.2)

코로나 19 제3차 유행시기의 보도 건수는 13,875건으로 늘어나면서 백신의 긴급사용승인, 백신회사 이름인 화이자, 모더나 및 노바백스 등이 주요 검색어로 추출된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관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또한 검색된다. 국경봉쇄, 슈퍼컴퓨터 본부장, 과학자, 부총리와 함께 보건장관도 등장으로 당시의 주요 관심사 또한 확인할 수 있다.

✓3차 유행(2020.11 - 2021.2):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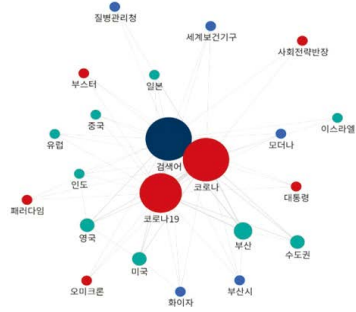


04

4차 유행(델타변이 확산, 2021.6 - 20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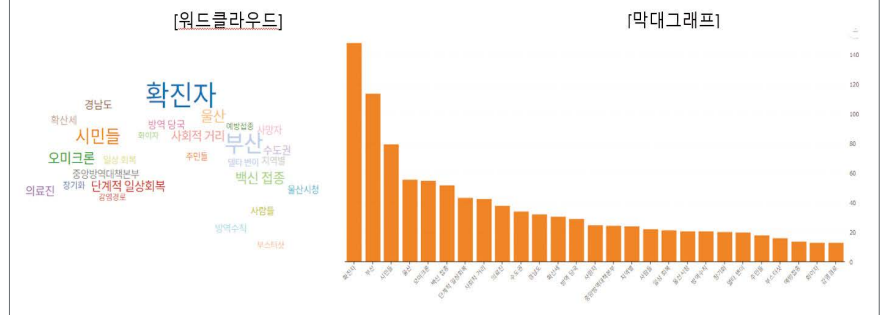
델타 변이 확산의 4차 유행 시기의 보도 건수는 17,843건으로 인도발 변이, 부스터 접종, 알파변이가 생긴 영국과 이스라엘 등이 주요 검색어다.

✓4차 유행(2021.6 - 2021.12): 관계도 분석(키워드+인물+기관+장소)



연관어 분석에서는 오미크론과 백신접종 외에도 단계적 일상회복, 일상회복 등이 델타변이와 함께 등장한다. 하지만, 장기화, 부스터샷, 예방접종 등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가 보인다. 주요 키워드로 확진자와 함께 시민들, 방역수칙이 확인되며, 방역당국이 감염경로와 함께 확인되는 만큼, 시민들이 방역당국과 방역수칙에 응대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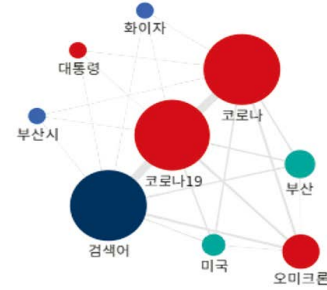
✓4차 유행(2021.6 - 2021.12):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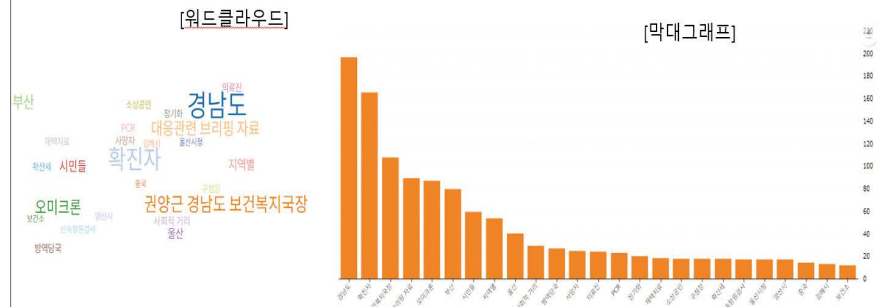
5차 유행(오미크론
확산, 2022.1 -
2022.4)

5차 오미크론 확산시기의 보도 건수는 6,531건으로 접종 관련 용어가 키워드이다.

✓5차 유행(2022.1 - 2022.4): 관계도 분석(키워드+인물+기관+장소)



✓5차 유행(2022.1 - 2022.4): 연관어 분석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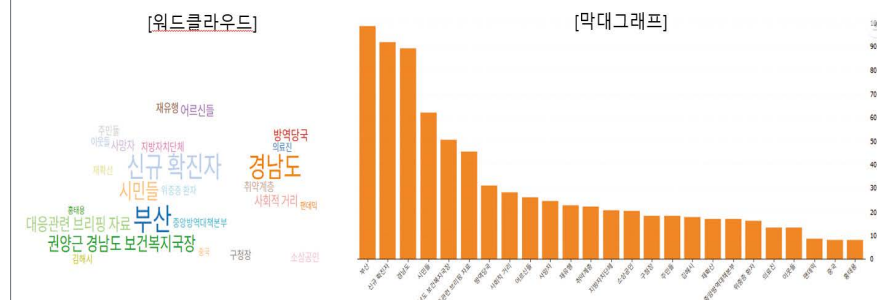
6차 유행(BA.5형
변이 확산, 2022.6 -
2022.9)

6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보도 건수는 4,025건으로 축소된 가운데 간호부장, 긴급사용, 원숭이두창과 정치인 이름 등이 검색된다.

✓6차 유행(2022.6 - 2022.9): 관계도 분석(키워드+인물+기관+장소)



✓6차 유행(2022.6 - 2022.9):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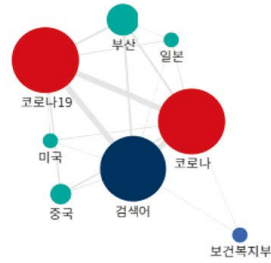


07

7차 이후 오미크론
하위 유행 반복
(2022.10. -
2023.08)

7차 이후의 오미크론 하위 유행 반복시기의 보도 건수는 5,922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일본이 등장함으로, 범사회적 그리고 범행정적 대응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엔데믹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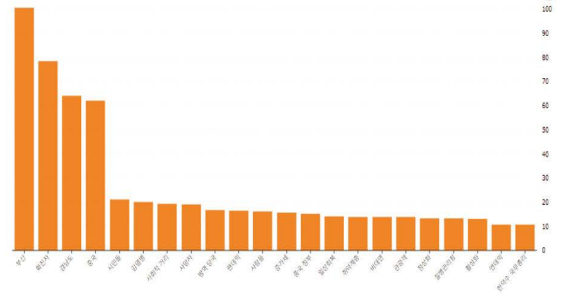
✓7차 유행(2022.10 - 2023.8): 관계도 분석(키워드+인물+기관+장소)



[워드클라우드]



[막대그래프]



(자료원) <https://www.bigkinds.or.kr/v2/news/search.do>

5. 부산시 방역·의료진 대구 파견 지원 (2020.3.10.)

부산일보사

급한 불 끈 부산 의료진, 대구 진화 발 벗고 나섰다

지역·대구(지역·경남) 지역·경북

2020-03-10 김성현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 부산 남구보건소는 의료기술직, 간호사 등 5명의 지원팀을 2주간 대구 북구보건소로 파견한다. 박지현(가운데) 구청장과 천국(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건소장이 이용주(왼쪽에서 세 번째) 의약관리팀장 등 팀원들과 파견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남구청 제공

"이젠 우리 이웃에게 도움을 줄 차례입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산을 소강 국면으로 막아 낸 부산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도 고통받는 대구 경북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남구보건소 직원 5명 파견 지원

2주간 자가 격리자 관리 등 지원

"위기 처한 이웃 돕는 것 당연"

부산시의사회도 인력 지원 계획

6.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5.24.)

울산매일

부산, 27일부터 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경북(지역·경남) 지역·부산

2020-05-24 김성태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버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부산시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버스 이용 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자율적 참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할 허용하는 동시에,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대부분 버스 승객의 마스크 착용이 정착화됐다고 보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단계적 등교에 따른 버스 내 각일 인원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이다.

시는 또 에어컨 가동이 필수인 하절기가 다가올에 따라 출해 시내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에어컨 살균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어컨 공기정화 방역 필터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에서는 스문전기사의 마스크 의무착용 스태프 내 손소독제 비치 스태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택 세척 및 방역 이형 스테이션 가동 시 장문 열어 환기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부산 / 김성태 기자

7. 부산 온천교회 완치자 집단 혈장 기증 (2020.6.9.)

국민일보

www.kmb.co.kr

인문 사회

부산 온천교회 코로나19 완치 청년 21명 혈장 기증

"치료제 개발에 기여... 마음의 빛 같고 싶어"

입력 2020-06-09 00:03

노장각 온천교회 목사(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등 교회 성도들과 부산시 관내 의료진이 8일 부산 연제구 사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완치자 집단 혈장 기증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마음에 빛이 있었는데 청년들에게 고맙죠"

부산 온천교회 노장각 목사는 8일 코로나19 혈장 기증 행사를 발한 교회 청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온천교회는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으로 집단 발생한 곳으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노 목사는 "우리도 코로나19 감염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에 감염 개재자가 될 수 있어 늘 미안함과 책임감 같은 게 있었다"며 "청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서 혈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더라. 피로 같지만 하더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가졌다. 시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와 관련해 단계별 혈장 공급에 의사를 밝힌 건 온천교회가 첫 사례라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b.co.kr

COPYRIGHT BY KUMINILBO ALL RIGHTS RESERVED

8. 항만 방역 비상 (2020.6.23.)

중부일보

"바다가 뚫렸다"...전국 항만 코로나19 방역 '초비상'

지역·울산(지역·경남) 지역·경북

2020-06-23 정재수

기사원문 스크랩 뉴스듣기

가 가

▲ 23일 부산 감천항에서 방역 요원들이 코로나 확진자 16명이 나온 러시아 국적 배를 환송한 A호(3전4011) 주변 부두를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 선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국 주요 항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A호(3전9331)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국 작업 등을 위해 A호에 올랐던 부산항노조원과 수리공, 도선사, 화물 검사사, 하역 업체 관계자, 수산물 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등 61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돼 진단 검사를 받는다.

항만에 입항한 외국 선원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인천항, 광양항, 평택대진항, 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뉴스

17. 부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2021.10.20.)

부산매일

부산시, 선제적 대응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대비

지역·대전 | 지역·부산 | 지역·충청

2021-10-20 | 1면

기사원문 | 뉴스룸 | 뉴스스토리

가

가

가

가

가

가

▲ 지난 19일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부산시 주요 간부회의 진행 모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정부가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해 10월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앞 다퉈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오전 주요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소문화?관광마이스(항공 및 관광업계 정상화 지원, 마이스행사 활성화 지원, 관광기밀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등) 소문화?의료(대학의료 중점, 현장의료봉사 확대 등) 소경제?민생(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 회복 지원대책, 중소기업 원호지원 강화, 비대면 경제활력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 소자재?안전(방산물 일상회복위원회 및 일상회복추진단 구성, 지역사회 일상회복 조성 등) 등 4대 분야별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장은 "부산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주간(11~17일) 확진자는 237명(하루 평균 33.6명)으로 격리투기 1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34명 미만을 충족하고 있고, 방역관리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경제?문화?민생 등 분야에서 선제 대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대국민 발표에 맞춰 '단계적 일상회복' 시에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4대 분야별 사회 각계각층 대표 및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 김승태 기자

18. 부산시 코로나 백신 접종 70% 달성 (2021.10.25.)

국제신문

부산시 코로나 백신 접종 70% 달성

김종진 기자 kji701@kookje.co.kr | 입력 : 2021-10-25 20:01:02 | 본지 8면

가

가

가

가

가

가

25일 부산 남구 백신접종센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했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부산시가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 26일 이후 242일 만이다. 김종진 기자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19.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2021.11.25.)

KBS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지역·부산 | 지역·경기 | 사회·노동

2021-11-25 | 이준석

기사원문 | 뉴스룸 | 뉴스스토리

가

가

가

가

가

가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에게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꺼릴 수 밖에 없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1인당 진료비와 보상비 23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진단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로, 검사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부산]

20. 방역패스 중단 (2022.3.1.)

중도일보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잠정 중단

지역·대전 | 지역·경기 | 지역·충청

2022-03-01 | 이영희 기자

기사원문 | 뉴스룸 | 뉴스스토리

가

가

가

가

가

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된 1일 대전 서구 월령동의 한 카페에 방역패스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영희 기자 token77@

306 | 부산시 코로나19 백서

21. 부산시 역대 최대 확진자 발생 (2022.3.17.)

KBS
부산 42,434명 확진...위중증 환자 113명 '급증'

지역·부산 | 사회·의료, 건강 | 지역·부산

2022-03-17 | 역문석

기사원문 | 뉴스크림 | 뉴스듣기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KBS 부산]

부산에서는 오늘 0시 기준 4만 2천434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처음으로 4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오후 2시까지만 9천34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32명이며, 현재 위중증 환자는 11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에 따라 부산시는 감염병전담병원 2곳을 새로 지정하는 등 중증증상 179개를 추가했습니다.

또, 소아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입원 치료를 위해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 8곳, 322병상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2. 부산시 재택치료 및 건강관리세트 지급 (2022.3.17.)

아시아경제
부산시, 60세 이상 재택치료환자에게 '부산형 건강관리세트' 지급

지역·부산 | 지역·부산 | 지역·부산

2022-03-17 | 연합뉴스

기사원문 | 뉴스크림 | 뉴스듣기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부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가 31일부터 60세 이상 재택치료환자에게도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를 지급한다.

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가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를 신속 합한 검사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시는 60세 이상 재택치료환자 중 신장기능이 정상인 경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한다.

65세 이상 집중관리군의 중독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를 신청해 받은 경우,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정부 집중관리군 재택 치료 도구는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 12세~59세 연령 중 ▲1인 가구 ▲통로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랑취득 중 ▲취득자 ▲60세 이상 고령자는 부산시 코로나19 누리집에서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확인 안내 문자로 신청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안내받게 된다.

지급되는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에는 매일제, 종합검진약, 체온계, 자가 진단키트가 포함되며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를 받지 못하는 환자도 중상·발행 시 동네 병원에서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도 예약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정부 재택치료키트 지급 시작지대로 중인 12~59세 일반관리군 취약계층에 대한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 지급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60~64세 취약계층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 재택치료키트 수급 불인정으로 65세 이상 집중관리군에 대한 정부 집중관리군 재택 치료 도구 지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18일부터는 시가 나서서 65세 이상 집중관리군 중 취약계층에는 부산형 건강관리 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23. 거리두기 해제 (2022.4.18.)

국민일보
757일 만에 일상으로...굿바이 거리두기

문화·생활 | 지역·부산 | 지역·부산

2022-04-17 | 이한형

기사원문 | 뉴스크림 | 뉴스듣기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서울의 거리두기 해제 후의 모습.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공원에 시민들이 모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18일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처음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행사 인원 제한,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된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은 10인으로 제한해 왔다. 행사와 집회도 최대 299인까지 허용하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로 제한해 왔다.

또 결혼식이나 콘서트장의 3백 명 미만 인원 제한도 해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실내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와 공연, 행사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한형 기자 goodh2@kmib.co.kr

24. 코로나19 등급하향 1급 → 2급 (2022.4.25.)

아시아경제
[포토]코로나2급 하향...대형마트 시식식음 가능

경제·금융 | 지역·부산 | 지역·부산


2022-04-25 | 문호남

기사원문 | 뉴스크림 | 뉴스듣기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사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식 코너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제신문


인쇄

닫기

마스크 해제 첫날 “조금 어색해”

매주연 기자 yeon@kookje.co.kr | 입력 : 2022-05-02 19:37:11 | 본지 1면

마스크 해제 첫날인 2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를 횡단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해운대 거리를 걷고 있다.



부산의 큰 목소리, **국제신문**

Copyright © kookje.co.kr. All rights reserved.

[illegible]

사회

코로나19 4등급 조정... 양성자 표본감시로 전환

▶

④ 김진환 기자 cgraph@tbs.seoul.kr 2023-08-31 10:2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늘(31일)부터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3년 반 가까이 이어진 확진자 집계가 중단되고, 이를 대신해 양성자 감시체계가 가동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31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일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자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와 표본감시의 중간단계 격으로, 독감 등 기존 호흡기 감염병 표본감시체계에서 산출어려운 연명 지역별 발생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감 표본감시(전국 196개 통폐합센터 220곳의 병원급 의료기관 원원조사) 보다 많은 527곳 의료기관이 주 1회 확진자를 총 집계하고, 이 중 105곳은 병원제 감시에도 참여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유행 양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신규 변이류 유행 등의 위험에 대비해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유행 양상과 변화를 초기에 파악하고 감염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전수감시+양성자 감시) 발생 현황>(명)('23.1. ~ '7.29)>

연월	전수감시+양성자감시	감시대상발생률	감시대상발생률/백만명
23-1	39,573	1,000	1,000
23-2	25,794	1,000	1,000
23-3	13,335	1,000	1,000
23-4	10,501	1,000	1,000
23-5	9,384	1,000	1,000
23-6	9,269	1,000	1,000
23-7	10,000	1,000	1,000
23-8	12,961	1,000	1,000
23-9	16,281	1,000	1,000
23-10	17,100	1,000	1,000
23-11	16,745	1,000	1,000
23-12	18,024	1,000	1,000
24-1	21,891	1,000	1,000
24-2	44,844	1,000	1,000
24-3	14,017	1,000	1,000

* Correlation Analysis: 상관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0.936

자료=방대본 제공/연합뉴스



부산시 보도자료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1.23.	<p>부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비상회의 개최</p>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물샐틈 없이 막는다! 총력대응 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오늘(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비상회의 개최... 총력대응 지시 - 국내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1:1 모니터링 지속하고, 비상방역대책반 통한 비상근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도... 상황 예의주시하며 신속한 대응 위해 '촉각' 	보도자료 (건강정책과)
20.01.29.	<p>부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지원 강화</p>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지원본부 별도 구성·운영... 재난관리기금 3억원 규모로 투입해 바이러스 예방 나서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 택시 등에 손 소독제 지원·안전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원도 	보도자료 (재난대응과)
20.02.05.	<p>부산시, 어린이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대책회의 개최</p> <p>어린이집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촉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4일) 보육현장 관계자 참여하는 '어린이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회의' 개최 - 부산시, 어린이집 손소독제 긴급 재포, 휴원 등 상황 악화 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추진... 보육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위한 협조 당부 	보도자료 (출산보육과)
20.02.05.	<p>부산시, 주요 호텔 및 관광지 등 코로나 피해예방 총력</p>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광현장점검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6. 부산시, 구군합동으로 주요 호텔 및 관광지 손소독제 비치, 안내문 비치 등 실태 점검 - 방역태세 지도점검 통해 주요 관광객 이용시설 피해예방 철저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0.02.07.	<p>동백전 쓰고 10% 돌려받고, 지역경제도 살리자</p> <p>동백전, 코로나 사태 속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일 기준 현재 가입자 수 13만 9천명, 충전금액 324억원, 결제금액 215억원... 2월 들어 일 평균 가입자 수 및 충전금액 전월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 - 17일부터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분증 및 동백전 카드로 충전 가능 	보도자료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20.02.12.	<p>사랑의 마음! 꽃으로 전하세요~ 부산 화훼농가 꽃 나눔, 보듬이 장터 행사 개최</p>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부산시가 화훼농가와 함께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 08:30~17:00 시청 1층 로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과 생활 속 꽃 문화 정착을 위한 부산 화훼농가 꽃 나눔, 보듬이 장터 운영 - 직접 행사장 찾아 참가자를 격려하고 꽃 소비 촉진을 권장 	보도자료 (농축산유통과)
20.02.14.	<p>부산 화훼농가 꽃 나눔, 보듬이 장터 행사 성황리에 종료</p> <p>코로나19 극복! 작은 꽃 나눔이 희망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 08:30~09:50 시청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생활 속 꽃 문화 정착을 위한 부산 화훼농가 꽃 나눔, 보듬이 장터 운영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화훼농가에 조그만 힘이 되었기를 희망 	보도자료 (농축산유통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2.14.	<p>부산시-BNK부산은행,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용금융 확대 협약</p> <p>코로나 피해기업에 신용등급 구분없이 1천억원 긴급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은행,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45억, 저신용사업자 지원 ‘모두론’ 50억 출연, 방역물품 5억 기부 - 1000억원 규모 피해업체에 긴급 지원 추진... 기존 지원상품 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우대 실시도 추진 	<p>보도자료 (혁신경제과)</p>
20.02.18.	<p>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p> <p>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 줄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피해 시민과 업체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납세담보 없이 연장 등 	<p>보도자료 (세정담당관)</p>
20.02.19.	<p>코로나19 대응 “현장, 현장, 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일 이케아, 효성전기, 태흥테크, 한국자동차부품소재산업기술연구조합 등 기업 현장 방문 집중... 오시장 “방역과 경제” 직접 챙기며 현장 소통 및 격려 	<p>보도자료 (제조혁신기반과)</p>
20.02.21.	<p>부산시, 2020 부산 공공기관 지역제품 합동구매상담회 개최</p> <p>부산 공공기관,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역제품 구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과 지역업체 맞춤형 구매상담회 - 2.26. 09:3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개,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14개, 시산하 공사공단 6개, 시 출자출연기관 7개 등 총 40개 공공기관 참여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지역업체의 맞춤형 매칭 상담, 우수제품 전시 및 홍보의 장 	<p>보도자료 (혁신경제과)</p>
20.02.23.	<p>부산시와 부산은행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금융지원 협약과 함께</p> <p>부산의 시중은행들,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에 적극 동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 유예, 금리우대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정책 동참 -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과 상공인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p>보도자료 (혁신경제과)</p>
20.02.24.	<p>코로나19 대응 5대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 개최</p> <p>부산의 5대 종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하나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4. 코로나19 지역확산 극복을 위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5대종단 대표 간담회 개최 - 다중참여 종교행사 자제, 보건당국 역학조사 협조, 위기상황 속 연대의식 강조 등 합의문 도출 	<p>보도자료 (문화예술과)</p>
20.02.24.	<p>코로나19 위기대응단계 심각 격상... 부산시, 민간 의료자원 총동원</p> <p>민·관 의료협력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 확산 막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24일) 부산시장 주재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장 및 관련 단체장 회의’ 개최... - 민간의료기관에 인적·물적 자원 총동원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응 위한 부산시-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정례회의 개최 통한 협력체계 강화 	<p>보도자료 (보건위생과)</p>
20.02.26.	<p>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위해 부울경이 힘 모은다</p>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02.27.	<p>코로나19 관련 소문 팩트 체크</p> <p>SNS에 퍼지는 부산 코로나19 가짜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소동, 사상구 뺑질 환자, 아파트 단지서 코로나 환자 이송 소문 모두 사실 무근 - 시 공식 정보가 가장 정확... 부산시장 “시민 불안감 키우는 가짜뉴스 확산 막아야” 	<p>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2.27.	<p>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각계 따뜻한 손길 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에 1천만원 전달 - 세운철강 신정택 회장, 코로나 피해자 및 지원 인력 등에 공탕, 갈비탕(1억원 상당) 지원 - 와이씨텍 박수관 회장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금 1억원 전달 	<p>보도자료 (복지정책과)</p>
20.02.28.	<p>코로나19 불안심리 악용한 금융사기 기승</p> <p>코로나19바이러스 문자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 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 클릭 금지,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비밀번호 입력 금지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 겨냥한 보이스피싱 등장 	<p>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p>
20.02.28.	<p>코로나19 확산 방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p> <p>부산시, 3·1운동 그 단결의 힘으로 코로나19 극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여파, 감염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 최우선 고려하여 3·1절 기념식 취소 	<p>보도자료 (총무과)</p>
20.02.28.	<p>(사)부산불교연합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8. 11:30 부산시청 접견실, (사)부산불교연합회 성금 전달식 개최 - (사)부산불교연합회,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에 5천만원 전달 	<p>보도자료 (문화예술과)</p>
20.03.01.	<p>부산지역 외국인 거주민 등을 위한 코로나19 정보제공 강화</p> <p>부산영어방송, 코로나19 예방수칙 영문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영어방송, 코로나19 관련 최신 뉴스와 예방수칙을 영문으로 실시간 방송 -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부산지역 유학생과 외국인 거주민 및 관광객에게 정보 제공 	<p>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p>
20.03.03.	<p>코로나19 관련, 부산이전공공기관 지역지원 대책회의 개최</p> <p>부산이전공공기관,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해 기부 릴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 14:00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산지역 지원대책 논의 - 이전 공공기관 등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민에 6억원 상당 지원 	<p>보도자료 (서비스금융과)</p>
20.03.03.	<p>시·시의회·교육청, 코로나19 확산 대응 합동대책회의 개최</p> <p>부산시-의회-교육청 코로나19 함께 이겨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초·중·고 등 개학 연기(3.9.→3.23.)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 시·시의회·교육청, “개학 연기에 따른 충격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힘 모을 것” 	<p>보도자료 (교육협력과)</p>
20.03.03.	<p>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부산! 기부 온정 이어져</p> <p>부산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을 모아 코로나19 이겨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각계각층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온정 뭉쳐려움 이어져 -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부산! 응원 메시지로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기부 문화 확산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03.04.	<p>코로나19 대응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위해</p> <p>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수어동영상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보 접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감염 예방 위해 수어동영상 제공 -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한 개인 행동수칙 및 자가격리수칙 등 수어동영상 제작·홍보 	<p>보도자료 (뉴미디어담당관)</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3.04.	한국거래소·화승그룹·(주)대한제강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식 개최 - 3.4. 14:00, 14:30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 열려 - 한국거래소·화승그룹·(주)대한제강 성금 각 1억원씩 총 3억원 전달... 코로나19 극복에 힘 보태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3.05.	부산시 자원봉사단체 및 여성단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격려물품 전달 부산의 자원봉사단체들,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 줄이어 - 3.5. 부산시 주요 봉사단체(재난대응봉사대) 및 여성단체(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자원봉사연합회)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 간식 전달 - 자원봉사자들도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부산” 응원 물결에 동참해	보도자료 (사회통합과)
20.03.05.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부산! 기부 온정 이어져 (주)코렌스EM,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3억원 부산에 쾌척 - 3.5. 14:30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성금 전달식 개최 - 코렌스EM 조용국 회장,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원 전달	보도자료 (투자통상과)
20.03.06.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민·관 합동 방역 확대 운영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관·군이 함께 방역 강화에 나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기존 격주 금요일에서 매주 금요일로 방역활동 확대 운영 - 확진자 동선 방역에 이어 부산시 전역 코로나19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확대·강화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3.06.	부산시 간호사회, 시 16개 보건소에 위문품 전달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할 수 있다! 힘내라 부산!” - 부산광역시간호사회,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 의료진 격려 위한 위문품 전달 - 황지원 부산간호사회장 “철저한 대응으로 함께 어려움 잘 극복하자” 응원	보도자료 (여성가족과)
20.03.10.	부산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도서 이용 서비스 강화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휴관? 도서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 부산시 공공도서관 전관 임시휴관 중이어도 중단없는 대시민 도서 서비스 제공 - 스마트도서관, 안심도서대출서비스, 지역서점에서 새 책으로 먼저 빌려보기 등	보도자료 (교육협력과)
20.03.10.	클린존 업체 지원, 저소득층 노인 대체식 지급 등 쿡 짬어 지원 결정 코로나 기부금,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빨리! - 3.10. 10:3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협의회’ 열려 - 확진자 방문 피해상가 지원,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노인 대체식 지급 등 우선 급한 곳에 9억9천2백만원 1차 배부하기로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3.12.	부산시, 코로나 피해 정책자금 신속집행 위한 현장지원 강화! - 경제부시장 주재, 부산지역 시중은행 본부장 간담회(3.11.)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쏟아져 - 코로나19 피해 정책자금 집행을 전국 선두에 이어 창구방문 없는 인터넷 예약상담제도 운영 - 소상공인진흥센터의 정책자금 지원 확인서 한시적 면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3.12.	<p>중국 산둥성, 부산에 마스크 5만장 긴급 지원</p> <p>부산시와 중국, 코로나19 위기에 협력은 더 단단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가 아님에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원한 첫 사례 - 우호협력도시인 텐진시도 마스크 19,744장, 보호복 3,802벌 등 지원 예정... 선전, 광저우, 헤이룽장성에서도 마스크 지원 의향 표해 	<p>보도자료 (도시외교정책과)</p>
20.03.13.	<p>부산시, 2020년도 제1회 긴급 추경 예산안 2천258억원 시의회 제출</p> <p>코로나19 극복!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위한 생존추경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예산 대비 1.8% 늘어난 12조8천164억원 편성 - 기존 재난관리기금 등에 긴급추경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재정지원 규모 2,508억원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소비회복 및 지역경제활력지원, 확산 대응 시민보호 등 시급하고 집행가능한 최소한 필수항목으로 편성 	<p>보도자료 (예산담당관)</p>
20.03.15.	<p>부산시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p> <p>코로나19로 인한 고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코로나19 심리방역 위해 부산광역시 및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17곳에서 심리지원 창구 운영 -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운영,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전문인력 상담 상시 진행 	<p>보도자료 (건강정책과)</p>
20.03.16.	<p>기부 릴레이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 “힘내라 부산”</p> <p>한국남부발전, 부산시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원 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16일)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한 한국남부발전의 성금 전달식 열려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기탁, 코로나19 피해 상가, 저소득층, 방역지원 등에 사용...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일 수 있도록 단계별 배부 예정 	<p>보도자료 (서비스금융과)</p>
20.03.16.	<p>부산시, 코로나19 관련 에어부산 위기 극복 위해 지역주주와 지원대책 논의</p> <p>민·관 뭉쳐 에어부산 코로나 위기 이겨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노선 중단, 직원 휴직 등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 장기화 시 에어부산 등 국내 항공업계 고사 위기 - 부산시, 정부에 에어부산 직접 운영자금 지원 요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및 항공사 대상 세제 감면 등 정부대책의 확대 건의 계획 - 향후 에어부산 지역주주와 공동으로 에어부산 정상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 지원대책 마련키로 뜻 모아 	<p>보도자료 (공항기획과)</p>
20.03.17.	<p>힘내라 부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이어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감귤연합회에서 한라봉 400상자, 39도시락에서는 도시락 100개 전달... 선별진료소 의료 인력 및 현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 - 지난 10일에는 (사)아름다운 사람들에서 1천5백만원 상당의 방호복 500벌 기증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03.18.	<p>민간단체·기업·기관 등 코로나19 대응 격려물품 전달 줄이어</p> <p>안녕 캠페인 확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NK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기업·기관의 물품 지원 잇달아 - 자원봉사 및 여성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십시일반 기부 릴레이 전개 - 코로나19 극복과 안녕한 부산을 위한 SNS캠페인으로 심리적 방역 적극 펼쳐 	<p>보도자료 (사회통합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3.19.	<p>부산시,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등 기부금 우선 배부 코로나 기부금, 시민 돕는 청년 250명 지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 11:00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제2차 기부금 협의회 열려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청년 250명에 약국 마스크 판매지원 일자리 지원,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고령층 대상 면마스크 지원 등 2차 배부하기로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3.19.	<p>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 릴레이 (주)성우하이텍, 부산시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2억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코로나19 극복 위해 (주)성우하이텍 2억 쾌척... 오늘(19일) 시청서 전달식 열려 - 오늘 오전에 제2차 기부금 협의회 열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청년 약국 마스크 판매 일자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2차 배부 예정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3.23.	<p>부산시, 코로나 피해 정책자금 집행실적 특·광역시 중 단연 선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속집행(Fast-track)팀 신설, 인력확충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 -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을 속도 높일 예정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3.23.	<p>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부산기업들 온정 이어져... 은산해운항공(주)·(주)삼미건설 코로나19 극복 성금품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23일) 14:30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품 전달식 열려 - 은산해운항공(주)·(주)삼미건설 각 1억원 상당 성금품 전달...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규모업체와 의료진,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지원 예정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3.24.	<p>국제로타리 3661지구·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성보전기공업(주) 성금 전달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 행렬... “힘내라 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24일)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유관단체 및 지역기업 성금 전달식 열려 - 국제로타리 3661 지구 2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1천만원, 성보전기공업(주) 1천만원 부산시에 기부... 코로나19 방역 지원·경제활력 회복 등에 사용 예정 - 유관단체들, 다양한 봉사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함께 극복하기 위한 마음 전해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3.24.	<p>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나눔의 정신 실천 부산시 공무원들,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4. 15:30 성금 전달식 열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통해 관내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지원 - 지난 20일부터 시와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모금 추진, 소속 공무원 4,239명이 성금 53,366,000원 모금 	보도자료 (총무과)
20.03.26.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금품... 꼭 필요한 곳에 투명·신속 집행 코로나 기부금,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에도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6. 11:00 코로나19 관련 제3차 기부금 협의회 열려...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저소득아동 등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하기로 - 기부금 집행률 88%, 지원사업도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금 집행의 모범사례 제시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3.26.	<p>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나눔의 정신 실천 BNK썸 여자프로농구단,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일 15:00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 열려 - BNK썸 여자프로농구단에서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천만원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 등 지원 예정 	보도자료 (체육진흥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3.26.	<p>코로나19 위기 속 돋보이는 ‘나눔의 정신’</p> <p>(주)골든블루,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골든블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 오늘(26일) 부산시청 접견실에서 전달식 열려 - 오늘 오전에 제3차 기부금협의회 열려...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저소득아동 등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 예정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3.27.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부산 MICE업계 간담회 개최</p> <p>힘내라 부산마이식!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함께 힘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7. 11:40 벡스코에서, 행사대행업체(PCO), 호텔, 장치업체, 여행사 등 부산 마이스업계 대표 참석 - 기업활력·시장회복·트렌드대응·지속성장의 4개 분야 16개 사업의 “힘내라 부산 마이식!” 프로젝트 추진 예정 	보도자료 (마이스산업과)
20.03.29.	<p>부산시 대시민 방역 프로젝트 “세이프티 존 부산” 추진</p> <p>코로나19 극복 위한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전역에 걸쳐 시민·관공서·시설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세이프티 존 부산 만들기” 추진 - 개인은 각 가정과 직장에서 주변환경 소독·환기하기 실천하고, 시설(기관)은 모든 역할을 총동원하여 방역·소독 나서... 내달 5일까지 중점 추진 	보도자료 (노인복지과)
20.03.30.	<p>부산시-구·군-교육청-경찰, 학원 3차 합동점검 실시</p> <p>사회적 거리두기 위한 학원 휴원... 함께 코로나19 극복해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1.~4.3. 4일간, 하루 10개 반 점검인원 120명, 학원 합동점검,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요청 - 휴원 권고에도 불구, 운영 중인 학원의 감염 확산 차단 위한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보도자료 (교육협력과)
20.03.31.	<p>부산 노사민정 코로나19 위기극복 공동선언</p> <p>노사 상생의 백신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7,31.(4일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서면심의,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안) 확정 및 의결 - 부산 노사민정 주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극복하고자 각자의 역할과 실천사항 담아 	보도자료 (인권노동정책담당관)
20.03.31.	<p>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부산지역 코로나19 극복에 힘 보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오늘(31일) 코로나19 극복 위해 1천300만원 성금 전달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업체 및 지역 취약계층 등에 기부금 지원 예정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3.31.	<p>긴급민생지원 업무보조를 위한 청년 취업연수생 모집</p>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2차 청년일자리사업 모집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업무 지원할 청년 취업연수생 모집 - 부산 거주 청년 취업연수생 205명 모집, 주 5일·1일 8시간·2개월 근무 	보도자료 (청년희망정책과)
20.04.01.	<p>내 주변 이웃에 따뜻한 손길 내미는 기부 릴레이</p> <p>(재)부산동명불원, 코로나19 극복 성금 2천만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14:30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재)부산동명불원 성금 전달식 개최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원 전달 	보도자료 (문화예술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4.03.	<p>부산시, 비대면 가족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슬기로운 집콕생활로 극복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가정 내 생활에 지친 가정 위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놀이·가정원에 등 다양한 콘텐츠 마련... 전화·사이버·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도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bsfc.familynet.or.kr)에서 확인 	보도자료 (여성가족과)
20.04.03.	<p>소상공인과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담아 수영로교회, 코로나19 성금 1억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14:00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수영로교회 성금 전달식 개최 - 코로나19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1억원 전달 	보도자료 (문화예술과)
20.04.05.	<p>부산시, 공중화장실 위생용품비 긴급 지원 철저한 공중화장실 위생관리로 코로나19 지역 전파 차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화장실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사용량 증가, 공중화장실 612곳과 개방화장실 500여곳에 재난관리기금 약 1억 1천만원 지원 - 부산시 관계자,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씻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등 당부 	보도자료 (맑은물정책과)
20.04.06.	<p>부산시, 코로나19 대비 청소년 심리방역 시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불안한 청소년, 무료상담 받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불안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온라인·전화·문자·SNS메신저 등 비대면 상담 진행 - 청소년 심리방역 및 다양한 코로나19 지원사업 추진...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보도자료 (아동청소년과)
20.04.06.	<p>시 교육청에 마스크 100만장, 취약계층(고령층, 어린이 등)에 57만장 긴급 지원 부산시, 개학 대비 코로나19 학내 감염 차단 총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7일, 개학 대비 코로나19 학내감염 전면 차단 위해 교육청에 마스크 1백만장 지원 - 취약계층(70세 이상 고령층, 만3~8세 어린이 등)에는 면 마스크(필터교체형) 57만장, 우선 배부 중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4.07.	<p>부산1호 재활용전문 사회적기업, 따뜻한 사회적 배려 실천 (주)에코라이프살림, 코로나 극복 성금 1천만원 기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소재 (주)에코라이프살림 고령자, 장애인 종사자 25명이 성금 모아 전달 - 지역사회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회적기업 되고 싶다고 동참 의사 밝혀 	보도자료 (사회적경제담당관)
20.04.07.	<p>힘내라 부산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 개최 (주)부산도시가스,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해 1억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 15:00 부산시청서 (주)부산도시가스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식 개최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규모업체 및 지역 취약계층 등에 기부금 지원 예정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4.08.	<p>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부산... 이웃사랑과 나눔실천 위한 기부 이어져 한돈 경남도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한돈 21t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 14:30 (사)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 기부물품(한돈) 전달식 개최 - (사)대한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에서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한돈 7,143박스(21t, 1억5천만원 상당) 전달 	보도자료 (농축산유통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4.09.	전국 368억원 규모, 업체당 1억원 이내, 고정금리 연 2~3% 또는 변동금리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에 긴급운영자금(융자) 지원한다 -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위해 긴급운영자금 지원 - 4.6.~5.1. 관할 구·군에서 축산물가공업체 긴급운영자금 신청 접수 중	보도자료 (농축산유통과)
20.04.09.	부산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심리방역 회의 개최 코로나19로 우울한 마음... 부산시가 돌보겠습니다! - 오늘 부산시청에서 정신건강 전문가 참석하는 코로나19 심리방역 관련 전문가 회의 열려 - 마음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한 대시민 코로나19 심리방역 대책 마련 논의	보도자료 (건강정책과)
20.04.10.	미술, 이제 책으로 즐긴다! 드라이브 스루 도록 나눔 시행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즐거운 미술생활 - 부산시립미술관, 4.11.~18. 09:30~17:30(일요일 제외),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전시 도록 나눔 서비스 운영... 사전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면 직접 대면 없이 도록 제공 - 코로나19로 우울감·무기력증 느끼는 시민들 위한 집콕 미술관 서비스	보도자료 (시립미술관)
20.04.10.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주)상지건축 성금 전달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한 건설업계 온정 이어져 - 오늘(10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상지건축 등 건설업계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전달 연이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해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규모업체와 의료진·취약계층 등 지원 예정	보도자료 (건설행정과)
20.04.14.	코로나19 극복하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이재동 부산시 정책고문,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 4.14. 14:30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 이재동 정책고문 성금 전달식 개최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에 1천만 원 전달	보도자료 (문화예술과)
20.04.15.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시작,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을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 부산시와 함께 이겨냅시다 - 4.13. 기준 총 74,436건 접수, 28,820건 심사 중(38.7%), 31,737건 지급결정(42.6%), 12,602명 지급완료(16.9%) - 4.17.부터 온라인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병행 - 업종별 도소매업(23,852건), 음식점업(12,804건), 교육서비스업(6,413건) 등 순으로 접수	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
20.04.17.	힘내라 부산!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 릴레이에 동참 (주)협성건설·수근종합건설(주)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 오늘(17일) 오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식 열려 - (주)협성건설 1억 원·수근종합건설(주) 3천만 원 성금 전달... 기부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규모업체와 의료진,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에 지원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0.04.19.	무급휴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소득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부산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완화 - 신청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00% 이하 → 고소득자 제외(연소득 7,000만 원 이상)] -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생략) - 4월 29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covid19busanhelp.kr/부산특별고용지원.kr) 통해 온라인 신청	보도자료 (일자리창업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4.23.	4개 분야 5개 사업 총31억원 규모 문화예술 종합지원대책 시행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 - 부산시, 예술인 생계지원부터 포스트-코로나 사업까지 전방위적 긴급 지원대책 마련 - 예술활동증명을 득한 문화예술인 3,200명 대상 1인당 50만 원 긴급 생계비 지원 - 예술인창작활동지원사업 확대(6.4억 원), 굿모닝예술인지원사업 확대(3.9억 원), 힐링과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4.7억 원) 등 추진	보도자료 (문화예술과)
20.04.27.	#토닥토닥 부산여행, 어기영차 부산경제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19 국내 관광객 유치 시동 - 부산시, 코로나19 조기회복 위해 국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총력 - 여름 성수기 대비 숙박할인 기획전, 오픈마켓, TV 인기예능 유치 등 다양한 프로모션 추진 - 위축된 부산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대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0.04.28.	부산시, 마을건강센터 통한 사랑의 건강꾸러미 나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고립감, 마을건강센터가 함께 나눕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우울감 느끼는 건강 취약계층 대상... 마을건강센터 통해 주민 밀착형 심리방역 실시 - 부산지역 건강소외계층 3,100가구에 건강꾸러미 지급·지속적인 안부 연락... 우울감 해소 돕고, 심리방역 거점으로 기능	보도자료 (건강정책과)
20.04.28.	대구시 확진자 부산 방문에 따른 시·경찰청 합동점검 실시 부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유흥시설 점검 강화 - 부산진구 관내 유흥시설 35곳 주말 취약시간대 점검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3곳 적발 - 대구 확진자 다녀간 업소 2곳 영업중단 조치... 이번 주말 시·경찰청·소방 합동점검 실시	보도자료 (보건위생과)
20.04.29.	기부 릴레이로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부산시체육회, 코로나19 극복 기원 특별성금 모금 전달 - 4.29. 13:30 부산시청서 부산광역시체육회 코로나19 극복 기원을 위해 임원 및 대의원대상 특별성금 모금 및 전달식 개최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기부금 지원 예정	보도자료 (체육진흥과)
20.04.30.	관광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부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관광협회 지원 강화 - 하반기 및 반기별 추진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상반기 중 선집행 및 선지급 - 부산국제관광전 등 7개 사업의 기존 6~8% 위탁수수료를 올해 한정에 10%로 인상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0.05.01.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 5.1. 10:00 박성훈 경제부시장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응 전략 집중 논의 - '내수시장 활성화', '제조업체 안정화', '코로나 부상 산업 육성' 등 단계별 추진 - 투자활성화, 소비 촉진, 관광·마이스 활성화, 공공일자리 지원 등 '내수경기 활성화' 우선 추진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5.05.	지역상공인과 긴밀한 협력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공동대응 부산시와 부산상의,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 시장 권한대행체제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 - 경제 원로들과의 만남에 이어 지역상공계와 연이은 소통으로 민간 경제네트워크 강화 -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논의... 기업 현장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정책에 반영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5.11.	<p>국민운동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부산시, 시정안정과 코로나19 극복 위한 시민소통 이어가 - 5.8.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초청해 소통 -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협력 약속...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경제활력 회복 노력 등 계속</p>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5.11.	<p>다시 뛰자, 부산경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모색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 지난 2.3.부터 운영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경제활성화 전략회의」로 전환 - 내수시장 활성화, 코로나 뉴딜사업, 제조업 경영안정 지원, 규제혁신 과제 발굴, 코로나 부상 「3대 산업」 육성 등 단계별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p>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5.12.	<p>시민토론 ON AIR 5호 토론 진행 부산시민과 함께,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뉴노멀 모색한다 - 5.12.~31. (20일간) '코로나19 시대 뉴노멀(New Normal)' 주제로 온라인 댓글 토론 -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슬기로운 일상과 경험 등을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p>	보도자료 (사회통합과)
20.05.12.	<p>부산시, POST 코로나 수산업 위기 대응계획 수립 부산 수산업 위기, POST 코로나·한국판 뉴딜로 극복 - 부산시, 지역 수산업계의 위기상황 극복 위해 'POST 코로나 수산업 위기 대응계획('21년~'30년, 총사업비 1조 5,942억 원)' 수립 - 해양수산부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 건립, 'R&D 및 기업지원' 분야 강화 등 정부정책과 연계 추진 요청</p>	보도자료 (수산정책과)
20.05.14.	<p>부산시, 관급공사 신속 발주·집행률 향상 위해 총력 건설투자 확대·활성화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돌파구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진한 경제성장을 견인 위해 건설투자 확대... 부산경제 버팀목 역할 - 부산시, 구·군 및 공공기관 등과 합심해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건설 지원에 '올인' - 1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집행률 상반기 내 70%까지 향상... 관급공사 1조9천억 원 신속 발주</p>	보도자료 (도시계획과)
20.05.14.	<p>다시 뛰자, 부산경제, 제3차 경제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부산시, 포스트코로나 2단계... 제조업 경영안정화 대응전략 마련 - 제조업 경영안정화 대책으로 긴급유동성 공급,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5대 제조업종 맞춤형 지원, 규제혁신 등 4대 분야 15개 과제, 2조 1천 5백억 원 지원 - 향후 규제혁신 과제 발굴, 코로나 부상 「3대 산업」 육성 등 경제활성화 전략회의 연달아 예고, 경제활성화 속도전 박차</p>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5.15.	<p>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비대면 도시외교 활성화 부산시, 비대면 화상회의로 상트시와 코로나19 대응방안 공유 - 제1차 화상회의(4.28.)에 이어 자매도시인 상트시의 정보 공유 확대 요청으로 2차 회의 개최 - 5.15. 15:00, 양 도시의 코로나19 대응 실무진 참석...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보건특보 직접 참여</p>	보도자료 (도시외교정책과)
20.05.19.	<p>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부산시, 수산업 분야 포스트코로나·한국판뉴딜 등 본격 준비 - 5.20. 10:3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 점검 - 코로나19 이후 수산업 분야 여건 변화 전망,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 대응 전략 집중 논의</p>	보도자료 (해양수도정책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5.19.	<p>코로나19 조기 종식 위해 기부금품 적재적소 지원 계속</p> <p>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료·방역현장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9. 11:00 '제5차 기부금협의회' 개최... 부산의료원 및 현장 구급대원 지원, 소외계층·취약계층 지원 등 결정 - 부산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부문화 확산으로 코로나19 특별기부금품 대구·경북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모여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05.26.	<p>을숙도공원에 나의 메시지가 담긴 수목이름표가 생긴다면?</p> <p>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담은 수목 이름표 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숙도 철새공원 내 수목 27종에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담은 수목 이름표 100개 달아 - 5.31.까지 낙동강하구 습지 보전·을숙도공원·낙동강하구에코센터 관련 내용으로 응모하면 수목 이름표에 함께 새겨 부착... 추첨 통해 20명에게 기념품 전달 	<p>보도자료 (낙동강관리본부)</p>
20.05.26.	<p>스마트 규제혁신,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p>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규제혁신 홍보캠페인 펼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7. 08:00,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과 공무원 대상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진행 -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촘촘하고 대대적인 규제발굴 분위기 확산 	<p>보도자료 (규제혁신추진단)</p>
20.05.29.	<p>코로나19 극복사례 공유 위한 재부 외국공관장 간담회 개최</p> <p>부산시, 재부 공관장들과 코로나 대응방안 공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9. 11:30 시청 소회의실(1)에서, 부산 소재 외국공관장, 명예영사, 관계기관 등 참석 - 부산시의 선제적 방역·임상 분야 대응 경험 소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활발한 우호·교류 협력을 위해 관심과 협조 당부 	<p>보도자료 (도시외교정책과)</p>
20.06.03.	<p>지키자, 부산 일자리!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전략회의 개최</p> <p>코로나19 위기 극복! 부산시장의 1순위는 일자리 지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 10:0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부산중기청, 부산고용청 등 40여 명 머리 맞대 - 공공일자리 확대 및 생계 지원, 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역량 강화 등 5대 분야 12개 과제 추진, 코로나19 맞춤형 일자리 예산 3,455억원 지원 등 일자리 지키기 전력 대응 	<p>보도자료 (일자리창업과)</p>
20.06.07.	<p>부산시, 코로나19 예방 위해 중소유통물류센터 방역 긴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6.12. 부산지역 유통물류센터 집단감염 원천 차단을 위한 자체 방역 상황 점검 - 중소유통물류센터 3곳 및 LME 지정창고 2곳,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등 자체방역체계 구축 	<p>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p>
20.06.08.	<p>온천교회 코로나19 완치자 20명, 치료용 혈장 기증</p> <p>포스트코로나 대비... 코로나19 혈장치료 위한 마중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 14:3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 기증 서약서 전달식 개최 - 온천교회,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용 혈장 기증에 적극 참여 의사 밝혀... 코로나19 혈장치료 위한 '단체 공여' 최초 사례 	<p>보도자료 (건강정책과)</p>
20.06.08.	<p>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초기대응부터 혈장 기증까지</p> <p>온천교회, 코로나 극복 모범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온천교회·부산대학교병원·부산의료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혈장 기증서약서 전달식 개최... 치료용 혈장 단체 기증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 '청신호'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혈장 공여자 관리체계 마련·코로나19 중증환자 혈장치료 위해 힘 모아 - 온천교회, 코로나19 혈장치료 위한 완치자 혈장 '단체 공여' 최초 사례... 21명 기증 참여 	<p>보도자료 (건강정책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6.09.	<p>2020년 상반기 부산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p> <p>부산시와 교육청, 코로나19로부터 더 안전한 교육환경 만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 14:00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함께 코로나19 극복 공동 선언 - 국가환경체험교육관 조성 및 신중년 생생종합타운 조성, 놀이터 환경개선 위한 협력, 스킨존 내 통학로 안전 확보 등 교육현안 논의 	<p>보도자료 (교육협력과)</p>
20.06.11.	<p>제11회 부산 섬유패션정책포럼 개최</p> <p>부산시와 섬유패션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1. 17:00 롯데호텔 부산 3층 필름에서, 섬유패션 관련 단체, 기업, 학계 종사자 등 참석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섬유패션 제조의 위기대응 전략」 모색 	<p>보도자료 (첨단소재산업과)</p>
20.06.12.	<p>6월 13일,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행</p> <p>부산시, 응시자 안전 최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 9급 등 18개 직렬 총 1,274명 선발, 15,943명 응시...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 - 시험실 당 수용인원 20~24인 배치, 발열 확인·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응시자 안전 최우선 고려 	<p>보도자료 (인사과)</p>
20.06.17.	<p>2020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 개최</p> <p>부산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해수욕장 준비에 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7. 16:30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관계부서, 구·군 및 관계기관 등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 -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각 해수욕장 관리청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데 중점 	<p>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p>
20.06.21.	<p>부산시, 2020년 폭염 종합대책 발표</p> <p>올여름... 코로나19도, 무더위도 함께 극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지난 3일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올여름 폭염대책 마련 - 포스트코로나 폭염 대책 시행으로 저감시설 운영 정책 전면 개선... 총 21억여 원 예산투입 - 폭염특보 발표기준·온열질환 감시체계 대폭 개선·4차산업 기술 도입으로 예찰 사각지대 최소화 	<p>보도자료 (재난대응과)</p>
20.06.23.	<p>해수욕장 개장 대비해 현장점검 나서</p> <p>부산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총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4. 15:00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주재로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책 현장점검 - 해수욕장별 방역 관리계획 및 상황 직접 살피고 현장점검 및 근무자 격려도 	<p>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p>
20.06.24.	<p>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해운항만업계 간담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 10:30 시청 7층 영상회의실, 부산시·부산항만공사·업계 대표·전문가 등 참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조기회복 지원방안 논의 	<p>보도자료 (해운항만과)</p>
20.06.25.	<p>부산시 코로나19 대응 및 시정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p> <p>부산시민 10명 중 8명, 부산시 코로나19 대처 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부산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6.11.~13. 시민 1,000명 참여), '전국 대비 부산이 보다 안전(76.0%)', '부산이 대처를 잘 하고 있다(87.8%)'고 응답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시의 정책추진 만족도 및 노력도 전년 동월 대비 급상승 	<p>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6.26.	<p>부산시, 부산방역종합계획 수립 위한 보고회 개최</p> <p>코로나19 2차 대유행... 방역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재유행 대비 종합대책 마련 지시... 부산시, 25일 오후 재대본 실무반 및 감염병 전문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 -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 논의... 토론기반 모의훈련 통해 방역종합계획 수립 	보도자료 (건강정책과)
20.06.29.	<p>부산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p> <p>부산경제 회복! 포스트코로나 선제 대응... 추경 6천543억원 편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예산 대비 4.7% 늘어난 14조 4천757억 원 편성 - 정부의 3차 추경 대응,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정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 필수 수요액 반영 	보도자료 (예산담당관)
20.06.30.	<p>부산시, 자동차 부품업계·유관기관과 현장 간담회 개최</p> <p>코로나 직격탄 자동차 부품업계 위해 머리 맞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30. 11:00 ㈜이든텍 회의실에서 부산시·부산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부산테크노파크·부산상의·자동차 부품업계 등 참석하는 간담회 열려... 위기 극복 방안 모색 - 부산시, 부품업계 애로·건의 사항 적극 수렴...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시책 마련 	보도자료 (제조혁신기반과)
20.07.07.	<p>코로나19 위기극복에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p>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시민제안 공모전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24. 18:00까지 시민제안 접수, 부산시민 누구나(실 거주자 포함) 참여 가능 - 최우수제안 1건 200만원, 우수제안 2건 각 100만원, 희망제안 3건 각 50만원, 기쁨제안 5건 각 25만원 	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
20.07.07.	<p>코로나19 위기 극복, 부산 섬유패션소재 업계 간담회 개최</p> <p>부산시, 섬유패션소재 산업의 포스트코로나 대책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8. 14:00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섬유패션소재 관련 기업·단체 등 참석 - 코로나19로 어려운 업계 애로사항 청취, 포스트코로나 대책 등 위기 극복방안 모색 	보도자료 (첨단소재산업과)
20.07.08.	<p>힘내라! 부산, 힘내라! 블라디보스토크</p> <p>부산과 블라디보스토크, 코로나19 극복 응원영상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교류 활성화, '부산데이' 등 대면 행사 중단의 아쉬움도 달래 - 두 도시 시민들 직접 출연, 자매도시 주민들과 의료진에게 서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전해 	보도자료 (도시외교정책과)
20.07.13.	<p>지역사회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p> <p>부산시, 코로나19 제2차 대유행 대비 범시민 대책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4. 14:00, 시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경제·의료·문화·교통 등 총망라해 대책 공유 - 환자발생 상황을 기준으로 3단계의 대응책 마련,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과 상시협력체계 강화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0.07.13.	<p>취약계층과 코로나19 실직자 등 경제회복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p>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2월 4개월간, 2만 명 모집, 생활방역, 긴급 공공업무지원, 청년사업 등 공공일자리 제공 - 7.15.~7.24.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온라인 우선 접수하며 요일제 현장방문 접수 병행 	보도자료 (일자리창업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7.13.	<p>야간에 해수욕장 방문 시 꼭 기억하세요... 마스크는 필수! 야간 치맥은 안돼요!</p> <p>부산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 후속조치 시행... 25일부터 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기 해수욕장 방역 강화 위해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 추가 대책 마련 - 7.25~8.15. 5개 대형 해수욕장 대상... 마스크 미착용, 야간 취식·음주 행위 등 단속 - 단속시간은 19:00~익일 06:00이며, 마스크 미착용 행위는 24시간 단속, 단속구역은 인근 호안도로, 공원 등 포함 구·군별로 확정 고시 	<p>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p>
20.07.14.	<p>부산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 소통간담회 개최</p> <p>부산시, 헬스케어 산업계와 코로나19 위기에 협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5. 10:0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 및 협회 등 관계자 참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조기회복 지원방안 논의 	<p>보도자료 (첨단의료산업과)</p>
20.07.17.	<p>2020년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비R&D) 추가 시행</p> <p>부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ICT융합 분야 기업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국가혁신클러스터 중심, 지능정보서비스(ICT) 분야 기업 추가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 7.31.까지 접수... ICT 분야 수요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함께 글로벌마케팅 분야도 신규 지원 - 사업화지원 기업별 5천만원 이내, 글로벌경쟁력강화 기업별 3천3백만원(수출초보기업 2천만원) 이내 지원 	<p>보도자료 (첨단소재산업과)</p>
20.07.23.	<p>코로나19 극복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지킴이 공동선언식 개최</p> <p>부산 민·관,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지키기 실천 결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4. 14:00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부산시 일자리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코로나19 극복 일자리지킴이'를 과제로 머리 맞대 - 공공주도의 일자리 만들기, 기업과 함께하는 일자리 지키기 등 4대 전략 15대 과제 41개 세부사업 추진, 코로나19 맞춤형 일자리 예산 1,512억 원 투입 등 고용안정 위해 전력 대응 	<p>보도자료 (일자리창업과)</p>
20.07.26.	<p>2020 영남미래포럼 -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p> <p>영남권 5개 시·도지사, 코로나 시대 영남의 미래를 말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7. 14:00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 참석 -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지역방역 대책, 영남권 광역연합 등 주제로 100분 토론 진행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07.30.	<p>부산시, 시니어 북 딜리버리 시범사업 추진</p> <p>포스트코로나 대비한 비대면 노인일자리가 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손잡고 비대면 노인일자리 위한 '시니어 북 딜리버리' 시범사업 추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나서 - 지역 공공도서관과 협력... 노인일자리 인력 활용한 찾아가는 도서 대여 및 반납 서비스 제공 	<p>보도자료 (노인복지과)</p>
20.08.11.	<p>2020년 상반기 소비자 상담 동향 발표</p> <p>부산시, 소비자 상담 코로나19 관련 품목 폭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상반기 소비자 상담 접수 상위품목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국외여행 순으로 나타나 - 전체 상담 건수 소폭 감소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위생용품 ▲예식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등 코로나19 관련 품목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TV홈쇼핑·국내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 상담도 증가 	<p>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8.11.	2020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 개최 코로나를 이긴 경영혁신 CEO를 소개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도 경영 내실화·기술개발 등 우수한 실적으로 지역경제 발전 선도한 3개 기업… 수상자에 ▲㈜한국로텍 최성제 대표이사 ▲㈜성일에스아이엠의 우창수 대표이사 ▲㈜에맥의 신상호 대표이사 선정 - 시행 20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업종에서 수상자 배출해 눈길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8.13.	부산시·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회 주최, 안전한 도시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방재 세미나로 안전한 부산 구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과 급격한 기후변화 대비 도시방재 기술세미나 개최 - 부산시 기술직 공무원, 대한토목학회 회원 등 방재·안전 관계자 200여 명 참석	보도자료 (기술심사과)
20.08.13.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부산시와 공공기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성금 20여억 원 지원 - 8.13. 14:00 시청 7층 접견실, 코로나19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성금 전달 -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 시·산하 공공기관 지역사회 공헌사업 참여 확대	보도자료 (재정혁신담당관)
20.08.14.	평범한 일상, 마술처럼… 「부산국제매직버스킹챔피언십」 개최 철저한 방역 속 신기한 마술쇼로 코로나19 우울 극복!! - 8.14.~16. 18:00, 해운대 구남로에서 부산국제매직버스킹챔피언십 진행 -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방역… 시민에 즐길 거리 제공 및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 기대	보도자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0.08.14.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함께 만들어요~ 안전한 부산!! 부산시,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연휴기간 총력 대응 - 8.14. 18:00 해수욕장과 주변업소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하고 대시민 집중 홍보 - 8.15. 18:30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방역 합동캠페인 펼쳐…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에서 진행 - 방역지침 준수 집중 홍보하고 방역 물품 배부, 마스크 미착용 행위 합동 단속도 병행	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
20.08.17.	제1회 부산광역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산을 새롭게 만나는 방법 - 뉴미디어 중심 급변하는 정책 홍보환경에 맞춰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개최… 오는 10.19.까지 장르 제한 없이 부산만의 매력 홍보하는 5분 이내 창작영상물 공모 - 대상 수상자에 상금 500만원·부산시 대표 유튜브 활동 기회 등 제공	보도자료 (뉴미디어담당관)
20.08.25.	코로나19를 이겨낸 버… 부산 첫 수확! - 8.28. 10:00 강서구 죽동동 김경양 농가에서 올해 부산 첫 버 베기 시작 -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 없이 작황 풍년… 「코로나19 이겨낸 쌀」 100포 한정 판매 계획	보도자료 (농업기술센터)
20.08.26.	외국인투자 및 유턴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부산시와 KOTRA, 해외기업 유치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한다 - 8.26. 11:00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해외우수기업 및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 중점육성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공동프로젝트 발굴, 네트워킹 강화 등 전략적 협력 추진	보도자료 (투자통상과)
20.08.30.	상생을 위한 아름다운 양보 부산시, 코로나19 관련 결혼식 분장 75.3% 조정 - 결혼식 중재 신청 73건 중 55건(75.3%) 중재 성공… 어려운 시기에 빛나는 시민 의식 - 한국예식업중앙회가 소속 회원사에 상생 합의 방안 권고, 예식업계도 받아들이는 분위기	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9.01.	2020년 서비스 연구·개발(R&D)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 9.1.~10.15. 부산시 8대 유망 서비스 산업의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 - 최우수상 1점 등 9개 팀에 시상, 대상 1개 팀에는 상금 200만원 수여	보도자료 (서비스금융과)
20.09.02.	경제 위기관리 비상대응체제 강화, 일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내놓는다 - 9월 1일부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 분야 핵심 간부로 구성, 시민 체감정책 마련 - 중소기업·소상공인 2단계 금융대책 집중 논의, 0%대 초저리 금리와 대출제한 완화 검토 - 지역 공공기관·상공계·금융기관과 상생협력으로 코로나 극복 「상생형 펀드」 마련 등 대책 고심 - 9월 중 지역 상공계 등 협력 피해업체 지원, 온라인·비대면 경제 육성 등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9.04.	부산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 무료 제작·배포 코로나19 안내문 6종, 마음껏 사용하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관련, 마스크 착용·임시휴무·출입자명부 등 강화된 방역수칙 담은 안내문 6종 제작 - 시 공식 블로그(SNS)와 홈페이지 통해 배포... 소상공인·자영업자 안내문 제작 부담 완화	보도자료 (뉴미디어담당관)
20.09.11.	제2차 비상재정전략회의 개최... “경제회복 속도 높이되 재정 안정도 챙겨”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정적 재정 운용방안 논의 - 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경제대책본부에 이어 지난 4.2. 「비상재정대책본부」 출범 - 4.10. 「제1차 비상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공감대 형성해 - 9.11. 16:00 제2차 회의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재정운용대책과 적정 채무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선제적·주도적 대응책 마련	보도자료 (재정혁신담당관)
20.09.14.	2021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혁신 구상사업 보고회 개최 부산시와 공공기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묘안 구상한다! - 9.14.~16. 16:00 시청 7층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공공기관장 참석 - 한국판 뉴딜사업,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활성화 등 정책에 맞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보도자료 (재정혁신담당관)
20.09.16.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2020년 하반기 복지부정 기획수사 실시 코로나19 상황 속 복지부정, 무관용 일벌백계 - 광역시 단위 최초 복지 분야 전담 수사조직 신설...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등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실태 수사 - 적발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보조금 환수 ▲형사처벌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취소 등 필요한 모든 제재로 ‘무관용 일벌백계’	보도자료 (특별사법경찰과)
20.09.16.	2020 K-ICT WEEK in BUSAN... 온라인·비대면 개최 부산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새 비전 밝힌다! - 9.17.~19.(3일간) AI KOREA, 클라우드 엑스포 코리아, IT 엑스포 부산 등 동시 개최 - 글로벌 AI, Cloud 콘퍼런스와 해외 바이어 상담회, 투자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보도자료 (스마트시티추진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09.22.	추석 명절 대비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부산시, 코로나19 극복·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 댄걸을 - 9.22. 14:00 코로나 극복 및 추석 민생경제 대책 점검 - 지역 경제계, 관계기관과 함께 추석(with 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안정대책 마련에 머리 맞대 - 소비촉진, 생활안정, 정책금융, 고용안정, 관광·마이스, 추석 물가안정, 비대면경제 등 7대 경제안정 대책 추진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09.25.	저소득층 아동돌봄시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HOPE with HUG 프로젝트, 코로나19 속 따뜻함을 나누는 건축 -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HOPE with HUG 프로젝트' 추진... 제39호 신애지역아동센터 새단장 완료 -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건축으로 위로와 희망을 전달	보도자료 (건축정책과)
20.09.29.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및 시정 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민 “코로나19 대응 잘한다”는 응답이 높아 -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부산시정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9.15.~18. 시민 1,000명 참여)··· 대중교통 방역, 해수욕장 조기폐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 만족도 높아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문에는 '3단계 격상'보다 '2단계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아 - 부산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시의 정책추진 만족도 및 노력도 전년 동월 대비 급상승	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
20.09.29.	부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관광·전시·유통 등 전 업종에 올해 부과 예상액 426억 원 중 128억 원 감면 혜택 -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보도자료 (공공교통정책과)
20.09.29.	지역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 관광사업체에 3억 지원 -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50여 개 업체 선정 200만 원 이내 지원 - 상반기 여행업계 위기극복 지원 프로젝트로 273개 업체 100만 원씩 총 3억 원 지원에 이은 하반기 관광업계 지원 프로젝트 ◆ 관광업계 체질개선, 마이스 경쟁력 강화 등 관광업계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 지원 추진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0.10.01.	추석 연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부산시, 코로나19 관련 비상대비 태세 강화 - 오후 2시 시 주요간부 긴급 소집... 비상 방역 대책회의 개최 - 오후 4시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비대면 긴급 브리핑 실시 - 오후 5시 구·군 부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개최	보도자료 (공보담당관)
20.10.04.	추석 특별방역기간 2주차(10.5.~11.) 방역대책 마련 부산시, 방역조치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세 잡는다! - 특별방역기간 2주차(10.5.~11.) 동안 강화된 방역조치로 감염확산 차단 나서 - 고위험 유흥시설 5종·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최근 확진자 다수 발생한 목욕장업도 집합금지 적용대상에 포함 -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규모와 관계없이 집합제한 명령 발령...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10.08.	<p>낙동강 하구의 황금빛 가을 정취에 물들다!</p> <p>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을숙도 이색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3.~31. 사회적 우울감 해소를 위한 을숙도 철새공원 갈대길 개방(사전예약 필수)... - 전문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아름다운 갈대를 감상하는 기회 제공 - 10.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을숙도 핑크몰리 제거 결정 	<p>보도자료 (낙동강관리본부)</p>
20.10.13.	<p>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위해 지원예산 반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위기 극복에 동참 - 고통 분담 위해 기념대회 행사, 산업시찰 등 전면 취소... 후생복지 등 예산 4천여만원 반납 	<p>보도자료 (인사과)</p>
20.10.14.	<p>요양병원 다수 확진자 추가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p> <p>부산시, 코로나19 확산 않도록 집단감염 총력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 비대면 긴급 브리핑 - 오전 11시에는 북구 재난상황실에서 의료전문가, 15개 구·군 부단체장과 함께 긴급 영상회의 개최 - 요양병원 및 시설 전수 점검, 만덕동 일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집합제한명령 2주간 연장 	<p>보도자료 (공보담당관)</p>
20.10.18.	<p>장애인 착한일자리 만들기 발대식·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p> <p>코로나 극복! 장애인 일자리,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채용환경에 맞춰 장애인 취업 지원 방식도 변화... 부산시, 부산경영자총협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 같은 날 발대식에 44개 기업 참여... 장애인고용 촉진·장애인 일자리 나눔 문화 확산 노력 	<p>보도자료 (장애인복지과)</p>
20.10.20.	<p>홍법사, 코로나19 의료종사자 등에 사찰도시락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부산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구조구급대, 지역 보건소 등에 사찰도시락 1,000개 전달 - 홍법사 사찰음식연구소장 "우리가 밤새 정성껏 만든 사찰 음식으로 코로나 19 극복에 힘을 보태고 싶다"... 지역 종교계, 코로나19 공동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 지속 	<p>보도자료 (문화예술과)</p>
20.10.25.	<p>"시민안전·민생안정, 시정 최우선 목표 실현"을 위한</p> <p>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6.~11.6. 실·국·본부장, 관계 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참석 - 예년보다 두 달 가까이 빨리 진행... '시민안전·민생안정' 등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해 속도감 있는 시정운영과 시민 행복 실현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시정여건 등을 고려한 내년도 실·국·본부별 운영 방향과 주요 역점과제 등 집중 논의 	<p>보도자료 (기획담당관)</p>
20.10.27.	<p>「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지사 화상회의」 개최</p> <p>한·일 8개 광역단체장,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7. 14:00 부산시청 26층 후쿠오카경제협력사무소에서, 부산·경남·전남·제주, 후쿠오카·나가사키·사가·아마구치현 등 한·일 8개 시도현 단체장 참석 - 각 시·도·현별 주제 발표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방안 공유, 공동성명문 채택 등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려 전달 	<p>보도자료 (도시외교정책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10.28.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Passion&Fashion BUSAN)2020」 개최 2020 패패부산, 코로나19 극복 위해 하이브리드 전시체계 도입 - 10.29.~11.1.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와 패션마켓 이원화 개최 - 10.29.~30.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10.31.~11.1. 패션마켓(판매전) -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154개 기업과 11개국 120명의 국·내외 바이어 참가	보도자료 (첨단소재산업과)
20.10.30.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축제의 장’ 펼친다” 부산시, 코로나19 방역과 시민이 즐기는 축제를 동시에! - 하반기 축제 정상 개최… 대규모 밀집 축제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부산불꽃축제는 취소 -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축제모델안 수립 및 프로그램 콘텐츠 강화 - 규모 있는 축제 취소로 피해를 보는 공연기술업계 지원대책도 수립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0.11.0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1~2단계에 이어 부산시, 코로나19 현장수요 반영한 「맞춤형 특별자금」 신규 출시 - 코로나19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 덜고, 동 단위 방역으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지원 - 「고용유지기업 무이자 급여지원 특별자금」… 11월 9일부터 신청 접수 - 「동 단위 특별방역지역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자금」… 11월 4일부터 신청 접수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0.11.06.	부산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과 함께 연말을 풍성하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상생장터」 개최 - 11.6.~11.8. 3일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야외 일원에서 개최 - 사회적경제기업 20여개사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존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선보여	보도자료 (사회적경제담당관)
20.11.11.	“시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부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부산시, 2021년 예산안 13조3,017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환! - 2021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7,111억 원(5.6%) 증가한 13조 3,017억 원 편성 -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확고한 코로나19 극복과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등에 중점 투자 - 2020년도 제4회 추경 확대… 기정예산 대비 1.7% 늘어난 14조 7천 79억 원 편성	보도자료 (예산담당관)
20.11.17.	부산시·부산교통공사·대중교통 운수단체, 합동 캠페인 실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 아웃!” - 11.18. 08:00 서면환승센터 등 다중집합지에서 부산교통공사, 버스조합 및 택시조합 등과 함께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실시 - 대중교통 이용 시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새로운 방역지침 홍보	보도자료 (공공교통정책과)
20.11.17.	극지관문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한걸음! 2020 북극협력주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 논의 - 12.7.~12.11.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 오늘(18일)부터 홈페이지 사전등록 시작 - 극지상식 골든벨·시민극지강좌·북극 사진전 등 시민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마련	보도자료 (해양수도정책과)
20.11.20.	「제12회 부산 섬유패션정책포럼 및 제3회 섬유패션인의 밤」 개최 부산시, 코로나 이후 패션산업 전망과 비즈니스모델 논의 - 11.20. 17:00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섬유패션 관련 단체, 기업, 학계 종사자 등 50명 참석 - 코로나 시대 패션산업의 현황과 전망, 글로벌 비즈니스모델 등 신규정책 제안으로 위기 극복 모색	보도자료 (첨단소재산업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11.29.	<p>“코로나19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세요”</p> <p>부산시, 「코로나19 안내 홈페이지」 전면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30일부터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코로나19 정보 접근성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온라인 브리핑 중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업지원시책, 선별진료소 안내 등의 꼭 필요한 정보 담아 	<p>보도자료 (정보화담당관)</p>
20.11.30.	<p>“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부산시, 대학 수능일까지 코로나19 방역 2단계+α 수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 코로나19 대응 2단계+α 수준으로 대폭 강화... <p>“내일부터 72시간 코로나19 완전 봉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14. 2주간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추가적인 방역 조치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 - 모든 시민 사적 모임·약속 자제 권고, 초·중·고등학생 PC방 및 노래연습장 출입 금지, 야간시간대(22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도 	<p>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p>
20.12.01.	<p>부산시, 12월 첫 위기관리 대응 TF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첫 번째 위기관리 대응 TF 회의 개최해 3단계 수준의 선행정책 총대응 지시 - 최근 논란된 확진자 병상에 대한 정확한 수 파악, 체계적 관리 지시 - 부산경찰청과 최대한 협조해 2주간 점검활동 강화, 코로나 진단검사 업무에 지친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격려 	<p>보도자료 (공항공획과)</p>
20.12.03.	<p>부산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민·관 합동캠페인」 집중 전개</p> <p>“수능 직후 물 샔 틈 없는 코로나19 방역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 18:00~20:00, 서면·덕천동·대학가 등 수능 직후 수험생 밀집 우려 지역 일대 - 코로나19 확산 전면차단 위해 시 전역 민·관 합동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동시 추진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12.04.	<p>2021년 대입수능 방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한마음</p> <p>부산시, 코로나19 완전 봉쇄를 위한 72시간의 사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0. 대입수능일까지 72시간 동안의 총력 대응 - 하루 1,5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9,000곳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점검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0.12.06.	<p>준비기간 5개월, 지역공항 중 최초로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부터 김해공항 국제선 전면 셧다운... 부산시, 국제선 운항 재개 위해 7월부터 인천공항과 동일한 특별검역 절차 및 수송체계 마련 등 준비절차 진행 - 검역 인력 확충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 및 특별검역·수송체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지방공항 중 최초로 국제선 입국 재개돼 - 셧다운 8개월만인 3일, 해외발 입국자 33명 김해공항 도착... 불 꺼졌던 국제선 청사 모처럼 활기 되찾아 	<p>보도자료 (공항공획과)</p>
20.12.08.	<p>부산시, 24시간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에서도 21시 이후 취식 금지</p> <p>“코로나 방역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방역하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 21시 이후 24시 편의점과 무허가 포장마차, 음식포장과 배달만 허용 - 관계기관과 협의 병상 추가 확보 선제적 준비, 오늘(8일)부터 야간기동단속반 운영 	<p>보도자료 (보건위생과)</p>
20.12.14.	<p>「2020년 메디컬ICT융합센터 성과보고회」 온라인 개최</p> <p>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의료산업 대응방안’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5. 15:00,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비대면 시대, 2021년 메디컬 ICT산업 전망 - 메디컬 ICT 융합센터 지원사업 성과사례 공유, 언택트시대와 디지털헬스케어 특강 등 	<p>보도자료 (첨단의료산업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0.12.16.	<p>부산시, 부산대병원과 적극 협치하여 고위험군 병상 확대 코로나 병상확보 위해 발빠른 첫행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15일) 이정주 부산대병원장과 만나 고위험군 병상 확보 적극 요청 - 부산대학교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코로나19 전담치료센터 전환에 '통 큰 협의' - 부산지역 중환자·중등중환자·고위험군 환자 집중 치료 위한 84병상 운영 예정…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 병상 부족에 선제적 대비 	<p>보도자료 (보건위생과)</p>
20.12.17.	<p>「부산의료관광 역량강화 온라인 워크숍」 개최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2. 14:00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 -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된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진단하고, 올해 부산시 의료관광 사업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공유 	<p>보도자료 (마이스산업과)</p>
20.12.18.	<p>“코로나19 확산 방지!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핀다!!” 부산시, 관급공사 현장 코로나19 방역실태 긴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8.~12.28. 건설현장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역역량 강화 도모 - 10억 이상 공사장 68곳은 부산시에서 직접 점검, 10억 미만의 공사장은 시 관계부서, 구·군, 공사·공단 등 발주기관에서 점검 	<p>보도자료 (건설행정과)</p>
20.12.21.	<p>부산시, 2020년 「10대 뉴스」 선정 결과 발표 - 올해 부산의 최고 뉴스는?...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극복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주요 성과와 이슈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 시민, 공무원, 언론인 등 4,600여 명 참여 -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북항2단계 사업, 2030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착수 등 미래비전 정책 인기 - 부산시 최초 직영 '부산도서관',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등 시민체감형 정책 공감 얻어 	<p>보도자료 (기획담당관)</p>
20.12.24.	<p>“해돋이와 해돋이는 집에서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산시와 구·군, 연말연시 연휴에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31. 12시 ~ 1.1. 09시 부산의 모든 해수욕장(7곳) 집합금지(폐쇄) 행정명령 발령 -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인구 유동, 카드 소비, 대중교통 이용 지속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이동의 감소는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질 만큼 효과는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 - 1월 3일까지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해돋이 해맞이와 관련 협조 당부 	<p>보도자료 (통계빅데이터담당관)</p>
21.01.06.	<p>희망2021나눔캠페인... 새해에도 희망 나눔은 계속된다! 부산항운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 원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14:0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부산항운노조·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 개최 - 성금 1억 원 쾌척... 코로나19 방역 및 부산지역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 예정 	<p>보도자료 (복지정책과)</p>
21.01.14.	<p>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 부산형 재난지원금 지급 착착 부산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업에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12.31. 기준 등록된 관내 관광사업체 대상, 경영안정 목적의 재난지원금 일시 지급 - 1.15.~1.22. 신청 접수, 업체당 50만 원 지원... 2.10.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 -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관광업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원 	<p>보도자료 (관광진흥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1.19.	<p>코로나19 백신 보급 전 완벽한 예방접종 준비태세 돌입!</p> <p>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신속하고 완벽한 예방접종 준비와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단장 행정부시장)」 5개 팀·25명 구성 - 11월 전까지 전 시민 백신접종 완료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접종 계획 	<p>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p>
21.01.20.	<p>코로나19 극복!! 소중한 사람을 위해 확실한 행동을 해주세요!!</p> <p>부산시, 「한 집에 한 사람 코로나19 검사받기」 범시민 운동 펼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확진자 중 45.8%가 가족, 지인 간 감염… 소중한 가족 위해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 캠페인 진행 -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한 집에 한 사람만큼은 검사를”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1.01.21.	<p>부산시,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이후 택시 이용률 48% 이상 감소… 택시 운수종사자 선제적 검사로 시민 불안감 및 업계 경영난 해소 나서 - 택시 운수종사자 2만2천여 명 대상 전수검사 진행… 임시선별진료소 이용 적극 권장 	<p>보도자료 (택시운수과)</p>
21.01.21.	<p>구내식당 이용 시 분산 이용으로 밀집 최소화!</p> <p>부산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집단급식소 2,939곳 특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29. 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건축공사장 식당 등의 집단급식소 대상 점검 -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도 활동 	<p>보도자료 (사회재난과)</p>
21.01.21.	<p>전에 없던 대규모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위원회」 발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 10:00 시정 7층 영상회의실에서 첫 회의 개최…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전하고 완벽한 예방접종 준비 및 지역사회 신속한 접종 시행 - 예방접종의 본격적인 시행 전 전문가 자문 및 준비태세 점검을 통해 완벽한 접종 계획 마련 	<p>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p>
21.01.22.	<p>선제검사로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한다!</p> <p>부산시, 버스 운수종사자 6천8백여 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6,817명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진행… 70% 검사 완료 - 2.1.~3.까지 공영(용)차고지 3곳에서 이동 선별검사소 운영… 진단검사율 높여 잠재된 감염 연결고리 차단 나서 	<p>보도자료 (버스운영과)</p>
21.01.25.	<p>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받으세요!</p> <p>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대상,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시 소득피해 보상금 지원 - 1인당 23만 원 지급… 내달 1일부터 우편 접수 시작, 2.15.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진행 	<p>보도자료 (인권노동정책담당관)</p>
21.01.29.	<p>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정부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p> <p>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제한업종 전용 특별자금」 긴급 투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2년간 2.8% 대출이자 전액 지원으로 무이자 혜택 - 100억원 규모 맞춤형 자금으로 100% 보증, 업체당 1천만원 한도 추가 지원 	<p>보도자료 (혁신경제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2.01.	네이버와 함께 코로나19 능동감시체계 구축! 부산시, 「코로나19 능동감시자 시 케어콜 서비스」 개시 - '21.2.1일부터 6개 구·군에 먼저 서비스 시행 - 능동감시자 모니터링 업무에 시기술 접목을 통해 보건소 직원 상담업무 부담 해소와 역학조사 집중	보도자료 (스마트시티추진과)
21.02.07.	“부산의 심장! 시민공원, 일상 회복의 전초 기지 되다!” 부산시, 「제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부산시민공원’ 선정 - 대규모 접종공간, 교통접근성, 전기·조명·발전시설 구비 등 접종센터 설치기준 부합, 시민 편의성과 부산 제1호 접종센터의 상징성 고려 - 시민공원 내 시민사랑채 건물에 예방접종센터 설치, 3월 중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접종 시작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21.02.08.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올 한해는 도시농업에 역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 도시농업으로 치유한다! - 코로나 시대, 도시에 살면서 작물을 재배하고 화초를 가꾸는 도시농업 재조명...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 회복 - 2021년 25개 교육과정 및 2개 시범사업 운영, 10월에는 제17회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보도자료 (농업기술센터)
21.02.08.	일상 회복을 위한 전 시민 무료 예방접종 본격 추진!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계획」 발표 - 전 시민 대상 예방접종 실시로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 2월 중순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예방접종 본격 시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순으로 단계적 확대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21.02.09.	연휴 중에도 방역체계 유지로 코로나19 물샐틈없이 막는다! 부산시, 설 연휴 코로나 대비 24시간 비상 방역체계 가동! - 2.11.~14. 방역·의료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병상 및 선별진료소 등 방역체계 정상 가동, 설 연휴 영락공원·추모공원 시설 운영 중단, 요양병원 원칙적 면회 금지 -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 “설 연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 특히 고령자 등 고위험군 가정은 꼭 지켜주시길” 당부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1.02.17.	「2020년도 1372 소비자상담 정보 분석」 공동발표 지난해 부산시 소비자상담, 코로나19 품목 대폭 증가 - 부산지역 지난해 소비자상담 접수 4만4천여 건, 전체 상담 건수 5.5% 감소 - 마스크·손소독제 1,189%, 예식서비스 484% 전년 대비 상담 대폭 증가	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
21.02.19.	코로나19백신 관련 팩트체크 코로나보다 무서운 백신? 가짜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 ‘물백신’부터 ‘비밀 임상실험’까지...독버섯처럼 퍼진 가짜뉴스, 시민 불안 가중 - 이병진 부산시장권한대행 “가짜뉴스 엄정 대응... 市 공식 정보가 가장 정확” 강조	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
21.02.21.	부산시민 여러분!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힘내주세요! 부산시 코로나19 발생 1년... 시민이 진정한 방역의 주역 - 2020.2.21. 부산 첫 확진자 발생 후 1년... 그간의 위기를 함께 이겨낸 시민과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 -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망의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백신 접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를 믿고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	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2.23.	<p>코로나19 방역택시! 토마토 택시(☎1668-1982)가 온다!</p> <p>부산시, 전국 최초 코로나19 방역택시 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1호 가맹면허 토마토 택시, 의심 증상으로 보건소 이동하는 시민 이동 편의를 위한 방역택시 운행... 3월부터 확대 운영 - 이용시민 요금 부담 경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대기 시 요금 미부과... 자택 복귀 지원 	<p>보도자료 (택시운수과)</p>
21.02.24.	<p>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헌혈 금지 기간 발표</p> <p>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7일 후 헌혈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간 헌혈 금지... 매회 접종 시마다 접종일로부터 7일간 헌혈 참여 배제 - 혈액안전소위원회 및 혈액관리위원회 심의·전문가 자문·해외사례 등 종합적 검토 거쳐 결정 	<p>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p>
21.03.18.	<p>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p> <p>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8. 16:30, 시청 국제의전실서 부산시·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참여하는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식 개최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성금 3,805만원 기탁 	<p>보도자료 (인권노동정책담당관)</p>
21.03.21.	<p>일상 회복을 위한 전 시민 예방접종</p> <p>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부터 시민 825천명에 대한 2분기 예방접종 추진, 4월 초 노인시설 및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2분기 예방접종 시작 - 6월까지 코로나19 취약시설,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 공간 교사,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 및 사회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p>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p>
21.03.28.	<p>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상황 매우 안 좋다, 앞으로 1~2주가 위기”</p> <p>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부산, “거리두기 상향할 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27일 56명, 28일도 오후까지 추가 시 50명 넘을 듯... 이번 주 하루평균 24.5명 - 이병진 권한대행,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 이어 부산시 실·국장, 부구청장·부군수 소집 회의 - 유흥업소발 감염, 복지시설발 감염 강력 점검 지시, 시민들 봄철 나들이 자제 당부 	<p>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p>
21.03.29.	<p>코로나19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기부의 손길</p> <p>(☎)국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10만 장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9. 16:00 시청 7층 국제의전실, 부산시와 종합물류회사 (☎)국보가 함께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 - 전달받은 마스크는 감염위험이 큰 식품업소 종사자들과 최근 대규모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부산공동어시장 상인들에게 배부될 예정 	<p>보도자료 (사회통합과)</p>
21.03.29.	<p>토·일 이틀간 부산 신규 확진자 100명 넘어,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p> <p>이병진 권한대행 “코로나19 초비상, 방역에 총력 대응하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9일 오전 10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주재 부산시 주간 정책회의 개최 - 부산형 산단 대개조 사업 활성화 방안,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적극 협조 등도 논의 	<p>보도자료 (소통기획담당관)</p>
21.03.31.	<p>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최소화 조치</p> <p>부산시,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관리」 특별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23.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특별점검... ▲관내 전체 어린이집 1,720곳 자체점검 ▲시 및 구·군 표본 현장점검 병행 -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종사자 및 부모의 공동 노력 당부 	<p>보도자료 (출산보육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3.31.	자가격리자는 4, 7(수) 임시 외출, 오후 8시 이후에 투표 부산시, 보결선거 대비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 - 자가격리자는 4월 5~6일 중 투표 참여 신청해 4월 7일 오후 8시 이후 투표 가능, 자가격리 업을 통해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대기장소 도착·복귀 시 신고해야...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인재개발원)에서 4월 3일 특별 사전투표 가능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1.04.04.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한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콜센터」 운영 - 내일(5일)부터 「부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담콜센터」 설치·운영 - 16개 구·군별 예방접종 콜센터 운영 예정... 구·군-시-질병관리청 간 핫라인 구축으로 이상반응 등 비상 상황에 신속·연계 대응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21.04.06.	정부 협업「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최종 선정 부산시, 감천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R&D 선정 -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문제기획부터 기술개발, 적용·확산까지 전단계 협업 - 코로나19로부터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및 타 감염병에도 적용 기대	보도자료 (첨단의료산업과)
21.04.07.	부산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숨은 감염자 찾기 ‘총력’ “부산시민 누구내 부담 없이! 코로나19 검사받으세요” - 환절기 감기 환자 급증에 따라 부산시의사회·약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병원급 이상 병원 및 의원, 약국 등 4천400여 곳에 홍보 포스터 배부 - 보건소·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 관계없이 무료 검사 시행... 이동형 선별검사소 운영으로 지역 내 감염 고리 차단 나서	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
21.04.08.	2021년 인도·아세안 신남방 수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부산시, 코로나19 시대 신남방 비대면 수출판로 강화 나서 - 인도·아세안 등 신남방 시장 공략 사업을 추진하여 210여 개사 지원 -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방식 사업 강화를 통해 부산 중소기업 신남방 수출 지원	보도자료 (투자통상과)
21.04.08.	민선9대 시정 중점과제로 소상공인 지원책 선정... 피해 소상공인 적극 지원 박형준 시장, 1호 결재는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 대폭 확대, 1.3조 원→2조 원 목표 -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
21.04.09.	민원창구 감염 가능성 최소화로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한다!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민원창구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 강화 - 4.9.~16. 코로나19 대응 민원실 방역관리 이행사항 현장점검... ▲시 및 구·군 민원실(읍·면·동 포함) 민원창구 전수 점검 ▲시 및 구·군 민원실(읍·면·동 포함), 대민업무 담당부서 자체 방역실태 예방교육 실시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안심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소통과 공감의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	보도자료 (통합민원과)
21.04.16.	중국 상해에 부산제품 상설전시관 마련 부산시, 코로나19속 우수제품 對中수출 안팎 지원사격 - 부산시 전국 최대 상설 화상상담장에 이어 중국 상해에 부산제품 상설전시관 마련 - 중국 국가급 전시관 상설전시로 맞춤형 바이어 발굴·연계 등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비	보도자료 (투자통상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4.19.	2021년‘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우리 함께, 코로나 이겨내고, 희망의 미래로!” - 부산시,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식 개선 확산 노력 - 장애인 주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전시전 마련… 우리 사회구성원인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행사 통해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보도자료 (장애인복지과)
21.04.19.	박형준 부산시장, 구청장·군수와 협치 첫 일성 ‘코로나19 위기 조속 극복!’ - 시장, 구·군 단체장 첫 상견례, 4.19.(월) 14:00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부산시-구·군 협치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경제대책 중점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 나뉘 -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시와 구·군이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협치시정 강조 - 부산시-구·군 협치회의, 시장-구청장·군수 간 공식협의체로 지속 가동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21.04.20.	부산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진료비 지원… 진단검사 활성화 나서 박형준 시장 “부산시민은 누구나 부담없이 코로나 검사 가능” - 4.22.~5.19.까지 4주간(거리두기 2단계 유지 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21곳에서 별도 진료비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무료로 시행 - 구·군 보건소, 시청·부산역 임시선별검사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총 48곳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지역내 숨어있는 확진자 조기 발견해 재유행 차단에 총력	보도자료 (보건위생과)
21.04.21.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복지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위기지원 나선다! - 4.26.부터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및 업장 원상복구비용 1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종합건강검진비용 25만원 350곳에 지원… 협약병원 14곳 운영	보도자료 (소상공인지원담당관)
21.04.21.	부산시, 유흥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사례 분석 - 2021.1.1.~4.18. 유흥시설 점검 간 81개 업소의 위반유형 및 발생사유 분석 ◆ 위반사유는 ①방역수칙 준수 의지부족(69.1%) ②영업상의 어려움(13.6%) ③단골고객 관리(11.1%) ④행정명령 이해부족(6.2%) 순으로 나타나 - 부산시,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점검 및 홍보 추진… 영업주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	보도자료 (사회재난과)
21.04.22.	부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부산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심리지원을 위한 적극 대응에 박차 - 4.22./4.28. 양일간 부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요인에 대한 청소년 심리지원 상담기법 및 예방대책 마련…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화(☎ 1388)로 상담 신청	보도자료 (아동청소년과)
21.04.27.	부산 해수욕장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풍성 코로나에 지친 심신, 해수욕장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 - 5.8.~6.26. 4개 해수욕장(다대포, 송정, 광안리, 해운대) 노르딕워킹, 섀넌 필라테스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 해양레포츠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해양레포츠 관광프로그램 사계절 운영	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
21.04.28.	임시선별검사소 3곳·의료기관 선별진료소 22곳에서 무료검사 시행 부산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활성화… 누구나 부담 없이 검사 가능 - 동래역환승센터에 임시선별검사소 개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진단검사 시행에 22곳 참여… 별도 검사비·진료비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 부산지역 임시선별검사소 총 3곳에서 7천500여 명·의료기관 선별진료소 22곳에서 2천500여 명 시민들이 코로나 진단검사 시행… 양성자 10명 조기 발견	보도자료 (보건위생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4.28.	4.26.~5.2.(1주간) 강화된 점검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반전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관리 주간 특별점검 실시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01,603곳에 대한 특별점검 추진 - 4.29. 현장점검의 날 운영... 박형준 부산시장, 연제구 선별진료소(보건소)를 방문해 접종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	보도자료 (사회재난과)
21.04.28.	현장소통 강화, 「부산시-부산상의 정책협력간담회」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 지역 상공인과의 상생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총력 - 박형준 부산시장,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참석, 경제위기 극복 시정의 최우선 과제 - '지역경제 위기극복 공동선언문' 채택, 상생협력과 고통분담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박차 -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경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로 지역 상공인들과 협력강화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1.04.29.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국비 최대증액 확보 글로벌 마이스도시로서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발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국비 5.4억 원 확보 - 대형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허브시스템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마이스산업 선제적 대응 박차	보도자료 (마이스산업과)
21.05.04.	제9회 '찾아가는' 부산낙동강 유채꽃축제 새로운 시도, 성공적 마무리 위드코로나 시대... 부산시 축제 체계 전환 - 새로운 시대, 코로나 시대의 긍정적 산물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축제 재편 추진 - 수요자·공급자 쌍방향 소통과 축제의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1.05.13.	부산시·조계종부산연합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전달식 개최 - 조계종부산연합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소독기·소독제 등 3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전달 -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는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방역택시 운행 종사들에게 배부 예정	보도자료 (택시운수과)
21.05.21.	부산시, 코로나 넘어 국제회의 유치 본격 재개 - '2023 바이오센서 세계총회', '2024 COSPAR 학술총회' 등 4개 국제회의 유치 확정 - 유력한 국제회의 40여개를 대상으로 부산시·부산관광공사·백스코 공동협력 유치 중	보도자료 (마이스산업과)
21.05.28.	「2021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개최 부산시, 코로나 일상 속 안전한 해수욕장 준비에 최선! - 5.28. 15: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구·군,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등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 - 코로나19 일상 속, 해수욕장 방역,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데 중점	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
21.05.30.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 - 5.31. 14:00,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 市- 부산은행-부산신용보증재단 MOU 체결 - 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3無(無한도, 無신용, 無이자) 특별자금 지원 시행	보도자료 (혁신경제과)
21.06.04.	부산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위기를 기회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추경 1조1,221억원 편성 - 500억원 채무감축하고, 채무비율을 24.6%에서 22.9%로 1.7%p 감축, 재정리스크 해소 - 코로나 피해 복구로 열악한 구군에 조정교부금 조기지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안한 현장맞춤형 예산 편성 - 산학협력 혁신, 15분 도시, 초광역 경제도시와 같은 코로나 이후 부산의 미래비전 예산 편성	보도자료 (예산담당관)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6.09.	<p>부산관광 품(선) 결제 관광상품 설명회 개최</p> <p>부산시, '부산관광 품(선)결제'로 코로나 위기 극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업체화 상생으로 관광상품 기획사 2곳 선정하여 착한 가격의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 100여개 참가여행사 대상 관광상품 사업설명회 개최, 여행사를 통한 6월 중순 이후 관광상품 판매 예정 	보도자료 (관광진흥과)
21.06.14.	<p>부산시, 2021년 폭염 종합대책 발표</p> <p>코로나19 속 폭염! 부산시, 맞춤형 폭염 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고려해 중단된 실내 무더위쉼터 재운영, 백신접종센터 실외대기자 폭염 예방 물품 지원 -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예산 18억 원 투입, 코로나19 대응 양산 쓰기 운동 추진, 야외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운영 	보도자료 (자연재난과)
21.07.05.	<p>신규 접종 및 지자체·사업장 자체 접종, 교차 접종 등 준비에 만전</p> <p>부산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대입수험생(고3 포함),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50대 대상 접종 개시 - 항만근로자, 연근해 어업종사자 등 대상으로 시 특성 및 방역상황을 고려한 지자체 자율접종 추진 예정... 사업장 자체 접종, 교차 접종, 필수 활동목적 출국 부산시 자체 시행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21.07.14.	<p>코로나19 방역 최일선 보건소 격려 방문</p> <p>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행보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4. 13:20, 부산진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해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업무 폭증과 폭염 등 이중고 겪는 현장 근무 직원 격려... 관련 업무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청취 - 내일(15일) 해운대구 구남로·해운대 해수욕장 등 방문해 휴가철 대비 방역 대응 태세 점검 예정 	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
21.07.16.	<p>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방역수칙 강화 적용</p> <p>부산시, 가용자원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나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9.~25.까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05~18시까지 8명·18시~다음날 05시까지 4명) 및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등은 그대로 유지 - 부산시, 역학조사 인력지원·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진단검사 행정명령·방역 특별점검 등 확산세 저지 위해 방역 고삐 '바짝' 	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
21.07.19.	<p>부산시,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백신 자율접종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청 지자체 자율접종 시행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예방백신 대상자 조사 - 학업·취업·질병 치료를 위해 국외 방문이 불가피한 시민도 자율접종 대상자에 포함...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으로 신청하면 승인 후 백신 접종 가능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21.07.20.	<p>박형준 시장, 16개 구·군 단체장과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21(수) 9:00,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16개 구·군단체장과 긴급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대책 집중 논의 예정 	보도자료 (자치분권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7.21.	<p>박형준 시장, "시와 구·군의 가용역량 총력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막아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7.21.(수) 9:00, 코로나19 위기 총력대응을 위한 16개 구·군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 열어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대책 논의 - 시와 구·군의 총력대응을 통한 코로나19 최대 위기 극복 당부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1.07.13.	<p>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초청 부산미래경제포럼 개최 코로나 시대, 부산의 위기와 기회를 말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3.(금) 08:00,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초청,' 제59회 부산미래경제포럼'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산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의 부산의 시정 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시간 	<p>보도자료 (경제일자리과)</p>
21.07.26.	<p>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한 방역 현장 점검 나섰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형준 부산시장, 7.26.(월) 13:20,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부산의료원 찾아 치료 프로세스 등 점검 - 이어 14시50분, 제3생활치료센터 방문하여 환자 수용 현황 보고받고 의료진 등 격려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1.07.28.	<p>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 부담경감과 산업체 경쟁력 회복 2021년도 부산 도시가스 요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동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8.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동결 결정으로 서민생활 부담 완화 - 최저 임금 상승, 공급배관 수선비 인상 등 요금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공급비용 동결 	<p>보도자료 (미래에너지산업과)</p>
21.07.29.	<p>부산시 특사경,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방역수칙 위반 엄중 조치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특별단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사경 특별단속반, 7.29.~8.8. 11일간 관내 유흥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주·야간단속 뿐만 아니라 심야 잠복수사도 병행 - 해수욕장, 관광지 주변에 밀집한 음식점·카페 및 민원신고업소 등 중점 단속 -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운영중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 	<p>보도자료 (특별사법경찰과)</p>
21.08.04.	<p>"시민이 백신이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부산시와 국민운동단체, 코로나19 극복 합동 방역 캠페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7. 양일간 시내 변화가 및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극복 합동 캠페인 전개 - 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청년연합회 등 4개 단체 200여 명 참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방역지침 준수 독려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1.08.08.	<p>"시민이 백신이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부산시와 국민운동단체, 코로나19 극복 합동 방역 캠페인 나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7. 양일간 시내 변화가 및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극복 합동 캠페인 전개 - 새마을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청년연합회 등 4개 단체 200여 명 참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방역지침 준수 독려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1.08.08.	<p>박형준 시장, 코로나19 대책 긴급회의 개최... "시민안전 지킬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 10:00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16개 구·군 단체장과 긴급회의 개최 -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대책 집중 논의... 회의 이후 외식협회, 방역 현장 직접 방문 예정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08.13.	광복절 연휴, 집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도 멈출 수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 “코로나19 4차 대확산 극복! 시민과 함께 힘 모아” - 8.13. 16:00, 16개 구·군 부단체장과 광복절 집회 대응 긴급 영상회의 개최 - 박형준 시장, “모두 함께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줄 것 당부”	보도자료 (공보담당관)
21.08.20.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 인력 부족 해소! 박형준 시장, 코로나 대응 보건인력 102명 신규 배치 및 근무여건 개선! - 10월 말 예정이던 보건의료직렬 신규공무원을 2달 앞당겨 8월 18일 일선 구·군 배치 완료 - 의료 보건 인력 부족에 선제 대응, 구·군 보건소 인력보강으로 현장 의료공백 상황 방지	보도자료 (인사과)
21.08.20.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시의회 제출 코로나 피해 긴급지원 추경 8,208억 원 편성 - 기정예산 대비 5.7%, 8,208억 원 증가한 15조 2천 429억 원 편성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중 신속 지급, 코로나 위기 상황 대비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추가 적립 - 동백전 780억원 추가 발행으로 9월 한 달간 전통시장 사용 시 동백전 캐시백 15% 지급 -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서부산복합청사 타당성 조사,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등 부산균형발전 예산편성	보도자료 (예산담당관)
21.08.23.	부산시, 「찾아가는 응원커피차 캠페인」 추진 박형준 시장 “부산시민들의 영웅, 코로나 대응인력 여러분 감사합니다” - 8.18~ 8.20. 부산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격려 및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응원캠페인 추진 - 연일 이어지는 100명대 확진자 발생으로 번아웃 위기에 놓인 최일선 보건소 대응 인력 위해 다과와 응원 메시지 전달	보도자료 (건강정책과)
21.08.24.	2021 부산국제광고제, 온라인 페스티벌 개최 부산시, 코로나 시대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 선도 - 8.25.~ 8.27. 3일간 코로나 19 장기화로 부산국제광고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택트 행사 개최 - ‘시프트(Shift, 코로나 시대의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를 주제로 ▲ 수상작 쇼케이스 ▲ 컨퍼런스 ▲ 전시 ▲ 글로벌 매드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돼...	보도자료 (영상콘텐츠산업과)
21.09.01.	‘HOPE with HUG프로젝트’, 노후 공공시설 6곳 환경개선 추진 코로나19에도 변함없이 기부 손길 이어져... - 노후 공공시설 개선사업 ‘HOPE with HUG프로젝트’ 부산시·부산건축제·주택도시보증공사와 6년째 공동 추진... 올해는 6곳 선정 추진 - 주택도시보증공사·지역건설사는 공사 재원 기부, 지역 건축전문가들은 설계 등 재능기부 - 올해 첫 사업대상지 사랑빛 지역아동센터는 한국도시보증공사·(주)동원개발의 후원과 디자인도스 송지윤·서현우 건축가의 재능기부로 주방설비 및 교육 환경 개선 이뤄져(9.1. 준공식)...	보도자료 (건축정책과)
21.09.01.	코로나19 피해 부산시민 생활 안전망 확보! 부산시,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 - 부산지역 지급 대상 총 280만여 명... 부산시, 총 7천262억 원(국비 5,810억 원·시비 729억 원·구군비 723억) 예산 투입 - 신속·편리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도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용 콜센터(☎1661-8112) 운영 - 9.6.부터 신용·체크카드사, 동백전 홈페이지·앱 온라인 신청 시작... 9.13.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및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작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10.07.	<p>부산시, 「2021 해수욕장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p> <p>코로나 어려움 속 해수욕장 방역 노력 다해... 방역과 안전에 계속 집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제(6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 보고회 개최... 해수욕장 운영 결과 공유, 개선방안 논의 - 코로나19 일상 속, 강화된 방역대책 마련, 상인, 민간단체 등 시민 적극 협조로 감염병 발생 근절 - 보고회 결과 개선사항은 내년도 운영에 반영, 사계절 안전한 명품해수욕장 운영 	<p>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p>
21.10.14.	<p>부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기초부터 빈틈없이 준비한다!</p> <p>「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분기 예방접종 인원 확대 및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원활한 적용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 증명 필요... 증명서 발급 안내문 비치 및 동영상 배포 등 증명 방법 적극 홍보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종이, 전자증명서 및 신분증 스티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가능 	<p>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p>
21.10.19.	<p>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공무직 복지예산 반납...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범조합원 산업시찰 전면 취소, 공무직 후생복지예산 2천 7백여만 원 반납 -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장상수 위원장 “고통분담 차원, 신속하게 재난 대응에 활용 되길” - 박형준 부산시장 “재난 등 상황에 앞장서는 공무직에 감사, 코로나 종식 위해 시정 역량 집중” 	<p>보도자료 (인사고)</p>
21.10.25.	<p>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는 29일 신청 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289만3천 명 중 98.4%(284만여 명) 지급 완료 - 10.29. 18:00까지 신용·체크카드, 동백전 온라인 신청 및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p>보도자료 (복지정책과)</p>
21.10.25.	<p>“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p> <p>부산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 70%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접종 시작 242일 만에 인구수 대비 접종 완료율 70% 달성... 235만 명(10.25. 13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고령층 90%·18세 이상 80% 달성... 시민 참여와 의료진·관계자 노력으로 이룬 성과 - 박형준 시장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일상회복이 눈앞에” 	<p>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p>
21.10.28.	<p>시민과 함께 부산이 먼저 일상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p> <p>「부산광역시 코로나19 범시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본격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9.(금) 08:00,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개최... 제1차 회의 열어 - 박형준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의장, 교육감, 방역의료·문화관광·경제민생·자치안전 등 4대 분야별 대표 및 전문가 등 총 35명으로 구성 - ‘부산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논의, “민·관 협력 바탕으로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이끈다” 	<p>보도자료 (기획담당관)</p>
21.11.15.	<p>한국남부발전(주), 부산시에 성금 2억 원 전달... 취약계층, 코로나19 의료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5. 15:30 부산시청에서 한국남부발전(주) 성금 전달식 개최 - 학대 피해 아동, 디지털 소외계층, 청년자립 및 코로나19 관련 의료진 등 지원해 사회 취약계층 자립과 코로나 극복에 힘 보태 	<p>보도자료 (지산학협력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1.11.24.	부산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 12.1.부터 부산지역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일용직 노동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신청 - 1인당 23만 원 현금 지급... 취약노동자 생존권·건강권 보호하고 조기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모	보도자료 (인권노동정책담당관)
21.12.08.	부산시,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 제2차 본회의」 개최 부산시 노사민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힘 모아 - 12.7. 2021년 제2차 본회의 열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노사민정 대표 참석 -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의지 다져	보도자료 (인권노동정책담당관)
21.12.09.	“코로나19 3차 접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부산시,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접종효과 감소 및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선제 대응 위한 3차 접종 적극 독려 - 온라인·전화 등 사전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대상, 당일 현장 접종 추진... 접종 편의 도모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21.12.27.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서두르세요! - 미사용한 금액은 해당 카드사(또는 동백전) 홈페이지·앱·ARS 등을 통해 확인 - 사용처는 동백전 가맹점과 동일하며, 홈페이지 '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통해 조회	보도자료 (복지정책과)
21.12.27.	부산시, 2022년 업무계획 첫째 날.. 코로나 위기 극복 분야 보고회 개최 박형준 시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일상회복 앞당길 것 - 12.27.10:00, 첫 번째 일정으로 동부산권 거점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인 (구)침례병원에서 코로나 위기극복 분야 2022년 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 2021년 한해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에 시정역량 집중... 부산형 방역체계로 안정적 방역관리와 함께 (구)침례병원 거점의료기관화 추진 등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3,000억 원대 핀셋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책 지속 추진 -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적극 추진해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박차	보도자료 (기획담당관)
22.01.05.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린스마트 부산 실현 박형준 시장, 코로나 극복·경제활력 제고 및 엑스포 유치에 시정 역량 집중 - 1.5. 11:00, 시정 운영 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2022년도 신년 정책발표 - 시정 핵심 키워드로 ▲미래비전 ▲안전복지 ▲경제활력 ▲산학협력 ▲4차산업 ▲탄소중립 ▲문화관광' 등을 두고 7대 중점 추진전략 실행...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린스마트 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 확립 집중 - 박형준 시장,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산 재도약을 위한 그린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에 주력”	보도자료 (기획담당관)
22.01.09.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시내버스! 부산시, 단계별 대책으로 시내버스 코로나19 확산 막는다! - 부산시, 금정공영차고지 관련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확산세 이어지자 단계별 대책 마련 - 공동이용시설 폐쇄 및 버스 감축운행, 버스 내 방역수칙 강화 적용... 관련 버스회사 전 직원 매일 코로나19 진단검사로 감염 연결고리 차단	보도자료 (버스운영과)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2.01.10.	<p>부산시,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p> <p>부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돌봄 멘토링 추진... 코로나 학습결손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중 초등학교 아동 대상, 시·군·구·관·동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 멘토링 본격 시행 - 코로나19 상황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완화 도모 	<p>보도자료 (교육협력과)</p>
22.02.15.	<p>“코로나 19도, 올해의 나쁜 액운도 썩 물렸거라!”</p> <p>북천박물관, ‘코로나 19 극복 기원 연 만들어 날려보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6. 10:00~16:00 북천동고분군 일시 개방해, ‘연 만들어 날려보기’ 시행... 연 만들기 체험 키트 배송받아 창작연 만들어본 다음, 북천동고분군에서 직접 날려 볼 수 있어 - 2.16.까지 선착순 100명 모집, 미신청자도 개별적으로 연 준비하면 누구나 날려볼 수 있어 	<p>보도자료 (시립박물관)</p>
22.03.01.	<p>부산시, 제103주년 3.1절 기념 광복기념관 참배...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화) 09:00 광복기념관 위패봉안소, 항일운동의 정신과 애국선열의 뜻을 기리기 위한 참배 진행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3.1절 기념 행사 취소 	<p>보도자료 (총무과)</p>
22.03.03.	<p>격리자 등은 5일과 9일 임시 외출, 오후 6시 이후 투표</p> <p>부산시, 코로나19 대응 특별 투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자 등은 3.5.(토) 오후 6시까지 인근 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 가능, 3.9.(수)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개인별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격리자 등은 5일과 9일 모두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투표소에서 ‘외출 허용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메시지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가능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22.04.08.	<p>“힘든 시간 버텨낸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p> <p>박형준 시장, 취임 1주년 첫 일정... 코로나19 최일선 방역현장 격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 15:00 송상현광장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진단검사 현황 확인 및 의료진 격려 나서 - 박형준 시장, 의료진에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란 꽃말의 마트리카리아 전달 - 부산지역 3월 3주를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세... 방역·의료 대응체계 효율화 추진 	<p>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p>
22.04.22.	<p>“일상으로의 고백(Go-Back), 여러분이 있어 고맙습니다!”</p> <p>부산시, 코로나19 대응인력 3천 명에 ‘고백키트’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0.~21. 부산시, 「코로나19 대응인력 응원캠페인」 추진... 구·군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격려를 위한 응원 키트 전달 -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도모 	<p>보도자료 (건강정책과)</p>
22.05.23.	<p>「2022년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 개최</p> <p>부산시, 코로나로부터 일상회복! 안전한 해수욕장 준비에 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일 부산시, 구·군, 관계기관 등 해수욕장 준비상황 점검... 본격적 일상회복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관리 점검 - 해운대, 송정은 6.2.부터 일부 구간 개장, 7.1.~8.31. 7개 해수욕장 전면 개장 	<p>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p>
22.06.20.	<p>온전하고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p> <p>부산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치유 프로그램,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등 시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중 - 앞으로도 시민 한분 한분에게 활력을 드리는 힐링 관광, 심리지원 등 다양한 일상 회복 지원방안 추진 노력 	<p>보도자료 (자치분권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2.07.08.	<p>춤허용업소·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부산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수칙 홍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산세로 전환... 오늘(8일) 저녁,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일대 감성주점 등 춤허용업소·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홍보 추진 - 시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50여 명 참여... 직접 업소 방문해 실내 마스크 착용·주기적 환기·밀집도 완화 등 자율방역 실천 중요성 강조 	<p>보도자료 (보건위생과)</p>
22.07.08.	<p>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부산시, 최재천 위원장 특강 추진... 코로나19 우울·불안 해소 돕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1. 13:00,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시민 특강 열려...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장 직접 강의 - 기후위기와 감염병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과 더 건강하게 지내는 방안 모색...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소 역할 기대 	<p>보도자료 (건강정책과)</p>
22.07.13.	<p>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전환 - 부산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체계 전반 대응방안 마련...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확충, 유사시 치료병상 재가동 준비, 특수·응급환자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50대·기저질환자 및 장애인 시설 등 4차접종 대상 확대, 충분한 치료제 확보 및 처방률 제고 - 유행 안정 시까지 격리의무 유지... 자발적 방역에 기반한 시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협조 	<p>보도자료 (시민방역추진단)</p>
22.08.12.	<p>코로나19 확진자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폐지에 따른 부산시, 건강 고위험군 재택치료 자체 관리방안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 1인가구 및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을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 고위험군으로 관리 - 구·군 보건소별 건강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통해 확진자 건강상태 확인, 의료진 상담 필요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와 의료상담센터 이용 방법 및 입원 절차 안내 등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2.08.15.	<p>박형준 부산시장, 코로나19 확진... 7일간 재택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형준 부산시장 오늘(15일) 코로나19 확진... 오는 21일까지 7일간 재택치료 예정 - 재택치료 기간에도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화상회의 등을 통해 각종 보고와 결재, 현안업무 직접 챙길 예정 	<p>보도자료 (공보담당관)</p>
22.09.08.	<p>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부산시, 「코로나19! 검사부터 입원까지」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선별검사소(부산시청, 부산역) 정상 운영, 신속대응 이동검사소(부산서부터미널) 추가 운영 -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 처방, 입원의뢰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및 자율입원병원 등 운영 - 부산시 콜센터(☎120), 구·군 행정안내센터에서 24시간 코로나19 상담 안내 - 추석 연휴 코로나19 Q&A 사이트도 운영... 연휴기간 맞춤형 코로나19 정보 제공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2.09.27.	<p>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유행변이 대응 부산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1.부터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접종 -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 등은 11월부터 12월 사이, 건강한 18~49세 성인은 12월 이후로 단계적 확대 시행 - 9.27.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작... 최종 접종일로부터 4개월 지났다면 이번 추가접종 대상자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2.10.27.	<p>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및 변이 유행 대응</p> <p>부산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대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코로나19 재유행 위험과 변이 유행 적극 대응 - 오늘(27일)부터 사전예약·당일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면역저하자 ▲ 50대 이상 연령층 ▲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 추가접종 적극 권고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2.11.22.	<p>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을 제고에 총력 -</p> <p>부산시, 코로나19 동절기 재유행 대비 요양병원 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1. 오전 행정부시장 요양병원 현장 방문...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독려 및 의료진 격려 - 11.21.~12.18.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 운영...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접종 적극 권고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2.12.21.	<p>"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p> <p>부산시·부산시의사회, 동절기 추가접종 대시민 권고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재유행 대응 위해 ▲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 만 60세 이상 연령층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적극 독려 - 동절기 집중접종기간(11.21.~12.31.) 예약 없이 접종 가능...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 통해 안전성과 접종효과가 큰 2가 백신 접종 적극 권고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3.01.20.	<p>부산시, 설 연휴 「일상유지 속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체계」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임시선별검사소(부산시청, 부산역) 정상 운영 - 코로나19 검사부터 진료, 처방, 입원의료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95곳,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제 가능한 담당약국 117곳, 자율입원병원 37곳 등 운영 - 코로나19 대응 시민대상 Q&A 사이트도 운영... 연휴 기간 맞춤형 코로나19 정보 제공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3.01.29.	<p>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p> <p>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일부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 제외 마스크 자율 착용토록 권고로 전환 - 부산시,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접촉자, 고위험군, 3밀 환경에 처한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하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대한 지속적인 동참도 강조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3.02.07.	<p>북천박물관, '코로나-19 극복 기원 연 만들어 날리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9. 10:00~13:00 북천동고분군 일시 개방해 '연 만들어 날리기'시행... 전통 연 제작 장인과 함께 연 만들고 북천동고분군에서 직접 날려 볼 수 있어 - 2.9~2.16 북천박물관 누리집 통해 선착순 사전접수 진행(참가비 무료) 	<p>보도자료 (시립박물관)</p>
23.03.13.	<p>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부산 입항 재개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인 2023년 크루즈선 80항차 이상 부산 입항 예정 - 3.15. 부산항 첫 입항 아마데아호(AMADEA) 특별 환대행사 개최... 기념패 전달, 해군 군악대 공연, 전통 공연 등 입항 재개 기념 축하 행사 진행 - 6.1, 6.24. 부산에서 일본 기항하는 국제크루즈선(코스타세레나) 운영... 내국인이 국내에서 크루즈선 통해 해외 가는 전국 최초사례 	<p>보도자료 (해양레저관광과)</p>

월일	보도내용	제공부서
23.03.17.	<p>부산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p> <p>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의료기관 등은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발령… ▲ 대중교통수단 ▲ 벽·칸막이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개방형 약국 제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부산시, 의무 해제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접촉자, 고위험군,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및 개인 방역수칙 생활화 거듭 강조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3.05.31.	<p>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p> <p>부산시, 격리 등 주요 방역조치 완화… 안전한 일상회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1일부터 격리(7일 의무→5일 권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입국 후 3일 차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검사 권고 종료 등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완화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도 개편…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로 전환,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 허용 - 박형준 시장, “안전한 일상회복 위해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관찰(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3.06.01.	<p>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p> <p>박형준 시장, “오늘의 일상회복은 의료진의 노고 덕분… 깊이 감사드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 14:00 부산의료원 방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된 오늘(6.1.), 주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박형준 시장이 직접 의료진 격려 나서 - 박형준 시장,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난 3년 4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듣고, 부산의료원 의료진 비롯한 부산지역 모든 의료진에 부산시민을 대표해 진심 어린 감사 전할 예정 - 아울러, 그간의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위협에 대비한 공공의료 대응체계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힐 예정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23.08.30.	<p>부산시,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중심 방역·의료체계로 전환</p> <p>◆ 8.31.부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고, 위기단계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 그간의 감시체계, 지원정책을 조정하고 의료계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해 ◆</p> <p>다만,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를 위해 ▲위기단계 ‘경계’ 유지 ▲병원과 요양병원·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강화 등 추진</p>	<p>보도자료 (감염병관리과)</p>

4. 직원들의 한마디(Rolling Paper)

강서구보건소

임미진 (역학조사업무)

수습으로 입사하여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코로나가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처음 전화를 걸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겁도 나고 하였는데, 어느새 몇십, 몇백 명에게 전화를 돌리고 하였네요..... 길었던 기간 동안 근무하셨던 모든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되도록이면 이런 팬데믹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산업입지와

박종대

'22년 2월 코로나19 재택치료물품지원TF팀이 신설되면서, 문가영 팀장님, 강주희 사무관님, 이성환 주무관님과 같은 팀이 되어 함께 했던 순간들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키트 포장, 건강관리세트 배송 등 당시에 낯설고 처음해 보는 업무였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취약계층에 건강관리세트를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건강관리세트를 받으신 분께서도 고마움을 전하셨고, 마지막까지 업무에 보람을 느끼며 일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TF팀이 없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산시의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같은 팀으로 그때처럼 근무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

김현준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갑작스레 부산역 비상수송지원반을 운영하게 됐음에도 단 한명의 추가 감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심재승 과장님과 석규열 팀장님을 비롯한 택시운수와 직원들과 부산시설공단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성가족국

임상우

해외입국자 비상수송이라는 업무는 일찍이 본 적도 없던 일이라 모두가 긴장했지만 결의에 찬 표정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택시행정팀 그리고 택시운수와 직원들 그리고 시청의 거의 모든 직원이 투입되어 고생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서로 으쌔으쌔하던 우리 모두가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해낸 게 아닐까요. 우리 모두에게 고생 많이 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중구보건소

강언희

코로나를 겪는 시간 동안은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전 세계적인 공황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중요한 일을 했었구나 싶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했던 팀장님, 주무님, 동료들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후 노고를 격려해주신 과장님 소장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파이팅~~

해운대구보건소

정정숙

2021년 겨울로 기억됩니다. 접촉자 자가격리가 엄격하던 그 시절 세브란스(신촌)병원에서 페이스 환자였는데 환자 집은 해운대 달맞이고 환자가 세브란스병원에 내방해야 하는데 가장 극심할 때 확인서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할 때라 신촌 관할 보건소로 수십통 전화를 걸었지만 코로나업무로 불통이라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신촌 관할 보건소 전 직원에게 메신저와 쪽지를 날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온종일 전화한 결과 겨우 통화가 가능하여 발급받아 무사히 병원진료를 하게 되었다. 무균실도 중요하지만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다방면으로 조치한 결과 무사히 진료를 받고 내려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환자가 무사히 도착 후 생명을 구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습니다.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말을 많이 해서 목이 타들어 가는 듯이 전 직원이 힘든 시기였지만, 급박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해운대구보건소

김윤아 (감염병대응)

코로나19 한창때 임용되어 정말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벌써 2년이 훌쩍 지나고 이제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러려고 공무원 했나..싶고 몸이고 마음이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한걸음 자랐다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들이 더 오겠지만 이제는 지금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운대구보건소

김리안

저는 코로나19가 악명을 떨치기 시작한 2020년에 해운대구보건소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다소 수척하고 피로해 보였지만 따뜻하게 맞이 주신 동료분들과 상사님들.. 아주 짧은 인사과 교육을 받고 발령 이튿날부터 동기와 차에 태워져서 교회 전수조사에 동원되고(충격...) 일주일 뒤 당시 소장님이셨던 전 시민건강국 국장님과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하며 관내 요양병원을 탐험하다 보니, 입사 4개월 만에 TF반의 장이 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동기들과 울고 웃으며 연속 14일 근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힘들었던 그때가 생생하게 생각납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아군이 되어주시고 격려해주신 감사한 분들/ 밤중에 걸려 온 비서실 전화에 잠들지 못한 밤/ 폭력적인 악성 민원인을 물리치고 민원실에서 받은 전리품 과자/ 하루 천 명 가까이 찾아오던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분주하던 아침/ 내가 근무하는 줄도 모르고 방법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보건소에 갇혔던 새벽/ 한나절 만에 쌓인 부재중 전화 590통과 읽지 않은 쪽지 50개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던 어느 날/ 그럼에도 저의 부족함으로 팀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던 건 모든 직원들과 모든 민원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자신만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일해주신 모든 동료 상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장군보건소

정순조

22년 3월 중순, 일일 확진자수 5,849명....최고의 수를 찍은 날
새벽 2시가 지나서도 명단정리도 못하고 퇴근했었지
내일은 내일 또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더라도 집에는 다녀오자 ~~~~라며 아직은 쌀쌀한
3월의 새벽이 기억납니다. 직원들은 힘들었겠지만.... 나 개인의 공직생활 중 참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으쌔으쌔~~~~ 따라오지 못했던 딸·아들 또래의 직원들 불러다 놓고
엄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라~~~~
밀어주고...당겨주고...넓은 도로에 큰 수레를 끌고 가는 일이 해운대구였기에 참 좋습니다.
역학조사 해주는 타과 직원들의 업무 협조 중 노조게시판에 쏟아지는 비방과 불평들..
팀장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내는 호소편지와 직원들의 격려와 감사들..
1년도 채 하지 않았던 해운대구에서의 역할이었지만 남은 게 너무 많습니다
소중한 동료들 사랑합니다^^ “떠나요~”

기장군보건소

이미하

대응팀의 동료애~~~~~
코로나 19의 대유행시기에 21년8월18일 첫 발령팀은 감염병대응팀이었다.
밤 11시 이전 퇴근은 꿈도 못 꾸고 주말근무는 당연한 시기다.
각자 업무수행 하느라 식사시간도 반납하면서 일을 했다 먼저 본인 일이 끝나면 거의 낙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팀원이 있으면 다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퇴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과한 업무로 힘들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잘 견딜 수 있었던 거 같다.

사하구보건소

서다정

매번마다 변경되는 지침에 수정된 지침보다 먼저 공개된 기사나 방송으로 인한 민원으로 더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같이 한다면 결국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서구보건소

이인숙

2022년 그해에도 벚꽃은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땐 그 밑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이들은 눈발이라 여겼을지도..
이젠 눈발이라도 벚꽃처럼 느껴질 것 같다.
다시 찾고 싶었던 자유

금정구보건소
정태순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인내하신 모든 직원들에게 애쓰셨다고 따뜻한 차 한잔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구보건소
이명성

OO아! .
힘들어하는 모습 옆에서 보고도, "잠시 쉬어라" 라는 말 한마디 못해준게 아직도 가슴 한켠에 미안함과 아픔으로 남아있어~
시간이 "아픈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힘내서 건강하고, 행복하자.

보건위생과
이은경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 밤늦게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서 1층 로비가 물바다가 되었던 아찔한 상황에서 모두가 도와서 해결한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보건위생과
김유진

다급하고 두려웠던 분위기 속에 방역수칙 등등 민원으로 매일 죄책감을 느꼈던 시간들이었는데, 앞장서서 발로 뛰어주셨던 팀장님, 과장님의 보살핌과 서로 도우려고 애쓰고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동료 직원들.. 어느새 추억이 되었네요^^

보건위생과
김은정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최대 초과근무를 했던... 그래서 너무 많이 울었고, 나의 직장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심각하게 명퇴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렇지만 그 어떤 업무보다 가치 있다고 느꼈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네요.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 잘 버텨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모두 파이팅입니다!!

보건위생과
김미정

유학길에 올라 공부하다가 현지에서 결혼까지 하고 코로나 시국으로 왕래가 힘들어져 아버지를 못 뵈는 지 10년여를 보낸 딸이 위독한 아버지를 뵈기 위해 어렵게 귀국하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중 부친상을 맞고, 검사차 보건소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린 기억이 아프게 떠오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유성아

모두의 노력, 모두의 성과!!!
관계 공무원, 의료인 모두 덕분에!!!!입니다~~~~!!!

보건위생과
엄유현

행정명령 연장될 때마다 당일 밤늦게까지 과 직원 전체가 게시문 붙이러 다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김진숙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약국 앞에 늘어선 줄을 마스크 5부제로 그나마 해결했지요

보건위생과
권은경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던 길고 긴 터널 같은 기간이었지만
후일 그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
김문영

역학조사 업무로 방문한 음식점 영업주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는 평평 우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때 보다 음식점 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컸던 시기였지만 대부분 영업주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김지혜

밤낮없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닌 환경위생과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백미화

코로나야 다시 보지 말자~

보건위생과
신민정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 근무 시 환자가 입소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혈압약 때문에 토요일
진료가 끝난 상황에서 진료 가능한 의원과 약국을 찾아 무사히 환자에게 혈압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해주신 의사선생님, 약사님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처방전과 약을 갖다주신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김보라

영업주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우시면서 전화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없어 너무 안타까웠다..

보건위생과
김은주

그때 그 시절 함께한 친구청 동료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직원들 덕분에 같이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임영인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어 소독했던 업소 사장님들!
몸고생,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번창하시길!

보건위생과
김미진

우리 모두...고생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건위생과
박여명

지나고 보니 추억이지만..그땐 참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때 아름다운 법! 다신 만나지 말자~코로나야!!

보건위생과
노아영

예상보다 길었던 코로나19가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안녕~

보건위생과
정해진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소중함 오래오래 간직하며 오늘도 모두 핏팅!!입니다

건강정책과
김보아

왜 팬데믹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아팠던 모든 분들이 삶에 대한 강한 면역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이옥희

이동동선 공개자료 수정을 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적극 협조해 주셨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부산시민들을 위해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며 협조해 주셨던 사장님들 대박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현우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던 지난 3년여의 사투,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시기에 함께했던
우리 모두를 기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조준영

힘들고 답답해서 눈물이 핑 돌았던 시간, 함께 고생하며 억지로라도 서로 웃어주던 동료들 고마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김건희

코로나19로 야근할 때만 해도 언제 일상이 오려나 싶었는데 드디어 일상이 왔어요. 같이 고생한 여러 동료분들 감사하며 순간순간 사랑하고 순간순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염병관리과
김경숙

오늘 새날을 맞이함은 여러분의 헌신과 소통의 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은 우리들의 헌신으로 버티지 않기를..

감염병관리과
조윤영

4년간 함께하고 있는 코로나19! 그러나 시간과 함께 점차 모든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도 인간의 한계(다행?)인 거 같다. 코로나19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팀원 모두가 하나되어 임시(이동) 선별검사소 151개소(고정형 25, 이동형126) 설치와 운영이 가장 으뜸인 거 같다. '20. 12월~ '23. 5월말(893일)까지 짧게는 1일, 길게는 5일 설치도 똑딱똑딱! 운영도 똑딱똑딱!, 특히 '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급증 시에는 우리팀 모두가 코로나 증상(팀장이 제일 먼저 확진 ㅠㅠ)이 있어도 검사도 못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부산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고통을 참으면서 함께해준 우리 감염병예방팀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선별검사소 설치와 운영 참여자분들 등)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정상균

4년여간 우리의 만남에서 웃음 짓게 만드는 추억들이 많지 않아. 이제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 너의 친한 친구들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마!

감염병관리과
이수연

22년 설연휴는 밀려드는 선별진료소 검사자에 점심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물도 안마시고 일했었지 연휴에 쉬지도 못하고 더 일찍 출근해도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에 한숨부터 났던..그래도 같이 일한 동료들 덕에 같이 버티고 버텼다.

감염병관리과
이대건

코로나19 백신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접종을 못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비상근무로 고생했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강지연

맞은편 팀에서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던 체력은 다 바닥나고 정신력으로 버티던 코로나 초기 대응팀 직원들이 많이 생각나고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위로를 보냅니다.

감염병관리과
차하정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받았고, 그 과정에서 밤낮없이 고된 근무 환경으로 동료 공무원을 잃게 되는 큰 아픔도 겪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함께 고생했던 모든 분들 특히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일했던 우리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의료기관 직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려봅니다.

감염병관리과
이계옥

2020. 2. 21(금) 퇴근 무렵 걸려 온 전화 한통! 우리 구민이 코로나 양성자라고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부산 최초 확진자와 동래온천교회 집단발생. 전교인 1,118명 자가격리시키면서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은 것 같다. 군대에 있는 아들의 격려가 기억난다. '우리 집에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두명있네요. 나는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엄마는 코로나로부터 나라를 지키네'

감염병관리과
배정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디어 코로나19예방접종 백신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이제 끝나는구나'라는 안도감과 기대가 컸다.

예방접종추진단 구성부터 예방접종사업 담당자로 발을 들이기 시작하여 발령 이튿날인 21년1월19일부터 추진단현판식과 발대식, 위원회 회의를 치러내는 경험을 하며, 공직생활 25년만에 처음 겪는 최고의 집중과 속력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21년 2월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으나 겨우 1주만에 백신 공급부족으로 접종이 중단되며 온갖 민원과 언론의 질타를 받았고, 다시 재개된 예방접종은 고위험군 등을 고려하는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접종이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접종지원을 위해 동주민센터의 지원, 통장님들의 봉사 등 전 시민이 합심하여 질서정연하게 접종에 참여하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코로나19를 퇴치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 즉 접종참여는 노인과 면역저하자의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행동으로 느껴졌다.

예상과는 다르게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매년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mRNA백신의 개발과 실용화를 앞당긴 역사적인 현장에서 부산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업무의 중심에 함께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 업무를 하면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 감염을 차단해서 내 주변의 가장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며, 개인적이면서도 공공을 위한 보건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감염병관리과
윤재은

매 순간이 처음이었던, 코로나19에 맞서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각자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이명주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감염병관리과 식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불안한 시간이었지만 함께 힘을 합하였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
박미정

2020년 추석, 첫째 아이를 시작으로 나머지 식구들까지 총 4명이 코로나로 격리, 하루나 이틀 걸러 한박스씩 먹을 것이 가득 든 격리물품이 선물박스처럼 도착하면 식구들 모두 옹기종기 모여 박스를 열어보며 환호했던 기억이 나네요.

비록 좋아하는 음식들은 아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부산 BUSAN 코로나19 백서

발행	부산광역시
제작	시민건강국
디자인·편집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백서제작TF팀
기획·편집	옹역기관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고광욱 책임연구원 김혜숙 연구원 이태혁 연구원 황혜숙 연구원
발행일	2024년 1월
디자인·인쇄	애드코리아

이 책의 저작권 및 판권은 부산광역시에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